

**「5.18기념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20년사 발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4. 10. 24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 출 문

---

본 보고서를

**5.18기념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20년사 발간 연구용역의**

**최종성과물로 제출합니다.**

---

2014년 10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자**

송정민(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 **공동연구원**

김병인(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해광(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덕재(前 5·18아카이브설립추진위원회 연구위원)

김희송(전남대학교 5·18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유경남(광주보건대학교 시간강사)

### **연구보조원**

임정섭(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김지영(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서정우(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 **보조원**

노소윤(전남대학교 사학과 학부)

### **과업기간**

- 2014년 3월 24일~2014년 10월 24일

##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1994년 8월 ~ 2013년 12월
- 공간적 범위 : 광주광역시 일원을 포함한 전국영역 및 해외
- 내용적 범위
  - 5·18기념 재단 20주년과 그 의미
  -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5·18 기념 재단의 창립 배경
  - 5·18 기념 재단의 창립 과정
  - 기념행사 (5·18기념행사, 5·18유공자 자원활동가 지원 등)
  - 교류연대사업 (국내, 국제 교류 사업)
  - 교육문화사업(5·18관련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 진실조사사업(5·18 기록물관리, 세계 기록유산 등재, 학술사업)
  - 재단의 미래방향(향후 전망)

## ●● 목 차 ●●

I. 재단 20년 개관 .....	1
II. 재단의 설립 .....	6
1. 설립배경 .....	6
2. 기념재단의 설립 과정 .....	7
1) 재단 설립의 단초 .....	7
2) 재단 설립의 논의 .....	9
3. 재단 출범과 창립정신 .....	13
4. 재단의 목표와 지향 .....	15
5. 재단 후원회 .....	17
III. 재단의 조직 .....	19
1. 개요 .....	19
2. 조직 .....	20
3. 인력 .....	24
1) 이사회 .....	24
2) 위원회 .....	30
3) 사무처 .....	33
4. 재정 .....	38
1) 기본재산 .....	38
2) 사업비 .....	41
V. 재단의 사업현황 .....	45
1. 총괄개요 .....	45
1) 1994년~2004년: 모색 및 성장기 .....	45
2) 2005년~2013년: 안정적 구조화기 .....	47
2. 교류연대 .....	50
1) 개요 .....	50

2) 국제 교류연대 사업 .....	52
3) 국내 교류연대 사업 .....	73
4) 광주인권상 .....	81
3. 교육문화 .....	99
1) 개요 .....	99
2) 교육사업 .....	102
3) 문화사업 .....	124
4. 진실조사 .....	150
1) 개요 .....	150
2) 기록물관리 .....	152
3) 학술 연구사업 .....	166
V. 재단 참여/연관사업 .....	185
1.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	185
1) 개요 .....	185
2) 5월 기념행사의 시기별 변화와 특징 .....	186
3) 5·18기념재단 설립과 5월 기념행사 .....	190
4) 5월 기념행사의 활성화 방안 .....	210
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214
1) 추진 배경과 민관협의체의 구성 .....	214
2) 추진위 구성 .....	215
3) 신청서 제출 .....	215
4)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221
5) 세계기록유산 등재 의의 .....	226
V. 제언 및 전망 .....	231
1. 재단설립의 의의 .....	231
2. 재단설립의 비전과 전망 .....	232
1) 조직 및 기념사업 분야 .....	233
2) 교류연대사업 분야 .....	234
3) 교육문화사업 분야 .....	235
4) 진실조사사업 분야 .....	236

부록 .....	238
1. 5·18기념재단 창립선언문 .....	239
2. 5·18기념재단 설립취지서 .....	240
3. 5·18 기념재단 주요인사 연혁 .....	242
4. 역대 이사장 취임사 .....	248
1) 제1대 이사장 조철현(조비오) .....	248
2) 제2대 이사장 이기홍 .....	249
3) 제3대 이사장 김동원 .....	251
4) 제4대 이사장 윤영규 .....	252
5) 제5대 이사장 이광우 .....	253
6) 제6대 이사장 강신석 .....	256
7) 제7대 이사장 박석무 .....	257
8) 제8대 이사장 이홍길 .....	260
9) 제9대 이사장 윤광장 .....	263
10) 제10대 이사장 김준태 .....	265
11) 제11대 이사장 오재일 .....	267
5. 5·18기념재단 역대 정관 .....	270
1) 초대 정관(1994년 8월 30일) .....	270
2) 정관변경 세부내역 .....	278
3) 현재 정관(2014년 7월28일).....	295
6.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5·18기록물 설명 .....	304

## ●● 표 목 차 ●●

<표 1> 기념재단 발전계획에 따른 기념재단의 발전방향(2002) .....	22
<표 2> 연도별 사무처 직제의 변화.....	23
<표 3> 1994년 설립 당시 이사회(1기).....	24
<표 4> 제2기 이사회 명부.....	24
<표 5> 법정이사 15인 체제에서의 이사 추천 기관(1999년).....	25
<표 6> 5·18기념재단 임기 1년, 2년 이사 추천 기관(2002).....	26
<표 7> 현재 5·18기념재단 이사 추천 기관(2013년).....	26
<표 8> 5·18기념재단 역대 이사장.....	27
<표 9> 5·18기념재단 역대 이사회 명부.....	28
<표 10> 1998년 위원회의 담당내용.....	30
<표 11> 2000년 위원회의 담당내용.....	30
<표 12> 재단 설립 이후 각종 위원회 위원 명부.....	32
<표 13> 설립 초 부서별 업무 내용(1994년 기념재단 정관).....	33
<표 14> 1998년 조직개편 이후 전담사업 재조정.....	34
<표 15> 기념재단 내 각 부서별 업무내용(1999년 정관).....	34
<표 16> 기념재단 내 각 부서별 업무내용(2013년 사무처 직제규정).....	35
<표 17> 1994~2013년 사무처 직원 명부.....	36
<표 18> 5·18기념재단 기본재산조성내역(2013년 기준) .....	39
<표 19> 기본재산의 연도별 현황(2013년 기준).....	40
<표 20> 연도별 재단 사업비 내용 결산 내용.....	41
<표 21> 연도별 재단 보조금 내역.....	42
<표 22> 스리랑카 실종자 행사 지원 내역 (2001~2008).....	53
<표 23> 2008년 광주국제평화포럼 참가 단체의 주관 워크숍 내용.....	54
<표 24> 국제 네트워크 사업의 연도별 개최 현황.....	56
<표 25> 5·18아카데미2(舊광주아시아인권학교)개최 현황.....	59
<표 26> 2007년 광주아시아인권학교 교육 프로그램 구성안.....	60
<표 27> 5·18아카데미 교육 내용(2012년).....	60
<표 28> 연도별 국제 인턴 파견 현황.....	64
<표 29> 지역별 국제 인턴 파견 현황 및 명단.....	64
<표 30> 국제 인턴 파견 교육 일정(2006) 및 활동 보고서(2006,2008).....	65
<표 31> 연도별 국제 인턴 채용 현황.....	69
<표 32> 역대 국제인턴(채용) 명단.....	69



<표 33> 국외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 내역.....	71
<표 34>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국외 시민사회단체 지원 내역.....	72
<표 35> 해외동포 단체 협력 지원 내역.....	72
<표 36> 5·18기념사업 광역협의회 권역별사업 지원 현황(2013년).....	76
<표 37> 5·18아카데미 국내연수 세부 일정(2004년).....	77
<표 38> 5·18아카데미 국외연수 세부 일정(2004년).....	78
<표 39> 5·18자원활동가 연중 활동프로그램(2013년).....	80
<표 40> ‘5월 시민상’과 ‘윤상원 상’ 역대 수상자 명단.....	81
<표 41> 광주인권상 역대 수상자 및 심사위원.....	82
<표 42> 2000년대 청소년 체험학습 교육.....	102
<표 43> 초등학생 현장학습 프로그램(2004).....	105
<표 44> 중고등학생 현장학습 프로그램(2004).....	106
<표 45> 중고등학생 현장학습 프로그램(2004).....	106
<표 46> 5·18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현황.....	108
<표 47> 교사연수 분과수업 현황.....	110
<표 48> 교사 연수 개최현황: 2001~2013.....	111
<표 49> 5·18 수업사례 공모 개최 현황: 2010 ~ 2013.....	113
<표 50> 초등교과서, 중등교과서, 초등지도서, 중등지도 CD 연도별 배포 현황: 2009~2013.....	116
<표 51> 재단이 발간한 5·18 교육용 도서.....	117
<표 52> 재단이 발간한 5·18 교육용 자료.....	118
<표 53> 5·18 협력학교 사업 경과.....	119
<표 54> 연도별 장학사업 현황: 1996~2013.....	122
<표 55> 2001년 5·18기념공원 청소년 대축제 프로그램.....	124
<표 56> 2002 청소년 평화축제 주요 행사.....	125
<표 57> 2003 2회 청소년 평화축제 프로그램.....	127
<표 58> 레드 페스타 기획 및 진행 과정.....	128
<표 59> 2004년 레드페스타 프로그램.....	130
<표 60> 2005년 레드 페스타 프로그램.....	130
<표 61> 2006년 레드 페스타 프로그램.....	131
<표 62> 2007년 레드 페스타 프로그램.....	131
<표 63> 2008년 레드 페스타 프로그램.....	132
<표 64> 2009년 레드 페스타 프로그램.....	132
<표 65> 2010년 레드 페스타 프로그램.....	133
<표 66> 2011년 레드 페스타 프로그램.....	134

<표 67> 2012년 레드 페스타 프로그램.....	134
<표 68> 2013년 레드 페스타 프로그램.....	135
<표 69> 청소년 연극제 개최현황: 2006~2013.....	137
<표 70> 오월길.....	139
<표 71> 5·18문학상 공모 현황: 2005~2013.....	141
<표 72> 주먹밥 창간호 주요내용 .....	144
<표 73> 난장·人·Free 및 오월누리제 프로그램.....	146
<표 74> 5·18 언론인 시상 내역.....	148
<표 75> 2003년 소장 사료현황.....	154
<표 76> 2011년 소장 사료현황.....	154
<표 77> 자료시스템 등록사료현황.....	154
<표 78> 등록예정 사료현황.....	155
<표 79> 디지털변환 및 정리결과.....	155
<표 80> 5·18구술기록 수집현황.....	156
<표 81> 타 지역 오월운동사 조사 및 수집현황.....	157
<표 82> 웹사이트 접속현황.....	158
<표 83> 5·18기록물 온라인전시.....	159
<표 84> 자료활용 현황(2011년이후).....	160
<표 85> 2012년도 5·18관련기록물의 분석, 해제 연구.....	163
<표 86> 2013년도 5·18관련기록물의 분석, 해제 연구.....	163
<표 87> 기록물 분류.....	164
<표 88> 1997년 한국정치학회 5·18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주제.....	166
<표 89> 1998년 한국사회학회 5·18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주제.....	167
<표 90> 1999년 학술단체협의회 5·18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 주제.....	167
<표 91> 2000년 미국 UCLA, UAC 5·18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주제.....	168
<표 92> 2001년~2009년 학술대회 발표 주제.....	169
<표 93>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169
<표 94> 30주년 기념 서울학술대회.....	171
<표 95> 31주년 기념 학술대회.....	171
<표 96> 32주년 기념 학술대회.....	171
<표 97> 33주년 기념 학술대회.....	172
<표 98> 연구지원현황.....	173
<표 99> 아시아 저널(Asia Journal).....	182
<표 100> 전체 학술연구사업결과물(2005~2012).....	183
<표 101> 주요시기별 5·18기념행사.....	186

<표 102> 1980년대 망월묘역에서 개최된 추모행사의 변화과정 .....	187
<표 103> 기념행사위원회 주요 인적 구성원 .....	189
<표 104> 1988년 8주기 추모행사 일정 .....	190
<표 105> 1989년 9주기 5월 문화제 행사 일정 .....	191
<표 106> 1990년 10주기 5월 문화제 행사 일정 .....	191
<표 106> 1991년 11주기 행사 일정 .....	192
<표 107> 5월행사 준비 및 진행과정(21주년 행사 참고) .....	193
<표 108> 1997년 17주년 기념행사 일정 .....	195
<표 109> 1998년 18주년 기념행사 일정 .....	197
<표 110> 1999년 19주년 기념행사 일정 .....	200
<표 111> 21주년 기념재단이 주관한 기념행사 프로그램 .....	203
<표 112> 25주년 기념행사 내용 .....	204
<표 113> 25주년 기념행사 기본방향, 운영 및 편성원칙 .....	205
<표 114> 26주년 행사위원회-예산 집행 및 정산원칙 방법 .....	206
<표 115>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조직체계 외 .....	207
<표 116> 5·18민중항쟁 33주년 영역별 사업 내용 .....	209
<표 120> 아카이브 설치계획 .....	230

## ... 그 립 목 차 ...

<그림 1> 5·18기념재단 조직도(2013) .....	19
<그림 2> 5·18기념재단의 사업 진행 체계 .....	19
<그림 3> 1994년 설립 당시 5·18기념재단 조직 .....	20
<그림 4> 1998년 조직 개편이후 기념재단의 조직 .....	21
<그림 5> 2002년 당시 기념재단 조직(출처: 5·18기념재단 발전계획) .....	22
<그림 6> 5·18기념재단 기념사업 예산체계 .....	44
<그림 7> 포스터로 보는 국제 네트워크 사업 .....	58
<그림 8> 그림으로 보는 국제 연대사업의 변화 .....	58
<그림 9> 연도별 국내NGO지원 응모단체 및 선정단체 수, 지원금액 현황 ..	75
<그림 10> 자원활동가 발대식(2013) .....	80
<그림 11> 캐릭터 냇이 .....	101
<그림 12> 제11회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	109
<그림 13> 5·18 전국 교사 연수 .....	112
<그림 14> 청소년 체험학교 .....	115
<그림 15> 5·18 수업용 교재 .....	117
<그림 16> 5·18 교육용 자료 .....	117
<그림 17> 2002년 장학금 수여식 .....	123
<그림 18> 1998년 장학금 수여식 .....	123
<그림 19> 청소년문화제 레드페스타 .....	129
<그림 20> 청소년문화제 레드페스타 .....	136
<그림 21> 5·18 청소년 연극제 .....	138
<그림 22> 오월길 안내 팸플렛 및 방문자센터 .....	140
<그림 23> 5·18 문학상공모전 포스터 .....	141
<그림 24> 5·18기념재단 초기소식지 .....	143
<그림 25> 5·18기념재단 소식지 주먹밥 .....	144
<그림 26> 오월문학총서 .....	145
<그림 27> 난장·人·Free 및 오월누리제 프로그램 .....	148
<그림 28> 518m 협동화 걸개그림 .....	160
<그림 29> 광주시청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	162
<그림 30> 학술심포지엄 .....	167
<그림 31> 학술논문집 .....	179
<그림 32> 구술생애사를 통해본 5·18의 기억과 역사(구술사료선집1-4) ..	180
<그림 33> 대학교육교재 『5·18그리고 역사』 .....	181

<그림 34> 연구단행본.....	181
<그림 3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216
<그림 36>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인증서.....	223
<그림 37> 문화재 지도.....	227
<그림 38> 우리 문화유산 이야기.....	227
<그림 39> 5·18기념재단 목표체계.....	234

## I. 재단 20년 개관

5·18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 설립된 지 스무 해가 되었다. 기념재단은 그동안 내외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국민들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향한 오월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념재단은 모든 힘을 결집하여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토록 하고, 피해자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및 보상을 이끌어냈다. 기념재단은 또한 국내외의 민주화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분산적인 투쟁을 지양,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5·18학살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년)’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 등 국가반란세력을 ‘내란 및 내란을 목적으로 한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세워 형사적 처벌을 받게 했다. 기념재단은 이러한 투쟁을 통해 ‘폭도들의 난동’으로 매도되었던 5·18을 ‘한국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가 확실히 하게 함으로써 5·18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다.

기념재단은 나아가 5·18기념행사는 물론, 국내외의 다양한 포럼, 연구, 교육, 문화 사업들을 주관하거나 지원하여 5월 정신의 의의를 더욱 드높이고 공고히 하는 데 진력해 왔다. 기념재단은 안으로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적 가치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만남의 장을 열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문화적 열정을 발산하고, 스스로 ‘나눔, 공감, 소통’의 주체가 되는 ‘레드페스타(Red Festa)’ 문화축제는 해마다 심도를 더해가고 있다. 기념재단은 또 밖으로는, 국제 민주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평화·인권포럼’을 매년 실시해 민주주의에 대한 재인식과 의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특히 ‘광주인권상’을 제정하여 수여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민주화 국민운동 지도자들 및 단체들과 민주화를 위한 열정을 공유함은 물론, 오월의 국제적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기념재단은 이제 5월을 민주주의의 상징적 구심점으로서, 그리고 광주와 한국만의 5월이 아닌 세계의 5월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은 아직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있다. 누가(?), 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무고한 목숨을 빼앗도록 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국내의 반동적 지배 권력과 몰역사적인 극우 세력의 5·18에 대한 왜곡과 폄하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우리나라의 대형 언론사들의 반언론적 부화뇌동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념재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문제들은 기념재단이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들이다. 그러나 5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출발한 조직인 기념재단으로서 영원히 안고 가야 할 과제이자 의무다. 이처럼 기념재단의 미래가 결코 밝지만은 않다. 세

월이 더해가면서 오월에 대한 세간의 인식들도 예전 같지 않다. 기념재단은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탄탄한 오월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각성하는 자세로 지난날들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기념재단의 지난 발자취와 변화들을 시기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재 단 연 혁

### 1) 1994년~2004년: 모색 및 성장기

<b>1990.</b>	08. 06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법률 제정」 공포 (법률 제4266호) 민자당 단독 처리
<b>1994.</b>		5·18학살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운동 전개
	08. 30	창립발기인대회
		초대이사장 조비오 신부 취임
	12. 22	내무부의 재단법인 설립인가
<b>1995.</b>		5·18학살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12. 2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정
<b>1996.</b>		장학사업 시작
	01. 23	전두환·노태우 등 5·18학살 책임자 8명 내란혐의로 기소
	10. 31	제2기 이사회 구성
	11. 22	제2대 이사장 이기홍 변호사 취임
<b>1997.</b>	04. 17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17년형 등 관련자 형벌확정
	04. 29	5·18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 제정
	05. 16	5·18신묘역 준공식
	05. 18	정부주관 5·18주년 17주년 기념식
	12. 1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 3차 보상 실시
<b>1998.</b>	03. 15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b>1999.</b>	02. 19	재단 이사회 추천단체를 전국의 주요단체로 확대 개편하여 15인 법정이사 체제로 전환
	05. 16~20	동아시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단체 초청 연대 모임
	07. 21	제3기 이사회 구성
	07. 31	제3대 이사장 김동원 교수 취임
<b>2000.</b>		청소년 체험학습 사업 시작
	01. 1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 4차 보상 실시
	05. 18	5·18민주화운동 제20주년 기념행사
	05. 16~18	아시아 민주희생자가족연대 준비모임

- 05. 18 김대중 대통령 20주년 기념식 참석
- 05. 18 2000 광주인권상 - 사나나 구스마오(동티모르) 수상
- 05. 18~22 제4회 동아시아 평화·인권 광주대회
- 10. 29 제4대 이사장 윤영규 선생 취임

---

## 2001.

- 기념행사 추진주체의 변동(행사위원회 구성 후 재단에서 지원)
- 03. 6 재단 사무실 5·18기념문화관으로 이전
- 05. 교사연수프로그램 시작
- 05. 5·18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시작
- 05. 14~18 아시아 민주회생자연대 네트워크 행사
- 05. 18 2001 광주인권상 - 바실 페르난도(스리랑카) 수상
- 09. 28 제4기 이사회 구성
- 09. 29 제5대 이사장 이광우 교수 취임
- 11. 17~18 5·18 청소년대축제
- 12. 21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회 통과
- 12. 5·18 및 인권평화교육 전국 교사연수 (광주, 40명)

---

## 2002.

- 5·18협력학교 사업 시작(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 05. 18 2002 광주인권상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한국) 수상
- 05. 18~21 아시아 민주회생자가족 네트워크 행사
- 07. 27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 국립5·18묘지 승격
- 11. 09~10 청소년 평화축제

---

## 2003.

- 장학금 수혜대상의 변화 및 확대
- 01. 20 제5기 이사회 구성
- 01. 21 제6대 이사장 강신석 목사 취임
- 05. 06 재단 소식지 '주먹밥' 창간
- 05. 15~21 아시아 민주회생자가족 광주초청행사
- 05. 18 2003 광주인권상 - 단데니야 G. 자얀티(스리랑카) 수상

---

## 2004.

- 03. 23 제7대 이사장 박석무 전 국회의원 취임
- 03. 27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 5차보상 실시
- 05. 10 광주국제평화캠프 개최 시작
- 05. 18 2004 광주인권상 - 아웅산 수찌(버마) 수상
- 05. 22 제1회 레드 페스타 시작
- 08. 12 5·18아카데미 개설(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주최)
- 08. 30 재단 설립 10돌 기념행사



2) 2005년~2013년: 안정적 구조화기

<b>2005.</b>		정부교부금 사업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실시
		5.18 문학상 공모 시작
	01.	광주아시아인권학교 개최
	02. 23~25	아시아문화심포지엄(문화관광부 보조)
	02. 28	제6기 이사회 출범
	05. 14~18	광주국제평화캠프
	05. 18	2005 광주인권상 - 와르다 하피즈(인도네시아) 수상
<b>2006.</b>		사적지 안내지도자 육성 및 운영사업 시작
	05. 15~18	광주국제평화캠프
	05. 18	2006 광주인권상 - 말라라이 조야(아프가니스탄) 양카나 닐라파이지트(태국) 공동수상
	08. 22	제8대 이사장 이홍길 교수 취임
	11. 25	청소년 연극제 개최
	12. 07~09	제1회 아시아인권포럼
<b>2007.</b>	05. 15~18	광주국제평화포럼 동아시아인권포럼
	05. 18	2007 광주인권상 - 레닌 라흐바니쉬(인도) 이름 샤밀라(인도) 공동수상
	05. 24	재유럽 오월민중제 기념행사 공동개최(독일 베를린)
	10. 26~27	제2회 아시아인권포럼
<b>2008.</b>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
	04. 16	제9대 이사장 윤광장 선생 취임
	05. 15~18	광주국제평화포럼
	05. 18	2008 광주인권상 - 무니르 말리크(파키스탄) 수상
	05. 30	5·18 28주년 및 민족학교 설립 25주년 기념 공동 심포지엄 개최(미국 LA)
<b>2009.</b>		5·18 협력학교 사업 종료
	05. 16	제9대 이사장 윤광장 선생 연임
	05. 15~18	광주국제평화포럼
	05. 18	2009 광주인권상 - 민꼬나잉(버마) 수상
	08. 30	2009 광주아시아인권학교 개최(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
<b>2010.</b>	05. 18	2010 광주인권상 - 수실 파큐렐(네팔) 수상
	05. 28	(재)유럽오월민중제 기념행사
<b>2011.</b>	01. 25	제10대 이사장 김준태 교수 취임
	05. 15~17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광주아시아포럼
	05. 18	2011 광주인권상 - 비나약 쉐(인도) 수상

		2011 광주인권상 특별상 - 평화를 위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가족협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수상
05. 25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국제자문위원회(IAC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 결정
07. 27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인증)
<b>2012.</b>	05. 15~17	광주아시아포럼
	05. 18	2012 광주인권상 - 문정현(한국) 수상
<b>2013.</b>	01. 25	제11대 이사장 오재일 교수 취임
	01. 30	아웅산 수찌 광주 방문환영 행사
	05. 15~17	세계인권도시포럼·광주아시아포럼
	05. 18	광주인권상 - 망각과 침묵에 대항하여 정체성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아들 딸들(H.I.J.O.S, 아르헨티나) 수상
		광주인권상 특별상 - 주간지 템포(Tempo, 인도네시아) 수상

## II. 재단의 설립

### 1. 설립 배경

광주의 오월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투쟁해온 한국 현대 역사의 현재이자 미래다. 그 오월의 진실과 정신을 똑바르게 기억하고 기념할 때 비로소 한국 현대사는 살아 움직이는 올바른 역사가 된다. 기념재단의 설립의 출발은 바로 이 오월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 계승할 것인가에서 비롯했다.

오월광주민중항쟁의 정신과 진실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오월민중항쟁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전두환 등의 반동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나선 역사적 저항운동”이다. 특히 광주시민들은 항쟁 기간 중 22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자력으로 계엄군을 물리치고 광주를 해방구로 만들어,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구현하였다.

물론, 오월 민중항쟁은 군부와 언론 등 반동 패권세력들에게 ‘김대중에 의한 내란 음모’ 혹은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들의 끈질긴 투쟁은 그동안 ‘광주사태’로 비하되었던 오월 항쟁을 ‘5·18민주화운동’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명명케 하고,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1997년)하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항쟁에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5·18 민주유공자’로 보상하도록 하는 한편, 망월동묘역을 ‘국립5·18민주묘지’로 승격(2002년, 광주민중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켰다. 오월 항쟁은 나아가 1987년 ‘6월 항쟁’의 동력이 되어 군부독재세력을 이 땅에서 밀어내고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또한 밖으로는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민주화운동이 지향해야 할 정신적 지표로 우뚝 섰다. 오월 항쟁의 진실과 정신은 국내외 민주주의 운동의 초석으로, 민주·인권·평화·통일 등 세계적 과제를 성취해가는 밑거름으로 기능하고 있다.

기념재단은 이러한 오월의 진실과 정신 계승을 위한 귀결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기념재단은 역사적 저항을 오도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독재군부의 대국민 만행에 대한 진상규명, 그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배상 및 보상, 기념사업이라는 소위 ‘5월문제 해결 5원칙’의 관철을 위한 ‘5월 운동’ 조직으로 출발했다. 기념재단 설립은 나아가서 5·18 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의의를 항구적으로 견지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었다. 기념재단은 뿐만 아니라, 항쟁에서 무참하게 숨진 원혼들에 대한 살아있는 자의 책무와 의무를 이어가기 위한 주체적 구성체이기도 하다. 5·18기념재단은 국민 모두가 5월의 진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구적 조직을 가져야겠다는 일념의 결과물인 것이다.

## 2. 기념재단의 설립 과정

오월 정신을 오래토록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서 기념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기념재단 설립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배 권력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우선 문제였다. 권력은 온갖 위협과 회유로 피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겨 기념재단 설립 움직임을 꺾으려 했다. 그들은 국가의 정보·수사기관들을 총동원해 이른바 ‘오월 분열 공작’을 폈다. 또한 오월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한 시점에서 기념재단 설립을 거론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역사회의 일부 논란도 짐이 되었다. 특히 기념 재단의 구성 형식, 운영 방식과 주체 등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 간에 의견이 난립함으로써 기념재단 설립은 좌초될 뻔한 순간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비롯한 국내외 민주세력들의 간단없는 노력과 투쟁들로 마침내 기념재단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 1) 재단 설립의 단초

민주주의를 갈망해온 국민들은 80년대 내내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들을 염려하면서 오월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다. 무엇보다도 전두환·노태우 등 독재군부 세력들의 반국가적 범죄 행위에 대한 심판을 일정 수준에서 끝내고자 하는 당시 정국의 흐름이 기념재단 설립에 방해물이었다. 이른바 ‘광주특위’가 전두환의 마지막 증언(1989년, 12월 30일)을 끝으로 힘을 잃어가자 기념재단 설립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고조되었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서면서 정치권이 먼저 기념재단 설립 문제를 들고 나왔고, 이로써 기념재단 설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힘을 받기 시작했다.

먼저 평민당의 최영근 수석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광주·전남지역방문의원단’은 90년 19일 광주시 ‘운림가든’에서 5·18관련단체 회원 등 재야단체 회원을 포함한 시민과 각계각층 대표 2백여 명을 초청, 정책설명회를 갖고 5공 청산, 광주 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송기숙 교수(전남대)는 “평민당에서 만들어 놓은 광주 관련 법안 초안은 개인적인 명예회복과 배상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나, 개별보상과 함께 집단보상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5·18정신 계승을 위해 기념 사업회를 재단법인으로 만들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 기념사업회가 주축이 되어 상무대가 옮겨가면 그곳에 공원을 만들고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영근 부총재와 김원기 총무는 이날 설명회를 마친 뒤 오후 광주시 북구 망월동 5·18묘역을 참배한 다음, 그랜드호텔에서 5·18관련단체 대표들과 광주지역 재야 원

로인사 20여명을 초청하여 좌담회를 갖고 5·18 치유책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때 광주지역 민주인사들은 5·18과 관련하여 명예회복과 보상 및 배상 이외 기념사업을 위한 재단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광주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명예회복과 보상 및 배상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으로 전제하고, 이후 5월 문제 해결과제로써 가장 중요한 기념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어 오월 관련 단체도 나섰다.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유족회·부상자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5월운동협의회’는 1월 20일 오전 YWCA에서, 임시국회에서 다룰 광주 문제 특별법 처리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학살책임자들의 의법 처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야합체인 민자당에 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광주문제의 해결과 5공비리의 척결은 전 국민의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민자당에서 몇 푼의 금전으로 광주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명예를 더럽히는 민자당의 해결책을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등 제반 반민주 악법을 폐지하고 전 국민의 요구인 지방자치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결연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된 송기숙 교수 등 재야원로의 입장보다는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5월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이었으며, 그 핵심은 학살책임자 처벌이었다. 오월 문제와 기념사업 문제를 두고 송기숙 교수를 중심으로 한 5·18 관련 교수그룹 및 재야원로들과 5월운동협의회가 다소 시각차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두 조직이 강은 양면으로 접근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도 받았다.

한편 광주시는 정부의 보상 업무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광주시는 90년 3월 7일 광주 특별법안의 국회통과에 대비하여 부시장을 책임자로 하는 ‘5·18치유특별대책반’을 편성하고 5·18업무 전담부서인 지원담당관 산하에 지원 2과를 신설키로 했다. 광주시는 당시 5·18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원과만으로는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원 2과를 조만간에 신설하여, 향후 보상이 실시될 경우 순수 보상업무만 맡도록 할 계획이었다. 지원 2과는 3계에 직원 13명을 두기로 했으며, 또 부시장을 반장으로 한 5·18치유대책반은 보상실시 때 발생하는 관련 당사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원만한 보상이 실시되는 데에 대비한 조직이었다. 또한 광주시는 지원과장을 비롯하여 시청 직원 3명을 서울에 파견, 5·18보상법의 정부의 입법과정에 참여시켰다. 광주시는 앞서 재야원로들 및 5월운동협의회와 달리 실질적 보상을 위한 행정 체계를 갖추어 갔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와 실행 과정 끝에 실제로 1990년 12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1차 보상이 실시되었다.

정계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오월문제 해결에 나서고, 정부가 피해 보상을 통한 치유책을 펴면서 기념재단 설립은 당연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정부의 금전적 피해 보

상 논의 과정에서 5·18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야 되겠느냐는 여론이 일자 오월 당사자들은 기념재단 설립을 비롯한 5·18기념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보상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1991년 5·18주간 중에 ‘5·18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이광우 추진위원장(전남대 교수)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주민중항쟁은 정권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영원한 준거가 되어 민주화투쟁의 활력을 끊임없이 재생산할 것은 틀림없다. 또 우리 역사는 광주항쟁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깨달아야 한다. (중략) 이에 5·18광주민중항쟁 희생자 위령탑건립 및 기념사업 범국민추진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사업기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금이 모아지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착수할 것이다.”고 하여, 기념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천명했다. 이처럼 5·18 기념사업은 1990년 12월 광주 1차 보상 이후 위령탑건립 및 기념사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 2) 재단 설립 논의

재단 설립의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1993년부터였다. 물론 1990년 8월 6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전후하여 기념사업 문제가 일부 거론되기는 했다. 그러나 1993년 5월 10일 ‘민주항쟁기념국민위원회’ 창립대회 개최를 계기로 기념재단 설립 문제가 오월의 중심 과제로 떠올랐다. 그리고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의 ‘5·13특별담화’ 발표, 7월 19일 전두환·노태후 등 34명에 대한 군 형법상의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 검찰 고소 등이 이어지면서 기념재단 설립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한편 5월을 어떤 방식으로 기념할 것인가를 두고 오월항쟁 당사자들 및 관련자들의 의견 차이로 재단 설립 논의가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도 한때 있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의견 조정을 거쳐 기념재단 설립을 위한 단일안을 성사시켰다. 기념재단 설립 논의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3년 5월 들어 전국 규모의 5·18 단체 출범과 광주해결 5대원칙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단계의 ‘기념사업’ 추진이 기념재단의 설립 형태로 전개되어 나갔다. 이런 가운데 5·18광주항쟁 13주기를 앞두고 재야와 시민운동단체가 공동 참여한 5월 광주항쟁 진상규명 및 6월 항쟁정신 계승을 위한 전국 규모의 범국민운동단체가 출범했다. 문익환 목사 등 각계 인사 3백여 명은 5월 10일 서울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서 ‘민주항쟁기념국민위원회’(이하, 국민위원회) 창립대회를 갖고, 5월 광주항쟁 진상규명과 5·18과 6·10의 국가기념일 제정 등을 위한 국민운동에 들어갔다. 이때 발족한 국민위원회는 민족민주운동 진영은 물론 시민운동단체 인사들까지 대거 참여한 명실공히 전 국민적 연합기구일 뿐만 아니라, 5·18광주항쟁 문제를 다루는 최초의 전국 조직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이 모임을 주도한 김근태 (前)국민회의

집행위원장은 국민위원회 발족 취지와 관련, “5월항쟁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고 그에 상응한 조치가 수반될 때 민족정기는 바로 설 수 있다.”면서, “5·18과 6·10항쟁은 같은 뿌리인 만큼 국민적 동의를 얻어 민주기념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위원회는 5월항쟁 해결방안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광주특별법 제정, 가해자 사법처리, 기념사업 등 5개 원칙을 설정하고 5월단체와 정부 상호간의 의견 조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위원회는 5·18과 6·10을 ‘민주항쟁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광주문제 진상규명을 위한 공청회, 시민토론회, 6월항쟁 관련 행사 등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선후의 문제는 있지만, 1993년 벽두부터 5·18 당사자 및 관련자 중심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5·18재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향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될 5·18보상금 일부를 기금형식으로 모아 5·18정신계승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될 ‘5·18재단’ 설립이 가시화 되었다. 이와 같은 재단 설립의 움직임들은 5·18 당사자 및 관련자 단체, 광주지역 재야인사, 광주 시민단체, 광주시의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일었다.

그 가운데서도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이하 5항동)와 ‘(가칭)5·18재단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위)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다. 참고로 5항동은 1984년에 창립되었으며, 이후 1996년 ‘5·18민중항쟁구속자회’, 1999년 ‘(사)5·18민주화운동구속자회’, 2003년 ‘(사)5·18민주화운동희생자’, 2004년 ‘(사)5·18유공자동지회’, 2006년 ‘(사)5·18구속부상자회’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설립위는 1993년 5월 16일 5·18 관련 교수 등 정계와 학계 및 재야단체인사 등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다. 이들 중 재단 설립의 물꼬는 5항동이 텃다. 5항동은 1993년 3월 17일 임시총회를 열어 자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설립위도 5월 16일 발기인 모임을 갖고, 기금조성 방법과 구체적 사용내용 및 향후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들 두 단체의 움직임은 곧 기념재단 설립 논의를 여러 층위로 확산시켰다 ‘5·18 기념사업추진위’와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광주시의회 5·18특위’, ‘민주주의 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은 7월 10일 회동을 갖고 5·18 진상규명과 기념사업을 병행기로 하고 7월 15일 전체 운영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이는 5월 단체 등이 지난 2월 5·18문제 해결방법과 관련, ‘선 진상규명 후 기념사업’ 등 15원칙을 사실상 수정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후 5월단체는 5·13대통령 특별담화 때 제의되었던 ‘5·18기념사업 범시민대책위’를 시민 전체 합의하에 구성, 이를 토대로 광주시에 법인 설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망월동 묘역 성역화와 관련, 광주시가 추진 중인 ‘5·18기념사업추진협의회’에도 운영위 결정에 따라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념사업추진협의회의 활동을 묘역성역화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시민대책위 등과 조율을 통해 상무대 공원화와 전남도청 기념관 설립 등 전체 기념사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5·13특별 담화 후 5·18단체의 ‘선 진상규명’ 요구와 일부단체의 반대로 담보상태에 머물렀던 성역화 사

업 등 5·18기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광주시의회도 5·18특위를 확대 재구성해 이를 뒷받침했다.

한편 설립위는 9월 16일 광주시 화랑궁식당에서 조아라 광주YWCA명예회장, 명노근·송기숙 전남대 교수, 문병란 조선대 교수, 정동년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등이 지역 재야인사와 5월 관련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명노근 교수를 재단설립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기에서는 향후 ‘5·18재단’은 ‘1980년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액 중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 앞으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사업, 5·18민주화 운동에 관한 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설립위의 발기인 대회에 발맞춰 다음날 오후 6시 광주 YMCA에서 5항동의 ‘5·18정신계승을 위한 기금모금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바로 전날 5항동 일부 회원과 재야교수 등이 주축이 된 설립위에서 정관 초안까지 작성한 상태에서 진행된 까닭에 두 단체를 중심으로 한 통합재단의 설립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런데 이날 회의 결과, 5항동의 운영위원 중심으로 ‘재단설립준비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함으로써 ‘2개의 5·18재단’이 탄생할 우려를 낳았다.

이후 1993년 후반기에 접어들어 5·18 기념재단 설립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설립위는 11월 13일 ‘기념재단설립추진위원’ 47명을 위촉하고 1993년 내에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설립위는 3억원의 기금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이로써 진상규명과 기념사업은 물론 5·18단체 회원 등의 권리회복 및 각종 복지사업을 펼치고, 5·18시민상을 제정하며, 지역의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설립위가 재단 설립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나가자 5항동도 이에 맞서 기념재단 설립을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5항동 회원 등 433명은 5월정신계승 및 기념사업추진을 위한 ‘5·18기념재단’을 항쟁관련 구속자들을 중심으로 정식 출범시키기로 하고, 11월 18일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같은 성격의 재단설립을 추진 중인 정동년 5·18민중항쟁연합(5민련) 상임의장 등 기존의 재단설립준비위원회 측과 9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해온 통합협상이 결렬되자 재단을 따로 설립키로 한 것이다.

아무튼 설립위는 11월 18일 오후 6시에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현대예식장에서 가칭 ‘5·18 기념재단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설립위 측은 광주·전남지역 재야인사와 5·18 관련 단체회원 등 이날까지 모두 433명이 발기인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동원 재단설립추진위원장(전남대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결정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있다”면서, “우리 모두 80년 5월 정신의 바탕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5월정신 계승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벌이기 위해 기념재단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날 대회에 초청된 문익환 목사는 환영사에서 “우리 모두가 분열되지 않고 똘똘 뭉쳐 하나가 돼야한다.”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조국도 하나가 된다.”고 말했다.



설립위와 5항동 두 단체의 재단 설립 움직임에 대하여 시민들의 비판이 일자 이들을 비롯한 오월 단체 관련자들은 대책 강구에 나섰다. 우선 설립위는 12월 2일 재단 통합을 위해 '9인 위원회'를 결성했다. 9인위원회 위원들은 운영규 전 전교조위원장, 김동원·명노근·송기숙·이광우 교수 등 전남대 교수 4인, 조비오 신부, 문병란 조선대 교수, 이기홍 변호사, 강신석 목사 등이었다. 위원회는 12월 7일 오후 6시 '5·18재단 통합을 위한 9인 위원회' 회의를 광주 YMCA 백제실에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5항동 측의 회의 연기 요청에 따라 뒤로 미루었다. 그리고 12월 14일 오후 6시에 YMCA 2층 자료실에서 '5·18재단 통합을 위한 9인 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4시간 여 동안 논의한 끝에, 통합되는 기념재단의 이사를 31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5·18광주민중항쟁연합(5민련)측에서 6명,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5항동)측에서 5명 등 11명을 우선 선출키로 했다. 나머지 이사 20명은 9인 위원회와 1차로 선출되는 11명의 이사가 협의해 선출하도록 했다.

9인 위원회는 또 통합재단 창립 때까지 현재 5항동이 추진하고 있는 재단의 실체를 인정, 재단 설립 작업을 추진하고 어느 한 측이 이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수용하는 측에 9인 위원회가 참여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5항동과 5민련의 갈등이 노출되어 재단 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5민련 측이 5항동과의 1대1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지난달 5항동이 5민련을 탈퇴한 것과 관련해 먼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5민련과 5항동 측은 1993년 12월 21일 통합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각각 재단이사 선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후에도 설립 주체와 이사진 구성 문제가 논란을 겪으면서 재단 설립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1994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은 마침내 1994년 7월 21일 통합 모임을 갖고, "기념재단이 5월단체간의 이견이나 분열상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창립총회를 열고 현 이사진이 모두 사퇴하고 정관상의 출연금을 내는 모든 뜻있는 단체·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사진을 구성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1994년 7월 26일 오전 9시 광주 YMCA에서 설립위 측의 (가칭)'5·18기념재단'(이사장 김동원 전남대 교수)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 이사진이 전원 사퇴하고, 다음달 18일 창립대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역 재야인사를 망라한 새 이사진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김 이사장을 비롯해 5·18광주민중항쟁연합(5민련) 정동년의장,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5항동) 위인백회장, 윤한봉·김상윤·김현장 씨와 민주당 광주시지부 윤강옥 사무처장, '5월 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윤장현 공동의장 등 광주지역 재야인사 20여 명이 참석, 뜻을 같이 했다. 김 이사장은 "5월단체들이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기념재단을 설립키로 했다."며, "오늘 선언을 통해 단체 간 갈등과 반목을 일소하는 계기로 봐도 좋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재단통합선언은 "광주의 재야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진 중립적인 인사들의 오랜 중재의 결과였다. 참여 인사들은 이러한 조율 끝에 드디어

1994년 8월 30일에 ‘5·18기념재단’ 창립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12월 22일 내무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기념재단 20년 역사의 문을 열었다.

### 3. 재단 출범과 창립정신

오월민중항쟁의 정신을 길이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5·18기념재단이 1994년 8월 30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1993년 11월 발기대회를 갖고 재단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진 단체들 사이에 갈등이 일기도 했다. 특히 재단의 구성 방식과 재단출연금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창립총회가 한차례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었지만, 역사적인 재단 설립의 순간은 마침내 찾아왔다. 5·18기념재단의 설립 경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3년, 2차에 걸친 5·18 피해관련자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5월항쟁동지회를 중심으로 하여 5·18 보상금의 사회적 환원과 합법적인 단체 설립이 제안되었다. 이어 여러 민주화운동 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재단 설립 발기인들은 1993년 11월 18일 제1차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재단 설립의 닳을 올렸다. 그리고 재단 설립 출연금은 ‘5·18 직접 피해자 100만원 이상, 비관련자 또는 해외동포는 10만 원 이상’ 이상으로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다음 해인 1994년 8월 30일, 약 3억 5천여만 원의 기금을 모아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설립발기인 대회(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발기인들은 초대 이사장으로 조비오(조철현) 신부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동년 12월 22일 내무부로부터 기념재단 법인설립허가(제94-3호)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기념재단 설립 추진 위원회는 1994년 8월 30일 오후 6시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회원 1백 40여 명을 비롯해 강영기 광주시장과 시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기념재단 창립총회 및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는 발기인 대회의 결의에 따라 초대 이사장에 조비오 신부를 추대하고 31명의 이사들로 이사진용을 갖추었다.

조비오 이사장은 이날 창립대회에서 기념재단은 5월과 관련한 법적 오류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진상규명, 각종 기념사업의 가시화, 광주의 명예와 5월정신의 승화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또 “5월의 정신을 이어갈 재단으로서 평화와 통일염원 성취를 위해 빛고을의 성숙된 민족의식과 정기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에게 “혹시 있을 수 있는 일부 회원들 간의 갈등이나 분열, 편파적인 감정 등은 배제 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5월 관련단체 및 개인이 모인 재단이라 자신을 이사장으로 추대한 의미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편향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일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기념재단은 일정액의 출연금을 내는 뜻있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회원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5·18기념재단 창립선언문 전문>이다.

광주가 다시 섰습니다.

5월이 다시 섰습니다.

위대한 항쟁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켜 조국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5·18기념재단」이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항쟁정신의 기념과 계승에 비해 게을렀던 대동정신의 기념과 계승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5·18기념재단」이 어려운 준비과정을 거쳐 마침내 창립되었습니다.

5월은 명예가 아니고 명예이며, 채권도 이권도 아닌 채무이고, 희생이고, 봉사입니다. 5월은 광주의 것도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의 것도 아니고 조국의 것이고 전체 시민과 민족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또한 5월이 광주의 5월로 올바르게 서야 진정한 전국화,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각계의 시민들과 5월민중항쟁 관련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항쟁진상, 조사사업, 기념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문화사업, 홍보·출판사업, 자선·복지사업, 5월정신 실천자들에 대한 시상사업을 해나갈 「5·18기념재단」을 마침내 창립하였습니다.

광주가 다시 섰습니다.

5월이 다시 섰습니다.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들이 5월을 더럽히고 가신 임들을 욕되게 하고 광주를 부끄럽게 하고 시민들을 분노케 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80년 5월의 정신과 자세로 되돌아갈 것을 다짐하며 가신 임들과 7천만 겨레 앞에 옷깃을 여미고 섰습니다. 시민들 앞에 고개 숙이고 나란히 섰습니다.

「5·18기념재단」이 창립되었습니다.

가신 임들이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기념재단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위대한 항쟁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재단을 창립한다.”고 선언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5월항쟁 진상조사사업, 기념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문화사업, 홍보·출판사업, 자선·복지사업, 5월 정신 실천자들에 대한 시상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선언문에 명시된 것처럼 기념재단은 5·18의 정신을 항쟁정신과 대동정신으로 응축하고, 이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달성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재야 원로인사와 시·도의회 의원, 5·18기념재단 회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창립대회에서 김동원 교수(전남대)는 대회를 통해 ‘한때 패배주의의 늪에 빠져 의견대립 등 어려운 시련을 겪어온 기념재단이었기에 오늘 통합으로 하나 되어 출범하는 이 자리는 진정한 5월정신의 승리’라고 전제하고, “모든 회원들이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확고히 뭉쳐 국민 앞에 자랑스럽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는 민주당의 김원기, 이부영 최고위원과 민자당의 이환의 광주시지부장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에서 공동대표·집행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정기국회 전

에 여야대표·원내총무 등을 공식방문, 당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광주특별법을 청원된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기념재단 창립총회가 열리고 5개월 정도가 지난 1995년 1월 20일 오후 5시, 5·18 기념재단(이사장 조비오 신부)은 광주시 동구 대인동 ‘신평회관’ 1층에서 5·18 관계자들과 김용태 내무장관, 김상현 민주당 고문, 강운태 광주시장, 조규하 전남지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대망의 문을 열었다. 기념재단은 창립 4개월만인 1994년 12월 내무부로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이날 현판식과 함께 공식적인 재단활동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기념재단은 당시까지 약 3억 원의 기금을 모았으며, 향후 5·18평화상 제정 등 기념사업과 5·18문학상 제정 사업, 장학사업, 출판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 이사장은 “5·18기념재단은 정치적 운동체가 아니라 광주와 5월의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 단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5월정신문화센터’ 건립 등 기념사업과 진상규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모범적인 사회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념재단은 아울러 일반회원 1백 50명, 명예회원 26명, 특별회원 50명 등 회원 2백 26명과 1차로 모은 3억 3천여만 원의 기금을 발판으로 앞으로 회원 영입과 5월 기념사업 추진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 4. 재단의 목표와 지향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대동정신을 기념·계승하여 민주·자주·통일에 기여’하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기념재단은 또한 ‘5·18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실천 연대하여 대동세상을 구현하는 공익법인을 지향’한다. 기념재단은 이와 같은 목표 달성과 지향을 위해 재단 정관에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5·18민주화운동정신의 정립과 계승발전을 위한 학술·연구·문화사업,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한 장학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명시하였다.

기념재단은 재단의 목표와 사업, 그 추진 방향을 재단 창립 추진 초기부터 3단계에 걸쳐 다양한 논의를 거치고 여론을 수렴하여 확정하였다. 그 내용을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념재단 목표와 기념사업 방향 설정의 첫 단계는 기념재단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폭넓게 들어보는 것이었다. 재단은 이 작업을 1995년 9월,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연구총책임자 송인성 교수)에 의뢰했다. 지역개발연구소가 당시 서울시와 5대 광역시, 전남·북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 59세까지의 남녀 1천4백88명을 대상으로 ‘5·18 기념사업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5·18 기념사업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형사업으로 기념관 건립과 기념공원 조성을, 무형사업으로 재단설립과 기념일 제정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

을 보면, 국민들은 유형적 기념사업으로 기념관 건립(53.4%)과 기념공원 조성(43.3%)을 가장 많이 지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묘역 성역화, 유물·유적 보존, 상징탑 건립 등을 꼽았다. 또한 무형적 기념사업으로는 기념재단 설립(52%)과 기념일 제정(43%)을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념사업의 추진 주체로서는 민관합동 의견(26%)과 중앙정부 의견(23%)이 비슷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념관과 기념공원 건립 위치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지역과 그 밖의 지역 주민 간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 기념관 건립 장소로 광주 이외 지역 주민들이 망월동 묘역(38.7%)을 가장 선호한 반면, 광주지역 응답자들은 현 도청자리(41.6%)를 꼽았다. 기념공원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망월동 묘역(43%)을 들었으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은 구 상무대 부지(48%)를 선호했다. 한편 5·18 기념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79.4%)가 공감했으며, 기념사업을 위한 자원문제에서는 국민성금과 정부 지원을 합해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58.5%)였다.

기념재단의 다음 단계는 2000년 들어서 행한 재단 운영 평가와 향후 재단 발전계획 수립 시도였다. 이 시도는 이른바 『(재)5·18기념재단 발전 계획』(2002년 5월, 책임연구원 은우근 교수)으로 구체화 되었다. 기념재단은 “5·18 이후 20년 이상이 흐른 지금 5·18 기념사업과 기념사업의 주체인 재단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5·18 기념재단과 5·18 기념사업을 평가하고 재단과 기념사업의 발전 전략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그 시도의 배경을 밝혔다.

이 계획서는, 첫째, 5·18 계승사업을 위한 전국화(지역성의 극복)와 세계화 전략(국제적 연대)이라는 두 가지 전략이 지니는 한계, 둘째,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한계, 셋째 재단 사업의 확대 및 현실적 사업의 분류체계의 미비, 넷째 사업에 대한 홍보·토론 및 참여 구조의 미 구축과 부실, 다섯째 조직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 부족 등이 재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 및 가용 자원을 고려한 시계열적 사업 분류체계 마련, 재단 사업의 효율적 배치와 업무의 체계성 구축, 사업의 결과물들을 5월 행사로 연계하여 효율성 증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 변화에 능동적 대처,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지역성 탈피와 전국화 추진, 재단 사업의 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계획서는 또한, 재단은 ‘민족과 세계 안에 되살아나는 5·18’, ‘지역에 뿌리내리는 5·18 기념재단’,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5·18 기념재단’등을 지표로 내걸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운영 원칙으로 ‘참여: 시민과 회원, 전문가의 참여 보장’, ‘개방: 투명하고 공개적인 재단 운영’, ‘민주: 의사 결정의 민주화’ 등을 제시했다. 그밖에도 5·18 기념사업과 기념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정신계승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일회성 문화행사를 탈피할 것, 대중적 참여와 체험을 활성화 할 것도 주문했다.

기념재단은 이로부터 다시 12년이 지난 2014년에 자체적으로 <5·18기념재단 발전 계획안>을 마련했다. 기념재단은 중장기 전략목표를 기념사업 추진의 전문성 제고 및

재정의 안정화,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증진을 위한 5·18기념사업의 지속 추진, 5·18공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등 5·18전문 교육기관으로 발전, 5·18기록물 서비스 및 연구 중심기관으로의 위상 확립 등 네 가지 사항으로 확정하였다. 재단은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당면 성과 목표로서 5·18기념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진 및 국내외 홍보 강화, 국내외 교류연대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 5·18교육원칙 개발 및 계속사업 효율성 강화, 5·18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록물 검증·연구 강화 등을 설정하였다.

## 5. 재단 후원회

‘5·18기념재단 후원회’(이하, 후원회)는 5·18기념재단을 후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후원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의 사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재단 이사의 추천, 회원들 간의 화합과 친목도모 등의 사업과 활동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후원회는 세 유형의 회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 첫 유형은 ‘5·18 민중항쟁에 관련되어 수배·연행·구속·해직 당했던 사람과 부상당했던 사람, 그리고 유족들 가운데서 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찬동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배상금 중의 일정액을 재단에 출연 또는 기부한 사람’들이다. 이른바 ‘5·18관련인사’들을 말한다. 다음 유형은 ‘5·18 관련자가 아니거나 관련자이면서도 배상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찬동하여 재단에 일정액을 기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셋째 유형은 ‘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찬동하여 재단에 일정액을 기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둘째와 셋째 유형은 ‘기부자’들이다. 이는 곧 후원회가 ‘5·18관련자’들과 ‘기부자’들로 구성되었음을 뜻한다. 이는 후원회가 발족될 당시 “1993년부터 1999년 2월 9일 사이에 5·18기념재단의 회원이었던 사람과 윤상원상을 제정하여 시상해오다 1996년에 기금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재단에 이양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 회의 회원이 된다.”고 정관 부칙에 명시한 데에서도 확인된다. 후원회는 설립 당시 정회원 165명, 특별회원 86명으로 출발하였다. 즉, 후원회의 회원은 5·18기념재단을 설립한 모체로서 기념재단의 활동을 후원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기념재단 후원회 설립은 오월 관련자들이 어떻게 하면 오월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잘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비롯했다. 따라서 5·18관련자들은 기념재단 설립을 둘러싼 5·18관련 단체들 사이의 분열을 우려하여 여타의 법인 설립을 포기한 뒤 3개 단체를 만들어 기념재단 후원회를 조직하고 그 기념재단의 회원이 되었다. 후원회는 설립 당시의 회원을 5·18민중항쟁과 관련하여 수배, 연행, 구속, 해직 당했던 사람, 수배, 연행, 해직 당하지는 않았지만 5·18민중항쟁 참여사실이 확실한 사람, 그리고 5·18민중항쟁에 관련되어 부상당했던 사람과 희생자 유족들 가운데서 이 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찬동하여 재단에 일정액을 출연한 사람으로 정했다. 후원회는 기념재단의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념재단의 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가

짐으로써 재단 운영에 참여하는 기회도 가졌다. 설립 당시에는 정회원 182명, 해외동포로 구성된 명예회원 26명 등 모두 208명의 회원이 있었다.

그러나 후원회는 2000년대 들어 5·18기념재단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이 개방화·전문화·전국화 되면서 기념재단에 소속되기 보다는, 별개의 성격을 가지는 사단법인으로의 전환 모색에 나섰다. 2006년 발기인 대회를 통해 2007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사)5·18기념재단 후원회’가 되었다. 사단법인 설립 당시 이사는 김재연(대표), 김형태, 임병석, 정철웅, 차명석, 양희승, 이성길, 양인화, 윤순호, 문승훈, 최성용, 이경희, 이홍철 등 13명이었다. 후원회는 2009년 12월 30일자로 광주광역시로부터 총회원 341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5·18기념재단후원회’ 설립허가를 받았다. 후원회는 이때 사업내용을 (재)5·18기념재단의 사업 및 활동 등 지원,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선양 및 자선사업,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봉사사업, (재)5·18기념재단의 이사 추천 등으로 바꾸었다.

후원회는 그동안 재단 출연금을 조성하고, 매년 후원의 밤을 개최, 재단의 기금마련에도 힘을 보탰다. 또한 5·18항쟁 이후 관련자들이 사망하거나 활동을 못하는 사정에 처하자 유족에 한하여 후원회원의 자격을 승계하게 하였고, 형편이 여의치 않은 회원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하는 등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후원회는 그 성격상 기념재단을 여러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단의 조직권(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어 재단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후원회는 해가 갈수록 그 기능과 역할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후원회가 권한에 상응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등의 그 운영 문제들을 놓고 회원들 간에 의견들이 갈리고 있다. 후원회를 보다 견고한 재단 지원조직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기념재단에서 독립된 ‘기념재단 창립 동지회’ 같은 성격으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두고 조직 내에서 논의가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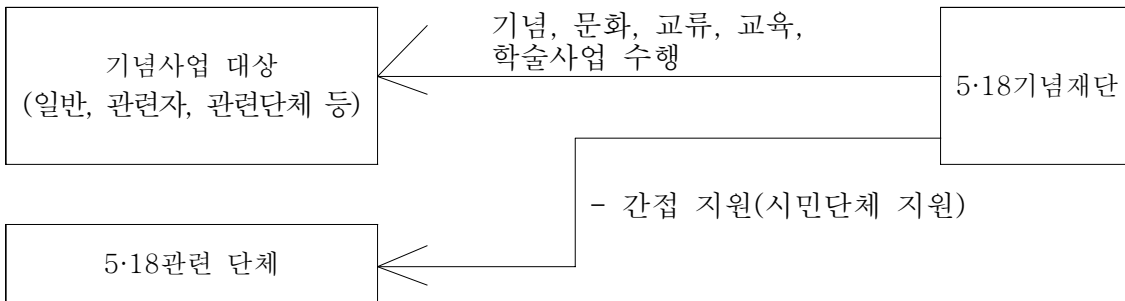
### Ⅲ. 재단의 조직

#### 1. 개요



<그림 1> 5·18기념재단 조직도(2013)

5·18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94년 8월 30일 설립되었다. 기념재단은 현재 15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구성된 이사회,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그리고 4개 팀으로 구성된 사무처가 주요 5·18기념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기념재단의 5·18기념사업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1년) 등 관계 법령이 제정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기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2> 5·18기념재단의 사업 진행 체계

기념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시민단체 및 5·18관련단체를 지원하는 사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사업(문화, 교류, 교육, 학술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이러한 사업을 기획·진행하는 사무처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총무기획팀, 교류연대팀, 교육문화팀, 진실조사팀 등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위원회, 국제사업위원회, 후생복지장학사업위원회 등 각 위원회가 개별 사업에 대한 자문과 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기념재단은 2005년부터 정부 교부금 사업을 통해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매년 외부기관과 행사 참가자들의 만족도 조사와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기념재단을 크게 조직, 인력, 재정으로 구분하여 지난 20년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 2. 조직

기념재단은 1994년 3억 1천만원의 출자금(조비오외 65명)을 바탕으로 5·18기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출범하였지만 실질적인 집행력이 갖추어지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다. 1994년 8월 30일 기념재단 설립 발기인 대회(창립총회)를 통해 조비오(본명 조철현)신부, 지선 스님, 윤장현, 김동원, 위인백, 윤영규, 명노근 등 25명의 이사와 5·18광주민중항쟁연합의 추천에 의한 이사 6명으로 구성된 재단설립 이사회를 구성하고, 조비오신부를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설립 초기 기념재단은 광주직할시 동구 대인동 320-12번지(신평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사회의 결의 사안을 실행·관리하는 실무기구로서 사무처를 구성하였다. 사무처에는 총무부와 사업부가 있었는데, 초기 사무처는 단순한 행정 및 관리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왜냐하면 5·18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재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태였고 구체적 실무를 집행할 규정들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기념재단의 업무는 기념행사의 한시적인 집행이나 관리 등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설립 당시 조직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 1994년 설립 당시 5·18기념재단 조직

기념재단의 조직과 사업은 제2기 이사회가 출범하면서 광주광역시에서 보관하고 있던 국민성금을 이관 받으면서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다. 국민성금의 이관으로 기념재단

의 자체 기획에 따른 사업시행이 가능할 정도의 물적 토대를 갖추게 되면서 기념행사의 한시적인 집행이나 관리가 아닌 본격적인 사업의 추진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기념사업의 방향을 두고 5·18관련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재단의 사업 추진은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따라 제2기 이사회는 기념재단의 집행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모색한다.

1998년 조직 개편의 방향은 재단의 실질적인 사업능력을 제고하고 재단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이사회-이사장-상임이사-사무처’의 조직 체계에 ‘위원회’ 조직을 새롭게 추가했다. 재단의 조직체계상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회는 33명의 이사로 조직되면서 모든 사업을 심의·의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업무의 원활 한 수행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단사업의 심의기능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새롭게 신설된 기획위원회의 구성은 재단 이사 3명 내외, 관련전문가 2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재단 이사 중 1명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 1998년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 1998년 조직 개편이후 기념재단의 조직

1998년 조직개편 논의과정에 기획위원회를 비롯하여 진실조사위원회, 학술·연구사업위원회, 후생복지장학사업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 신설이 계획되었지만 위원회의 실제구성과 운영은 위원회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기획위원회의 경우 1996년 구성되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1998년에 이뤄졌으며 기금운영위원회는 2000년이 되어야 조직되었다. 한편 1998년의 조직개편에서 사무처의 ‘부서전담제’ 도입은 기념사업을 상시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데 일조하였다.

2002년 기념재단은 재단운영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5·18기념재단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변화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당시 수립된 발전계획에 의하면 기념재단의 조직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조직체계상 이사장과 이사회, 상임이사, 사무처장, 부서장, 직원으로 이어지는 계선 조직을 중심으로 3개의 위원회(기획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진실조사위원회)가 병렬적으로 배치되었는데, 기획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재단 내 구성원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상태였다. 둘째, 재단 조직은 크게 의사결정구조(이사회)와 집행구조(상임이사 및 사무처) 및 심의구조(이사

회와 기획위원회)로 운영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셋째, 직제에 따른 직무분장 및 직무에 따른 절차상의 규정이 불분명한 관계로 담당자에 따라 독선적 운영의 여지가 있었으며,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민주적 통제 및 점검 시스템이 불안정했다.

이러한 재단 조직의 문제는 결국 의사결정 및 집행 체계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었다. 가령 이어나 부서장이 기획한 사업이 기획위원회나 이사회 심의과정 없이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이사 교체시기에는 이사회 심의자체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감사를 통해 이사회 회의록이나 사무처 결재서류에 책임자의 날인이 누락되는 등 대내외 서류와 공문의 관리가 일부 미흡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림 5> 2002년 당시 기념재단 조직(출처 : 5·18기념 재단 발전계획(2002))

<표 1> 기념재단 발전계획에 따른 기념재단의 발전방향(2002)

- 이사회 구성에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상임이사의 권한을 조절할 수 있는 의사·정책 결정구조를 마련
- 기획위원회와 기금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 이사회 정례화와 이사 명단 및 회의록의 공개 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 직원들의 인사관리 규정 및 직무와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직원들의 전문성과 소양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재교육

조직진단과 감사를 통해 발견된 재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념재단은 조직운영방식의 변화를 도모했다. 우선 사무처의 각 부서장은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각 부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부서의 아이디어를 유관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먼저 의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한 후 그 내용을 상임이사에게 보고하게 했다. 상임이사는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사업의 입안여부를 결정한 후 기획위원회와 이사회에 부의하여 사업의 집행유무를 심의·의결받게 했다. 다음으로 각종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조직운영의 시스템을 구비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임금, 인사관리, 상벌, 임명, 문서관리, 재산관리,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내규가 마련되었다. 연도별 사무처 직제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 연도별 사무처 직제의 변화

1994	총무부	사업부			
1995	총무부	사업부			
1996	총무부	사업부			
1997	총무부	사업부			
1998	총무부	기획부	진실조사부	조직사업부	
1999	총무부	기획부	진실조사부		
2000	총무부	기획부	사업부		
2001	총무부	기획부	사업부		
2002	총무부	기획부	사업부		
		진실조사위	자료실		
2003	총무부	기획부	사업부		
		진실조사위	자료실		
2004	총무부	기획부	사업부		
2005	총무부	기획부	사업부		
2006	총무팀	국제협력팀	교육사업팀	학술자료팀	문화홍보팀
2007	총무팀	국제협력팀	교육사업팀	학술자료팀	문화홍보팀
2008	총무팀	교류지원팀	학술교육팀		
2009	총무팀	교류지원팀	학술교육팀		
2010	총무기획팀	교류지원팀	학술교육팀		
2011	총무기획팀	교류지원팀	학술교육팀		
2011 후반기	총무기획팀	교류연대팀	교육문화팀	진실조사실	
2012	총무기획팀	교류연대팀	교육문화팀	진실조사실	
2013	총무기획팀	교류연대팀	교육문화팀	진실조사팀	

### 3. 인력

#### 1) 이사회

기념재단의 제1기 이사회는 조비오 신부, 지선 스님, 윤장현, 김동원 등 31명의 이사로 구성되었다. 1994년 8월 30일 설립발기인 대회에서 정회원 182명, 명예회원 26명 등 총 208명 회원의 협의와 추대를 통해 조비오 신부가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동년 12월 22일 내무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제94-3)를 받으면서 정식 법인 단체로 출범하였다. 1995년 제정된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는 재단의 기념사업, 학술·연구·문화 사업, 장학사업, 기타 사업 등 각 영역을 분장하여 맡았고,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기·임시이사회에서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었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였는데, 이사 개인의 이익이나 신분 에 관련된 사안의 경우 해당 이사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었다.

<표 3> 1994년 설립 당시 이사회 명부(제1기 이사회)

이사장 조비오 상임이사 윤강욱(1994.08~1995.11), 정구선(1995.11~1996.10) 김기삼, 김동원, 김원욱, 김재언, 김태홍, 김현장, 김희택, 명노근, 문병란, 박영순, 송희성, 오동섭, 오수성, 위인백, 윤영규, 윤장현, 은태환, 이기홍, 이관택, 이성전, 이행기, 장두석, 정동년, 정태영, 정향자, 조영복, 지 선, 차명석. 감사 : 윤광장, 고권석
--

제1기 이사회가 기념재단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제2기 이사회는 재단의 실제적인 집행능력을 갖추었다. 1996년 10월 31일 회원총회를 통해 제2기 이사 31명이 선임되었고, 동년 11월 21일 제2대 이사장으로 이기홍 변호사가 선출되었다. 제2기 이사회는 당시 광주시에서 보관하고 있던 국민성금 52억 원과 자체 출연금 10억 5천만원을 이관 받아 기념사업의 재원을 확보하여 기념재단의 재정적 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사회의 구성과정, 5·18기념사업 등에 대해 5·18관련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사업집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표 4> 제2기 이사회 명부

이사장 : 이기홍 상임이사 : 이 강(1996.11~1997.12), 정수만(1997.12~1999.07) 이사 : 강신석, 김기삼, 김동원, 김수남, 명노근, 문병란, 박행순, 송선태, 양강섭, 양인화, 오수성, 오재일, 위성삼, 윤강욱, 윤영규, 이 강, 이경희, 이광우, 이성길, 이성진, 장두석, 김재언, 박영순, 심인식, 이행기, 정동년, 정태영, 반상진, 안홍순
--

제3기 이사회는 재단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재단의 조직개편을 통해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기념재단을 운영하고자 시도했다. 조직내 역할분장을 통해 이사회는 사무처의 기획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상임이사와 사무처는 실무 집행을 담당하게 했다. 특히 재단 사업에 대한 이사회와 기획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제4기 이사회는 재단운영의 합리적·공개적 논의 과정을 정착시키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했다. 이러한 결과 이사회 구성에 큰 변화가 생겼다. 1999년 2월 이사회 개최를 통해 5·18정신의 전국화와 각계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사회 구성을 ‘법정이사 15인 체제’로 전환을 결의했다. 법정이사 구성을 위한 이사 추천기관을 “기념재단 후원회 4명, 유족회 1명, 부상자회 1명, 구속자회 1명, 제주4·3연대 1명, 유가족 협의회 1명, 부산민주연합 1명, 학술단체협의회 1명,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명, 기자협회 1명, 시의회 1명, 도의회 1명”으로 규정해 이사회 구성에 있어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재단이사의 추천기관으로 전국의 민주화운동단체를 포함시킴으로서 5·18의 전국화는 물론 민주화 단체와의 연대를 더욱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표 5> 법정이사 15인 체제에서의 이사 추천 기관(1999년)**

1. 5·18광주민주항쟁 유족회 1명
2. 5·18광주민주항쟁 부상자회 1명
3. 5·18민주항쟁 구속자회 1명
4. 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1명
5. (사)부산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 1명
6. 제주4·3유관단체(제주4·3연구소,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제주4·3유족회) 1명
7. 학술단체협의회 1명
8.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명
9. 광주전남 기자협회 1명
10. 광주광역시의회 1명
11. 전라남도의회 1명
12. 5·18기념재단후원회 4명  
- 감사 2명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2년 재단의 발전계획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사회 구성에 있어 소속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험성이 있어 제 단체들의 입장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에 기념재단은 이사의 임기를 구분하고 이사 선출의 시기를 다르게 하여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시도했다. 제5기 이사회는 경우 이사의 임기를 임기 1년의 이사(8명)와 임기 2년의 이사(7명)를 구분하여 선출했다. 당시 이사를 추천했던 기관은 아래와 같다.

<표 6> 5·18기념재단 임기 1년, 2년 이사 추천 기관(2002)

임기 1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재)5·18기념재단후원회 2명</li> <li>2. 시·도의회 각 1명</li> <li>3. 제주4·3유관단체 1명</li> <li>4.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명</li> <li>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1명</li> <li>6.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1명</li> </ol>
임기 2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18광주민중항쟁 유족회 1명</li> <li>2. (사)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1명</li> <li>3. 5·18민중항쟁 구속자회 1명</li> <li>4. 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1명</li> <li>5. (사)부산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 1명</li> <li>6. (재)5·18기념재단후원회 2명</li> </ol>

기념재단은 이사회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서 위원회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했다. 이사회의 이사들이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는 3명 내외의 재단 이사와 2명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재단 이사 중 1명을 이사회에서 선임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5·18기념사업의 분업화와 전문화의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표 7> 5·18기념재단 이사 추천 기관(2013년 현재)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1명</li> <li>2.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1명</li> <li>3. (사)5·18구속부상자회 1명</li> <li>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명</li> <li>5.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1명</li> <li>6. 제주4·3유관단체(제주4·3연구소,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제주4·3유족회) 1명</li> <li>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의모임 1명</li> <li>8.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명</li> <li>9.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1명</li> <li>10. 광주광역시의회 1명</li> <li>11. 전라남도의회 1명</li> <li>12. (사)5·18기념재단 후원회 3명</li> <li>13. 이사장추천위원회 1명</li> </ol> <p style="margin-left: 20px;">- 이사회는 감사 2명을 선출한다.</p> |
|---|

한편 재단은 이사장 선출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장 공모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재단의 이사장 선출은 1999년 이후 각 사회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내부에서 선출되어 왔으나, 2002년 재단발전계획안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사장 선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장추천위원회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재단은 2008년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장 선출에 있어 외부 인사들의 참여를 보장했다. 현재 재단의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구성하고 이사장이 선임되면 해체되는 비정기 위원회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6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임하고 있다.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이사장 공모제는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국적인 기념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념재단의 역대 이사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8> 5·18기념재단 역대 이사장

	성 함	임 기	기간(비고)
초대	조비오	1994.08.30. ~ 1996.08	2년
2대	이기홍	1996.11.22. ~ 1999.07	3년
3대	김동원	1999.07.22. ~ 2000.10.28	1년 4개월(사퇴)
4대	윤영규	2000.10.29. ~ 2001.09.28	11개월
5대	이광우	2001.09.29. ~ 2002.12	1년 3개월
6대	강신석	2003.01.21. ~ 2004.03	1년 2개월
7대	박석무	2004.03.23. ~ 2006.08	2년 5개월
8대	이홍길	2006.08.22. ~ 2008.04	1년 8개월(사퇴)
9대	윤광장	- 2008.04.16. ~ 2008.12 - 2009.05.16. ~ 2010.12	- 8개월(보선, 08년 임기만료) - 1년 7개월
10대	김준태	2011.01.25. ~ 2013.01.24	2년
11대	오재일	2013.01.25. ~ 현재	



<표 9> 5·18기념재단 역대 이사회 명부

년도	1994.08 ~ 1996.08	1996.08 ~ 1999.07	1999.07 ~ 2001.07	2001.09 ~ 2002.12	2003.01 ~ 2004.12	2005. 01 ~ 2006. 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이사장	조철현	이기홍	김동원 (~00.10) 윤영규	이광우	강신석	박석무	이홍길	이홍길 (~08.04) 윤광장	윤광장	윤광장	김준태	김준태	오재일
상임이사	윤강욱 (~1995.11) 정구선 (95.11~96.10)	이강 (96.11~97.12) 정수만 (97.12~99.07)	정수만	정용화	차명석	차명석	차명석	차명석	차명석	차명석	송선태	송선태	송선태
이사	김기삼 김동원 김원옥 김재언 김태홍 김현장 김희택 명노근 문병란 박영순 송희성 오동섭 오수성 위인백 윤영규 윤장현 은태환 이기홍 이관택 이성진 이행기 장두석 정동년 정태영 정향자 조영복 지선	강신석 김기삼 김동원 김수남 명노근 문병란 박행순 송선태 양강섭 양인화 오수성 오재일 위성삼 윤강욱 윤영규 이경희 이광우 이성길 이성진 장두석 김재언 박영순 심인식 이행기 정동년 정태영 반상진	강창일 기현호 김용채 박옥재 박정기 배다지 박정기 임영호 박진도 정재희 정수만 김운주 이광철 허기하	강창일 반명환 박경린 최성호 배다지 박정기 임영호 박진도 정재희 정수만 김운주 이광철 은우근	고희범 정현애 김성중 박인환 신종권 배다지 조찬배 정용태 백수인 김후식 정수만 송선태 이광철 고호성	강민조 김창남 이양현 은우근 정수만 김후식 김난수 김성종 이건영 이규배 이중호 최영호	김후식 박구용 이승정 정수만 이규배 최영호 진선기 김성종 김창남 이중호 김난수	이은주 진선기 임낙평 김창남 정채용 김상봉 신경진 김형태 이승정 정수만	이명자 이승정 신경진 이경희 나명관 양희승 문국주 김상봉 김창남 이은주 임낙평 정채용	유초하 송대수 박찬식 김강렬 정채용 정수만 이승정 신경진 이경희 나명관 양희승 문국주	문국주 이승정 신경진 정해직 양인화 유초하 송대수 박찬식 김강렬 정채용 정수만 양희승	정수만 유초하 송대수 김창후 김강렬 정채용 양희승 문국주 이승정 신경진 정해직 양인화	김강렬 김창후 김거성 송대수 신경진 양인화 양희승 유초하 이승정 정수만 정채용 정해직 이영선

	차명식	안홍순											
감사	윤광장 고권석	윤광장 선홍규	송정민 선홍규	이성길 선홍규	이성길 선홍규	이성길 선홍규	이성길 선홍규	이성길 선홍규	정병민 정철웅	정병민 정철웅	정병민 정철웅	정병민 정철웅	정병민 정철웅

## 2) 위원회

기념재단의 위원회는 1998년 재단의 조직 개편 과정에 처음 등장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이사회-이사장-상임이사-사무처’의 조직 체계에 3개의 위원회(기획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진실조사위원회)를 병렬적으로 배치했다. 당시 이사회는 모든 업무를 심의·의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각 위원회가 관련 현안을 검토하여 관련 사업을 관장하도록 변화를 꾀한 것이다. 각 부서의 부서장은 연관성이 가장 밀접한 위원회의 간사를 맡게 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은 물론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당시 각 위원회의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0> 1998년 위원회의 담당내용

기획위원회	진실조사위원회	학술·연구사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사업의 입안 및 추진</li> <li>· 전국화, 세계화 관련 사업(성지순례단 유치 및 수학여행단 유치 대책)</li> <li>· 기념행사의 기획</li> <li>· 공익성 수익 사업</li> <li>· 유·무형적 기념사업의 기획 및 행정기관의 사업점검(도청이전과 상무대 공원화 사업의 추진과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실조사의 활동</li> <li>· 자료의 발굴, 수집, 관리에 관한 사업</li> <li>· 자료집의 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제반의 학술 및 연구사업</li> </ul>

<표 11> 2000년 위원회의 담당내용

진실조사위원회	기획위원회	학술·연구사업위원회	기금관리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관련 진실조사의 활동</li> <li>· 5·18관련 자료의 발굴, 수집, 관리에 관한 사업</li> <li>· 5·18관련 자료집의 제작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기념재단의 목적 사업의 입안 및 추진</li> <li>· 5·18정신의 전국화, 세계화 관련 사업</li> <li>· 5·18기념행사의 기획</li> <li>· 재단의 공익성 수입 사업</li> <li>· 5·18관련 유무형적 기념사업의 기획 및 행정기관의 사업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과 관련된 제반의 학술 및 연구사업</li> </ul>	

### 가.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는 이사회의 심의기능이 재단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조직평가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조직으로 구상되었다. 이사회의 경우 정관 규정상 1년에

분기별 1차례씩 총 4차례의 회의를 갖는데 재단의 사업이 확장되면서 방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 심의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로 기획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런데 제1기, 제3기 기획위원회의 경우 이사장의 자문기구임에도 정관 규정상으로는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 기획위원회의 논의결과가 이사회 결의와 집행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기념재단은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정관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그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이사들이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게 했다. 현재 기념재단 내 위원회는 아래와 같다.

- 기획위원회
- 인사위원회
- 기본재산관리위원회
- 규정관리위원회
- 임단협교섭위원회
- 후생복지장학위원회
- 이사장추천위원회(2014년 폐지)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원은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선임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표 12> 재단 설립 이후 각종 위원회 위원

	96-99	99	2001	2002	200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획위원회	김수남 김양래 민형배 서순복 송선태 안종철 오재일	김성 김수남 송선태 신일섭 양철호 오창규 이영석 정근식 이종범 김윤기 박강배 정문영 이용식	김수남 김강렬 김성중 송선태 이재의 정근식 정문영 정항자 정용화	은우근 김양래 손영환 이경희 이세영 이재의 정항자 조진태 허연식 송득룡	송선태 김준 정항자 이순노 김호균 전고필 임광호 장용석 박재환	은우근 민병로 박구용 서정훈 신석균 인광호 임낙평 조충남		박구용 김재석 박미경 윤난실 이효준 조진태 조충남 박찬국 서정훈 안명환	정재용 김재석 나기백 백형기 이철영 채속희 최낙선 조진태 이경희 임경연	정재용 김재석 나기백 백형기 이경희 이철영 임경연 채속희 최낙선 조진태	정재용 나기백 백형기 김영삼 김영정 양인화 이철영 정동식 김관호 주경미	정재용 김영정 나기백 백형기 김강렬 이철영 주경미 정동식	정재용 김영정 김관호 나기백 백형기 양인화 이철영 정동식 주경미
소위원회													
인사위원회					강신석 차명석 송선태 정수만 김성중	박석무 김창남 은우근 이건영 차명석	이홍길 김후식 박구용 진선기 차명석			윤광장 문국주 신경진 정재용 차명석	김준태 문국주 송선태 신경진 정재용		오재일 송선태 정수만 김강렬
규정소위원회					차명석 이성길 김성중 정현애	이건영 이성길 이양현 차명석 최영호	김성중 김창남 이성길 이중호 차명석		정재용 김창남 나명관 이은주	정재용 나명관 박찬식 송대수 (유족회)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강신석 차명석 선홍규 김후식 문석환 남기민 박훈 차명석 양강섭 송선태 정철용 은우근 김영용 김성중	박석무 김후식 나중영 선홍규 이성길 차명석	이홍길 김난수 정수만 차명석 김동춘 선홍규 임영동		윤광장 선홍규 양희승 이승정 김관호 이명자	윤광장 김관호 성홍규 양희승 이명자 이승정	김준태 양희승 정해직 김관호 선홍규 이승정	김준태 송선태 신경진 정병민 성홍규 송종복	
기금확충위원회													
평주인권상심사위원회					강신석 조찬배 나병식 송기인 임선숙					윤광장 (국가인 권위) (부산민 주공원) (국회) (민주화 운동기 념사업 회)			
문화예술위원회						김경주 김성중 김휘 전효관 정수만 채희윤							
인단협 교섭위원회												송선태 정해직 양인화	
이사장추천위원회												김강렬 김창후 송대수 유초하 정재용 양희승	

### 3) 사무처

기념재단은 출범 이후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는 실무기구로서 사무처를 구성하고, 광주직할시 동구 대인동 320-12번지 신평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초기 사무처의 사무처장에는 차명석, 사무차장에는 이성길이 선임되어 주요 업무를 관장하였고 총무 박정신, 총무부장 이진, 직원 여은정씨가 일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출범 초기 재단 사무처는 5·18관련 단체들 사이에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이나 규정 등이 미흡하여 단순한 행정·관리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당시 각 부서가 담당하였던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3> 설립 초기 부서별 업무 내용(1994년 기념재단 정관)

총무부	사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 및 인장</li> <li>· 문서의 수발·통제·편철 및 보존</li> <li>· 경리·회계자금·공급·물품구매·조달·물품관리</li> <li>· 회의 전반관리</li> <li>· 예산의 집행 및 결산</li> <li>· 세무관계보고 수합 및 제출</li> <li>· 재산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li> <li>· 직원의 임용·복무급여 및 후생관리</li> <li>·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배경</li> <li>· 행정업무 개선 및 업무쇄신에 관한 사항</li> <li>· 사업의 진도과약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li> <li>· 각 부서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 처리 상황</li> <li>· 법령·정관·제 규정의 관리 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상 목적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관리</li> <li>· 목적 사업 자금 운용 및 경리에 관한 사항</li> <li>· 재단의 수입사업 입안 및 사업 시행</li> <li>· 정책 및 기획의 조정</li> <li>·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li> <li>· 중·장기 계획의 수립</li> <li>· 종합 업무 현황 작성</li> <li>· 부서간의 업무조정 관리</li> </ul>

재단의 설립 당시 사무처는 실제 사업의 진행과정에 직무별 업무분장이 준수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업무가 할당되는 실정이었다. 당시 5인의 상근 인력(상임이사, 사무처장, 총무부장, 기획부장, 여직원)으로는 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1996년 시작된 조직 개편 논의에서 기념사업의 상설적인 기획·추진을 위한 ‘부서전담제’로의 전환이 논의되었다. 부서전담제는 기존의 사무처장의 직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부장 중 1인을 선임부장으로 하여 사무차장을 겸임하게 하였다. 또한 각 부서는 총무부, 기획부, 진실조사부, 조사·사업부로 구성되었는데, 각 부장이 각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하게 하여 위원회의 활동과 사무처의 업무가 긴밀하게 조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단의 주요 사업과 각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4> 1998년 조직개편 이후 전담사업 재조정

회계 및 일반 행정	기획 및 특별사업	조직 및 수익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결산, 입출금</li> <li>· 공문서 및 일반행정</li> <li>· 이사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li> <li>· 비품과 재산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실조사 및 자료의 발굴과 관리</li> <li>·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료집 제작</li> <li>· 홈페이지 관리</li> <li>· 정신 계승 사업의 기획</li> <li>· 기념사업 추진 및 점검</li> <li>· 행사 및 5·18기념행사의 기획</li> <li>· 학술연구사업의 기획</li> <li>· 재단 기관지 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연대사업</li> <li>· 조직관리</li> <li>· 관련단체 지원사업</li> <li>· 장학사업</li> <li>· 기타 이사회 결의 수익 사업</li> </ul>

<표 15> 기념재단 내 각 부서별 업무내용(1999년 정관)

총무부	기획부	진실조사부	조직·사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출금, 예산, 결산, 세무</li> <li>· 보조금, 기부금, 자산</li> <li>· 공문서 및 행정</li> <li>· 이사회 회의자료 회의록 작성 및 관리</li> <li>· 비품 재산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 기획 추진</li> <li>· 정신 계승사업 및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위원회 보조</li> <li>· 학술, 연구 사업의 기획</li> <li>· 재단 기관지 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실조사 및 자료의 발굴과 관리</li> <li>·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료집 제작</li> <li>· 홈페이지 관리</li> <li>· 각종 자료집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 연대 사업</li> <li>· 관련단체 지원사업</li> <li>· 장학사업</li> <li>· 조직의 관리</li> <li>· 이사회 수익사업</li> </ul>

광주광역시가 보관하고 있던 국민성금이 기념재단으로 이관되면서 기념재단은 재단의 자체 기획에 의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단의 위상을 확립하기 시작했다. 재단의 재원이 확충되면서 5·18민주화운동정신을 정립·계승하기 위한 진상규명사업, 홍보·출판사업, 자선사업, 시상사업, 국내외 민주인권단체와의 연대사업 등이 상설화되었다. 사업의 상설화에 따라 각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과 위상이 명료해지면서 각 부서의 전문성도 강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기념재단에 상근 인력 및 계약직 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이 증원되면서 사무처의 역량이 대폭 증진되었다.

2005년 정부교부금 사업으로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이 실시되면서 사무처의 인력과 사업규모도 대폭 확장되었다. 2005년 사무처는 부서체제를 팀제로 변경하여 부서별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2010년에는 기획부 산하에 있던 진실조사실을 독립부서로 승격시켰다.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상황에서 5·18항쟁의 진실규명사업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2013년 현재 사무처 직제규정

에 따른 각 부서별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6> 기념재단 내 각 부서별 업무내용(2013년 사무처 직제규정)

총무기획팀	교류연대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단의 예산 편성·배정·집행·결산</li> <li>2. 세무·재산관리·물품관리</li> <li>3. 각종 감사 및 감사결과 관리</li> <li>4. 회의 전반 관리(이사회, 인사위원회,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규정관리위원회, 기획위원회, 임금 및 단체 협약 등을 위한 교섭위원회, 후생복지장학사업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업무)(개정 2013. 5. 6.)</li> <li>5. 재단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li> <li>6. 정관 목적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관리</li> <li>7. 정책 및 기획의 조정</li> <li>8. 직원의 임용·평가·복무·급여·후생·노사업무</li> <li>9. 정관·규정·인장·문서·등기관리</li> <li>10. 업무전산화 및 홈페이지운영</li> <li>11. 언론홍보</li> <li>12. 행정업무 개선 및 업무쇄신에 관한 사항</li> <li>13. 기념품 제작</li> <li>14. 재단후원회 관련 업무</li> <li>15. 총무사업 간행물 관리</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류연대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집행·결산</li> <li>2. 교류연대사업의 기획 및 홍보</li> <li>3. 5·18관련단체 지원사업</li> <li>4. 광주인권상 관련 사업</li> <li>5. 국내·외 교류·연대·지원사업</li> <li>6. 교류·연대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li> <li>7. 자원활동가 운영</li> <li>8. 교류·연대 관련시설 교육·운영계획 수립</li> <li>9. 영문사이트 운영 및 관리</li> <li>10. 교류연대사업 간행물 관리</li> </ol>
교육문화팀	진실조사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문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집행·결산</li> <li>2. 교육·문화사업의 기획 및 홍보</li> <li>3. 청소년 교육·문화사업</li> <li>4. 장학사업</li> <li>5. 교육, 연수, 강좌의 운영·관리</li> <li>6. 5·18교육 관련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연대 협력사업</li> <li>7. 교육자료 개발·활용·관리</li> <li>8. 5·18교육사이트 운영</li> <li>9. 5·18문화예술지원, 공연사업</li> <li>10. 5·18기념공간활성화사업</li> <li>11. 『주먹밥』 발간 및 배포 업무(개정 2013. 5. 6)</li> <li>12. 국내외 학술행사개최 및 학술업무</li> <li>13. 교육·문화사업 간행물 관리</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실조사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집행·결산</li> <li>2. 5·18진실조사사업의 기획 및 홍보</li> <li>3. 5·18진실조사 및 연구계획 수립</li> <li>4. 5·18관련 조사연구 용역수탁 및 위탁에 관한 업무</li> <li>5. 5·18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관련 업무</li> <li>6. 5·18자료 관련 교류협력사업</li> <li>7. 5·18 자료의 수집·보존·연구·활용</li> <li>8. 자료전산관리시스템 운영</li> <li>9. 자료의 디지털 변환·검색·열람</li> <li>10. 자료실 관리</li> <li>11. 진실조사사업 간행물 관리</li> <li>12. 『아시아저널』 등 재단 정기 간행물 발간 및 배포 업무(개정 2013. 5. 6)</li> <li>13. 국내외 학술행사개최 및 간행물 관리(개정 2013. 5. 6)</li> </ol>

초창기 사무처 구성원들의 경우 장기적 전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불비하여 1~2년 만에 그만두는 등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졌으나 현재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금, 인사관리, 상벌,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규정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임금 및 단체협약 등을 위한 교섭위원회는 기념재단 내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 등을 추진하는 기구로서 민주적인 노사문화 정착과 직원의 복지향상 등을 통해 재단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졌다.



재단은 임금 및 단체협약 등에 있어 노사교섭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노사교섭의 필요성이 생기면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금협약, 단체협약 등 기타 노사협의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교섭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를 포함한 4인 이내의 임원으로 하되 대표 교섭위원은 이사장이 맡고 상임이사에게 대표 교섭위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섭위원회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검토하여 기념재단의 안을 결정하며, 노동조합과의 교섭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다.

<표 17> 1994~2013년 사무처 직원 명부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사무처장	차명석	사무처장	차명석	사무처장	차명석	사무처장	차명석	사무처장	이성길	사무처장	이성길	사무처장	이성길	사무처장	정용화	사무처장	허연식	사무처장	조진태
사무차장	이성길	사무차장	이성길	총무부장	이진	총무부장	이진	총무부장	이진	총무부장	이진	총무부장	박강배	총무부장	박강배	총무부장	박강배	총무부장	김대인
사업부장, 총무	박정신	사업부장, 총무	박정신	사업부장	박정신	사업부장	박정신	사업부장	박정신	기획부장	허연식	기획부장	허연식	기획부장	허연식	기획부장	허연식	기획부장	장규호
직원	여은정	직원	여은정	직원	여은정	직원	여은정	직원	여은정 김지선	직원	김지선 양정옥 양선화 김윤정 이성대 최현미 김선미 최정숙 김관호 김재은	사업부장 직원	이진 이성대 최현미 김선미 채희관(계약) 서은식(계약) 서수미(계약) 박홍수(계약) 김용남(계약) 최정숙 김관호 장정미 김재은 박필순(계약)	사업부장 직원	이진 강정미 김재은 김찬호 박필순	사업부장 직원	김대인 김찬호 박필순 송소연 김점옥 김점옥 정은형 이은진	사업부장 직원	송소연 박필순 신수연 이은진 김점옥 김찬호
2004		2005		2006		2008		2009		2010		2011(09월)		2012		2013			
사무처장	조진태	사무처장	조진태	사무처장	조진태	사무처장	조진태	사무처장	조진태	사무처장	조진태	사무처장	김관호	사무처장	김관호	사무처장	김관호		
총무부장	김대인	총무부장	김대인	총무팀	이기봉	총무팀	이기봉	총무팀	이기봉	총무기획팀	이기봉	총무기획팀	송소연	총무기획팀	송소연	총무기획팀	송소연		
기획부장		국제협력부	김찬호		송소연		김미옥		김점옥		김점옥		이지혜		고재대		고재대		
사업부장		교육사업부			김아영		고재대		김미옥		이지혜		서준오		고재대		서준오		
직원	송소연	직원	송소연	국제협력팀	김찬호	교류지원팀	김찬호	교류지원팀	김찬호	교류연대팀	김찬호	교류연대팀	김찬호	교류연대팀	김찬호	교류연대팀	김찬호		
	고재대		고재대	교육사업팀	김대인		김상선	교류지원팀	김상선	교류연대팀	정린	교류연대팀	정린	교류연대팀	김찬호	교류연대팀	정린		
	신수연		신수연		이은진	학술교육팀	송소연		정린	교육문화팀	김미옥	교육문화팀	김미옥		김희정		김희정		
	김점옥		김점옥		김만호		김점옥	학술교육팀	주정립	교육문화팀	주정립	교육문화팀	이기봉		김지은	교육문화팀	김지은		
	김관호		김관호		김선미		김경택		송소연		송소연	교육문화팀	주정립		아남 브리 즐리		박재용		
	김아영		김아영	문화홍보팀	고재대		박재용		김경택		박재용	교육문화팀	박재용	교육문화팀	이기봉		박지선		
				학술자료팀	정린		신수연		신수연		김경택	교육문화팀	김경택	교육문화팀	주정립	진실조사실	권혁민		
					김점옥		주정립		주정립		박지선	진실조사실	박지선	진실조사실	박지선		장중현		
					박재용		박재용		박재용		조진태	진실조사실	조진태	진실조사실	권혁민		김점옥		
					김경택		김경택		김경택		김점옥	진실조사실	김점옥	진실조사실	조진태		김경택		
					주문희		주문희		주정립		정영록		정영록	진실조사실	김점옥		김경택		
					김상선		김상선		김경택		김경택		김경택	진실조사실	정영록		정영록		

## 4. 재정

기념재단은 1994년 기념재단 설립 이후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재단의 기본 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설립추진위원(발기인 포함)들이 설립 당시에 출연한 재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내외의 공공단체·민간단체·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 받은 토지와 건물 및 출연금,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1999년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기본재산관리위원회는 기금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기금운영의 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영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재단의 이사장이 맡고 있다. 위원 6명 중 3명은 임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3인은 금융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재단의 총무기획팀장이 간사를 맡고 있다. 기금은 보통 예금, 신탁, 유가증권매입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기타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재단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설정하여 기금운영의 관리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 1) 기본재산

기념재단은 1994년 3억 1천만 원의 출자금(조철현 외 65명)을 바탕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sup>1)</sup> 1998년 “광주광역시재단법인5·18기념재단기본재산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국민성금을 이관 받았다. 설립 초기 재단은 재단법인의 특성상 기본재산의 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은 이자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재단의 이자 수입이 감소하면 원활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재단의 기본재산은 60억원을 넘어섰지만 이자수익은 5억원 정도에 불과해 소모성 고정경비를 집행하고 나면 목적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1994년 설립 이후 기본재산 형성 내용과 연도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1994년 기념재단 이사회 회의자료,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재산 출연금 내역」.

<표 18> 5·18기념재단 기본재산조성내역(2013년 기준)

조성연도	구분	금액(원)	비고
1994. 8. 31~ 2002. 12. 31	후원회원 조성 및 과실금	749,016,740	- 설립당시 조성기금 - 설립 후 후원회원출연금 - 원금 이자 과실금 - 2002 이자 과실금(3,292,162원)
1998. 5. 22	윤상원상 기금 이관	21,583,406	
1998. 6. 8	광주광역시 (국민성금 62억 원 중 국비보전 52억 차액 10억 원 시비 이관)	1,058,993,260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기본 재산 지원조례(1998. 3. 15 제정)
1998. 8. 14	광주광역시 (국민성금 62억 원 국비보전금 52억 원 이관)	5,200,000,000	이자 수익 40억 원은 광주테크노파크조 성으로 광주시에서 전용
2000. 2. 23	5추위 기금 이관	85,993,400	연합임대료포함(2천만 원)
2000. 9. 1	동아시아대회 기금이관	26,490,177	
2000. 11. 15	국비잔여금(광주광역시)	418,000,000	국비보조사업비 중 20주년 행사 잔여금
2001. 7. 5	국비잔여금(광주광역시)	160,000,000	국비보조사업비 중 21주년 행사 잔여금
2002. 9. 10	해외성금 보관분	75,127,900	독일, 미주 등 80년 이후 종교기관 성금 조아라 장로 보관
2002. 12. 10	국비잔여금(광주광역시)	280,000,000	국비보조사업비 중 22주년 행사 잔여금
2005. 12. 31	회원 자체조성, 기본재산전입금	24,795,117	- 2004년 전입 : 7,354,491원 - 2005년 전입 : 17,440,626원
2007. 9. 18 기본재산 전입	고 윤환봉, 후원회, 전남매일	43,100,000	- 고 윤환봉 : 30,000,000원 - 후원회 : 8,100,000원 - 전남매일 : 5,000,000원
2012. 12. 31	혜당 김순희 장학회	50,000,011	
2013. 12. 31	기본재산 이자 과실금	6,899,989	기본재산전입
	계	8,200,000,000	

<표 19> 기본재산의 연도별 현황(2013년 기준)

(단위 원)

연 도	자 본 금	이 자 수 익	비 고
1995	330,000,000	32,400,000	
1996	310,000,000		
1997	310,000,000		
1998	310,000,000	324,023,907	
1999	6,835,770,897		
2000		603,315,564	
2001	6,683,896,172	551,838,454	
2002	6,683,896,172	412,442,384	
2003	6,683,896,172	381,698,608	
2004	6,683,896,172	402,320,046	
2005	6,683,896,172	397,109,021	
2006	6,683,896,172	473,443,294	
2007	6,683,896,172	482,587,049	
2008	6,835,770,897	524,099,895	
2009	6,835,770,897	473,245,402	
2010	8,143,100,000	464,212,310	
2011	8,143,100,000	422,517,223	
2012	8,193,100,011	430,542,838	
2013	8,200,000,000	249,101,861	

## 2) 사업비

기념재단 설립초기 사업비는 거의 기념행사 중심으로 집행되었고, 1998년에 재단의 기금이 60억대로 증가하면서 재단 고유의 목적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표 20> 연도별 재단 사업비 내용 결산 내용

(단위 원)

년도	결산액	사업비		관리비
		보조금	기념사업비 총액	
1994	3,100,000,00(출연금)			
1995	207,908,560	11,440,000	169,222,300	38,686,260
1996	291,051,090	246,500,000	244,261,230	46,789,860
1997	439,675,792	386,830,000	379,137,435	60,538,357
1998	535,570,694	379,200,000	395,297,150	140,273,544
1999	1,049,808,759	325,000,000	615,579,741	151,453,713
2000	3,752,319,213	2,365,925,673	3,520,412,644	209,444,539
2001	1,386,855,155	455,000,000	1,113,217,891	264,733,234
2002	1,263,838,276	167,000,000	1,017,386,035	243,586,211
2003	786,279,139	188,752,000	527,463,180	257,294,245
2004	1,257,061,282	580,500,020	984,404,765	272,656,517
2005	2,946,102,358	2,500,450,000	2,623,579,948	322,522,410
2006	3,620,940,393	2,672,500,000	2,620,897,551	351,664,217
2007	3,320,060,729	2,563,500,000	2,917,938,851	402,121,878
2008	3,077,692,943	2,542,150,000	2,619,803,732	414,722,337
2009	2,559,495,036	2,260,000,000	2,074,720,020	484,775,016
2010	2,753,328,972	2,260,000,000	2,250,000,000	503,324,472
2011	2,834,000,000	2,350,000,000	2,350,000,000	433,800,000
2012	3,191,948,640	2,390,000,000	2,390,000,000	474,413,794
2013	3,724,012,062	3,052,000,000	2,942,865,626	407,298,035

\* 보조금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기념사업비 = 보조금 + 기타 사업비

\* 결산액 = 사업비 + 관리비 + 기타(예비비, 이월금 등)

재단의 사업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보조금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비 보조금이 없던 초창기에는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처음 계획했던 사업비가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설립초기에

는 이러한 문제를 협찬금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였다.

기념재단의 보조금은 1996년부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지방 정부 및 기관에 의해 지원이 시작되었고, 5월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과 지출이 주를 이루었다. 기념재단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등과 5월 기념행사 이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협의하여 공동수탁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정부의 지원금이 다양화되었다. 2005년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법률 제5029호 1995년 12월 21일 제정)’ 제5조에 근거하여 관련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예산을 바탕으로 재단은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21> 연도별 재단 보조금 내역

(단위 원)

년도	보조금 총액	세부내용	
1995	11,440,000	협찬금	
1996	246,500,000	246,000,000	광주시
		500,000	협찬금
1997	386,830,000		
1998	379,200,000	337,200,000	광주시
		30,000,000	전라남도
		12,000,000	시교육청
1999	325,000,000		
2000	2,365,925,673	2,365,925,673	20주년 기념행사
2001	455,000,000		
2002	167,000,000	8,000,000	인권학술 심포지움
		10,000,000	5·18영상물 제작
		5,000,000	상설기획단 운영비
		15,000,000	5·18가을 음악회
		40,000,000	해외동포 2~3세 초청
		10,000,000	아름다운 이야기 공모
		70,000,000	락2002 페스티벌
		5,000,000	청소년 평화축제
4,000,000	사랑의 옷보내기		
2003	188,752,000		
2004	580,500,020	60,000,000	광주국제평화캠프
		20,000,000	5·18아카데미
		42,000,000	5·18마라톤
		100,000,000	5·18아카이브전시관
		50,000,000	아시아민중문화큰잔치
		130,000,000	아시아문화심포지엄
		11,000,020	해외동포자녀초청민주주의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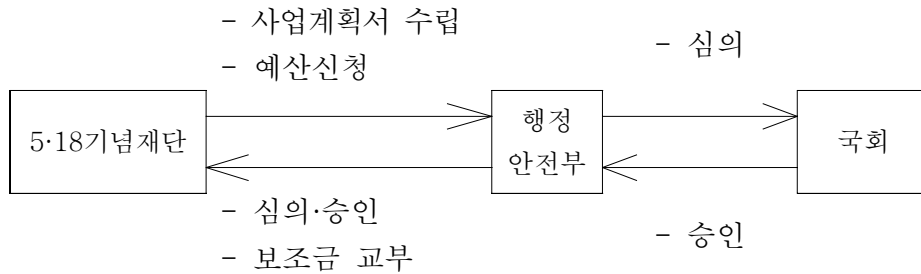
		35,000,000	5·18사진첩제작
		12,500,000	사이버민주인권관운영비
		10,000,000	시민과 함께하는 5·18송년음악회
		200,000,000	5·18민주화운동학생기념탑건립
2005	2,500,450,000	2,036,000,000	국비보조금(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26,000,000	사이버 민주·인권관 운영
		130,000,000	아시아문화심포지엄
		150,000,000	5·18학생기념탑건립
		30,000,000	유공자(운영규)추모사업
		4,000,000	희망의 컴퓨터 보내기
		3,000,000	유공자자녀 사적지탐방
		1,550,000	청소년 연수지원금
		100,000,000	아시아인권광주포럼
		200,000,000	사적지 표지석 설치
		2006	2,672,500,000
32,500,000	사이버 민주·인권관 운영		
40,000,000	마라톤대회		
100,000,000	아시아인권광주포럼		
2007	2,563,500,000	2,500,000,000	국비보조금(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19,000,000	마라톤대회
		19,500,000	5·18보존공간 활용연구용역비
		25,000,000	마라톤대회
		19,000,000	5·18보존공간 활용연구용역비
2008	2,542,150,000	2,500,000,000	국비보조금(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6,500,000	사이버 민주·인권관 운영
		10,000,000	마라톤대회
		6,650,000	타 기관 지원금
		19,000,000	5·18보존공간 활용연구용역비
2009	2,260,000,000	2,074,720,020	국비보조금(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10,000,000	마라톤대회-광주광역시
2010	2,260,000,000	2,250,000,000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10,000,000	마라톤대회-광주광역시
2011	2,350,000,000	2,350,000,000	국비보조금(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2012	2,390,000,000	2,300,000,000	국비보조금(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30,000,000	초등교육용 도서발간
		10,000,000	3회 5·18수업사례공모-광주시교육청
		10,000,000	교사연수-광주시교육청
		3,000,000	5·18교육용웹사이트
		37,000,000	마라톤보조금
2013	3,052,000,000	2,300,000,000	국비보조금(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25,000,000	교육자료개발 및 민간연계·협력사업-광주광역시 교육청
		5,000,000	광주인권상 축하음악회 - (주) 한양, 광주은행
		490,000,000	2013년 국제인권도시포럼 - 광주광역시
		5,000,000	5·18역사왜곡 대책위원회 실천과제 - 광주광역시
		20,000,000	5·18왜곡대책활동 - 광주광역시



		180,000,000	5·18국내의자료수집 등 - 광주광역시
		27,000,000	마라톤보조금 - 광주광역시, 남구청, (주)에쓰오일, (주)광주신세계

\* 보조금 총액 = 세부내역 + 기타(협찬금, 기타사업, 이월금 등)

기념재단의 사업 예산은 아래의 <그림 6>와 같이 기념재단이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가 국회 심의 및 승인을 받는 체계로 집행되고 있다. 기념재단이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각목명세서에 대한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행정안전부는 정부심의 및 승인을 통해 5·18기념재단에 예산을 배정하고, 재단은 배정된 예산에 따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6> 5·18기념재단 기념사업 예산체계

## IV. 재단의 사업현황

### 1. 총괄개요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켜온 5·18기념재단의 지난 20년 동안의 발자취를 모색 및 성장기(1994년~2004년), 안정적 구조화기(2005년~2013년)로 구분해 각 시기별 주요 사업과 특징을 개괄하고자 한다.

#### 1) 1994년~2004년: 모색 및 성장기

80년 5월의 정신과 자세로 되돌아가 항쟁정신과 대동정신의 기념과 계승을 위해 어려운 준비과정을 거쳐 1994년 마침내 재단이 창립되었지만 재단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는 1994년부터 본격화된 5·18학살책임자 처벌에 대한 고소고발운동과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운동이 현안의 문제로 부각되었고, 내부적으로는 갖 출범한 재단 조직의 내실화와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충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95년 미흡하나마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학살책임자들을 역사와 정의의 법정에서 세우게 되면서 5·18이 역사 속에 정립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또한 1997년 신묘역이 조성되고 1998년 광주광역시에서 보관하고 있던 5·18국민성금과 시의 출연금이 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사업추진의 물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특히 재단설립 초기 재단의 정관이 내무부에 등록된 정관과 창립총회 당시의 정관이 양존한 상황에서 혼란이 발생하였는데 총회를 후원회로 전환하고, 재단의 지배구조를 이사회 중심체계로 재편하면서 재단 운영의 내실화와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재단은 1990년대 후반 현안문제의 대응과 함께 교육문화사업과 교류연대사업을 본격화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은 재단 설립 초기부터 핵심 사업 중 하나였다. 재단의 교육사업은 ‘청소년교육사업의 집중을 통한 5·18정신의 미래가치 정립’이라는 목표 하에 1996년부터 장학사업과 함께 시작되었다. 5·18장학사업은 이후 5·18 유공자 자녀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 국가폭력 피해자 자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사업으로 확대되어 ‘5·18 나눔장학금’과 ‘5·18 희망장학금’으로 명명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재단의 교육사업 방향이 보다 뚜렷하게 설정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램들이 모색되기 시작했는데, 이 중 청소년의 체험학습은 그 실천의 중심에 있었다. 각 학교 수준별 5·18 체험학습, 사적지를 중심으로 한 사적지 체험과 안내 봉사 등이 체험학습의 주된 내용이 되었다. 이 밖에도 재단의 교육사업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위한 5·18 교육자료 제작, 5·18 교육을 위한 교과서, 웹, 만화 등 다양한 교육자료 및 매체 제작 등의 사업도 함께 진행해 왔다. 또한 5·18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교육을 통해 계승하기 위한 교사 연수도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재단의 문화사업 및 문화 이벤트에 대한 문제의식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5·18민주항쟁의 정신과 의미를 확인하고 계승하며 전파, 공유하는 작업은 곧 다양한 문화적 실천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것은 비디오, 책,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재현 매체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재단은 그 설립 초기부터 사진집 제작이나 기억의 벽 설치와 같은 문화적 재현, 문화상품 제작과 같은 5·18의 상징화를 중요한 사업 방향으로 설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초기의 이러한 문화사업들은 2000년대에 들어 그 문제의식이 심화되고 또 정기적인 사업화의 필요로 인해 체계적인 틀을 갖춘 연례 사업으로 발전해 갔다. 청소년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청소년 축제가 ‘레드 페스타’(Red Festa)라는 청소년 축제로 모습을 갖추어 2004년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청소년 연극제,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 5·18문학상 시상 등이 재단의 문화사업을 대표하는 행사로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 시기 동안 재단의 문화사업은 5·18의 정신과 의미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일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5·18 국립묘지 내 5·18 사진실 설치, 5·18 사진첩 제작, 5·18 영상 제작, 홍보만화 제작, 영어 다큐멘터리 제작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사업 중의 하나는 5·18 상징 심볼 및 로고 공모 및 제작 사업으로, 5·18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과 로고를 제작하여 대외적인 인지도 제고 및 홍보에 활용하고, 이를 또한 상품화하여 5·18 정신을 전국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이 시기 동안에는 다양한 문화적 실천과 예술적 재현의 형식들을 실험했다. 5·18 플래시 경연대회나 영화제작의 추진, 5·18 문학 공모 등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또 5·18의 정신 뿐 아니라 재단의 이념과 가치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담론화 하는 소식지 ‘주먹밥’이 창간되어 배포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재단은 5·18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의 중요한 실천과제로서 교류연대사업을 제안했으며, 본격적인 교류연대사업은 1999년 ‘아시아 민주희생자 연대 네트워크’ 행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 희생된 아시아 지역의 희생자 가족에 대한 초청사업으로 시작된 아시아 민주희생자 연대 네트워크 행사는 2004년 사업의 명칭을 ‘국제 평화캠프’로 변경한 이래 2007년 ‘광주국제평화포럼’, 2010년 ‘광주아시아포럼’으로 변

경해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재단은 국제인턴의 파견을 통해 자원활동가들의 직접적인 교류연대를 모색했다. 2001년 처음 국제인턴을 파견한 이래 2013년까지 17개국 41개 단체에 115명의 인턴을 파견하여 5·18정신의 국제화를 실천하고 있다.

광주인권상은 5·18과 관련하여 기존에 시상되고 있었던 5·18시민상과 윤상원상을 통합해 2000년부터 시행하였다. 광주인권상 시상은 5·18정신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은 물론 권위주의 제도와 국가폭력에 맞서 저항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첫 수상자로 티모르 저항민족회의 의장인 ‘사나나 구스마오’를 선정한 이래 2013년 아르헨티나 인권단체인 ‘망각과 침묵에 대항하여 정체성과 정의의 위해 싸우는 아들과 딸들’까지 다양한 지역과 인사들에 대한 시상을 통해 군사독재체제나 권위적인 억압체제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연대로서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고 있다.

한편 재단 설립초기 재단의 진실조사사업은 예산과 인력 두 측면 모두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80년 당시 기록과 이후 생산된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보존, 활용계획은 없었고 그때그때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1999년 광주광역시 공공인력 중 고학력 미취업자들을 지원받아 5·18피해자실태파악 및 관련자 증언채록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학술단체협회, 미국에서의 학술심포지엄 등을 통해 본격적인 학술연구를 지원하였다.

## 2) 2005년~2013년: 안정적 구조화기

2005년부터 재단의 사업들은 기념사업, 국제협력사업, 교육사업, 학술자료사업, 문화홍보사업으로 체계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각 영역 내의 개별 사업들도 정형화된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지속되게 되었으며, 해마다 계속 사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보충되고, 대상이 확대되며, 프로그램이 다듬어지는 안정적 사업 실행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재단의 사업 안정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05년부터 정부 예산이 배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재단의 이러한 안정적 구조화의 결과 청소년 교육사업에서는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사적지 체험학습이 매년 계속 사업으로 유지되어 왔고,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5·18 전국 교사연수, 5·18민주화운동 수업사례 발표회, 오월지기 양성 사업 등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또 공교육 내에서 5·18교육을 정례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협력학교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교재 개발 및 다양한 자료 개발 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재단의 문화사업은 무엇보다 교육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교육은 공교육과 달리 다양한 창의적인 교육내용과 전달 방식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에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강조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있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청소년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재단의 문화사업은 5·18 민주항쟁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5·18이 표방하는 의미와 가치를 상징적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이를 시민들에게 전달함과 아울러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가고 있다.

2005년부터는 사업부서가 정비되고 연차 사업들이 계속성을 갖고서 이루어지면서 재단의 문화사업도 안정적인 체계를 갖게 되었다. 레드 페스타, 청소년 연극제, 5·18문학작품 공모를 근간으로 하는 정기적 문화사업이 이루어지고, 각 사업들도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중 청소년 연극제는 2006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고등학생들의 연극 공연 대회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 이 시기에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5·18문학작품 공모를 통해 획득된 문학작품 성과를 포함하여, 5월 정신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5월 문학 작품을 집대성하여 오월문학총서로 발간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사적지 체험학습 및 오월지기 양성 사업은 오월길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새롭게 정비된 사적지 및 사적지 연계 탐방길을 중심으로 청소년 및 일반인들의 체험학습, 이를 위한 사적지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을 담당할 강사 양성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재단은 교류연대사업이 특정 시기나 일부 사업에 머물지 않고 일상적인 교류연대가 될 수 있도록 ‘5·18 인재육성사업’과 ‘5·18 활동가교류사업’을 통해 교류연대의 수준과 내용을 확대해가고 있다. 5·18인재육성 사업은 민주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국내외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2004년 광주아시아인권학교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국내시민사회활동가 과정인 아카데미1, 국외 시민사회활동가 과정인 아카데미2, 기념사업 전문가 과정인 아카데미3 등이 있다. 특히 교류연대를 위한 인재양성사업에 있어 재단은 국제인턴의 과정뿐만 아니라 국제인턴의 채용을 통해 직접적인 교류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2005년 처음 국제인턴을 채용한 이래 2013년 현재까지 15개국 23개 단체 23명의 인턴을 채용하여 5월 정신을 직접 체험하고 상호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1999년 ‘아시아 민주희생자 연대 네트워크’ 행사로 처음 시작된 국제 네트워크 사업은 2010년 ‘광주아시아포럼’으로 발전해 재단의 교류연대사업을 대표하는 브랜드 사업이 되었다. ‘광주아시아포럼’은 아시아 지역의 민주·인권·평화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를 함께 토론하고 창조적 대안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행사로 매년 5월 개최되고 있다.

진실조사사업에 있어서도 국민기금과 국고보조에 의한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전반에 변화가 이뤄졌다. 자료실과 기록물관리 전담인원이 배치되어 자료의 체계적 분류 및 관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자료관리 연구용역과 사료 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진실조사팀신설과 기록물 관리 전임자 배치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 학술연구지원 사업에 대한 본격적이 지원이 이뤄지면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각종 발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또한 2009년 시작된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과 관련하여 미국 선교사 벤틀리목사의 사진자료와 구술자료를 제공하고, 재단 소장 기록물의 타 기관 기록물과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2차에 걸친 등재반대운동에 맞선 적극적인 대응을 마침내 유네스코 등재라는 큰 결실을 얻게 되었다.

## 2. 교류연대

### 1) 개요

5·18기념재단(이하, 재단)은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국내외 민주 인권 단체와 연대 사업”을 주요한 목적 사업으로 설정했다. 재단의 교류연대 사업은 5월정신을 국내외로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1980년 5월 당시의 고립을 딛고 5·18을 전국화, 세계화하기 위한 5월운동의 실천적 산물이었다. 5·18 당시 신군부는 광주지역의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주 외곽도로를 차단하고,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 광주의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광주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는<sup>2)</sup>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 광주지역만의 ‘소요 사태’로 축소·왜곡하려는 신군부의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신군부의 언론 공작과 지역감정 조장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왜곡되고 광주의 고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단의 교류연대사업은 은폐된 진실을 딛고 5·18정신을 전국화·세계화하는 유력한 수단이 자 중요한 실천과제였다.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한 재단의 교류연대사업은 크게 ‘국제·국내 교류연대사업’과 광주정신을 국내외로 선양하기 위한 ‘광주인권상 시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단의 ‘국제 교류연대사업’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인류 보편적 투쟁으로 간주되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제 교류연대사업은 먼저 ‘국제네트워크 사업’으로부터 출발했는데, 민주화운동과정에 희생된 국가폭력 희생자 가족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위한 취지로 ‘아시아 민주 희생자 연대 준비 모임’이 1999년 개최되었다.

‘아시아 민주희생자 연대 네트워크’행사로 처음 시작된 국제 네트워크 사업은 1999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2004년 ‘국제평화캠프’를 거쳐 현재는 ‘광주아시아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해 개최되고 있다. ‘광주아시아포럼’은 아시아 지역의 민주·인권·평화단체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를 함께 토론하고 창조적 대안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행사로 매년 5월 개최되고 있다.

재단은 교류연대사업이 특정 시기나 일부 사업에 머물지 않고 일상적인 교류연대가 될 수 있도록 ‘5·18인재육성’사업과 ‘5·18활동가교류’사업을 통해 교류연대의 수준과 내용을 확대해가고 있다. 5·18인재육성 사업은 민주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국내외

2) 육군참모총장은 1980년 5월 21일 소요사태 수습을 위한 지시를 통해 “전국 확산 방지, 선무활동으로 시민과 불순세력 분리, 지휘체계 일원화로 군 사기 진작, 교도소 끝까지 방호, 광주 외곽도로망 차단, 시민자제촉구 선무활동” 등 6가지 사항을 제시한다(군사연구소, 1980).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2004년 광주 아시아인권학 교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국외 시민사회활동가 과정인 아카데미2, 국내 시민사회활동가 과정인 아카데미1, 기념사업 전문가 과정인 아카데미3 등이 있다. 5월정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5·18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국내·외 연수를 통한 다양한 교육내용의 제공은 물론 활동가들이 사회적 의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연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국제인턴의 파견과 채용을 통해 자원활동가들의 직접적인 교류연대를 모색하였다. 2001년 처음 국제인턴을 파견한 이래 2013년까지 17개국 41개 단체에 115명의 인턴을 파견하였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개국 23개 단체 23명의 인턴을 채용하여 5월정신을 직접 체험하고 상호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재단은 국내 교류연대사업을 통해 5월정신의 전국화와 현재화를 도모하고 있다. 5월정신이 전국적 범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화될 수 있도록 5월정신에 부합하는 국내 시민사회단체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05년 지원사업의 범위와 목적을 풀뿌리 민간단체에 대한 육성지원으로 확대하면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5월정신의 현재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5·18역사왜곡저지를 위한 공동사업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재단의 교류연대사업에 있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주인권상 시상은 5·18정신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은 물론 권위주의 체도와 국가폭력에 맞서 저항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연대와 협력으로 인식되면서 남다른 권위와 명성을 얻고 있다. 5·18관련 기존에 시상되고 있었던 5·18시민상과 윤상원상을 통합해 탄생한 광주인권상은 인권과 통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현존하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정신을 널리 선양하고자 제정되었다.

광주인권상 첫 수상자로 티모르 저항민족회의 의장인 ‘사나나 구스마오’를 선정한 이래 2013년 아르헨티나 인권단체인 ‘망각과 침묵에 대항하여 정체성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아들과 딸들’까지 다양한 지역의 민주 인사와 단체들에 대한 시상을 통해 군사독재체제나 권위적인 억압체제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연대로서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고 있다.

국제교류연대, 국내교류연대, 광주인권상 시상 등 재단의 교류연대사업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현재화하기 위한 치열한 모색과 다양한 연대를 통해 빛어낸 노력의 결과물로서 최근에는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Asia), 동아시아민주인권평화네트워크(East Asia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Network) 등의 조직적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다.



## 2) 국제 교류연대 사업

### (1) 국제 네트워크 사업

재단의 국제 네트워크 사업은 민주화운동 과정에 희생된 아시아 지역의 희생자 가족에 대한 연대로부터 출발했다. 5월 광주에 경험을 아시아인들에게 소개하고 아시아 각국의 민주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모색하는 과정에 유족회는 1999년 ‘동아시아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자단체 초청 연대 모임’을 개최했다. 유족회의 초청으로 5·18민중항쟁 19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7개국 11명의 인권 관련 희생자 가족 및 인권 활동가들은 추모제 및 세미나 참석을 통해 아시아 민주 희생자 가족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논의를 제안받은 재단은 2000년 ‘아시아 민주 희생자 가족 연대회의’를 조직하면서 국제 교류 사업의 모색을 본격화했다. 아시아 민주 희생자 가족 연대회의는 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의 1970~80년대와 같은 암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민주 희생자 유가족을 초청하여 향후 아시아 인권운동을 위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00년 행사에 8개국 32명의 유가족과 인권운동가들이 참여하면서 교류 연대의 외형적 토대는 마련되었다.

그런데 아시아 민주 희생자 가족 연대회의에 참가한 아시아 각국의 대표들은 실질적 연대를 위해서는 민주 희생자들을 위한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단은 2000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이 열악한 아시아 각국 민주희생자 가족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시아 인권을 위한 백만인 1달러 모금운동’을 기획했다. 백만인 1달러 모금운동은 5·18민중항쟁과 광주에 대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관심을 국제 연대의 장으로 유도하여 5·18정신의 국제화는 물론 아시아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연대를 주도하려는 목적이었다. 실질적인 연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의 모색은 그동안 광주에서 개최한 국제 연대 사업이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면서 아시아 지역의 인권 신장을 위한 실천적인 연대 사업이 필요하다는 자성에 기반한 것이었다.

재단은 실질적 연대를 위한 방안으로 제20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한 8개국 민주 희생자 가족 중심의 단체들과 홍콩의 아시아인권위원회(AHRC)에 아시아인권연대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참가 희망국가의 단체 대표 중심으로 협의체적 회의체를 발족하고 이를 통한 모금 운동의 추진을 계획했다. 백만인 1달러 모금 운동을 통해 아시아의 반인권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5·18정신을 통한 광주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여러 여건의 불비로 백만인 1달러 모금 운동은 계획에 그쳤지만 이러한 문제 의식은 이후 스리랑카 실종자 행사 지원사업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스리랑카 실종자 행사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2>스리랑카 실종자 행사 지원 내역 (2001~2008)

연도	지원내용			비고
	추모식 지원	대표단 참석	운영비 지원	
2001	미화 3,000불	참석	-	추모비 건립 지원
2002	미화 3,000불	참석	-	
2003	미화 3,000불	참석	-	자연띠 광주인권상 수상, 인턴파견
2004	미화 3,500불	-	-	인턴파견
2005	미화 4,000불	참석	-	인턴파견
2006	미화 3,000불	-	-	
2007	미화 2,000불	참석	1,200천원	
2008	미화 1,000불	-	2,400천원	총 26,100불 지원

재단의 국제 교류연대 사업으로 1999년 시작한 ‘아시아 민주희생자 연대 네트워크’ 행사는 2004년 행사 명칭을 광주국제평화캠프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다. 광주국제평화캠프는 국내·외 평화학자 및 인권·평화 단체 실무자와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 가족들이 인권과 평화의 발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광주를 아시아의 인권과 평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기존에 진행했던 아시아 민주 희생자 가족 광주 초청 행사는 광주국제평화캠프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하면서 국제 교류·연대 사업의 확장을 도모한 것이다.

2004년 광주국제평화캠프에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15개국 40명의 외국인 참가자와 국내 참가자 200명 등 총 250명의 인권단체 실무자, 민주 희생자 가족 등이 참여해 평화와 인권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 교류의 무대가 되었다. 특히 아시아인권위원회(AHRC)의 Human Rights Course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시에 진행되면서 재단의 국제 교류 행사가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인권 행사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광주국제평화캠프는 ‘아시아의 분쟁과 NGO의 평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는데 15개국 34명의 외국인과 국내 참가자 45명 등 총 120여명이 참가했다. 2006년 광주국제평화캠프는 지역 대학생들이 자원 활동가로 참여하면서 원활한 행사 운영은 물론 자원 활동가들이 국제 행사를 통해 인권과 평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했다.

재단은 2007년 광주국제평화캠프의 행사 명칭을 광주국제평화포럼으로 변경하고 광주국제평화포럼 행사와 함께 포럼아시아 행사를 동시에 개최했다. 광주국제평화캠프의 성과를 광주국제평화포럼으로 발전시키면서 광주정신의 공유와 국제화를 위한 국제 교

류·연대의 본격적인 모색을 도모했다.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희생자 가족 및 관련 활동가를 초청해 광주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취지로 시작된 아시아 민주 희생자 연대 네트워크 행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류연대 네트워크로 확장해가면서 광주국제평화포럼을 통해 본격적인 교류연대를 시도한 것이다.

2007년 광주국제평화포럼은 개막식과 참가자 선언은 공동으로 진행하고 각각의 세션별 행사는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 포럼의 통일성과 참가단체의 독자성을 동시에 보장했다. 광주국제평화포럼은 5월 기념행사 중 대표적인 국제 인권평화 행사로 인식되면서 5·18의 의미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교류 연대의 자리가 되었다. 또한 포럼아시아의 동아시아 인권포럼 행사 유치로 평화 포럼 행사가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또 다른 사회 포럼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광주국제평화포럼이 중앙 언론에 비중있게 보도되면서 재단의 국제교류·연대 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광주국제평화포럼은 2007년의 방식과 유사하게 5월 기념행사 기간에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평화포럼의 공동 행사는 함께 참여하되 포럼 참가 단체별로 별도의 워크숍을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래<표 23>과 같이 주관 단체들이 개최하는 다양한 워크숍이 진행되면서 국제평화 포럼의 주제는 물론 참가 단체의 의견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23> 2008년 광주국제평화포럼 참가 단체의 주관 워크숍 내용

주관단체	행사명	분야
ARENA	아시아 평화의 문제와 평화권 전략을 위한 회의	아시아 지역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지자체 조례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관련 전문가
주거복지연대	아시아 주거복지 네트워크 2008	주거, 도시빈민
5·18기념재단	아시아민주화운동NGO네트워크 한국기념사업단체 교류협력사업 조정회의 아시아인권관련 기념사업단체 교류회의 아시아 지역연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NGO 활동가

재단은 5·18민중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아시아포럼’을 개최했다. 2010년 개최된 광주아시아포럼은 국제평화캠프에서 국제평화포럼으로 이어진 재단의 국제 교류·연대 활동의 성과를 종합하는 교류 연대 행사로서 ‘아시아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주제로 25개국 400명이 참가했다. 특히 광주아시아포럼에서는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을 위한 실행기구로서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Asia, 약칭 SDMA)’를 출범시키는 조직적 성과를 만들어냈다.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DMA)는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

기구로서 2006년부터 네트워크의 출범을 위해 활동 목표와 규약, 규모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다 2010년 광주아시아포럼에서 국제 네트워크 조직 결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 발족에 이른 것이다. 광주아시아포럼 행사를 통해 공식 출범한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는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참여단체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5개국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sup>3)</sup>.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는 2010년 출범 이후 매년 광주아시아포럼의 ‘민주주의 워크숍’을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2012년 민주주의 워크숍은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와 감시,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2013년은 ‘아시아의 시민사회 사법감시,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와 감시, 시민사회의 의정참여’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는 아시아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공유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재단은 국제 교류연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조직을 주도적으로 결성하는 방식과 함께 이미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네트워크 조직에 참가 단체로 참여하는 형태로 교류 연대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2010년 출범한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의 경우 재단이 주도적으로 네트워크 조직을 결성한 사례라면 ‘국제역사적기념공간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에 대한 참여는 기존에 결성된 네트워크조직에 가입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제역사적기념공간연합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했던 경험을 가진 기념관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1999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방글라데시, 미국, 영국 등 8개국 9개의 기념관이 공동으로 설립했다. 2013년 현재 국제역사적기념공간연합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박물관, 체코의 테레진 유대인 학살 추모관, 칠레의 실종자회, 러시아의 구랄그 박물관, 캄보디아의 투슬랭 기념관 등 30여개 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한 국제적 네트워크 단체로 성장했으며 본부는 뉴욕에 있다.

재단은 2008년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국제역사적기념공간연합 지역회의에 처음 참여한 이래 2009년 광주아시아포럼 행사 중 아시아지역회의를 개최했으며 2010년 방글라데시 지역회의에 참가했다. 2011년에는 광주아시아포럼 특별행사로 개최된 기념공간 워크숍에 뉴욕 본부 실무자가 참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교류과정을 거쳐 재단은 2011년 8월 정식 가입함으로써 한국 최초로 국제역사적기념공간연합의 회원단체가 되었다.

국제 네트워크 단체에 참여단체로 가입하는 형태의 재단의 국제 교류 활동은 국제역사적기념공간연합 이외에도 피스잼(Peace Jam)<sup>4)</sup>,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활

3) 2013년 말 기준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에는 SUARM(말레이시아), ODHIKAR(방글라데시), IMPARSIAL(인도네시아), IDSPS(인도네시아), Forum Asia(태국), 참여연대(대한민국), 5·18기념재단(대한민국)이 참여하고 있다.

4) 피스잼(Peace Jam)은 1996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창립된 국제NGO기구로 청소년 국제 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피스잼 재단에는 아웅산 수지, 호세 라모르 오르타 등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7년

동(East Asia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Network)<sup>5)</sup> 등이 있다. 특히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는 2012년 광주아시아포럼에서 대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민주, 인권, 평화 기념사업 단체들과 공동MOU를 체결하여 인재 공동육성 등 지속적인 공동사업을 통해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재단이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광주아시아포럼은 재단의 대표적인 국제 네트워크 사업으로 독자성을 갖고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와 민선 5기의 시정 방향으로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2011년부터 5·18기념 주간에 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면서 광주아시아포럼과 동시에 개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비슷한 성격의 국제 행사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에 따라 2013년의 행사는 재단의 주관 하에 인권도시포럼과 광주아시아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공동 개최에 따른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독자성을 갖는 사업의 추진이 타당하다는 평가에 따라 2014년 광주아시아 포럼은 인권도시포럼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재단의 국제 네트워크 사업은 국제 교류연대 사업의 성공사례로서 5·18의 세계화에 대한 기여는 물론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Asia) 및 동아시아민주인권평화네트워크(East Asia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Network) 결성의 토대가 되었다. 국제 네트워크 사업의 연도별 개최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국제 네트워크 사업의 연도별 개최 현황

일 자	행사명	참가인원	내 용
1999. 5.16~20	동아시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단체 초청 연대 모임	7개국 11명	유족회 주관, 토론회 및 추모제, 전야제 참석
2000. 5.16~18	아시아 민주희생자 가족 연대 준비 모임	8개국 32명	국가폭력 실종자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초안의 집행 촉구 성명서 채택
2000. 5.18~22	제4회 동아시아 평화인권 광주대회	3개국 200명	주제 : 동아시아 평화인권선언
2001. 5.14~18	아시아 민주희생자연대 네트워크 행사	4개국 7명	유족회, 인권지기, 국제교류센터, 재단 공동주관, 희생자 네트워크 회의/증언
2002. 5.15~21	아시아 민주희생자가족 네트워크	3개국 7명	

노벨 평화상 협회에서 이들의 평화 프로그램을 공식 인증하였다. 창립 이후 전 세계 60만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으며, 10개국에서 매년 피스잰 청년 국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피스잰 운동은 청소년 스스로 세계 문제에 주목하여 불 부족, 인종 차별, 빈곤, 질병, 무기 사업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청소년의 멘토로 참여하여 자신들이 지켜 온 정신적 가치들을 전해 준다. 2009년 한국에서도 ‘글로벌 평화 리더’라는 이름으로 피스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재단에서는 ‘5·18 피스잰 청소년 평화대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0년 광주아시아포럼 행사 및 피스잰 청소년 평화대사 교육을 위해 피스잰 본부관계자를 초청하였다. 피스잰은 재단에 피스잰 동아시아 지역본부 역할을 요청하였고 실무협회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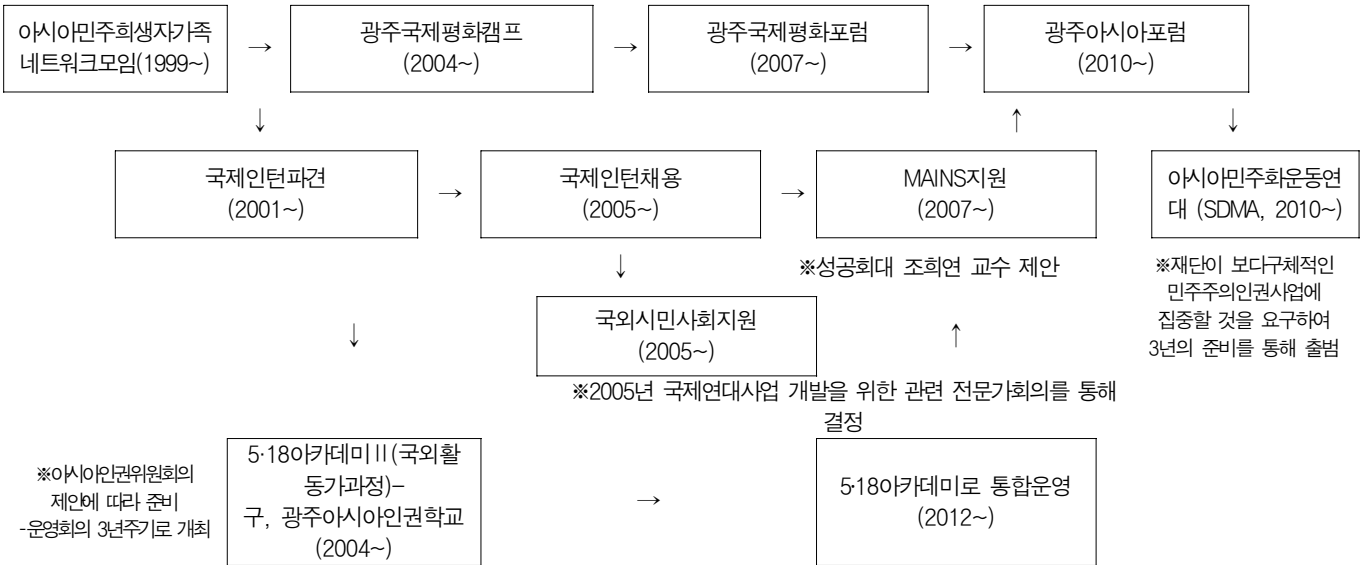
5)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는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기념단체 공동 교류협정 서명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과 항구적인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재단은 2012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일본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오키나와평화기념자료관, 대만의 2·28기념관, 국가인권기념관 준비사무소(녹도·징메이 기념관), 한국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주 4·3평화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노근리국제평화재단, 5·18기념재단이 참여하고 있다.

2003. 5.15~21	아시아 민주희생자가족 광주 초청행사	5개국 8명	
2004. 5.10~18	광주국제평화캠프	15개국 250명	아시아인권위원회 주관 '아시아인권 학교'
2005. 2. 23~25	아시아문화심포지엄(문화관 광부 보조) 장소 : 5.18기념문화관	12개국 300명	주제 : 세계화시대, 아시아를 다시 생각한다 : 근대성과 삶의 양식
2005. 5.14~18	광주국제평화캠프 장소 : 5.18기념문화관	10개국 100명	주제 : 전쟁·국가폭력·개발과 인권
2006. 5.15~18	광주국제평화캠프 장소 : 5.18기념문화관	15개국 120명	주제 : 아시아의 분쟁과 NGO의 평화 만들기
2006. 12. 7~9	1회 아시아인권포럼(문화관 광부 보조) 장소 : 5.18기념문화관	14개국 200명	주제 : 차이와 인권
2007. 5.15~18	광주국제평화포럼·동아시아인권포럼 장소 : 5.18기념문화관	19개국 135명	동아시아인권포럼, 아시아민주화운동 광주네트워크 회의
2007. 10. 26~27	2회 아시아인권포럼(문화관 광부 보조) 장소 : 김대중 컨벤션 센터	14개국 200명	주제 : 아시아의 민주화
2008. 5.15~18	광주국제평화포럼 장소 : 5.18기념문화관	21개국 188명	아시아평화권 국제워크숍, 지자체조례 워크숍, 주거복지 워크숍 등
2009. 5.15~18	광주국제평화포럼 장소 : 김대중 컨벤션 센터	25개국 300명	주제 : 함께하는 인권, 함께하는 민주주의
2010. 5.17~23	광주아시아포럼 장소 : 김대중 컨벤션 센터	25개국 400명	주제 : 아시아의 어제, 오늘, 미래
2011. 5.15~17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광주아시아포럼 장소 : 김대중 컨벤션 센터	30개국 500명	주제 : 도시로부터 시작하는 지구적 인권실현
2012. 5.15~17	광주아시아포럼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25개국 300명	주제 : 정의로운 변화를 향하여
2013. 5.15~17	세계인권도시포럼·광주아시아포럼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40개국 528명	주제 :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권 도시: 인권도시를 위한 이행지침들

			
2007년 광주국제평화포럼·동아시아인권포럼	2008년 광주국제평화포럼	2009년 광주국제평화포럼	2010년 광주아시아포럼



<그림 7> 포스터로 보는 국제 네트워크 사업



<그림 8> 그림으로 보는 국제 연대사업의 변화

(2) 5·18인재육성 사업

① 5·18아카데미<sup>6)</sup>

6) 2004년 처음 실시된 광주아시아인권학교는 2012년 팀내 단위사업 조정을 통해 해외활동가관련 교육은 5·18아카데미2, 국내 활동가 대상 교육은 5·18아카데미1으로 사업 명칭을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재단은 민주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국내·외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외 시민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인 5·18아카데미2는 2004년 개최된 광주아시아인권학교로부터 시작되었다. 광주아시아인권학교는 아시아지역의 인권·평화단체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를 선발하여 6주 동안 한국의 인권·평화·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에 기여하는 인재로 양성하고자 추진되었다.

광주아시아인권학교의 교육 내용은 한국의 역사와 5·18민중항쟁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노력을 소개하고 민주화 현장과 단체를 방문하는 과정으로 구성함으로써 이론학습과 현장학습을 병행했다. 기존의 학문·이론 중심의 강의에서 벗어나 폴크스쿨의 개념을 도입하여 토론과 워크숍을 병행하는 대안적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교육 참가자들은 소그룹 활동을 통해 조별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공동 발표하게 함으로서 참가자들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했다. 참가자들이 자국의 인권 상황과 본인들의 활동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참가자들이 각국의 인권 상황을 공유하고 교류와 연대의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아시아인권학교 개최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5> 5·18아카데미2(舊광주아시아인권학교)개최 현황

연도	장소	참가 인원(명)			국가수
		여	남	계	
2004년 / 05년 1월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6	13	19	14개국
2005년 11월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11	11	22	15개국
2006년 9월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10	10	20	13개국
2007년 9월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11	12	23	12개국
2008년 8월	조선대학교	10	13	23	12개국
2009년 9월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	11	9	20	13개국
2010년 8월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	11	9	20	14개국
2011년 8월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	11	11	22	16개국
2012년 8월	서울/광주(전남대학교)	9	11	20	14개국
2013년 8월	서울/광주(전남대학교)	5	15	20	17개국
계		95	114	209	26개국

2007년 개최된 광주아시아인권학교는 참가자들의 수준과 경험을 고려하여 강의 수준을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과정을 초급 실무자 과정, 중급 실무자 과정, 지도자 과정의 3단계로 구분하고, 공통과정과 함께 각 과정별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배치해 각 과정별 강의를 실시했다. 수준별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의 욕구



(needs)에 맞는 단계별 특화교육을 실시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2007년 교육과정에 26개국에서 178명이 응모하였으며, 남녀 성비, 국가별 안배, 광주인권상 수상자 소속단체 교류활성화, 아시아민주화운동 네트워크 참여단체 추천 여부 등 다양한 선발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3개국 24명을 선발했으나 1명이 사정상 교육에 불참하여 총 12개국 23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2007년 새롭게 시도된 광주아시아 인권학교의 수준별 교육과정 구성안은 아래 <표 26>와 같다.

<표 26> 2007년 광주아시아인권학교 교육 프로그램 구성안

구분	공통 주제	특성화 주제	기대 목표
지도자연수과정	·한국민주주의 운동사	집필활동, 특강참가	안식시간 제공, 개인기록 정리
중급실무자과정	·5·18민주화운동관련 기념사업 현황	기념사업 운영이론	기념사업추진의 이해
초급실무자과정	·과거청산운동	실무기술 학습	실무활동가 양성

2012년 재단은 광주아시아인권학교에 대한 평가와 팀간 사업 조정을 통해 재단이 진행하는 5·18인재육성 사업을 위한 교육과정의 명칭을 ‘5·18아카데미’로 통일했다. 재단은 사업평가를 통해 그간 추진해 왔던 ‘광주아시아인권학교, 5·18아카데미, 교사연수, 임원연수, 기념사업단체 활동가 전문교육,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문화예술단체 활동가 교육’ 등 활동가 대상 교육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국내 활동가 교육과정과 국제 활동가 교육과정을 5·18아카데미 1과 2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념사업전문가 과정인 5·18아카데미 3을 신설했다. 새롭게 신설한 기념사업전문가 과정은 민주화 기념사업 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설계되었다. 2012년 5·18아카데미2는 서울연수와 광주연수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 서울연수는 성공회대학교 아시아시민사회석사과정(MAINS)의 여름학교 강좌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광주연수는 5·18민주화운동, 국가폭력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의제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2012년 새롭게 조정된 재단 교육 사업의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표 27> 5·18아카데미 교육 내용(2012년)

○ 아카데미 1 : 국내 활동가과정(舊 5·18아카데미)

일 자	내 용
8월 8일(수)	11:00 전체 오리엔테이션
	13:00 5·18과 민주주의
	15:30 문화사업 운영 및 전략

	19:00 참가자 프레젠테이션
8월 9일(목)	09:30 기록물 관리 운영
	13:00 후쿠시마의 비극 : 핵 발전과 우리의 삶
	16:00 참가자 프레젠테이션
8월 10일(금)	09:30 NGO 마케팅 전략
	12:00 점심식사 후 답사
	18:00 5·18아카데미 연대의 밤
8월 11일(토)	국내 일정 종료
8월 20~25일	국외연수 : 중국 운남성(공정여행)

○ 아카데미 2 : 국제 활동가과정(영어강좌, 舊 광주아시아인권학교)

일 자	내 용	비고
7월 29일(일)	한국도착	
7월 30일(월)	10:00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다큐멘터리 5·18시청	숙소(피정의 집)
	14:00 참여연대 방문	
	15:00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	
	19:00 명동성당 견학	
7월 31일(화)	10:00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견학, 서울시장 방문	
	14: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방문	
	15:30 특강 : 한반도 평화구축의 길	
8월 1일(수)	10:00 아시아와 지구화 및 위기	
	11:40 아시아 대안적 발전과 시민사회	
	14:00 범지구적 반지구화 운동과 적녹보 패러다임	
	16:10 강의	
8월 2일(목)	18:00 성공회대학교 여름학교 참가자 교류	
	09:30 아시아, 지구화 그리고 젠더	
	11:40 3·11 참사 그리고 민간단체와 일본시민들의 반응	
	13:40 일본 핵수출 정책에 관한 의문점	
	14:50 우라늄 채굴과 현지인의 삶	
	17:30 종합 토론	
8월 3일(금)	18:00 저녁식사 및 영화관람 : "두 개의 문"	
	09:30 토론 : 3·11 이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재고	
	10:45 아시아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15:00 판문점 견학	
8월 4일(토)	18:00 성공회대학교 여름학교 송별회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0:00 서울→충북영동	
8월 5일(일)	13:00 노근리 평화공원 방문→광주(19:00 도착)	노근리국제평화재단
	휴일 개인정비, 자유시간	
8월 6일(월)	09:30 왜 아시아 인가?	
	14:00 한국 현대사	
	16:30 참가자 프레젠테이션 1	
8월 7일(화)	10:00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13:30 5·18기념재단 설립과정과 기념사업	
	16:00 관련 영화시청	
	18:30 문화행사 참가	
8월 8일(수)	09:30 5·18민중항쟁과 여성	

	14:00 실무워크숍 : 기념사업 기획과 운영	
	17:00 참가자 프레젠테이션 2	
8월 9일(목)	09:30 후쿠시마의 비극 : 핵 발전과 우리의 삶	
	14:00 개발과 인권의 통합	
	17:00 참가자 프레젠테이션 3	
8월 10일(금)	10:00 여수엑스포 관람, 문화·사적지 견학, 연대의 밤	
	18:00 연대의 밤	
8월 11~12일(토 일)	홈스테이, 자유시간	
8월 13일(월)	10:00 5·18 그리고 예술과 문화(연희예술 중심)	
	13:30 아시아에서 인권에 대한 도전	
	16:00 실무워크숍 : 기념사업 기획과 운영	
8월 14일(화)	10:00 광주NGO센터 : 지역의 시민운동과 인권정책	
	13:30 광주환경운동연합 : 풀뿌리 환경운동의 실제사례	
	16:00 지역 문화체험(양동시장 방문)	
8월 15일(수)	09:30 이주민 희생자 치유사업	법률지원 및 지역시민사회 참여
	인권과 권익옹호 사업사례	초급활동가 중급활동가
	16:00 참가자 프레젠테이션 4	
8월 16일(목)	10:00 그룹별 과제 발표 및 평가	
	16:00 수료식	
8월 17일(금)	참가자 귀국	

○ 아카데미 3 : 기념사업 전문가과정(신설, 민주화기념사업단체 활동가대상)

일 자	내 용
8월 8일(수)	전체 오리엔테이션
	5·18과 민주주의/ 문화사업 운영 및 전략
	기념사업의 문화적 접근
8월 9일(목)	기록물 관리 운영 / 기념시설의 운영전략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사례/ 기념사업 워크숍
8월 10일(금)	5·18기념행사의 실제
	5·18 아카데미 연대의 밤
8월 11일(토)	국내 일정 종료
8월 20일(월)	인천공항→대만
8월 21일(화)	2.28기념관, 자유공원
8월 22일(수)	대만→오키나와
8월 23일(목)	오키나와 평화기념관, 히메유리 기념관, 사키마 미술관
8월 24일(금)	자유일정
8월 25일(토)	오키나와→대만→인천공항

② 기타 교육 사업

5·18인재육성 사업을 위한 교육사업에 있어 5·18아카데미 사업이외의 교육을 통한 재단의 국제 교류연대 사업은 ‘해외동포 자녀 초청 민주주의 답사 프로그램’이 있다. 2003년 처음 실시된 해외동포 자녀 초청 민주주의 답사 프로그램은 2002년 해외동포 2·3세 한국 민주주의 현장답사 프로그램 개최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라 해외동포 자녀

를 초청해 민주주의 성지와 현장을 답사하는 사업으로 기획되었다. 선발 대상은 초청 대상 한인단체 및 주재 대사관을 통해 공고하고 지원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선발했다. 심사를 통해 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에는 항공료의 50%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의 체제비 일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일본, 유럽, 미국의 해외동포 자녀를 초청했다. 답사 프로그램은 판문점, 서대문구치소, 명동성당, 국립5·18묘지 등 한국의 역사적 현장을 답사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유가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민주화관련 단체를 방문하여 한국의 민주화를 직접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재단은 일회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아시아비정부기구학 석사과정(MAINS)지원을 통해 아시아지역 시민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MAINS(Master of Arts in Inter-Asia NGO Studies)는 아시아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상호간의 경험을 나누고 배움으로서 아시아 시민사회 운동과 이론을 자신의 관점에서 성찰하는 교육과정으로 2007년 개설되었으며 소통과 상호 배움을 핵심적인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은 2006년 성공회대학교와 민주, 인권 사업의 연구와 시행을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2007년 개설된 MAINS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3) 5·18활동가교류 사업

#### ① 국제인턴파견 사업

재단은 우수 자원활동가들을 선발하여 재단과 교류연대하고 있는 국제 단체들에 인턴을 파견하고, 매년 2명의 국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인턴으로 선발함으로써 일상적인 교류연대를 시도하고 있다. 상시적인 5·18활동가교류 사업의 출발이 되었던 국제인턴 교환 프로그램은 2001년 재단의 신규 사업으로 국제 사업(안)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1년 신규 사업으로 채택된 국제 사업에 따르면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적인 국제 사업으로 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외 인권평화단체들과의 인적 조직적 교류로 연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국제 감각을 갖춘 인력 발굴 및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권과 평화 통일 운동의 메카로서 광주의 위상과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재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국제 인턴 교환 프로그램이 새롭게 기획되었다.

2001년 제안된 국제 인턴 교환 프로그램은 내국인의 해외 파견과 해외 인턴 고용의 두 가지 사업이었다. 내국인 해외 파견 사업의 경우 자원봉사자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1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왕복 항공료와 현지 체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2001년의 경우 내국인 해외 파견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외 인턴 고용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는데, 국내외 인권 단체의 추천을 받아 캄보디아에 6개월 과정으로 국제 인턴이 최초로 파견되었다. 재단은 이후 재단과 연대하고 있는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의 해외동포단체 및 민주인권단체에 10개월 가량의 프로그램으로 인턴을 파견하고 있다. 연도별 국제인턴의 파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8> 연도별 국제 인턴 파견 현황

연도	파견 인원			파견 지역	비고
	아시아지역	미국	계		
2001	1	-	1	캄보디아	남 1
2002	3	-	3	캄보디아, 태국, AHRC(홍콩)	여 3
2003	4	6	10	캄보디아, 스리랑카, 일본, 미국	남 7, 여 3
2004	4	7	11	캄보디아, 인도, 스리랑카, 미국	남 7, 여 4
2005	3	9	12	스리랑카, AHRC,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국	남 3, 여 9
2006	4	8	11	네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국	남 5, 여 6
2007	5	8	13	네팔,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남 6, 여 7
2008	5	6	11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미국	남 4, 여 7
2009	6	6	12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국	남 5, 여 7
2010	5(독일1)	4	9	방글라데시, 인니, 라오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국, 독일	남 2, 여 7
2011	6	2	8	스리랑카, AHRC, 말레이시아, 일본,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중국, 미국	남 2, 여 6
2012	5	1	6	필리핀, 동티모르, 캄보디아, 스리랑카, 홍콩, 일본, 대만, 미국	남 3, 여 3
2013	5	1	6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홍콩, 일본, 대만, 미국	남 3, 여 3
계	56	58	113	아시아 14개국, 미국 4개 단체(17개국 41개 단체)	남 47, 여 65

<표 29> 지역별 국제 인턴 파견 현황 및 명단

지역	파견자(파견 년도, 단체)	
아시아	네팔	손광수(06, NHRC), 강동훈(07, INSEC)
	대만	이찬섭(09, 2.28기념기금회), 전면숙(12, 2.28기념기금회), 정아현(12, 정메일인권기념관), 김지혜(13, 2.28기념기금회), 신성찬(13, 정메일인권기념관)
	라오스	이동엽(09, 주거복지연대), 김나래(10, 주거복지연대)
	말레이시아	최진호(05, SUARAM), 이슬기(06, Empower), 김요원(07, Empower), 김소진(09, Empower), 윤교은(10, Empower), 송민영(11, NIE)
	방글라데시	이희섭(08, Shelter for the poor), 이지민(10, LWM), 이종민(11, LWM), 박일우(13, LWM)
	스리랑카	스리랑카 실종자회 : 문정호, 이도권(03), 김민우(04), 김지영, 김지연(05) 문영선(11, SETIK), 여인철(12, SETIK), 이나래(13, SETIK)
	아시아인권위원회(홍콩)	정민(02) * 스리랑카→AHRC : 문정호, 이도권, 김지연, 문영선(11), 여인철(12), 이나래(13)
	인도	김현, 임현호(04, Somojibi 병원), 전철민(07, PVCHR), 강태욱(08, PVCHR), 노경복(09, PVCHR), 박일우(13, PVCHR)
	인도네시아	황지연(07, UPC), 양서영(08, IKOHI), 문지향(09, Imparsal), 조은빈(10, UPC, KontraS)

	일본	최영옥(03, 훗카이도시민단체), 송민영(11, 히로시마평화재단), 전명숙(12, 히로시마평화재단), 정아현(12, 오키나와평화박물관), 김지혜(13, 히로시마평화재단), 신성찬(13, 오키나와평화박물관)
	캄보디아	박상범(01, LCDI), 김승희(02, CWCC), 문지영(02, YFP) 탁용찬(03, KYA), 정직한(04, KYA), 박옥영(10, KYA), 이진나(11, KYA) 문세혁(12, KYA)
	태국	신승환(06, ANFRENL), 양초희(07, 포럼아시아) 나미수(08, PPDD), 김주현(09, PEF)
	필리핀	조현화(05, 아시아NGO센터), 오미옥(06, PhiliCos) 기소영(09, Co-multiversity), 조승희(11, Bantayog Memorial Center) 김기범(12), 홍호선(13), 이상 반타옥민주화운동기념관, 발라이제활센터)
	중국	이해지(11, 난징기념관)
미 국	LA 민족학교	정린, 최주식(03), 김상우, 김보준(04), 고태영, 송유미(05) 김혜진, 김호산(06), 최하나, 임광준(07), 박정훈, 정진오(08) 국지혜, 이선진(09), 김예슬(10), 위현(11)
	LA 미주한인봉사단체협의회	유연숙(03), 김이연(05), 양선미(06), 박지원(09), 이새롬(10), 최이삭(11)
	시카고 마당집	안정애(03), 박현제(04), 정창훈(05), 심진명, 박재형(06) 류재춘, 박환모(07)
	뉴욕 민권센터(구 청년학교)	정기중, 홍우영(03), 최진아(04), 전고운, 배정선, 윤진희(05) 서유정, 김현미(06), 김승리, 김하나(07), 기진이, 조선영(08) 김홍곤(09), 정상영, 최은정(10), 최신애(12), 백지원(13)
	뉴욕 무지개의 집	김백은, 이슬아, 이리나(04), 김세미(06), 최인경, 양인화(07) 이은경, 김지은(08), 김슬기, 박나래(09)

2001년 1명으로 시작한 국제 인턴 파견은 2002년 3명, 2003년 10명으로 인턴 숫자와 파견 대상 국가를 점차 늘려갔는데, 인턴쉽으로 파견될 인턴은 5·18민중항쟁을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서 재단 자원 활동가 중에서 선발했다. 특히 2002년 아시아 NGO인턴쉽 프로그램 계획에 따르면 인턴쉽 프로그램에 선발된 인턴은 국내 복귀 후 재단 국제 사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도록 명기함으로서 지속적인 교류 연대는 물론 재단 국제 사업 분야의 역량 확충을 도모했다. 선발 대상의 경우 2003년부터 재단의 자원 활동가에서 국내 사회단체의 활동가로 범위를 확대했다.

국제 인턴의 파견에 앞서 5·18에 대한 이해는 물론 아시아 인권에 기본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활동이 종료되면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래의 국제 인턴 활동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단의 인턴 활동은 국내외 인권단체들과의 교류와 지원은 물론 국제 감각을 갖춘 인권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 훈련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표 30> 국제 인턴 파견 교육 일정(2006) 및 활동 보고서(2006,2008)

일 자	교육 시간		비 고
	오전(10:00~12:00)	오후(13:00~17:00)	
6. 26(월)	오리엔테이션	①5.18기념재단의 이해(사무처장) ②전체현황과 국제사업 이해	사무처장 국제협력팀
6. 27(화)	실무교육(영문레터작성요령 등)	5.18민중항쟁과 현대사 -영상 및 프레젠테이션	국제협력팀
6. 28(수)	실무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 -교육사업팀 이은진 대리	아시아의 인권현황 이해 -아시아인권광주포럼 발제문 강독	교육사업팀 국제협력팀
6. 29(목)	자원활동가 수련회 참가(~30)		

6. 30(금)			
7. 3(월)	아시아의 인권현황 이해 -광주국제평화캠프 발제문 강독	①실무교육(행정문서 취급요령) ②교육종합평가(필답고사)	국제협력팀
7. 4(화)	①인턴활동의 기본자세 -윤한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 ②파견배치 최종발표	①선배활동가와 만남 ②보험가입서류 작성	외부강사 국제협력팀
7. 5(수)	체력단련(무등산 산행)	교육종료	국제협력팀

파견 전, 열심히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했어요!  
(2006.6.26 - 2006. 7. 5)



“잘 다녀오겠습니다!!”  
(2006.6.29-30 자원활동가 수련회에서)



### 2006년 5·18기념재단 국제인턴 활동 보고서: 말레이시아7)

활동가 : 이○○

활동기관 : Pusat Janadaya(Empower)

활동기간 : 2006년 7월 28일 ~ 2007년 4월 20일

#### Part 3. 인턴활동 내용

PJD에서의 9개월간의 인턴활동 간 맡겨진 주요 업무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PJD 프로젝트 준비 및 진행 보조
2. PJD 프로젝트 visual documentation 담당
3. PJD 홍보 리플렛 제작 담당
4. 말레이시아 각종 NGO 활동 참여

PJD의 프로젝트는 사업대상이 청소년으로 집중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방학기간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계획이 수립되면 그 때부터 커뮤니티를 방문하여 참가자를 만나고 프로그램 장소를 섭외하는 등의 필드트립에 동행하고 프로그램의 세션 진행 이외의 모든 부분(참가자 연락망 만들기, 버스 예약, 물품 대여 예약, 보험가입 등등) 준비에 참여했다.

기관이 위치한 수도권 쿠알라룸푸르 지역은 영어가 비교적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곳이라 기관업무에 큰 장애가 없었으나 프로젝트를 위해 커뮤니티와 접촉할 때는 현지언어인 말레이어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커뮤니티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로 세션 내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또 이런 기회를 통해 5·18민중항쟁과 재단을 더 넓게 알릴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참여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몇몇 NGO의 경우 'NGO방문'을 계획하여, 활동을 마무리하는 2007년 3월과 4월에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여 실무자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기도 했다.

#### Part 4. 제안

여기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의 인턴활동 가능성을 제시하고 국제인턴파견프로그램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국제인턴파견프로그램이 앞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더 많은 인턴을 파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 그리고 다양한 기관으로 더욱 많은 인턴일 파견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개인의 역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지파견인턴활동 후에 공유할 수 있는 더 많은 채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지 활동을 알리는 연재 글을 쓴다던지 파견국의 상황을 알리고 그곳 시민사회활동을 국내 시민사회활동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소식지를 쓴다던지 하는 등의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인턴파견국이나 파견기관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면 국제인턴으로 재단에 파견되어 일하는 아시아의 활동가들처럼 재단에서 현지로 파견되는 인턴들이 10개월 활동의 프로포절을 제출하는 등 활동의 성격이 보다 뚜렷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 2008년 5·18기념재단 국제인턴 활동 보고서: 미국 LA

활동가 : 정○○

활동기관 : 민족학교

활동기간 : 2008년 8월 ~ 2009년 8월

#### 3. 파견단체에 대한 설명

민족학교(Korean Resource Center)는 전국 재미동포사회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의 창립단체이다. ...1983년 2월 5일 로스앤젤레스 1140 Crenshaw에서 재미동포들의 민족혼과 민족의식을 일깨워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심는다.", "올바른 시민정신을 키운다", "우리겨레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킨다."를 취지로 설립하였다. 로스앤젤레스 민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5.18 민중항쟁 최후의 수배자인 윤한봉님, 창립이사 홍기완님과 이길주님, 최진환 박사(초대 이사장), 전진호 선생님(초대 교장)께서 큰 역할을 해주셨고, 초기 민족학교는 역사, 사상, 종교, 문학, 탈춤, 태권도 교실들을 열었다. 민족학교는 설립에서 현재까지 연방정부로부터 영구면세 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 [501 C3]입니다. 나성 민족학교는 미국 북가주, 산호제,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캐나다 토론토와 호주 시드니 지역에서도 유사한 민족교육과 문화보급을 하는 마당집이 설립되는데 보조를 하였으며, 1994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 설립에 당시 이길주 민족학교 이사장이 초대 이사장으로 역임 하였다. 85년에 1401 W. 22nd

7) 수록된 인턴활동 보고서는 전체 보고서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아시아지역과 미주지역의 활동 보고서를 인용했다.



St.에서 다시 89년에 2530 S. Crenshaw Blvd.로 이전하였으며 92년부터 건물구입 한돌쌓기 모금운동을 벌인 결과 98년에 현재 900 Crenshaw Blvd에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많은 동포분들의 금전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봉사를 통하여 현재의 보금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 5. 나오며

해외인턴으로 활동했던 짧은 시간동안 SCHIP의 예산안 통과, 동성결혼금지 발의안 투표 등 많은 것을 경험했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미국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음에 감동을 느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라면 드림법안의 통과를 못 본 것이라 하겠다. 드림법안이란 서류미비학생 사면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류미비학생도 영주권을 획득하여 등록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족학교에서 서류미비학생들의 대학상담을 받았던 한 고등학생은 지원한 대학 중 한 곳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지만, 서류미비자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장학금을 받지 못 해 그 대학 진학이 불가능해 진 경우를 보았다. 미주 한인 5명 중 1명이 서류 미비자인 현실 속에서,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을 마음속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것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드림법안이다. 민족학교는 2009년 여름 이민개혁으로 가족이민 확대 및 서류적체 해소, 서류미비자들의 영주권 발급 및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합법 신분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한다고 한다. 이러한 SCHIP캠페인 이후 드림법안 캠페인에도 동참하여 드림법안의 통과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느끼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 하지만 민족학교와 같이 이러한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기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 ② 국제인턴채용 사업

국제인턴채용은 2001년 사업 제안 당시 국내외 인권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아시아 지역 NGO활동가가 재단에 근무하면서 한국과 5·18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제안되었는데 2005년에 이르러서야 처음 인턴채용이 이뤄졌다. 2005년 재단은 아시아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10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하여 5·18민주화운동과 기념사업에 대한 학습을 실시했다. 재단은 인턴채용을 통해 육성된 자원들이 아시아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성장하면서 5월 정신의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했다. 2005년의 경우 국제인턴채용 사업이 처음이었던 관계로 대상자 선정, 입국비자 발급 등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인턴들이 재단의 영문 웹사이트 운영 및 블로그 사이트 제작 등에 참여하면서 재단의 국제사업 진행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재단은 2007년 국제인턴채용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국제인턴의 채용을 남, 여 각 1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선발인원을 줄이되 인턴 활동가를 정규 계약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인턴채용의 질적 변화를 도모한 것이다. 채용인원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턴을 선발하여 재단의 일부 국제

업무를 공식적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서 국제연대활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민간단체에서 아시아 지역 활동가를 정규 계약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로서 국제연대활동을 하는 국내단체들의 모범적인 교류연대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국제인턴으로 채용된 인턴은 재단에 근무하면서 5월정신 및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과 기념사업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음으로서 향후 자국에서 인권평화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상호 교류연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국제인턴채용 사업에 참여했던 활동가 중 4명이 재단이 후원하는 성공회대 MAINS프로그램에 입학함으로써 5·18인재육성을 위한 재단의 다양한 시도가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적인 교류연대의 기반이 되고 있는 국제인턴채용의 연도별 현황과 명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 연도별 국제 인턴 채용 현황

연도	채용인원			국가(단체)
	남	여	계	
2005	3	2	5	네팔(Advocacy Forum), 중국(베이징대 인권연구소), 인도네시아(KontraS, IKOHI), 필리핀(Co-multiversity)
2006	2	2	4	네팔(NHRC), 말레이시아(ANFREL), 키르기스스탄(HRRC), 필리핀(PhiliCos)
2007	1	1	2	말레이시아(Empower), 몽골(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2008	1	1	2	인도네시아(SNB), 캄보디아(Khmer Youth Association)
2009	1	1	2	네팔(INSEC), 영국(Christian Aid)
2010	1	1	2	동티모르(Peace and Conflict Studies Center), 방글라데시(Liberation War Museum)
2011	1	1	2	말레이시아(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Integrity), 태국(Truth for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Thailand)
2012	1	1	2	네팔(Hoste Hainse), 일본(Kyoto Museum for World Peace)
2013	1	1	2	대만(National Chengchi University), 버마(Foundation for Education and Development)
계	12	11	23명	15개국 23개 단체

<표 32> 역대 국제인턴(채용) 명단

연도	이름	국적	소속 및 단체
2005	Mr. Ram Prasad Sharma	Nepal	N/A
	Ms. Xiaolin Pan	China	N/A
	Ms. Agnes Theodora Gurning	Indonesia	Indonesian Community for Democracy
	Mr. Mustawalad	Indonesia	Indonesian Fair Trade Producers Association

	Mr. Pedro E. Rahon	Philippines	BlasF.Ople Policy Center and Training Institute
2006	Mr. Madhav Prasad Gautam	Nepal	Muslim Aid, UK
	Mr. Amin Shah Iskandar	Malaysia	The Malaysian Insider
	Ms. Nadira Mirzalieva	Kyrgyzstan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Ms. Marilou M. Ibanez	Philippines	
2007	Mr. Tumenbayar Chuluunbaatar	Mongolia	“Mongolyn Alt”(MAK)company
	Ms. Thency Gunasekaran	Malaysia	Freelance Researcher&Translator
2008	Ms. Gregoria Barbarica Kristina Ritasari	Indonesia	PT Mitra Konservasi Indonesia (CICO Resort)
	Mr. Thet Din	Cambodia	Cam-Ed Business School
2009	Mr. Subas Adhikari	Nepal	St.CloudState University
	Ms. Chloe Simons	UK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 NGO
2010	Mr. Santiago Ximense Vaz	Timor Leste	Forum Direitu Ekonómiku. Sosiál and Kulturál (Forum DESK) East Timor
	Ms. Maria Hussain	Bangladesh	National Human Rigths Commission, Bangladesh
2011	Mr. Alfian Zohri	Malaysia	
	Ms. Orpan Pratomlek	Thailand	
2012	Mr. Deepak Prasad Bashyal	Nepal	Hoste Hainse
	Ms. Mihoko Yamamoto	Japan	Kyoto Museum of World Peace
2013	Mr. Kee Do Wo	Burma	Foundation for Education and Development
	Ms. Szu-Yu Yen	Taiwan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 (3) 국외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

국외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은 아시아지역에 소재한 시민사회단체를 선정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와 ‘광주인권상’시상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을 위해 권위주의적 제도와 국가폭력에 저항하며 투쟁하는 인사와 단체를 지원 격려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해외동포 단체의 5월 운동에 대한 지원 사업도 국외 시민사회단체협력사업의 한 형태로 독일에서 개최되는 5월 민중제에 대한 지원과 미국의 한인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개했다.

국외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은 아시아 인권단체들에게 직접적인 예산 지원으로 개별단체들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서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인권재단으로서의 위상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재단은 네팔의 Advocacy Forum, 인도네시아 실종자협회(YPKP) 등에 단체 운영비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인권·시민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외단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실시했다. 지원 사업의 범위는 첫째,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인권과 관련된 학술, 출판, 교육, 연구사업, 둘째 아시아지역의 분쟁해소, 평화, 인권, 여성인권, 아동인권, 노동 등과 관련된 사업, 셋째,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인권관련 단체 데이

터 베이스 사업 등으로 아시아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했다. 재단은 2012년부터 국외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의 범주를 ‘과거사 청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실조사사업,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등으로 세분화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5월정신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모배분과 지정지원 방식을 통해 5월정신과 연계된 국제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5월정신을 국제화하기 위한 재단의 국외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33> 국외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 내역

연도	단체명	분야	프로젝트내용
2005~2007	People's Partner for Development and Democracy 필리핀 개발과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연합	난민교육	버마난민 아동교육
	Asia NGO Center(아시아 NGO 센터) 필리핀	교육지원	한국인권시민사회 활동가 교육프로그램 제공
	YPKP 인도네시아 실종자 유족회	인권	60년대 실종자에 대한 압매장지 발굴 및 진실규명 사업진행
	Advocacy Forum 네팔 인권법률지원 단체	인권	네팔 인권변호 활동
2007~2009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한국지부	민주화연대	민주주의 투쟁
	Association of Women for Action and Research 싱가포르 행동과 연구를 위한 여성협회	여성	싱가포르 여성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Asia Pacific 홍콩 세계기독교청년연합회	인권, 출판	인권활동가를 위한 교육 매뉴얼제작
	People's Partner for Development and Democracy 필리핀 개발과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연합	아동교육	버마국경을 따라 흩어져 생활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육 및 지역사회개발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양심수 특별대책위원회	인권	인권과 미래를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9~2011	Malaysia Youth and Students Democratic Movement 말레이시아 청년학생 민주주의 운동 연합	선거감시, 민주주의	말레이시아 선거감시를 통한 민주주의 교육
	EMPOWER 말레이시아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보호활동 단체	소수자 권리	사회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AIJ(Aliansi Jurnalis Independen) 인도네시아 독립언론인연합	시민사회단체 일반	언론인을 위한 인권조사 훈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Kontra SU(콘트라스 복수마트라 지부) 인도네시아 인권단체	민주주의 교육사업	고등학생 인권교육 워크숍 및 논술대회 개최
	PCRC(Pacific Concerns Resource Centre) 피지 자원보호 센터	국제적 캠페인	비무장지대 감시 및 인권 다큐멘터리 제작
	ODHIKAR 방글라데시 인권단체	인권지위 향상사업	고문피해 감시, 경찰권력 남용 감시운동
	PPM(Prayathna People's Movement) 스리랑카 프라야스나 시민운동 단체	분쟁지역 활동지원	여성과 아동의 대안사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Forum Asia 아시아인권 네트워크 단체 (태국 소재)	아시아시민사회지도자 네트워크(네트워킹)	아시아태평양양민네트워크 지원 및 워크숍 조직
	JANOSEBA 방글라데시 시민인권복지단체	인권평화활동 지원 (네트워크 단체)	수산업 종사자들의 인권보호 캠페인
	PEF(People's Empowerment) 태국 시민인권옹호 단체	인권평화활동 지원 (풀뿌리 단체)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
2010~2012	Maldives NGO Federation 몰디브비정부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일반	지역 시민사회단체 조직활동 지원
	Rehabilitation Action for Torture victim in Aceh(RATA) 인도네시아 아체고문피해생자 재활운동	민주주의교육사업	지역 시민사회 지도자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
	Acting for Women in Distressing Situations 라오스 여성인권운동	인권지위향상사업	인신매매 방지활동
	University College of Applied Sciences 팔레스타인 응용과학대 연구개발부	분쟁지역활동지역	분쟁지역의 긴급 아동 교육 활동
	Association for Human Development AHD 파키스탄 인권개발 협회	인권평화활동지원 (네트워크단체)	파키스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네트워크 조직
	Acid Survivors Foundation 파키스탄 염산화상 피해자 재단	인권평화활동지원 (풀뿌리단체)	고문 피해자(여성)를 위한 인권보호 활동
2011~2013	Cambodian Independent Teacher's Association 캄보디아 독립교사협회	시민사회단체일반	풀뿌리 조직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이스라엘 교육연구센터	시민사회단체일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팔레스타인 청년운동
	Action Work Nepal, 네팔인권운동	민주주의교육사업	인권과 민주주의 여성 교육 훈련
	National Health and Education Committee 태국 국립보건교육위원회	민주주의교육사업	버마난민노동자 교육훈련
	Inspire 인도네시아 인권운동	인권지위향상사업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활동
	Foundation for Education and Development 태국 교육개발재단	인권지위향상사업	버마난민노동자 경제적 지원향상을 위한 인권보호
	Centre for Social Policy Development 파키스탄사회정책개발연구소	분쟁지역활동지원	평화정의 비무장화를 위한 학생운동 재조직
	Wi'am Palestinian Conflict Resolution Center 팔레스타인 분쟁해결연구소(이스라엘)	분쟁지역활동지원	인권감시를 위한 인권교육
	Asia Against Child Trafficking, Inc. 필리핀 아시아아동인신매매퇴치운동	네트워크단체지원	남아시아 아동인신매매 희생자보호를 위한 네트워크지원
	Burma Lawyer's Council 버마변호사협회	풀뿌리단체지원	버마인권활동가 법률연수 사업

2012~2014	CP-UNION ORG 필리핀 ICT전문가조합	선거법, 선거감시사업	필리핀 선거참여 운동, 공정선거 감시
	Assembly of Social Mobilization 스리랑카 사회운동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東 스리랑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Centre for Organization Research & Education/ Human to Humane Transcultural Centre for Trauma and Torture 인도연구교육/트라우마와고문피해자지원기관	인권침해 피해자 고문, 트라우마 치유사업	마니푸르 고문피해자 직접지원 사업
	VISION 파키스탄 공중보건,인권운동기관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실조사사업	파키스탄 2개주 군 관련 인권유린사건 조사
	Center for the Defence of the Individual 이스라엘 법률지원센터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팔레스타인 양심수 법적지원
2013~2015	Alliance for Peace and Development 네팔 평화개발연합	사법감시사업	사법감시를 통한 이행기정의체제 강화
	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인도 인권보호포럼	인권침해 피해자 고문, 트라우마 치유사업	고문피해자 신체적,정신적 재활치료
	United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 파키스탄 농촌개발연합	선거법, 선거감시사업	파키스탄 Swabi지역 선거감시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 필리핀 아시아강제실종자대책연맹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아시아민주화운동 연구책자 제작
	Centre for Victims of Torture 네팔 고문희생자연구소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실조사사업	네팔 인권침해사태 진실조사 및 기록
Transparency International 스리랑카 국제투명성기구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부정부패 증인, 인권피해자 법적지원	

재단의 직접 지원을 통한 국외 시민사회단체협력 지원 사업 이외에도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인권단체와 민간단체에 헌옷이나 중고컴퓨터를 기증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인권운동을 지원함으로써 광주의 인도주의 정신을 전파하여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성지로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자 추진된 사업은 아래와 같다.

<표 34>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국외 시민사회단체 지원 내역

연도	후원 지자체	지원내역	비고
2001	광주광역시 북구청	사랑의 옷 보내기, 헌옷 스리랑카 5,000벌 지원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단체 기증
2002	광주광역시 북구청	사랑의 옷 보내기, 헌옷 캄보디아 5,000벌 지원	실업자 지원단체 일부 기증
2003	광주광역시 북구청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중고컴퓨터 스리랑카 10대, 캄보디아 10대, 필리핀 9대 기증	
2004	광주광역시 북구청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중고컴퓨터 스리랑카 20대, 인도 20대 기증	

재단은 국외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과는 별개로 해외동포 단체들에 대한 지원 협력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해외동포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5·18관련 학술행사에 대한 지원에서 5월 민중제에 대한 지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동포 자녀 초청 민주주의 답사 프로그램도 넓은 범주의 해외동포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재단 설립 이후 추진된 해외동포 단체 협력 지원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5> 해외동포 단체 협력 지원 내역

연도	평화포럼 초청	협력사업	비고
2000	-	미국 UCLA학술심포지엄(50,000천원)	광주광역시 보조사업

2001	-	독일 본 심포지움(70,000천원)	
2002	-	-	한국민주주의답사
2003	-	-	한국민주주의답사
2004	참가	-	한국민주주의답사, 미주인턴과건
2005	참가	독일 오월민중제 후원(5,000천원)	한국민주주의답사, 미주인턴과건
2006	참가	독일, 호주, 미국행사 후원(11,000천원)	한국민주주의답사, 미주인턴과건
2007	-	독일 오월민중제 공동행사(35,000천원)	미주인턴과건
2008	-	미국 LA민족학교 공동행사(35,000천원)	미주인턴과건
2009	참가	미국 시카고한인회오월기념식 예술인파견	윤진철 명창/ 총 211,000천원 지원
2010	참가	독일 오월민중제 30주년기념행사(20,000천원)	대표단 파견
2011	-	독일 오월민중제 31주년기념행사	대표단 파견
2012	-	미국 워싱턴DC 호남향우회 오월기념식 예술인파견	정현애, 김원중 등 강연자 및 예술인 파견
2013	-	-	

### 3) 국내 교류연대 사업

#### (1) 국내 시민사회단체 지원 협력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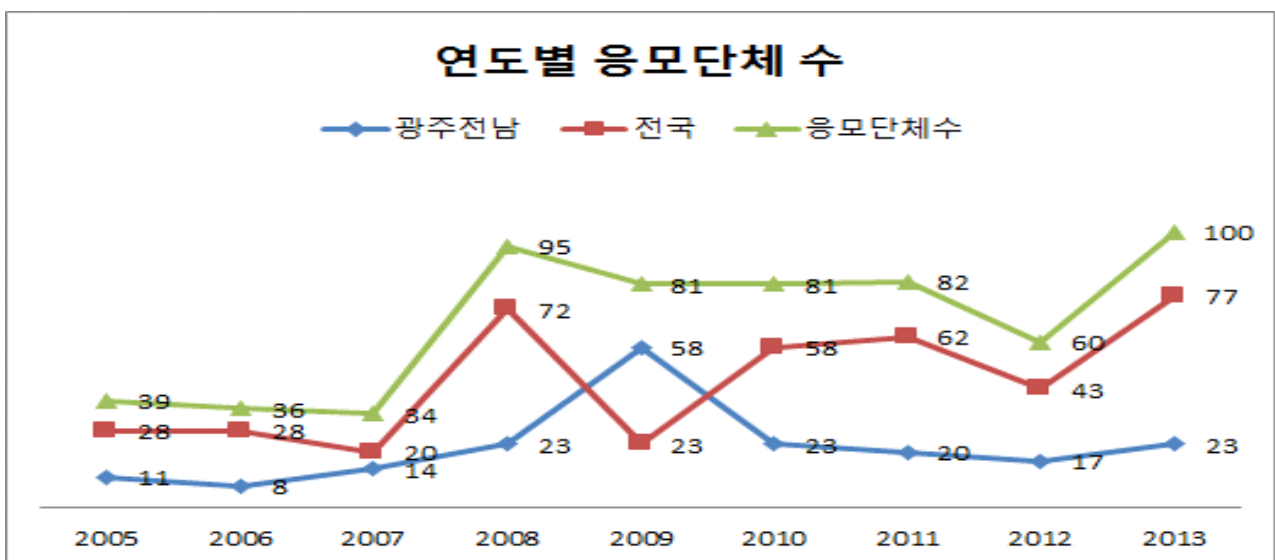
재단의 국내 시민사회단체 지원 협력 사업은 2003년 ‘연대사업’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2003년 제안된 재단의 연대사업은 재단의 정관 4조 목적사업 8항(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국내외 민주 인권단체와의 연대사업)과 5·18정신계승관련 사업에 대한 후원 규정에 의거 5·18민중항쟁 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공모를 통해 재단은 2003년 연대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20대가 바라는 세상의 ‘2003청년국토대장정, 20대 우리는 평화를 꿈꾼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한마당’, 광주환경운동연합의 ‘국군통합병원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토론회’, 해외민주인사 명예 회복과 귀국 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의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 CBS광주방송의 ‘민간인 학살 실태와 진상규명’ 등을 선정해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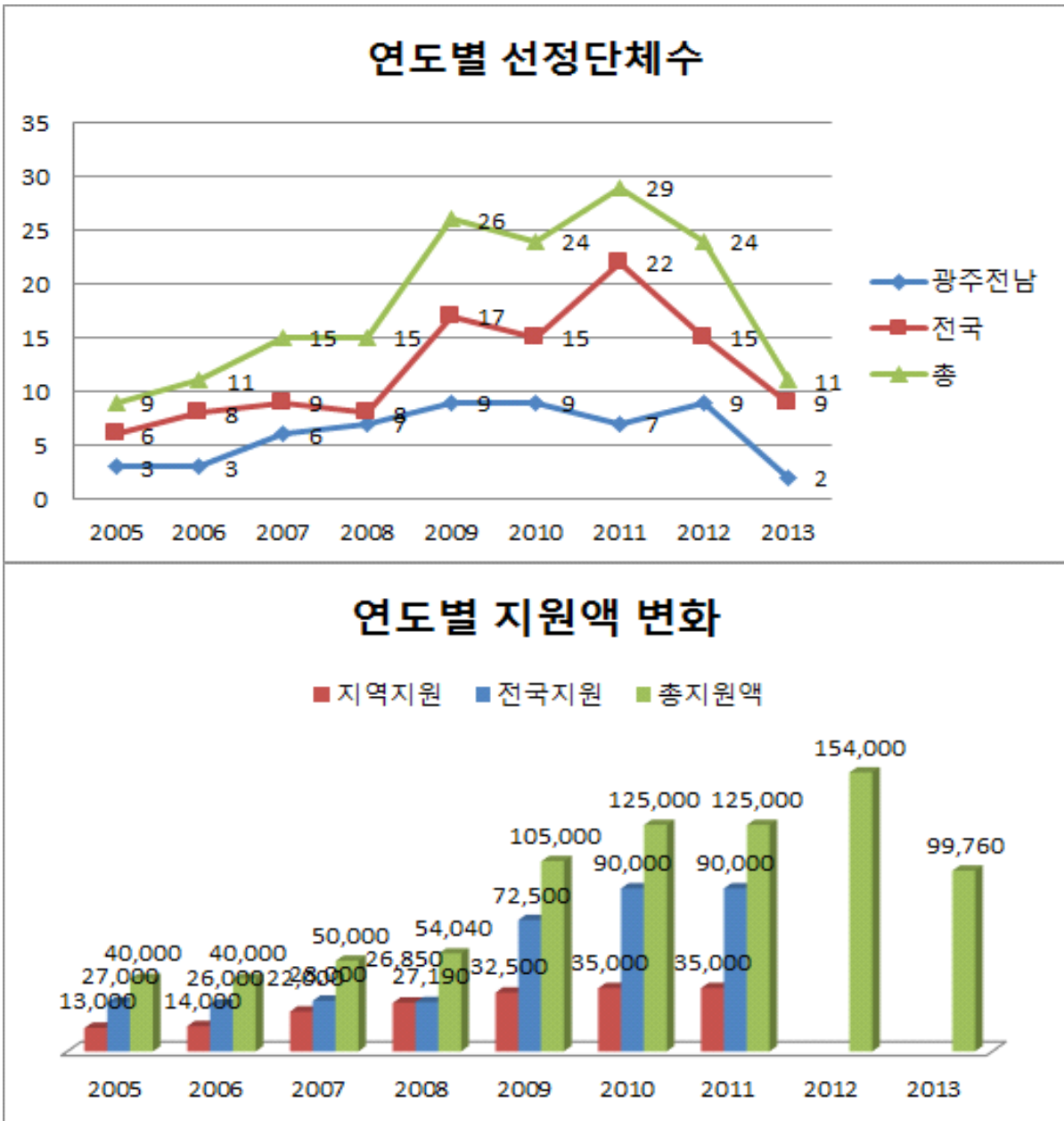
재단은 2005년 국내 시민사회단체 지원 협력 사업의 명칭을 ‘민주·인권·평화 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 금액 예산도 6천만원(2004년의 경우 1천만원)으로 증액했다. 민주·인권·평화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5·18과 민주·인권·평화를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풀뿌리 민간 기구를 육성하여 5·18정신을 현재적 의미에서 계승하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지원사업의 범주를 ‘지역 예산’과 ‘전국 예산’으로 구분하여 전국적 범위의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의 육성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재단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기금으로서의 순기능을 담당하고자 했다.

재단은 2007년 민주·인권·평화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명칭을 국내 NGO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 내용을 “국내NGO프로젝트 지원(구, 민주·인권·평화프로젝트 지원), 타 지역 5월 행사지원, 5·18 나눔 한마당, 지역단체 송년행사”로 세분화했다. 기존에 추진 하던 민주·인권·평화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큰 틀은 유지한 가운데 광주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5월 행사에 대한 지원 등으로 지원 사업의 범주를 확대해 교류 연대의 확산을 도모했다.

2009년 재단은 국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지원 사업의 기간을 ‘단기(1년), 중기(2년), 인큐베이팅(설립 3년 이내의 신규단체지원)’으로 지원시기를 각각 세분화했다. 지원 기간을 세분화함으로써 NGO에 대한 지원이 일회적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NGO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시민사회단체 지원이 되고자 했다. 특히 신규단체에 대한 지원을 따로 분류해 공모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신생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 아래 표의 응모단체 및 선정단체 수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도별 차이는 일부 존재하지만 재단의 지원 사업에 매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응모하면서 재단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NGO의 공감과 호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단의 국내NGO에 대한 지원 사업은 5·18기념재단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홍보 효과는 물론 5·18을 전국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재단의 재정 지원이 국내NGO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NGO육성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NGO지원사업의 연도별 응모단체 및 지원 금액의 변화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9> 연도별 국내NGO지원 응모단체 및 선정단체 수, 지원금액 현황(단위 천원)

재단은 국내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지역단위에서 5·18공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과 5·18기념행사를 수행하는 풀뿌리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5·18의 전국화를 도모하는 ‘광역협의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5·18기념사업 광역협의회사업은 2012년 수도권협의회 구성을 시발로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협의회 결성의 성과로 이어졌다. 재단은 각 권역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사업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3년 광역협의회 권역별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6> 5·18기념사업 광역협의회 권역별사업 지원 현황(2013년)

권역구분	추진단체명	추진사업명	행사 장소
수도권협의회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5·18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May18 Seoul Road Academy'	서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인천지부	5·18민중항쟁 제 33주년 기념식 및 사진전시회	인천
대구경북협의회	대구문화연구소	광주순례 <5·18민중항쟁은 현재진행형의 역사다>	대구, 광주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광주순례 <대구청소년 광주기행 및 레드페스타 탐방>	대구, 광주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광주순례 <5·18민주화운동 청소년역사기행 '응답하라 1980'>	대구, 광주
	안동YMCA	5·18민중항쟁33주년기념 및 정신계승 안동행사	안동
강원협의회	초록생명센터, 강원시민단체연대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5·18민중항쟁 계승·홍보교육	강원도
	강원살림, 전교조 강원지부	강원지역 청소년 5·18민주화운동 바로알기	강원도
부산협의회	젊은벗	광주순례 <부산2030, 5월의 광주를 만나다>	부산, 광주
	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	광주순례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하는 5·18광주기행>	부산, 광주
	부산울산경남 5·18민주유공자회	광주순례 <5·18기념 광주순례>	부산, 광주
	부산울산경남 5·18민주유공자회	5·18민주화운동의 이해를 위한 참여연극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부산
대전충남협의회	5·18구속부상자회 대전충청지부	민주시민강사양성 및 청소년이카데미	대전, 충남
제주협의회	서귀포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광주순례 및 4·3유적지 순례, 시민강좌	제주, 광주

재단의 광역협의회 사업은 일회적인 사업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18정신을 지역사회에서 현재화하는 조직적 성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5·18역사왜곡저지 국민행동’발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부정하고 5·18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보수 사이트와 종편에서 5·18왜곡과 폄훼가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재단은 5·18왜곡과 폄훼의 문제를 전국의 시민사회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5·18역사왜곡저지 국민행동의 결성을 추진했는데, ‘광역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권역별, 지역별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2013년 7월 국민행동을 발족시킬 수 있었다<sup>8)</sup>. 5·18왜곡세력에 대한 전국적 고소·고발운동, 5·18사실 대응, 5·18왜곡금지 법률제정운동, 과거청산에 대한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한 전국조직의 결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재단이 시민사회활성화를 통한 5월 정신의 현재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8) 5·18역사왜곡저지 국민행동 참여단체 현황(2013년)은 다음과 같다.

- 5·18역사왜곡저지 수도권행동(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경기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서울지부, 민주화운동청년연합동지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인천지부)
- 5·18역사왜곡저지 대전충남북행동(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연합충청지역연합회, 통합진보당대전시당,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양심과인권나무,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산내학살희생자유족회, 진실을보는창,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5·18구속부상자회대전충청지부)
- 5·18역사왜곡저지 대구경북행동(대구경북진보연대(11개단체),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26개단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5·18역사왜곡저지 부산울산경남행동(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울산경남5·18민주유공자회, 부산청년연대, 청춘멘토, 전교조부산지부, 경성대학교민주동문회, 젊은벗, 부산민중연대)
- 5·18역사왜곡저지 광주전남행동(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남진보연대, 6·15공동선언실천광주전남본부)
-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의정의실천연대(참가단체 총 423개)

(2) 5·18아카데미1

5·18아카데미는 5·18민중항쟁의 민주·대동·나눔·자치정신이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지속되게 하고, 우리사회의 당면 현안을 근본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자기점검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4년 제안되었다. 5·18아카데미를 통해 재단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활동가를 양성함으로써 5·18정신 계승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을 연계하여 미래지향적인 5월 담론을 형성하고자 했다. 특히 5·18아카데미 이후에도 활동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5·18정신 계승이 시민사회운동 영역으로 지속·확대되는 새로운 연대를 도모했다.

5·18아카데미는 합숙을 통한 집중 강좌 및 토론, 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진보적인 담론과 참가자 스스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진행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선진지역 및 국가의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활동가 자신의 계획과 전망을 스스로 구성해보는 시간을 갖게 했다. 2004년 재단의 국내활동가 대상 교육 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5·18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표 37> 5·18아카데미 국내연수 세부 일정(2004년)

○ 2004. 8. 12(목)~8. 15(일) / 3박 4일

일정 시간	8월 12일(목)	8월 13일(금)	8월 14일(토)	8월 15일(일)
7	▶ 11시~12시 입교식 - 점 풀기, 일정안내 ▶ 12시~13시 점심 ▶ 13시~15시 - 국립5·18묘지 참배	요가와 명상		
8		아침		
9		세미나1.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평화	세미나 3. 대안 이념 찾기	세미나 5. 정당과 시민사회운동
10		점심		
11		강의 1. 영성과 사회운동	강의 2. 국제연대운동	인천국제공항 집결 8월 25일 출발 9월 1일 도착 인도 라다크 (6박8일 일정)
12		개교식	세미나 2. 한국경제 길 찾기	
13	특강 1. 윤한봉 선생 '5월 정신'	저녁		
14	분반 얼굴 트기 및 연수 내용 준비 정리	• 라다크 연수 교육	• 지역선배활동가와 함께 하는 간담회 <시민사회운동, 그리고 운동가>	
15				
16				
17				
18				
19				
20				
21				

22	취침	
23		

<표 38> 5·18아카데미 국외연수 세부 일정(2004년)

○ 2004.8. 25(수)~9. 1(수) / 6박 8일

날짜	시간	행선지/내용	비고
8/25	06:00	인천공항 대한항공 카운터집결	
	06:00~8:50	출국수속	
	08:50~11:30	인천-홍콩	
	11:30~18:05	홍콩공항 TRANSIT	점심식사(김밥, 음료수 미리준비)
	18:05~21:00	홍콩-텔리(인도도착)	
	21:00~23:00	인도 국내선공항이동	수하물, 입국수속
8/26	23:00~03:00	휴식	
	03:00~05:50	인도국내선 탑승수속	
	05:50~07:05	텔리-레	
	07:05~12:00	호텔 투숙	조식
	12:00~14:00	점심 및 산책	※고산증 적응시간고려
	14:00~17:00	에콜로지센터와 교류프로그램	-단체 사업소개 및 활동가 소개
	17:00~19:30	현지단체와 교류프로그램	-헬레나노르베리 호지와의 만남
	19:30~21:00	저녁식사(호텔)	
21:00~	취침시간		
날짜	시간	행선지/내용	비고
8/27	07:00~09:00	아침식사	
	09:00~11:00	이동(레-헤마스곰빠)	
	11:00~13:00	점심	
	13:00~18:00	헤마스곰빠 투어	
	18:00~21:00	저녁식사/야영장	라면, 김치야 반갑다!
	21:00~	자유시간 및 꿈나라로	텐트 및 침낭준비, 야영
8/28	07:00~09:00	세면 및 아침식사	
	09:00~11:00	이동(헤마스곰빠-레)	
	11:00~13:00	점심	
	13:00~16:00	이동(레-알치)	알치지역 답사
	16:00~18:00	숙소 김정리/산책	
	18:00~20:00	저녁식사	
	20:00~	자유시간, 꿈나라로	게스트 하우스
8/29	07:00~09:00	세면 및 아침식사	
	09:00~12:00	알치투어	
	12:00~13:00	점심	
	13:00~17:00	이동(알치-라마유르)	라마유르 답사
	17:00~19:00	라마유르 투어	

	19:00~	저녁식사 후 숙소로	
8/30	07:00~09:00	세면 및 아침식사	
	09:00~13:00	이동(라마유르-레)	이동중 점심식사, 차량이용
	13:00~15:00	이동(라마유르-레)	
	15:00~18:00	레 투어(왕궁, 사원 등)	
	18:00~20:00	저녁식사	
	20:00~	귀국준비/꿈나라로	
8/31	05:00~06:00	세면 및 아침식사	
	06:00~07:45	국내선 공항으로 이동	
	07:45~09:00	이동(레-텔리)	
	09:00~10:40	텔리 시내로 이동	
	10:40~15:00	텔리 시내 투어	※인도로 소풍 여행사 점심제공, A/C차량제공
	15:00~17:40	텔리공항으로 이동, 수속	
	17:40~23:05	항공기(텔리-방콕)	
9/1	23:05~1:20	TRANSLIT 수속	
	1:20~08:40	항공기(방콕-인천)/집으로	시차포함

시민사회운동 활동가들에게 자기 성찰과 활동의 전망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5·18아카데미 사업은 2012년 재단의 교육 사업 통합에 따라 5·18아카데미1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13년 현재 5·18아카데미1을 통해 교육을 받은 국내 활동가는 총 177명에 이르고 있다.

### (3) 5·18자원활동가 육성사업

재단은 5·18자원활동가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년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주주의, 인권에 대해 함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천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1996년 처음 도입된 자원봉사 제도는 주로 5월 기념행사기간에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모집되었다. 그런데 어렵게 모집된 자원활동가들이 5월 기념행사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의 후속 프로그램이 없어 해산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따라서 매년 새롭게 자원봉사단을 모집, 교육하면서 자원활동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사업의 성과도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재단은 2001년 기존의 일회적인 활동에 그치는 자원활동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자원활동가 육성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역사회의 청년학생들이 5·18자원 활동을 통해 5월정신을 계승하고 인권과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지역 사회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5·18인재육성의 성격을 강조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다. 자원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재단사업에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국제인턴 파견의 선발기준으로 5·18자원활동 경력을 중요한 지표로 선정하는 것도 이러한 변

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재단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활동가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1996년 자원봉사도입 이후 현재까지 890여명의 자원활동가들이 5월 정신의 구현을 위해 재단과 함께 해왔다. 5·18자원활동가의 연중 활동 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9> 5·18자원활동가 연중 활동프로그램(2013년)

기간	활동 내용
1~2월	자원활동가 모집
3월	예비자원활동가 교육(기본교육)
4~5월	5·18기념사업 참여
6월	재단 사무처 직원-자원활동가 체육행사
7월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 자원활동가 합동 수련회
8~9월	5·18기념사업 참여, 자원활동가 여름학교(집중교육)
10~11월	사회참여활동
12월	인증식
연중 상시	매월 1회 정기교육, 소모임활동, 5·18왜곡대응활동, 오월합주단



<그림 10> 자원활동가 발대식(2013)

#### 4) 광주인권상

##### (1) 광주인권상 제정취지

재단은 ‘오월 시민상’과 ‘윤상원 상’을 통합하여 그 취지를 계승하고 인권과 통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현존하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를 발굴, 시상하여 5·18민주항쟁의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자 2000년 ‘광주인권상’을 제정하였다. 기존의 오월 시민상은 5·18유족회에서 5·18의 전국화를 목적으로 1991년 제정한 상으로서 5·18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단체나 개인 중에서 5·18비관련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매년 5월 18일 추모식에서 시상했다. 또한 윤상원 상은 1980년 5월 27일 도청에서 산화한 항쟁지도부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추모 사업을 주관해 온 광주지역 인사들과 유가족이 기금을 조성하여 5·18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오월 시민상과 윤상원 상은 수상자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대하고 그 위상을 높이고자 통합하기로 하고 시상 관련 작업을 1998년 재단으로 이관했다. 5월 관련 시상을 재단으로 이관하기 전 역대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40> ‘5월 시민상’과 ‘윤상원 상’ 역대 수상자 명단

연도	오월 시민상	윤상원 상
1991	故김의기, 故김태훈, 故이동수	농민문제연구소, 전남민주주의청년연합, 홍성담
1992	문익환, 故김종태, 故송광영	전국농민총연맹전남도연맹, 정해숙
1993	故이한열, 故최덕수	광주전남민가협, 반민족연구소, 정향자
1994	故박관현, 윤점순	극단 토박이, 정광훈
1995	안성례	광주여성노동자회, 전교조 전남지부, 황석영
1996	황인성, 강연균, 정웅태	김상근(목사)
1997	곽노현, 박연철	권영길(민주노동총위원장)
1998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고영구(변호사, 前 민변 회장)
1999	통합을 위해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음	

5·18민주화운동 관련 시상의 통합을 제안 받은 재단은 2000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통합 상의 명칭을 광주인권상으로 결정하고 관련 시상 규정을 확정된 후 첫 수상자로 티모르 저항민족회의 의장인 ‘시나나 구스마오’를 선정하고 광주인권상 시상사업을 시작했다. 광주인권상 수상자의 확정은 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트로피,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금은 인권상 제정 당시인

2000년에는 한화 1천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2001년 시상금 내역을 미화 1만 달러로 개정된 이후 2006년 정관 개정을 통해 미화 5만 달러로 책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한편 재단은 2011년 문화, 예술, 언론, 학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기여한 인사와 단체를 시상하기 위해 ‘광주인권상 특별상’을 제정했다. 광주인권상 특별상은 2년마다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 상금은 1만 달러이다. 2011년 광주인권상 특별상은 ‘평화를 위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가족협회’<sup>9)</sup>가 선정되었으며, 2013년은 인도네시아 주간지 ‘Temp’<sup>10)</sup>가 수상했다.

재단은 광주인권상의 엄정한 심사를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장 등이 추천한 위원과 5·18기념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추천한 2명’ 등 7명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1년 광주인권상 수상규정 개정). 특히 추천된 심사위원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상자가 발표되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광주인권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인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 수상자의 경우 2인 이내의 공동수상자를 선정하기도 한다. 광주인권상 역대 수상자 및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표 41> 광주인권상 역대 수상자 및 심사위원

연도	수상자	위원장/위원	직책	추천기관
2000	사나나 구스마오 (티모르 저항민족회의 의장)	이광우 위원장	전남대 명예교수	5·18기념재단
		강창일	배재대 교수	5·18기념재단 이사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5·18기념재단 이사
2001	바실 페르난도 (AHRCA 아시아 인권 위원회 위원장, 스리랑카)	조철현위원장	신부	5·18기념재단
		강신석	목사	지역원로, 종교
		배다지	부산기념사업회 고문	5·18기념재단 이사
		윤영규	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2002	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한국 민주화운동단체)	황인성	의문사진상규명위	사회사회단체
		홍근수 위원장	향린교회	시민사회단체
		박경린	광주 YWCA 사무총장	5·18기념재단 이사
		윤한봉	민족미래연구소	시민사회단체
		이광우	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2003	단테니야 자얀티 (스리랑카 실종자기념회)	이상갑	변호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인 위원장	신부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신석	목사, 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나병식	상임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9) 평화를 위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가족협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통해 가족을 잃은 500여 유가족이 1995년에 함께 설립한 단체로 두 나라의 분쟁과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평화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여러 인권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0) 구나완 모하맛과 유스릴 드자리누스이 설립한 템포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및 전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주간지로 1971년 3월 6일 최초 발행되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템포가 인도네시아의 정치 상황을 적나라하게 기사화한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발행을 금지하기도 했다. 템포는 1997-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수하르토의 독재정권이 몰락한 이후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현재는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로 발행되고 있다.

	사무국장)	조찬배 임선숙	회장, 유가협회장 변호사	5·18기념재단 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4	아웅산 수찌 (버마 NLD 사무총장)	박경서 위원장	대한민국 인권대사	국가인권위원회
		김경남	목사, 기념사업본부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석무	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설동일	부산민주공원관장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선숙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5	와르다 하피즈 (인도네시아 UPC 사무 총장)	이혜학 위원장	목사	국가인권위원회
		박석무	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송동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무호	기념사업본부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차성환	부산민주공원관장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말라라이 조야 (아프가니스탄 국회의 원) 양까나 닐라빠이짓 (태국 인권활동가)	이은영 공동위원장	국회의원	국회의장
		효림 공동위원장	이사(실천불교승가회 대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곽노현	사무총장(방송대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박석무	이사장	5·18기념재단
		차성환	상임이사(부산민주공원 관장)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문위원	조효제, 박은홍 성공회대			
2007	레닌 라구와니쉬 (인도 반카스트제도 운 동가) 이름 샤밀라 (인도 반군사특별권한법 폐지 운동가)	이홍길 위원장	이사장	5·18기념재단
		김칠준	사무총장(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문국주	상임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차성환	상임이사(부산민주공원 관장)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의용	국회의원	국회의장
전문위원	정문태 한겨레 21, 전제성 전북대학교			
2008	무니르 말리크 (파키스탄 인권변호사)	노영민 위원장	국회의원	국회의장
		김칠준	사무총장(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문국주	상임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광호	상임이사(부산민주공원 관장)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윤광장	이사장	5·18기념재단
전문위원	전제성 전북대, 나효우 아시아NGO센터, 수마트라 The Nation(태국)			
2009	민꼬나잉 (버마 민주화운동가)	문영희 위원장	부이사장(경기일보 논설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칠준	사무총장(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이정현	국회의원	국회의장
		차성환	이사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윤광장	이사장	5·18기념재단
전문위원	나효우 아시아NGO센터, 정문태 한겨레 21, 송진호 YMCA 전국연맹			
2010	수실 파큐렐 (네팔 인권운동 지도자)	문영희 위원장	부이사장(경기일보 논설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옥신	사무총장(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이정현	국회의원	국회의장
		김재규	이사장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윤광장	이사장	5·18기념재단
전문위원	정문태 한겨레 21			
2011	비나약 쉐 (인도 인권운동 지도자) ※ 2011 광주인권상 특	유영표 위원장	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준태	이사장	5·18기념재단
		박영관	상임이사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별상 : 평화를 위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가족협회	손심길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이정현	국회의원	국회의장
		전문위원	정문태 아시아네트워크	
2012	문정현 (생명평화운동가, 가톨릭 사제)	김준태 위원장	이사장	5·18기념재단
		김거성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영관	상임이사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변연식	이사	지학순정의평화기금
		손심길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이정현	국회의원	국회의장
		전문위원	진영종 성공회대, 안종철 국가인권위, 정문태 아시아네트워크	
2013	H.I.J.O.S 망각과 침묵에 대항하여 정체성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아들·딸들 (아르헨티나 인권단체) ※ 2013 광주인권상 특별상 : 주간지 Tempo (인도네시아)	윤장현 위원장	이사	아시아인권위원회
		권인숙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영관	상임이사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영진	사장	광주매일신문
		손심길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오재일	이사장	5·18기념재단
		인재근	국회의원	국회의장
		전문위원	진영종 성공회대, 안종철 국가인권위, 정문태 아시아네트워크	

## (2) 광주인권상 역대 수상자의 수상 결정문

광주인권상은 부당한 권력과 제도에 맞서 싸우고, 온갖 탄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으며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했던 인사들을 수상해 왔다.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주인권상은 아시아의 노벨평화상과 같은 권위와 명성을 얻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용기와 격려의 국제적 상징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을 위해 권위주의적 제도와 국가폭력에 저항하며 투쟁하는 인사들에 대한 광주인권상 시상 은 그 자체로 연대와 협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초대 수상자인 구스마오의 경우 동티모르의 독립투쟁의 과정이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광주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게릴라 지도자이면서도 유혈상황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했다는 점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구스마오의 남다른 관심이 높게 평가되었다. 2004년 재단은 인권상수상자로 버마의 NLD 사무총장인 아웅산 수찌 여사를 선정하여 비인도적인 정권에 저항하며 조국의 민주화를 투쟁하고 있는 버마민족민주동맹의 동지들, 차디찬 감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고초를 겪고 있는 2,000명의 버마양심수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염원하는 5월 정신의 연대를 표명하였다. 연대와 격려의 헌사로서 광주인권상 역대 수상자들의 수상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2000년 수상자 : 사나나 구스마오(티모르 저항민족회의 의장)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선양하고, 인류보편의 가치로써 인권과 평화를 위한 노력에 힘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주기 위해 제정된 첫 회 광주인권상의 수상자로 '사나나 알렉산드레 구스마오' 티모르저항민족회의 의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4일 본 재단에서 개최된 '2000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전원 합의로 선정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구스마오'를 첫 회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첫째, 동티모르 독립투쟁의 과정이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광주 상황과 비슷하며, 수상자는 이 과정에서 게릴라의 지도자이면서도 유혈 상황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 둘째, 동티모르는 독립신생국가로, 이제는 과거 인도네시아 민병대가 자행했던 학살의 상흔을 청산하고 인권과 평화가 보장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열강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자주적 독립 국가의 기초를 다져감으로써 21세기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구스마오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광주 역시 동티모르인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선함을 나누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를 수상자로 선정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이제 과거의 고통과 대립을 청산하고 새로운 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인류 보편적 가치로, 민족 비원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동티모르의 지도자이자, 휴머니스트 게릴라였던 그를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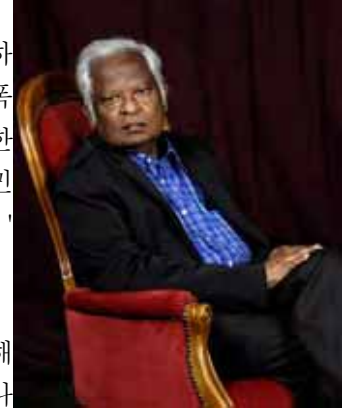
이번 2000년 광주인권상 후보에 추천된 다른 후보자들 역시 아시아인들의 반인권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섰거나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5·18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해 오신 국내외 인사들이며, 이 분들 모두 광주인권상의 마땅한 수상대상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지향하는 새로운 변화의 방향에 맞도록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다른 후보자들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해주신 단체와 인사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인권상이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0. 5. 15

2000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질서에 대항해 투쟁하고 있는 아시아 민중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야만적인 폭력을 용납하지 않았던 불굴의 용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헌신, 정치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은 아시아 민중들에게 학살의 비극을 극복하고 아시아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성장하는 민주주의'의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광주 인권상은 지난해 동티모르의 독립운동 지도자이자 티모르저항민족회의 의장인 사나나 구스마오 씨에 이어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위원장인 바실 페르난도 씨(57·Basil Fernando)를 2001년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국내외 인권운동가와 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자 개인과 단체 모두는 인권과 통일, 평화운동 분야에서 각각 지대한 공을 세운 분들로 광주인권상 수상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그럼에도 만장일치로 바실 페르난도 씨를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체험을 공유한 아시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광주인권상 제정 취지에 충실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소외받고 폄박받는 아시아 민중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일생을 바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인권운동가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활동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아시아민중운동의 횡불이 되어야 한다"면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아시아 각국의 민중 속에 깊숙이 전파시키기 위해 각종 세미나, 워크숍, 국제 행사 등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광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빼 놓을 수 없으며, 바로 이 점이 그를 수상자로 선정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5·18 국제화와 관련해 1998년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광주에서 아시아인권운동 지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인권선언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인권과 평화의 도시'로서 광주의 이미지를 한반도의 울타리를 넘어 온 아시아에 인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데 대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와 함께 동지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탁월한 인권 운동가로서 그는 또 UN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기존의 국제 인권기구가 비대해지면서 관료화에 빠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풀뿌리 민중에 기반을 둔 인권 단체의 건설과 그들이 중심이 되는 인권운동에 역점을 쏟고 있는데, 이 점 역시 민중의 각성과 자발성에 바탕을 둔 5·18민주화운동 정신에 부합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의 광주인권상 수상이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아시아민중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더욱 활기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01. 4. 10

2001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

2002년 수상자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한국 민주화운동단체)

광주인권상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궁극적 지향점인 인권과 평화를 위하고, 분단 극복과 민족의 화합을 위해 공헌한 국내외 인사 및 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5·18기념재단에서 제정한 상입니다.



또한 광주인권상은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싸워온 많은 인사와 단체들을 발굴해서 그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리고자 제정된 상입니다. 이에 따라 5·18기념재단 2002년 광주인권상심사위원회는 수상단체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 조찬배 故 조성만의 부)를 결정하였습니다.

1970년 박정희 독재정권 하에서부터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 이르기까지 전태일 열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다 스스로를 희생한 분들과 권력에 의해 의문의 죽임을 당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이러한 분들의 남겨진 가족들이 함께 만든 단체로써 유가족들의 아픔을 같이하고, 의문사를 비롯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창립 때부터 의문사 관련 사안들에 대한 서명운동과 집회 등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특히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1998년 1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400여일에 걸친 천막농성을 벌인바 있습니다. 이 천막농성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안'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며, 자신을 희생한 수많은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법률로,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더욱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2002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인권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그 동안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이 나라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싸워 오신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2002년 광주인권상 수상단체로 선정하며, 그들의 활동과 노고에 큰 격려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2. 5. 3

2002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

2003년 수상자 : 단테니아 자안티(스리랑카 실종자기념회 사무국장)

광주인권상은 5·18민주화운동의 궁극적 지향점인 민주와 인권의 신장을 꾀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 공헌한 국내외 인사 및 단체를 발굴하여 그 의지를 격려하고 복돋우고자 5·18기념재단에서 제정한 상입니다.

5·18기념재단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2003년 수상자로 스리랑카 실종자 추모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단테니아 자안티(스리랑카)를 결정하였습니다.



단테니아 자안티씨는 스리랑카 사람입니다. 스리랑카는 자기나라의 이념대립으로 인해 수많은 실종자들이 발생했고 단테니아씨 역시 결혼을 앞두고 부군이 될 사람이 피살된 후 실종되어버리는 바람에 마음의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1991년부터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이들 실종자를 위한 기념식을 치르기 시작하여 깔라삐 아삐 연대센터, 실종자 기념회, 자유무역지구노동조합 등을 결성하는데 앞장서며 스리랑카 민주, 인권의 향상을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스리랑카의 국가폭력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것과 함께 스리랑카의 민주주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5·18기념재단의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민주와 인권을 위해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2003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단테니아 자안티씨를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하는 바입니다.

2003. 5. 9

2003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

2004년 수상자 : 아웅산 수찌(버마 NLD 사무총장)

1962년부터 시작된 버마의 군사정권은 초기부터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학생들을 탄압하고 많은 이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일당체제 정치가 계속되어 온 버마는 1974년 군법을 대신한 헌법이 만들어졌으나 군사정권은 계속하여 집권했고, 1988년에 버마학생 시민들의 민주화시위가 일어났을 당시 버마 군부는 무자비하게 이를 살육하고 진압하였습니다. 이후 위기를 느낀 군사정권은 총선거 실시와 권력이양을 약속하며 버마 최초로 총선거를 치렀고, 5월 총선거에서 NLD(민족민주동맹)는 군사정권을 누르고 88.5%의 득표율로 총선 승리를 이루었으나 버마군사정권은 이를 무효화 하며 여전히 집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버마시민들이 군사정권의 폭정을 피해 조국을 떠나 망명했고 이들은 온 세계에 퍼져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버마의 아웅산 수찌 여사는 1988년 군사독재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 민주주의를 열망한 시민을 이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웅산 수찌 여사는 인도의 간디와 미국의 마틴 루터킹의 비폭력운동에 의해 영감을 받아 가장 비인도적인 정권에 대항한 민주화 투쟁에서 비폭력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저항은 버마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로 인해 7차례의 가택연금 조치가 취해졌으며, 2003년 5월 30일 이후 여전히 그녀는 억류 상태에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아웅산 수찌의 변하지 않는 투쟁에 지지와 성원을 보냈고, 1991년 노벨평화상을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은 수상자가 원했던 뜻을 많이 이루었으나 유독 아웅산 수찌 여사와 그녀의 동지들은 여전히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으며, 이는 '80년 암울했던 우리의 상황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04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수상자로 아웅산 수찌 여사를 선정하며, 아웅산 수찌여사와 더불어 망명자라는 고단한 신분으로 온 세계에서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버마민족민주동맹의 동지들, 그리고 여전히 차디찬 감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조국의 민주화를 기다리는 2,000여명의 버마 양심수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5월정신의 뜻을 담아 희망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2004. 4. 27

2004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

2005년 수상자 : 와르다 하피즈(인도네시아 UPC 사무총장)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군부정권이 민주화의 요구로 퇴진한 이래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 수순을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부의 힘이 막강하고, 특히 1998년 경제위기와 2004년 동남아 지진해일의 대참변으로 사회 경제적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현재 수도 자카르타에는 수많은 빈민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이 직면한 문제들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이들은 주거, 식량, 소득, 교육 등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보장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지역적·문화적 차별, 강제이주, 환경파괴로 인한 주거지 파괴 등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도시빈민협의회(UPC)의 지도자 와르다 하피즈 여사는 이러한 열악한 인도네시아의 정치, 사회적 상황 하에서 소외된 도시빈민이 그들을 보호할 단체를 스스로 조직하여, 권리보장을 요구하도록 도우며 빈민들을 위한 사회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가난한 민중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와르다 하피즈 여사의 헌신적 활동은 독재정권의 만행을 용납하지 않는 민중의 저항을 촉발시켰으며 1998년 수하르토 독재정권이 물러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무슬림여성운동의 지도자로서 남녀평등운동을 이끌었으며, 수많은 인권변호사를 조직하여 불의에 저항하는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발전논리가 도시 빈민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지금 시대에 와르다 하피즈 여사는 도시빈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5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올해의 수상자로 와르다 하피즈 여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열악한 정치사회적 여건 하에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와 빈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와르다 하피즈 여사의 노력은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현재적인 의미에서 계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인권운동가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수상자의 삶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바 있다.

2005. 4. 29

2005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

2006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올해의 수상자로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운동가 말라라이 조야씨와 태국의 양까나 닐라빠이짓 씨를 공동 선정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말라라이 조야 씨는 구소련의 아프간 점령시기에 저항운동을 하다 부상당한 아버지를 따라 이란과 파키스탄의 피난민촌을 떠도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으며, 구소련의 철군 후 조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또다시 탈레반 체제하에서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그녀가 억압적인 인권상황에 굴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 인권개선의 희망을 만들어 선도적인 인권운동가로 성장한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억압적이고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차별적인 인권상황은 오히려 그녀가 인권에 대해 보다 일찍 깨닫게 해 주었고 이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24세가 되었을 때 지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통해 제헌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국가재건에 앞장섰으며 특히 자국의 문제점을 대중 연설을 통해 신랄하게 지적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설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생명의 위협을 받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라이 조야 씨는 뜻을 굽히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운동뿐만 아니라 아프간 여성들을 위한 문맹퇴치운동, 컴퓨터 교육, 의료사업 등 다방면에 걸쳐 활동을 전개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의 양까나 닐라빠이짓 씨는 2003년 태국경찰에 의해 강제실종된 인권변호사 솜차이 닐라빠이짓 씨의 부인입니다. 태국의 저명한 인권변호사였던 솜차이 닐라빠이짓 씨는 지금도 심각하게 인권유린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태국 남부 이슬람 지역의 경찰 고문을 고발한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에 양까나 씨는 남편의 강제실종을 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갖은 살해협박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련 경찰을 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지 한 두 명의 관련 경찰들을 처벌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에 강제실종과 같은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했고, 개인의 슬픔을 넘어 인권운동가로 변신하여 권력의 무자비한 폭력과 차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투쟁과 인권활동가에 대한 생명위협 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실종의 문제는 현재 아시아지역의 심각한 인권유린의 한 형태이며, 이에 따라 현재 그녀는 UN에 강제실종방지 국가비준을 촉구하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6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두 공동수상자의 수상을 축하하면서, 젊은 수상자 말라라이 조야 씨에게는 문화적 전통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 등의 인권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또한 국가의 인권탄압과 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양까나 닐라빠이짓 씨의 활동으로 보다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말라라이 조야 씨와 양까나 닐라빠이짓 씨 등과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인권운동가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입니다.

2006. 4. 28

2006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



2007년 수상자 : 레닌 라구와니쉬 · 이롬 샤밀라

(인도 반카스트제도 운동가) · (인도 반군사특별권한법폐지 운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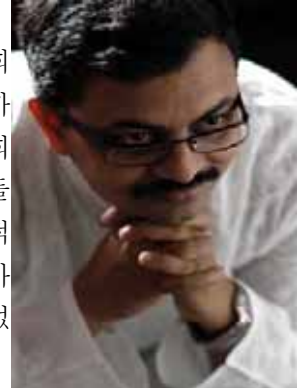
인도는 오랜 역사를 통해 문명을 발전시켜 온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인도가 가지고 있는 구시대의 계급제도인 카스트가 비록 국가가 법률로써 금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관습을 토대로 인도사회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어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인도의 또 하나의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1958년에 제정된 군사특별권한법(Armed Forces Special Powers Act, AFSPA)은 폭동이 '의심될' 때에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법으로서 발포 사살, 재산 수색, 임의 구금 등의 효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이 법의 남용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와 관련한 군 관계자를 기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2007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인도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카스트 제도에는 크게 4계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카스트 체제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흔히 '불가촉천민(Untouchability)'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제5계급인 이 '불가촉천민'은 인도의 전역에 거주하며, 총인구의 약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도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담당하며, 거주·직업 등에서 엄격한 차별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이미 인도 헌법에 의해 50년 전 금지되었지만 현실상 인도 시민 사회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의 80% 정도의 지역에서 발휘되고 있습니다.

레닌 라구와니쉬(Lenin Raghuvanshi) 씨와 그가 이끌고 있는 시민인권감시위원회(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는 이들의 활동을 통해 카스트 제도에 도전하며 5개의 북부 주에서 50,000명의 회원들의 참여 속에 고문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과 45개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수많은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언론인, 인권 단체 등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3,500명 이상의 담보노동 아동들과 카스트 제도로 인해 인권침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었고, 특히 '불가촉천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롬 샤밀라(Irom Sharmila) 씨는 군사특별권한법의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에 반대하여 2000년 11월 2일부터 음식물과 물의 섭취를 거부해 왔습니다. 2000년 11월 2일, 그녀가 살고 있는 마니푸르 주에서 발생한 군의 민간인 발포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군사특별권한법 제정 이후 발생한 여러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그녀를 법에 따라 '자살기도' 혐의로 체포하고 강제급식 후 석방했으며, 석방 후 다시 관련법에 따라 체포하여 구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 군사특별권한법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샤밀라 씨는 지난 6년간 투쟁해 온 군사특별권한법 폐지를 가속화하기 위해 2006년 10월 목숨을 걸고 마니푸르 주에서 수도 뉴델리로 이동하였으나 수도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델리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 람 마노하르 로히아 병원(RMH)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2007년 광주인권상 위원회는 공동수상자로 레닌 라구와니쉬 씨와 이롬 샤밀라 씨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수상자가 벌이고 있는 인도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은 비록 방식은 다르지만,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이들을 광주인권상 시상을 통해 알리고 이들의 노력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야말로 광주인권상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7 광주인권상 위원회는 이 두 분의 수상자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이들의 동료 인권운동가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입니다.

2007. 4. 27

2007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

2008년 수상자 : 무니르 말리크(파키스탄 인권변호사)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이후 종교적인이유로 인도와 방글라데시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 파키스탄의 국내 정치 상황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무샤라프 대통령은 1999년 10월 12일 쿠데타를 통해 민선 총리였던 나와즈 샤리프 총리를 제거하고 등장했으며, 이후 파키스탄의 거의 모든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을 군부가 장악하고 있고, 최근 일련의 정치 상황들은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의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대법원 변호사협회(Supreme Court Bar Association)장을 역임한 무니르 말리크(Muneer A. Malik) 씨는 1950년 출생하여 1975년도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지역 변호사협회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면서 지아울 하크(Ziaul Haq) 장군의 독재정권에 반대하여 민주주의의 회복을 주장하는 민중운동에 앞장섰으며, 이로 인해 1981년 반정부 활동 혐의로 투옥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신장을 위해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무니르 말리크 씨는 2007년 무샤라프 대통령의 대법원장 축출시도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과 인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서 투쟁하였습니다. 파키스탄 사법부의 독립수호 및 복권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무장 괴한의 공격과 사무실 봉쇄와 같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사경을 헤멜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입원을 위해 석방되기까지 혹독한 수형생활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건강과 자유를 회복하자마자 다시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8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올해의 수상자로 파키스탄의 인권변호사인 무니르 말리크 씨를 선정하였습니다. 무니르 말리크 씨가 처해있는 파키스탄의 정치, 사회적 상황은 혹독한 군사독재를 체험했던 우리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을 위한 무니르 말리크씨의 투쟁은 광주인권상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수상자와 함께 투쟁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인권운동가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입니다.

2008. 4. 17

2008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

2009년 수상자 : 민꼬나잉(버마 민주화운동가)

버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수많은 민주화운동가들은 아직도 차디찬 감옥에서 고단한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버마의 민주화운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버마 군사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버마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2008년 유엔의 감바리 특사가 버마 군사정부의 샤프란 항쟁 유혈진압 후 버마를 방문하여 아웅산 수찌 여사를 면담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냈지만 이 역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버마의 민주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만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버마의 민주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와 양식 있는 사람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1962년 버마의 수도 양곤에서 태어난 민꼬나잉(Min Ko Naing) 씨는 1988년 전국적인 규모의 버마 학생조합동맹을 조직하여 이른바 '8888 항쟁'을 촉발시켰고, 이로 인해 2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후 15년간의 수감생활 끝에 출소한 후에도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며 항쟁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샤프란 항쟁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시위행진을 조직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65년 형을 선고받고 끝을 알 수 없는 수감 생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인권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버마에는 시위와 반정부 활동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민꼬나잉 씨와 같은 양심수가 2,00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7년 5월 엄청난 자연재해가 버마를 휩쓸어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 지속되어 국제사회가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도 버마의 군사정권은 이를 거절하더니, 이후 승려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으로 이어진 샤프란(버마 승려복의 색인 선황색을 상징) 민주항쟁 역시 이를 취재하던 외국 언론인을 포함하여 최소 수백명이 무력진압에 희생당하고 수많은 이들이 연행, 구금되었습니다.

2009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올해의 수상자로 버마의 민주화운동가인 민꼬나잉 씨를 선정하였습니다.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민꼬나잉 씨와 그 동료들의 모습은 오월 광주가 기억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민꼬나잉 씨와 버마의 정치범들이 조속히 석방되고, 버마의 민주화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2009. 4. 24

2009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

2010년 수상자 : 수실 파큐렐(네팔 인권운동 지도자)

세상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다시피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 인류의 지붕입니다. 아름답고 경이로운 산입니다. 그 아름답고 경이로운 산 아래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에베레스트 산은 주목받아 왔지만 정작 네팔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끈 것은 2005년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절대왕정아래 형제간의 권력찬탈에 의한 학살만행이 벌어졌고 이와 함께 가난과 폭정에 시달리던 네팔 민중의 실정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네팔 민중의 저항과 민주화 열망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던 것입니다. 수실 파큐렐 선생은 이런 네팔의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의 한 복판에 서있는 사람입니다. 1952년에 태어난 그는 절대왕정의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인통치에 맞서 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네팔 민중의 인권증진을 위해 시민인권지원센터(INSEC)를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자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국한하지 않고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NFREL)에도 관여하면서 국제적인 연대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네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네팔 민중의 인권과 권익신장의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헌신하였습니다.

2010년 오늘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뜻깊은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수실 파큐렐 선생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음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세력의 폭압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저항하였던 광주 민중의 숭고한 정신의 표현인 것처럼 네팔의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를 위해 투옥과 신체적 억압에 굴하지 않고 헌신해온 수실 파큐렐 선생의 삶과 정신은 광주인권상의 취지와 정신에 가장 부합하다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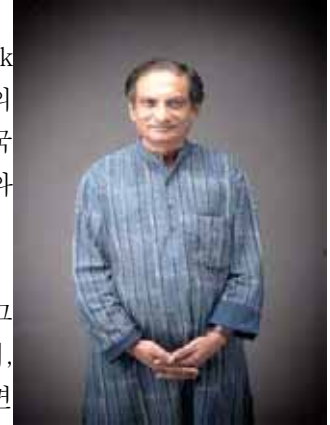
수실 파큐렐 선생의 삶과 정신이 네팔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 수실 파큐렐 선생에게 광주인권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수실 파큐렐 선생의 삶과 투쟁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축하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0. 4. 20

2010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

2011년 수상자 : 비나약 센(인도 인권운동 지도자)

2011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인도의 인권활동가 비나약 센(Binayak Sen)을 2011 광주인권상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비나약 센은 인도의 인권단체인 시민자유연합(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의 전국 부대표이자 의사로서 사하티스가(Chhattisgarh) 주에서 빈민 의료봉사와 함께 인권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부당한 국가폭력에 저항하며 인권유린으로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한 그는 인도당국의 특별보안법에 의해 지난 2007년 5월 전격 투옥되었으며, 인도 당국의 보안법 남용으로 인한 인권유린을 고발하기 위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그를 양심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비나약 센에 대한 인도 당국의 탄압에 항의하는 4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고등법원은 2010년 12월 그를 '중신형'에 처하며 다시 투옥하였으나 인도 대법원은 지난 2011년 4월 18일 비나약 센의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인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평생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해온 그에게 내려질 선고에 대해 우리는 매우 우려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떠오르는 경제 성장국가로 그 인구가 11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비약적인 인도의 경제발전은 오랜 기간 식민지 지배의 그늘을 벗어 아시아의 발전을 이끄는 국가로서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인도의 인권상황은 아시아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는 국가로서 그 내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비나약 센의 수상으로 2007년 광주인권상 공동수상자인 인도 마니푸르 주의 이롬 샤밀라를 포함하여 국가폭력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한 채 탄압 받는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을 소중하게 기억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와 더불어 민주화의 물결이 파도치는 중동에도 인권과 평화의 결실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편 2011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올해 처음 제정된 2011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로 '평화를 위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가족협회(Israeli-Palestinian Bereaved Families for Peace)'를 선정하였습니다. '평화를 위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가족협회'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통해 가족을 잃은 500여 유가족이 1995년에 함께 설립한 단체로 고통스러운 상처와 상실의 아픔을 딛고 화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5월 광주가 지향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1. 4. 21

2011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

2012년 수상자 : 문정현(한국 생명평화운동가, 가톨릭 사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우리는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우리 사회의 변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정현 신부는 권력의 탄압이 사법살인으로 치닫던 1970년대의 개발독재 시대에서부터 1980년대의 군사정권을 거쳐 지금의 제주 강정마을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사제로서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하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동시에 생명과 평화운동을 온몸으로 전개한 성직자로서의 일관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정현 신부는 1974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결성을 주도하였고, 1976년 3·1구국선언사건으로 구속되었으며, 1986년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단식과 집회에 참여하고, 1999년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로, 2000년 매항리 미군폭격장 폐쇄를 위한 대책위 상임공동대표로, 2003년에는 이라크파병반대, 2005·2006년에도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를 위한 싸움에 함께 하였으며, 2009년 용산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가장 먼저 달려가 유족들을 위로하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매일 추모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강정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생명과 평화를 위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2012년 수상자로 문정현 신부를 선정하였습니다. '길 위의 신부'로 불리는 가톨릭 사제로서 한 평생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억압받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이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만들어왔습니다. 수상자의 삶을 통해 우리는 부당한 권력에 대해 투쟁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인권, 생명과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지난 4월 6일 제주 해군기지건설 반대투쟁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병상에 누워있는 수상자에게 쾌유를 빕니다.

2012. 4. 17

2012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

2013년 수상자 : 망각과 침묵에 대항하여 정체성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아들과 딸들

(아르헨티나 인권단체)

2013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올해 수상자로 아르헨티나의 인권단체인 H.I.J.O.S.(망각과침묵에 대항하여 정체성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아들·딸들, Hijos e Hijas por la Identidad y la Justicia contra el Olvido y el Silencio)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회는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먼저 남미를 비롯하여 전 세계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폭압에 의한 희생자와 그 가족께 깊은 애도와 뜨거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상자로 결정된 H.I.J.O.S.는 지난 1995년 군부독재시절(1976~1983) 실종·처형·투옥되거나 억압을 피해 망명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아들·딸들과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아르헨티나 젊은이들이 함께 창립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H.I.J.O.S.는 창립 이래 아르헨티나의 오랜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 건설을 기치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H.I.J.O.S.는 자신들의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투철한 믿음으로 기념사업, 진실규명, 정체성 재건, 정의 실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과거 국가주도 테러행위에 책임이 있는 군부·경찰·민간인 등 대량학살범과 공범에 대한 재판회부에 앞장서고 정의의 심판과 처벌을 주도하여 진정한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에 주목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유엔인권소위원회가 중대인권침해사건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5대원칙이자 광주해결 5대원칙이기도 한 진실규명·책임자 사법처리·적절한 배상·명예회복·기념사업이라는 역사정의 실현과업이 아르헨티나에서도 실현되고 있음에 경의와 격려를 보내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군사독재의 잔재와 과거사 청산에 있어 진실규명과 진정한 사과 없이 용서와 화해가 불가능함을 지구정반대쪽인 아르헨티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월광장어머니회, 정치적 실종·구금 희생자 유가족회, 오월광장 조부모회에 의해 시작된 인권운동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 받은 H.I.J.O.S.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정의의 심판과 처벌은 물론 독재정권 희생자 유자녀의 정체성 회복, 집단 매장지의 발굴 및 신원확인, 불법 소년원과 강제수용소 복원, 연대의 재건, 억압기구해체 등의 과업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이 전 세계 특히 과거 군사독재체제나 권위적인 억압 체제를 경험한 모든 국가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2013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2013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로 인도네시아의 주간지 템포(Tempo)를 선정하였습니다. '템포'는 부당한 권력과 부패를 고발하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언론이며, 한때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발행이 금지당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템포가 인도네시아의 어두운 곳을 밝혀 보다 나은 세상의 등불이 되길 기원합니다.

2013. 4. 25

2013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

### 3. 교육 문화

#### 1) 개요

교육·문화 사업은 5·18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교육하고 계승하도록 하며, 이를 문화·예술적으로 승화시켜 그 의미를 확대하고 확장하는 재단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교육사업과 문화사업은 그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5·18정신 교육은 정형화된 공교육과 달리 역사적 사적지와 사건, 경험자들의 증언, 그것의 상징적 의미와 가치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재현 수단과 매체들 및 교육 방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적 실천의 외양을 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 교육은 공교육과 달리 다양한 창의적인 교육내용과 전달 방식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에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강조는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고민의 산물인 교육·문화 사업은 결과적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청소년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년간의 재단의 교육·문화 사업은 5·18 교육을 어떻게 문화예술적으로 풍부히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5·18의 문화적 정수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교육사업은 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영역이며, 그 중에서도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즉 청소년 교육은 설립 초기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설립 이래 현재까지 교육사업은 대략 장학사업, 청소년 체험학습 및 참여활동, 지도자 교육,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 공교육 지원 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교육사업의 경과를 시기별로 간략히 요약해보면, 1990년대에는 1996년에 시작된 장학사업을 제외하면 뚜렷한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장학사업은 5·18 유공자 자녀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 국가폭력 피해자 자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사업으로 확대되어 ‘5·18 나눔장학금’과 ‘5·18희망장학금’으로 명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 동안 재단의 교육사업은 아직 독자적인 사업체계를 갖지 못한 채 다양한 사업 내용과 형식들을 실험하고 모색하였으며, 재원을 비롯한 역량이 미흡하여 타 기관과 단체와 연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많았다. 무엇보다 1990년대에 재단사업의 큰 방향은 5·18의 제도화 및 이를 위한 투쟁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및 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등이 수립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동안 2000년대에 재단 교육사업의 핵



심이 된 체험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사적지 해설 도우미나 순례단 조직 기획 등의 문제 의식으로 이미 표출되고 있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교육사업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설정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들이 구체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했다. 청소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 교육교재 개발, 교사 및 지도자 양성이라는 세 부분이 핵심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2000년부터 청소년 교육 사업이 확대되었다. 이것은 또한 5·18민주화운동 20주년을 맞아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재 단 조직과 사업 영역도 확대되는 것과 보조를 같이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재단은 5·18 청소년 교육을 과거 지향이 아닌 미래 지향으로 재정비하고, 5·18 정신을 시민 들이 공유하거나 교육적 이념과 가치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그 정신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발전시켜 갈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피하게 된다. 이런 반성과 문제의식에 따라 양적 확대와 성장기 동안에는 인권을 주제로 한 국제연대사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강화와 공교육에서의 5·18 교육 활성화 추진 이 주요한 사업 목표로 설정되고 실행되었다.

2005년부터 국비 예산이 재단에 배정되기 시작하고, 또 재단 사업의 영역이 기념사 업, 국제협력사업, 교육사업, 학술자료사업, 문화홍보사업 등으로 체계화됨에 따라 각 영역에 따라 개별 사업들도 정형화된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 으로 지속하게 되었으며, 해마다 계속 사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보충되고, 대상이 확 대되며, 프로그램이 다듬어지는 등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사업 실행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재단의 이러한 구조화의 결과 청소년 교육 사업에서는 사적지 체험학습, 5·18 전국고등학생 토론대회, 5·18 전국교사연수, 5·18민주화운동 수업사례 공모, 오 월지기 양성, 교육자료 개발과 배포, 5·18 협력학교 사업, 5·18 교육활동 지원 등의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재단의 20년 역사의 한 완결이자, 새로 운 역사를 위해 내부적으로 자기 혁신을 모색해야 할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재단의 문화사업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5·18 이 표방하는 의미와 가치를 상징적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이를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전달함과 아울러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전시켜 왔다. 5·18기념재단의 문화사업의 특징은 교육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추진되어 왔 다는 점에 있다. 지난 20년간 재단이 실행해 온 문화사업에는 ‘5·18 문학상’, ‘레드 페스타’, ‘5·18 청소년 연극제’, ‘오월길 안내 및 체험학습’, 계간지 ‘주먹밥’ 발행, ‘오 월문학총서’ 발간, 공연사업 등이 포함된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재단의 문화사업 및 문화적 이벤트에 대한 문제의식은 1990년대 부터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확인하고 계승하며 전파, 공유하는 작업은 곧 다양한 문화적 실천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것은

비디오, 책,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재현 매체로 구체화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재단은 그 설립 초기부터 사진집 제작이나 기억의 벽 설치와 같은 문화적 재현, 5·18 캐릭터와 문화상품 제작과 같은 5·18의 상징화를 중요한 사업 방향으로 설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결과 중 하나는 5·18 상징심볼 및 로고 공모 및 제작 사업이다. 5·18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과 로고를 제작하여 대외적인 인지도 제고 및 홍보에 활용하고, 이를 또한 상품화하여 5·18 정신을 전국화하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된 이 사업은 1999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이를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림 11> 캐릭터 넥이

한편 초기의 이러한 문화사업들은 2000년대에 들어 그 문제의식이 심화되고 또 정기적인 사업화의 필요로 인해 체계적인 틀을 갖춘 연례 사업으로 발전해 갔다. 청소년 대상 문화사업을 교육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향유하며 구성하는 실천에 참여토록 하는 청소년 문화에 대한 기획이 등장했다. 문화란 항상 주체들에 의해 경험된 의미세계이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을 단지 고정된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5·18의 한 부분을 스스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5·18의 의미와 외연을 확장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청소년 문화축제인 청소년 평화축제가 2001년 시작되어 2004년 레드 페스타(Red Festa)로 그 명칭과 내용을 발전시켜 현재까지 지속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적 실천과 예술적 재현의 형식들을 실험했다. 5·18 플래시 경연대회나 영화제작의 추진, 5·18 문학 공모 등이 시도되기도 했다. 또 5·18의 정신 뿐 아니라 재단의 이념과 가치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담론화하는 소식지 ‘주먹밥’이 창간되어 배포되기 시

작한 것도 이 시기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2005년부터는 사업부서가 정비되고 연차 사업들이 계속성을 갖고서 이루어지면서 재단의 문화사업도 안정적인 체계를 갖게 되었다. 레드 페스타, 청소년 연극제, 5·18 문학작품 공모, 오월길 사업 등을 근간으로 하는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문화사업이 실행되고, 각 사업들도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레드 페스타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는 문화축제로 자리를 잡았고, 청소년 연극제는 2006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연극 공연 대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이 시기에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5·18문학작품 공모를 통해 획득된 문학적 성과를 축적하고, 5월 정신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5월 문학 작품을 집대성하여 오월문학총서로 발간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2011년에는 문광부 및 광주시와 함께 기획하여 만들어진 사적 중심 탐방로인 오월길이 이전의 사적지 체험학습을 계승하여, 새로운 문화·역사 탐방 사업으로 자리잡은 것도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재단의 문화사업은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5·18과 민주주의, 평화와 인권의 정신을 문화적,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또 이를 교육하고 향유케 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문학을 비롯한 예술의 중요한 주제의식으로 강조함으로써 문화적 실천의 장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 2) 교육사업

### (1) 청소년 체험학습 및 참여활동

2000년을 기점으로 재단의 청소년 교육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에는 청소년 체험학습 및 참여활동이 있었다. 청소년들에게 5·18의 의미와 그 정신이 깃들여 있는 사적지를 중심으로 체험 교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된 체험학습은, 5·18 유적지와 연계하여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타 지역에서 오는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것도 사업의 목적 중의 하나로 설정되었다. 2000년대 이후 청소년 체험학습은 다양한 사업들이 시도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체험학습 및 참여활동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 2000년대 청소년 체험학습 교육

체험학습 내용	실행기간
---------	------

청소년 역사캠프	2001 ~ 2003
청소년 평화순례	2003 ~ 2004
사적지 체험학습	2001 ~ 현재(오월길 사업으로 승계)
전국고등학생 토론대회	2001 ~ 현재

### ① 청소년 역사캠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된 청소년 역사캠프는 청소년들이 5·18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그 의미를 자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이해와 역사적의식, 민주시민 의식을 배양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 청소년 역사캠프의 핵심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역사캠프 시범학교’ 사업을 통해 교육 대상별, 시간별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광주·전남지역 중, 고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각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실시하는 현장학습 또는 테마학습 프로그램을 재단에서 위탁받아 5·18 역사캠프로 운영하였다. 또 타 지역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거나 전국의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와 광주 근교의 가사문학관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지 청소년들에게 5·18 사적지와 그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에는 각급 학교의 현장학습 위탁교육으로 추진했던 것을 재단의 자체 사업으로 발전시켜, ‘5·18 형상화 벽화그리기’, ‘5·18 청소년 토론대회’, ‘5·18 청소년 역사캠프’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이 중 5·18 청소년 역사캠프의 주된 내용은 시청각 교육, 5·18골든벨 퀴즈왕, 표현 프로그램, 성지 참배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2002년의 역사캠프는 5월 18일~19일 동안 개최되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중 중고등학생은 전년도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포함하여, 경남 간디학교, 대구 청소년문화센터, 부산 인권평화센터, 서울 하자센터, 즐거운 학교 등을 주축으로 한 신청자들이 주로 참가했다. 대학생은 전국대학신문 기자단, 전국학생조직과 학생회, 시사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을 모집했다.

2003년의 역사캠프는 ‘청소년인권평화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청소년인권평화학교 사업은 인권평화체험학교, 평화토론 캠프, 청소년평화축제, 동아리 운영 등의 세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평화토론 캠프가 2001, 2002년의 청소년 역사캠프의 연장선 상에서 개최된 것이다. 평화토론 캠프의 주된 내용은 청소년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평화촌’을 형성하여 살면서 실제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과 문제들을 몸으로 체험하고 토론하며 훈련하는 것이었다. 이 캠프는 2003년 7월 25일~27일 동안 5·18기념공원, 전남대학교, 청소년수련원 등의 장소에서 개최되었으며, 13~24세의 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했다. 캠프의 주된 프로그램 내용은 인사초청 토론

회, 인권·평화를 주제로 모듬별, 공개 토론 등을 통한 평화촌 만들기, 갈등해소 및 평화 마인드 형성을 위한 워크숍 등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 역사캠프 사업의 핵심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5·18 및 민주·인권·평화에 대한 체험교육에 있었으므로, 이 사업은 2003년을 끝으로 자연스럽게 사적지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었다. 사적지 체험학습은 사적지 방문과 봉사, 이를 위한 사적지 안내지도사 양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청소년 역사캠프 사업을, 2005년에는 청소년 평화순례 사업을 모두 포괄하게 되었다.

## ② 청소년 평화순례

2003년 8월 16일에서 21일까지 5박 6일동안 15~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평화순례가 처음 실시되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가치를 체험하고 함양하는 캠프 활동으로 기획된 평화순례는 청소년들이 직접 사적지를 중심으로 5·18을 체험함으로써 5·18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함과 아울러, 이 청소년들이 교육과 체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 지역의 청년 인권평화 활동가로 성장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평화순례의 내용은 크게 1일 1소주제에 따른 모듬별 토론, 텐트촌과 학교 운동장 시설을 이용한 평화촌 형성, 축제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고 실천하는 도보순례, 그리고 이를 위한 광주 지역 도보순례 코스 및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 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으로 모의법정, 영창체험, 이주노동자 길거리 특강, 평화카페, 모의장례식, 5·18형상화 표현활동, 평화발언대, 자연과 함께-이불영화제, 캠페인 활동, 평화축제 등이 실행되었다. 도보를 통한 평화순례는 5·18자유공원 ~ 쌍암공원 ~ 국립5·18묘지 ~ 무등산 ~ 광주천 ~ 도청 ~ 5·18자유공원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답사하도록 했다.

2004년에도 8월에 청소년 평화순례가 개최되었다. 총 43명이 참가하여 3박 4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2003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평화순례는 다양한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행해졌는데, 이 연대에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5·18민중항쟁동지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예술치유연구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등이 함께 참여했다.

청소년 평화순례는 일정 장소에서 ‘평화촌’이라는 마을을 형성하여 지내면서 일상적으로 평화와 연대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감수성을 기르고, 도보 순례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몸소 체험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독특하고 획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역시 청소년 체험학습 사업의 일환으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04년을 마지막으로 2005년 부터는 사적지 체험학습 사업으로 통합 되게 되었다.

### ③ 사적지 체험학습

사적지 체험학습은 5·18을 체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간접체험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적지 체험학습은 크게 5·18 사적지를 중심으로 한 현장체험과 교육 및 학교 수준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별되었다. 또 사적지 체험학습은 5·18의 역사와 정신,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화된 강사진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2001년부터 사적지 체험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기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사적지 현장체험은 유관한 다른 사업들이 함께 결합되어 진행되었다. 그래서 사적지 체험학습은 평화순례나 역사교실, 협력학교 사업 등과 결합되어 이루어졌다. 크게 보아 사적지 체험학습은 초·중·고등학교 수준별로 교육내용의 차이를 두어 교육 대상의 특성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하는 맞춤형 교육과, 교육의 핵심 내용을 사적지 체험에 두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한 예로 2004년의 수준별 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다.

<표 43> 초등학교 현장학습 프로그램(2004)

프로그램명: '국립5·18묘지에 가본 적이 있나요?'			
단계(시간)	세부내용	교사역할	자료 및 유의점
사전학습	5·18 역사이해 교육	체험활동 관련 선수학습	www.518.org nemaum.w3ip.com/518
준비활동 (10:00~10:30)	지도교사 및 일정소개 지도그리기 방법 안내 및 지도(조별로 다른 주제 선택 유도)	조 나누기(인원 점검), 준비물 확인	크레파스, 도화지
중심활동 (10:30~13:30)	5·18구묘역-->송모루, 역사공간-->역사의 문-->유영봉안소-->묘역 <점심식사> -->추모탑-->참배광장-->추념문-->민주광장-->민주의 문	안전	장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지도를 그릴 시간을 주고, 답사가 끝난 후 지도를 완성할 시간을 준다.
정리활동 (13:30~14:00)	민주영령에게 편지쓰기(소원지) 진행 후 희망나무에 매달기	프로그램 평가서 작성	천 조각(지도자 준비)

<표 44> 중고등학생 현장학습 프로그램(2004)

프로그램명: '인권과 나'			
단계(시간)	세부내용	교사역할	자료 및 유의점
사전학습	5·18 역사이해 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체험활동 관련 선수학습	www.518.org
준비활동 (9:30~10:00)	지도교사 및 일정소개 '인권과 나'에 대한 문제제기	인원점검	크레파스, 도화지
중심활동 (10:00~12:00)	5·18구묘역-->승모루, 역사공간-->역사의 문 -->유영봉안소-->묘역-->추모탑-->참배광장 -->추념문-->민주광장-->민주의 문	안전	장소별로 전시실 관람, 영상물 시청, 분향, 참배 등이 적절한 시간배분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리활동 (12:00~12:30)	민주영령에게 편지쓰기(소원지) 진행 후 희망나무에 매달기	프로그램 평가 서 작성	천 조각, 필기구

<표 45> 중고등학생 현장학습 프로그램(2004)

프로그램명: '저항과 공동체 역사를 찾아서'			
단계(시간)	세부내용	교사역할	자료 및 유의점
사전학습	5·18 역사이해 교육	체험활동 관련 선수학습	www.518.org
준비활동 (9:30~10:00)	지도교사 및 일정소개 전시실 관람, 영상물 시청	조 나누기(인원 점검)	
중심활동 (10:00~12:00)	-영창/영창체험 '내가 만약' -내무반/노래가사 바꾸기, 투사회보 만들기 -식당/주먹밥 만들기 -법정/모의법정 '총을 든 시민군'	안전	-투사회보 만들기 (등사용지, 철침, 잉크 등) -주먹밥(밥, 김, 참깨, 소금) -모의법정(판사·죄수복)
정리활동 (12:00~12:30)	들불열사비 앞에서(하루를 되돌아 보며)	프로그램 평가 서 작성	학종이

그런데 재단의 청소년 체험 학습은 단순히 5·18을 체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 대한 체험형 학습이라는 의미를 넘어, 8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5월 운동과 각 주체들의 사회참여의 한 연장으로서 기획된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체험학습의 핵심 내용을 청소년들의 5·18 참여 혹은 5월 운동에의 참여로 간주하였고, 그 참여의 내용으로 시행

된 청소년들의 묘역 청소, 묘비를 닦고 정비하는 일, 참배자를 위한 사적지 안내, 단체 버스 안내, 주먹밥 먹기 체험 등은 다분히 의례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참여라는 의미의 체험 학습은 이후 청소년 체험 학습의 주된 요소로서 자리잡게 된다.

#### ④ 5·18 전국고등학생 토론대회

청소년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을 이해시키고 5월 정신을 내면화하게 함에 있어 논술과 토론이라는 방법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는 5·18 전국고등학생 토론대회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기존의 획일화된 학습과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체험과 캠프 형식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체험하게 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이 대회의 큰 특징이자 목적이다. 아울러 토론에 관심있는 교사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육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이 사업이 기대하는 효과 중의 하나다.

토론대회의 진행은 각 분야별 20명 내외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이 심사위원들이 예선에 응모한 논술들을 심사하여 30팀(60명)을 본선에 선발한다. 본선에서는 토론을 통해 우열을 가리게 된다. 논술과 토론의 주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주제,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주제가 선정되어 제시된다. 토론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평가에는 태도, 가치관 등의 기본 소양, 이해도, 사고력, 설득력 등을 포함한 종합적 사고능력, 토론주제의 표현능력과 방법론의 주장능력 등 의사소통 표현능력 등의 항목을 주로 고려한다. 토론대회는 경쟁을 지양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대회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려 시상을 하는데, 시상 내역은 국회의장상 1팀, 안정행정부장관상 1팀, 국가보훈처장상 1팀, 경기도교육감상 2팀, 광주광역시교육감상 2팀, 전라남도교육감상 2팀, 전라북도교육감상 2팀, 광주광역시장상 2팀, 전라남도지사상 2팀, 전남대학교총장상 2팀, 조선대학교총장상 2팀, 성공회대학교총장상 2팀, 5·18기념재단이사장상 3팀 등이다.

대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이 대회는 단순히 경쟁을 통해 순위를 매기는 통상의 대회를 지양하고, 대회 참여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향유이자 동시에 체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토론대회 참가자들(본선 진출자)은 첫날 학생들간 친교활동, 토론학습교육, 묘지참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둘째날에는 본선 토론 1차와 2차, 그리고 자유토론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날에는 결선토론과 평가, 시상식, 그리고 폐회식 등의 행사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경쟁과 결과를 중시하기 보다, 합의와 절차, 그리고 대동정신이라는 5·18의 정신을 체험하게 된다. 또 심사위원은 대회 전에 1박 2일 워크숍을 갖고, 대회 첫날에는 토론대회 사전 점검, 둘째와 셋째 날에는 토론 심사와 평가 회의를 갖게 되고, 인솔 교사는 대회 둘째날 토론교



육의 실천과 방법에 대한 토론수업안 공유 모임을 갖고, 마지막날에는 대회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5·18 전국고등학생 토론대회의 특징은 학생들이 개인이 아닌 2인 1팀으로 참여한다는 점, 단지 토론 대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캠프에 참여하여 2박 3일간 체험 캠프를 경험한다는 것, 그래서 토론대회 참여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되는 새로운 체험 학습이 된다는 점에 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전국고등학생 토론대회의 개최 현황, 그리고 주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6> 5·18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현황

회	일시	참여인원	주제	
1회	2001. 5.19~5.20	52명	전체 주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과제와 극복방안
2회	2002. 5.31~6.2	58명	주제1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미국
			주제2	한국사회의 인권과제
			본선 주제	1차: 테러와 분쟁의 원인과 대책 2차: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과 올바른 통일방안 3차: 한반도 평화정착과 미국과의 관계
			결선 주제	한국사회의 인권과제 1. 선거연령 18세 인하 여부 2. 사형제 폐지 여부
3회	2004. 9.17~9.19	126명	전체 주제	10대가 세상의 주역이다
			본선 주제	1차: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방안 2차: 청소년이 생각하는 우리 교육
			결선 주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4회	2005. 9.23~9.25	128명	전체 주제	내가 생각하는 한반도 통일방안
			예선	5·18로 본 한국 민주화
			본선 주제	1차: 해방전후 정세와 분단의 원인 2차: 분단이 우리사회 인권에 미친 영향 3차: 내가 생각하는 한반도 통일방안
			결선 주제	1. 반통일 극복방안 2.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3.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동북아 협력방안
5회	2006. 9.22~9.24	192명	전체 주제	5·18민중항쟁 정신으로 비추어 본 한미자유무역협정
			예선	5·18민중항쟁 정신에 비추어 본 한미자유무역협정
			본선 주제	1차: 5·18정신이란 무엇인가? 2차: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긍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3차: 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찬성, 반대한다
			결선 주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6회	2007. 9.7~9.9	174명	전체 주제	인간의 빛 권리의 그림자
			예선	두 개의 태극기 사이에서 나와 5·18의 만남
			본선 주제	1차: 교육 안과 밖에서 바라 본 인권의 두얼굴 2차: 구분하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한가? 3차: 인권존중의 사회를 위하여, 나는?
			결선 주제	인권은 만병통치약인가?
7회	2008. 9.26~9.28	164명	전체 주제	성공하는 삶이란?
			예선	5·18로 바라보자, 88만원 세대
			본선 주제	1차: 내가 꿈꾸는 성공, 우리가 말하는 성공 2차: 개인의 성공과 사회 정의
			결선 주제	'국민성공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

8회	2009. 9.11~9.13	322명	전체 주제	청소년, 2009 한국교육을 이야기하다
			예선	우리에게 교육이란 무엇인가? (5·18로 바라본 2009 한국교육)
			본선 주제	1차: 청소년에게 교육을 묻다 2차: 청소년, 한국교육을 진단하다
			결선 주제	2009 청소년이 바라는 한국교육
9회	2010. 9.10~9.12	170명	전체 주제	2010 민주주의, 청소년에게 길을 묻다
			예선	5·18민중항쟁 30년,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본선 주제	1차: 민주주의에 대한 기억-내 삶과 민주주의 2차: 우리사회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는가? 3차: 청소년 민주주의를 말하다
			결선 주제	5·18민중항쟁과 민주주의: 청소년의 역할 찾기
10회	2011. 9.23~9.25	150명	전체 주제	事故몽치? 思考몽치?
			예선	영화 '화려한 휴가'에 등장하는 인물의 시선으로 바라본 5·18
			본선 주제	1차: 청소년의 성과 사랑 2차: 직업과 노동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3차: 청소년이 차별과 만나는 방식
			결선 주제	청소년, 미래를 꿈꾸다
11회	2012. 9.7~9.9	312명	전체 주제	청소년 문화권리장전
			예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발적인 상상(비평문)
			본선 주제	1차: '청소년 문화'를 말하다 2차: 문화, 아이콘으로 묻다 3차: 청소년, 문화를 논하다
			결선 주제	청소년, 문화권리장전을 외치다
12회	2013. 8.23~8.25	592명	전체 주제	2013 청년상상, 불가능의 세계를 켜다
			예선	런던올림픽 개막식 또는 레미제라블을 보고 논제 뽑기
			본선 주제	1차: 모듬별 발표 '우리가 꿈꾸는 세상'
				2차: '레미제라블'(영화)을 중심으로 키워드 토론
				3차: '레미제라블'(영화)을 중심으로 논제 토론
				4차: 런던올림픽 개막식(동영상)을 중심으로 논제 토론
결선 주제	1. 님을 위한 행진곡과 라 마르세예즈 2. 불가능의 세계를 켜기 위한 제언 3.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한 대안인 대학평준화는 가능한가? 4. 인권조례제정과 차별, 학생의 표현의 자유, 단결권의 대립 등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우리 학생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림 12> 제11회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 (2) 지도자 교육

### ① 5·18 전국 교사 연수

5·18 전국 교사 연수는 공교육 현장에서 일선 교사들이 우리 현대사의 민주주의와 5·18민주화운동을 교육함에 있어 맞게 되는 열악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내용을 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교육 제도 내에서 교사 연수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의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했고, 또 교사 연수를 담당해 줄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아울러 연수를 위한 교재 개발도 시급히 요구되었다. 재단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2001년 5월에 처음으로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30명을 초청하여, ‘민주주의·인권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교사 연수를 시작했다. 교사 연수의 주제와 내용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 큰 주제를 개략해 보면, ‘5·18’,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을 주로 다루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복지’, ‘노동’, ‘핵’ 등의 시사 정치적 주제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교사 연수는 참여 교사들이 광주 지역 교사로 한정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타 지역의 교사들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출장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그래서 교사 연수는 각 지역 교육청의 특수분야 직무연수로 지정되어, 부산, 경북, 전북 등의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2007년부터는 교사연수 심화과정으로 ‘민주시민 교육현장탐방’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교사 연수의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교사 연수는 대체로 연중 광주 2회, 타 지역 1회 총 3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분야 직무연수로서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2013년에는 1회만 실시되었다. 연수는 1박 2일 동안 개최되며 7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되는데, 분과수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7> 교사연수 분과수업 현황(2013년)

1분과	초등학생과 함께 하는 5·18 수업
2분과	중고등학생과 함께 하는 5·18 수업
3분과	영화로 5·18 수업하기
4분과	만화로 5·18 수업하기
5분과	연극으로 5·18 수업하기
6분과	5·18수업으로 철학하기
7분과	5·18과 교육협동조합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교수연사 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8> 교사 연수 개최현황: 2001~2013

연도	개최 시기	내용 및 참가 현황
2001	5월	전국 중·고교 교사 초청 ‘민주주의·인권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광주, 30명)
	12월	5·18 및 인권평화교육 전국 교사연수 (광주, 40명)
2002	1월	전국역사교사모임 광주연수 (광주, 170명)
	5월	전국교사직무연수 ‘5·18 및 인권평화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수’ (광주, 36명)
	7월	‘5·18과 평화교육’ 부산경남교사연수 (부산, 30명)
2003	10월	전국교사직무연수 ‘5·18 및 인권평화 사회참여학습 대구교사연수’ (대구, 25명)
	1월	전국교사직무연수 ‘5·18 및 인권평화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수’ (광주, 30명)
	8월	전국교사직무연수 ‘5·18과 4.3’ (제주, 30명)
2004	10월	전국교사직무연수 ‘동학에서 5·18까지’ (전북, 40명)
	5월	전국교사직무연수 ‘새내기 교사를 위한 오월기행’ (광주, 40명)
2005	4월	전국교사직무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이야기’ (광주, 30명)
2006	4월	전국교사직무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이야기’ (광주, 29명)
	5월	살아있는 현대사 수업을 위한 교사연수 (광주, 29명)
	6월	살아있는 현대사 수업을 위한 교사연수 (서울, 30명)
	10월	살아있는 현대사 수업을 위한 교사연수 (부산, 34명)
2007	4월	전국교사직무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현대사 이야기’ (전남도교육청, 여수, 35명)
	5월	전국교사직무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현대사 이야기’ (광주시교육청, 광주, 30명)
	6월	전국교사직무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현대사 이야기’ (서울, 38명)
2008	10월	전국교사직무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현대사 이야기’ (부산, 26명)
	1월	인권감수성향상 교사직무연수 ‘인권, 학교와 날다’ (광주, 32명)
	4월	명사와 함께하는 5·18수업열전’ (부산·경남연수, 42명)
	5월	명사와 함께하는 5·18수업열전’ (대구·경북연수, 20명)
2009	5월	명사와 함께하는 5·18수업열전’ (서울·경기연수, 28명)
	10월	명사와 함께하는 5·18수업열전’ (원주·강원연수, 39명)
	4월	전국교사직무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이야기’ (광주, 25명)
	5월	전국교사직무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이야기’ (대구지역 자율연수, 25명)
2010	10월	전국교사직무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이야기’ (원주지역 자율연수, 56명)
	4월	전국교사직무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이야기’ (부산지역 자율연수, 50명)
	7월	전국교사직무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이야기’ (광주, 47명)
2011	12월	전국교사직무연수 ‘인권, 교육철학을 고민하다’ (광주, 40명)
	5월	‘5·18인정교과서 활용을 위한 교사연수’ (광주, 150명)
	10월	전국교사직무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이야기’ (광주, 25명)
2012	12월	부산지역연수 ‘서해성·한홍구의 토크 콘서트’ (부산, 27명)
	4월	전국교사직무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이야기’ (광주, 25명)
	4~5월	전국교사직무연수 ‘명사와 함께하는 오월길’ (광주, 100명)
	4~11월	부산지역연수 (부산, 200명)
	10월	전국교사직무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이야기’ (광주, 30명)

2013	5월	전국교사직무연수 ‘역사계승교육의 새 길 찾기’ (광주, 120명)
------	----	--------------------------------------



<그림 13> 5·18 전국 교사 연수

## ② 5·18 민주화운동 수업사례 공모

5·18 수업사례 공모 사업은 청소년 및 미래 세대에 대한 5·18 정신 교육 및 계승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교육 현장에서 5·18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아울러 5·18 수업 사례의 전국적 공모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광주 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5·18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제고하는 것도 이 사업의 중요한 취지 중 하나였다. 또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교과별 수업안 개발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의 장점 중 하나다. 5·18 수업사례 공모 사업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매년 20여개의 학교들이 공모에 응모하고 있고, 이 중에서 선정된 수업 내용들은 일선 공교육 현장에서, 특히 협력학교를 중심으로 수준별 수업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업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5·18 수업사례를 공모를 통해 발표하게 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일반화와 전국화를 도모하고, 참여 교사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및 현대사에 관심이 있는 전국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2007년 시범 사업은 ‘선생님, 올해 오월에는 이렇게 공부해요’라는 주제 하에 광주, 부산, 대전, 서울의 교사들이 참여하여, 역사, 미술, 도덕 등의 수업사례를 발표하였고, 그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2008년에는 5·18 인정교과서가 개발됨에 따라 이 인정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사례 발표회가 이루어졌다. 2010년부터는 현재와 같은 5·18민주화운동 수업사례를 공모하

여 우수한 사례를 선발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보급함과 아울러 선정된 지도 교사에 대해서는 해외교육현장 탐방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010년 첫째 공모에는 초등학교 3편, 중학교 4편, 고등학교 3편이 공모에 응하였고, 각 1편씩이 우수 사례로 선발되었다. 2011년부터는 응모하는 수업사례도 증가하고, 선정된 우수 수업사례도 각 학교 수준별로 늘어났다. 우수 사례로 선발된 수업은 수업안 및 공개수업 동영상을 DVD로 제작한 후 다음 해의 교육사업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공모에서 선정된 강의명과 지도교사 및 학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9> 5·18 민주화운동 수업사례 공모 개최 현황: 2010 ~ 2013

연도	강의명	성명	학교	해외교육 현장탐 방
2010	당시 언론보도 비판을 통한 5·18 바로알기	박상철	서광초등학교	일본
	우리에게 5·18은 무엇인가?	고경애	무등중학교	
	5·18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과 5·18 정신	김유진	광주전자공고	
2011	내가 만든 5·18 미니북	류정미	문우초등학교	독 일 · 프랑스
	우리 고장의 자랑으로서 5·18민주화운동 이해하기	최나영	비아초등학교	
	오월애	백옥진	경기 해솔중학교	
	희망으로 부활하는 5·18	조미옥	나주 봉황중학교	
	문제의식을 통해 살펴 본 5·18민주화운동	박래훈	고흥 풍양중학교	
	역사속의 5·18, 우리의 5·18	최승원	전남여자고등학교	
2012	사진으로 보는 5·18(5·18과 우리)	김민우	남양주 별내초등학교	러시아
	용서와 화해로 배우는 5·18민주화운동	배성호	서울 수송초등학교	
	5·18 기념행사 초대장 쓰기	박세영	순천 성동초등학교	
	잊을 수 없는 그날 “10일 간의 친구 이야기”	박진영	순천 신흥초등학교	
	5·18민주화운동 이야기로 통해 좋은 친구 되는 방법 알아보기	박상명	송정서초등학교	
	5·18민주화운동을 통한 ‘인권’ 이해하기	양수희	비아초등학교	
	민주·인권 중심의 모듬활동을 통한 5·18민주화운동 이해하기	천혜정	장덕초등학교	
	사이좋은 친구	한연자	어룡초등학교	
	눈부신 광주	김태은	수완중학교	
	5·18과 아마추어 무선통신	임동현	광주전자공고	
2013	5·18민주화운동 그 역사 속 현장을 찾아서	김은중 김태희	유안초등학교	러시아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시민정신 알기	박영렬	용두초등학교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본 인권과 초등생의 삶	양은석	서울수송초등학교	
	5·18민주화운동 그 역사 속 현장을 찾아서	양주영	유안초등학교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모두에게 아픈 기억	임형수	순천신흥초등학교	
	북아트를 활용한 5·18민주화운동 사실적 접근	최성광	제석초등학교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알맞은 매체를 사용하여 발표하기	최정수	서울수송초등학교		

대구2.28민주운동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박재홍	대구성광중학교
대구2.28민주운동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전혜영	대구구암중학교
내가 만들고 느끼는 생생한 5.18-5.18 스토리텔링 하기	진수민	각화중학교
5.18이 남긴 소중한 단어	한명숙	남춘천중학교
달빛이 함께하는 5.18	차경호	대구경덕여자고등학교

한편 우수 사례로 선발된 교사들은 단기간 해외 교육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부터 수업사례 발표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일본,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의 해외 선진국 교육 현장을 견학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외 선진 민주주의 교육현장 탐방은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참가 교사들은 선진 민주주의 사회의 교육현장 탐방을 통해 식견과 안목을 넓히고 우리의 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

### ③ 오월지기 양성 사업

2001년부터 시작된 사적지 체험학습은 체험학습을 진행할 전문 강사진을 양성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한 기획은 2000년 ‘5·18 안내도우미 육성 및 운영’ 사업으로 처음 시작되었는데, 주로 5·18 행사주간 동안 안내가이드 역할을 맡도록 운영하였다. 이와 연관된 사업이 5·18자원봉사자 육성 사업으로, 5월주간 행사와 5·18 묘역 안내 등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훈련하는 사업이 2001년부터 함께 진행되었다.

2006년부터는 ‘사적지 안내지도자 육성 및 운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적지 중심 체험학습이 보다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국립5·18 묘지, 5·18자유공원, 5·18기념공원 등 민주화운동 관련 사적지를 찾는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시민들에게 효과적인 안내와 역사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안내와 교육을 담당하는 사적지 안내해설사와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오월강사단을 구성, 운영하였다. 오월지기가 안내를 시작한 2006년 이전에는 사적지 체험학습이 관심있는 교사와 그들이 인솔하는 학교 학생들로 선별적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적지 체험학습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습 대상을 학생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포함하기 위해 오월지기 및 오월강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오월지기는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연 2회, 각 30명씩 모집하며, 5·18 사적안내지도자 정규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강의를 받도록 했다. 2007년의 경우 오월지기는 4주 60시간의 교육을 받는 외에, 추가적으로 답사교육 1회, 이론교육 3회 9시간을 교육받았다. 교육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사, 관련 문학 및 문화 등 주제별 이해, 안내기

법 교육 등을 포함하였다.

청소년 체험학습 사업이 사적지 안내지도자 육성 및 운영사업과 결합된 주된 이유는 체험학습 및 안내의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이 내·외부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자원활동가 및 사적안내 봉사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체험학습 및 안내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체험학습의 내용이 체계화 및 교육 대상별로 수준에 맞게 구성되지 못함으로 인해 그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내부 반성을 통해 청소년 체험학습은 2006년부터 사적지 안내와 교육을 전문화시킨 오월지기 양성 및 그 활동과 결합하게 되었던 것이다.

2007년 이후 사적지 체험학습은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사전 신청을 받은 후 안내 및 교육 계획을 협의한 후 안내자를 배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체험학습 내에 ‘수험생을 위한 민주주의 학교’를 운영하여 금호고를 비롯한 6개 고등학교 학생 1,800여명이 5·18문화체험 교육을 받았다. 사적지 안내 및 체험학습은 해마다 참여 인원이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안내인원 14,961명, 안내횟수가 490회에 이를 정도로 그 외연과 내실이 확대 및 심화되고 있다

2011년 이후 사적지 체험학습 및 오월지기 양성 사업은 오월길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오월길 사업은 체험학습의 핵심인 사적지 체험을, 26개의 5·18 사적지를 중심으로 하는 18개의 오월길을 따라 오월사적 안내해설사의 해설을 통해 체험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오월길은 둘레길이나 올레길과 같은 문화적 탐방로를 지향하고 있으며 동시에 교육적 효과를 꾀하여 2011년 만들어졌는데, 이것의 구체적 내용은 문화사업 부분에서 상술한다.



<그림 14> 청소년 체험학교

### (3)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

5·18민주화운동을 교육하는데 기반이 되는 자료를 과목별, 수준별로 개발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교재개발팀을 운영하여 초등학생용과 중



학생용 수업 리플렛, 수업용 CD, 교사용 자료와 초등학생용 영상교재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다. 또 만화책자 「기영이의 5월여행」과 중등용 영상교재 「선생님과 함께 하는 오월이야기」도 제작되었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용 인정도서는 2006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07년에 완료되었다. 2008년에는 교육과학연구원 심의를 통과하였고, 교육청 담당 장학사 승인 번호를 획득했다. 이와 함께 초등 및 중등 교과서 지도서도 2008년과 2009년에 개발되었다. 이 인정도서는 2009년 처음으로 금호초등학교, 문화중학교, 효광중학교, 전남공고, 전자공고, 자연과학고 등 6개 학교에 초등교과서 1,700권, 중등교과서 4,300권이 보급된 이래 현재까지 광주 및 전남권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의 지역 학교들에까지 보급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 동안 배포된 도서 및 CD의 합계를 살펴보면, 초등교과서는 19,660권, 중등교과서는 38,922권, 초등지도서는 3,437권, 중등지도 CD는 3972개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교과서 및 지도서와 CD의 연도별 배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0> 초등교과서, 중등교과서, 초등지도서, 중등지도 CD 연도별 배포 현황: 2009~2013

연도	초등교과서	중등교과서	초등지도서	중등지도 CD	
2009	900	3,500	40	100	5·18협력학교(중등10개교, 초등 2개교)
	300	600	60	80	신청학교 배포
	800	1,200	200	300	재단 교육사업 활용(교사연수, 관련교과 모임)
계	2,000	5,300	300	480	
2010	6,893	7,272	146	145	광주시 초, 중, 고등학교(학교별 40권 내외)
	3,441	2,952	1,147	984	경기도 초, 중, 고등학교(학교별 3권)
	100	100	100	100	재단 교육사업 활용(교사연수, 관련교과 모임)
계	10,434	10,324	1,393	1,229	
2011	1,773	2,073	591	691	서울시 초, 중, 고등학교(학교별 3권)
	1,242	843	414	281	강원도 초, 중, 고등학교(학교별 3권)
	1,563	1,251	521	417	전남 초, 중, 고등학교(학교별 3권)
계	4,578	4,167	1,526	1,389	
2012	1,688	754	68	30	광주 초, 중, 고등학교(초등 34, 중등 10, 고등 5)
	300	300	100	100	재단 교육사업 활용(교사연수, 관련교과 모임)
계	1,988	1,054	168	130	
2013	0	29,070	0	955	경기도 955개 중고등학교(중학 471, 고등 290)
	882	1,330	50	199	2013년 재단 웹사이트 신청 접수를 통한 배포
계	882	30,400	50	1,154	



<그림 15> 5·18 수업용 교재

또 5·18 수업용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연구용역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이 사업은 5·18민주화운동을 교육하는데 기반이 되는 자료와 방법론을 과목별로 연구하여 발표하고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사업은 5·18민주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교육의 필요성, 5월 정신 계승 관련 교육적 가치를 구체화하는 교육내용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5·18을 포함한 민주화운동 관련한 용어와 개념들을 학생 수준별로 정리하고,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정리된 개념을 토대로 교육 자료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수업사례 소개 및 모범 수업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생생하고 다양한 5·18 수업’으로 발간되어 일선 학교에 배포되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교과별 수업안 개발 사업은 2004년 역사와 미술, 2005년 클럽 활동, 2006년 초등 도덕, 2007년 국어와 사회 등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림 16> 5·18 교육용 자료

<표 51> 재단이 발간한 5·18 교육용 도서

구분	제목	저자	대상
교육용	자전거	박상률 지음	초등고학년

도서		이육재 그림	용
	망월	김성재 지음 변기현 그림	중·고등용
	망월 지도서	김태은·고은자·김명선·최지혜 지음	중·고등용
	기영이의 5·18 여행	도래미 글 이우진 그림	초등고학년용
	5·18 초등교과서	김영섭·박상철·박장규·박준·정남석 지음	초등용
	5·18 초등교과 지도서	고은석·노훈주·박상철·박준·배아영·이주영·정남석 지음	초등용
	5·18중등교과서	김남철·김영주·박관주·이아라·임광호·장용준 지음	중·고등용
	5·18중등지도 CD	5·18기념재단	중등용
	초등 수업활동지	김나영·김명일·김보경·김승태·신경만·임경희·최경선 지음	초등용
	중등 수업활동지	김영주·김태은·임광호 지음	중·고등용
수업지도 참고도서	생생하고 다양한 5·18수업: 역사	전병철 외 11명 지음	중·고등용
	생생하고 다양한 5·18수업: 사회	박승미 외 10명 지음	중·고등용
	생생하고 다양한 5·18수업: 도덕	하유정 외 7명 지음	중·고등용
	생생하고 다양한 5·18수업: 미술	정오삼 외 9명 지음	중·고등용
	생생하고 다양한 5·18수업: 국어	박안수 외 8명 지음	중·고등용
	생생하고 다양한 5·18수업: 클럽활동	문현승 외 5명 지음	중·고등용
	생생하고 다양한 5·18수업: 초등	배성호 외 6명 지음	초등용

<표 52> 재단이 발간한 5·18 교육용 자료

구분	제목	저자	대상
인문수업	5·18인문수업안: 철학	이행민 외 2명 지음	중·고등용
	5·18인문수업안: 문학(소설)	심영의 지음	중·고등용
	5·18인문수업안: 영화	이육호 지음	중·고등용
	5·18인문수업안: 음악	서정민갑 지음	중·고등용
음악	오월의 노래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전학년용
	노래방	5·18기념재단	전학년용
영상	문학작품(소설) 영상자료	송기숙·윤정모 지음	전학년용
	문학작품(시) 영상자료	김창규·우대식 지음	전학년용
	5·18민주화운동 영상교재: 내 이름은 김동재입니다	5·18기념재단	초등학생용
	5·18민주화운동 영상교재: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이야기	5·18기념재단	중등용
	오월상생	전승일 감독	전학년용
	그 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DK미디어·동천미디어	전학년용
	기억을 기억하라	양선희 감독	전학년용
	다큐멘터리 5·18	오창규 연출	전학년용
희생학생 추모영상	5·18	전학년용	
웹툰	열두살 삼촌	황규섭 원작·BooD 제작	전학년용

웹 교육 자료	5·18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	박상철·김보경 지음, 자우 미디어	초·중등용
전 시 용 사진	5·18민중항쟁 사진자료집	나경택 외 지음	전학년용

#### (4) 공교육 지원

##### ① 5·18 협력학교 사업

5·18 협력학교 사업은 학교 현장에 5·18 교육을 정착시키고, 교사들에게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협력학교 사업의 내용은 크게 자원봉사, 재량활동, 체험학습, 계기교육으로 구분된다. 자원봉사는 협력교의 5·18 시범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레드 페스타 등 재단의 모든 사업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교육 내 5·18 교육과 재단의 교육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안 중 하나다. 재량활동은 5·18 교육을 학교의 재량활동이나 클럽활동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면 연극동아리 활동이나 체험학습 등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체험학습은 재단이 실시하는 5·18 체험학습, 사적지 방문, 공연관람 등으로 이루어지며, 계기교육은 협력학교에 교육자료를 제공하거나, 협력학교 교사들의 연수, 5월행사 참여 등을 지원해준다.

협력학교 사업은 광주 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협력학교 사업을 통한 5·18 교육은 학교 수준별 및 개별 학교 특성별로 교육 내용을 특화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재단의 협력학교 사업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2002년 최초로 광주 자연과학고등학교와 협력교 사업을 추진하여, 5·18연구 시범학교 사업을 운영했다. 2004~2005년에는 무진중학교와 5·18연구 시범학교 사업을 실시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2006년에는 광주 자연과학고등학교, 문화중학교, 광주 전남 여자고등학교와 공식적인 협력학교 협약을 맺게 되었고, 협력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도 이들 3개 학교 뿐 아니라 추가로 3개 학교가 더 포함되었다. 이후 표에서 보듯 협력학교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며, 협력학교 수도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53> 5·18 협력학교 사업 경과

연도	내용
2002 ~ 2003	▶ 광주 자연과학고등학교 협력교육 및 5·18연구 시범학교 운영
2004 ~	▶ 광주 무진중학교 5·18연구 시범학교

2005	
2006	▶ 광주 자연과학고등학교 5·18문화예술시범교육 프로젝트
2007	▶ 광주 자연과학고등학교, 문화중학교, 광주 전남여자고등학교 협력교육 계약 체결 ▶ 금호초등학교,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전남공업고등학교 협력교육 인정 (계약 미체결)
2008	협약체결 및 연장: 신가중, 송우초교, 광주자연과학고, 전남공고, 문화중, 광주전자공고, 전남여고, 금호초교 총 8개 (2008 1차 이사회)
2009	▶ 송우초: 수업과 체험학습을 통한 5·18 바로알기 ▶ 신가중: 교과 수업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 나주교: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5·18정신의 함양과 계승 ▶ 목포향도여중: 5·18민주정신을 UCC와 셔츠로 표현하기 ▶ 산마을고: 민주, 인권, 평화의 감수성 키우기 ▶ 순천팔마교: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온몸으로 느끼고 표현하기 ▶ 자연과학고: 5·18인정교과서를 활용한 민주시민교육 ▶ 전남공고: 학교의 다양한 생활 속에서의 5·18만나기 ▶ 전남여고: 5·18민주화운동으로 한걸음 성숙한 '의향광주' ▶ 전자공고: 체험학습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5·18 정신계

5·18 협력학교 사업은 2009년에 종료되었다. 형식상 협력학교 사업은 5·18을 교육하는 학교에 대해 재단이 수업 교재, 시범 수업안 등 여러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2009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협력학교 사업이 재단의 교육 사업에서 그 중요성이나 의미가 상실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협력학교 사업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10여년간 진행된 결과 각 학교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서 자발적으로 5·18 교육을 실시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범사업의 성격을 지녔던 5·18 협력학교 사업은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5·18 교육의 뿌리를 내리는 성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② 5·18 교육활동 지원

5·18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 활동 지원, 5·18민주화운동 교육활동 지원, 그리고 청소년들의 학교 동아리나 청소년단체 등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이 사업은 2002년 청소년 교육연구팀 운영 사업에 대한 지원이 그 출발점이 되었다. 교사 4명으로 구성되어 청소년 공교육 및 교사사업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획하는 사업으로, 교재개발, 시교육청 지정 특수분야 교사연수 기획, 각종 학교 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에 대해 44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교육연구팀은 2003년 청소년교육위원회 운영사업으로 확대되어, 참여 교사의 수도 확대되고, 사업 내용도 5·18 및 민주·인권·평화 교육에 대

한 연구를 교과별, 내용별, 과제별로 체계화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이 위원회는 교재 개발, 교사연수 기획, 수업안 마련, 청소년인권평화학교 등의 재단 청소년 교육사업 운영지원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현재 5·18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 학교의 5·18민주화운동 교육활동 등에 대해 교재, 강의안 및 강사 파견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를 5·18 협력학교 및 연구학교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지원은 2003년 청소년 동아리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처음 구체화되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인 민주·인권·평화를 계승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이 사업은 민주·인권·평화를 주제로 한 영상, 수화, 만화, 토론 등의 청소년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선발하여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다. 2003년에는 연극, NGO, 토론 분야에서 4개 팀이 응모하여 지원을 받았다. 이 사업은 2004년 레드 페스타가 시작된 이래 청소년 동아리나 단체를 통한 사회참여는 레드페스타와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학교 동아리나 청소년 단체에 대해 현재 매년 총 10팀에 각 팀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 사업은 단순히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활동이 5월에 개최되는 청소년들의 문화 축제인 레드 페스타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민주시민 교육강좌 지원은 재단의 교육 사업을 청소년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반 시민에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 대표적인 사업은 오월강사단 육성 사업이다. 이것은 5·18 교육과 시민교육의 질적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 전문적이고 심화된 강사단 운영이 필요하고, 계기교육 또는 청소년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5·18 교육과 시민교육을 일상화하고 교육대상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전문적이고 심화된 5·18 교육으로 시민교육 활동이 가능한 강사단을 운영한다는 목표 아래, 주제에 따른 영역별 관련단체 중심으로 활동가를 추천받거나 모집하고, 교육 내용에서 5·18정신과 가치가 각 영역별 민주시민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또 전문적인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영역별 표준교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5) 장학 사업

장학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재단의 설립과 함께 일찍 제기되어, 민주화운동 및 국가폭력 피해 자녀,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이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1996년에 5·18유공자 자녀 10명에게 백만원씩, 총 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이 장학사업의 시작이다. 1997년에는 5·18유공자 자녀 30명에게 총 2천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었고, 이 중 일부는 마사회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1998년에는 장학금 수혜 대상이 확대되었다. 5·18유공자 자녀와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각급 교육기관이 추천한 학생들 68명이 장학금을 수여받았으며, 총 장학금 규모는 2천9백5십만원으로 증액되었다. 1999년에는 장학금 수혜 학생이 5·18유공자 자녀와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각급 교육기관이 추천한 학생들 190명으로 확대되었고, 총 장학금 금액 역시 6천만원으로 증액되었다. 2000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5·18유공자 자녀와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각급 교육기관이 추천한 학생들 156명에게 9천3백6십만원이 지급되었고, 2001년에는 비슷한 규모로 학생 161명에게 8천9백2십만원이 수여되었다. 하지만 2002년부터는 총 장학금 지급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다. 2002년에는 60명의 학생에게 총 4천5백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2003년부터는 장학금 수혜대상의 변화가 있었다. 전국국공립대학 및 지역대학교,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화운동유관기관, 영호남 교육청 및 기타 소득층 학생으로 수혜대상이 변화 및 확대되었으며, 2003년 총 수혜학생은 54명에 수혜금액은 4천만원이었다. 이러한 장학금 수혜 대상은 2011년까지 동일한 기조가 지속되었고, 대략 5천여만원의 장학금이 매년 지급되었다. 수혜 학생수와 지급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4년 53명에게 4천4백5십만원, 2005년 53명에게 5천2백만원, 2006년 65명에게 5천5십만원, 2007년 84명에게 5천8백만원, 2008년 78명에게 5천6백만원, 2009년 69명에게 5천2백만원, 2010년 72명에게 5천5백만원, 2011년 70명에게 5천2백만원이 지급되었다.

한편 2012년에는 장학금 명칭 및 수혜 대상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민주화운동 및 국가폭력 피해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5·18 희망장학금’,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5·18 나눔장학금’으로 각각 명명하고, 이 둘을 분리해서 지급했다. 희망장학금은 2년간 지원이 되고 나눔 장학금은 1년간 지원이 되는데, 이전의 장학금 지급 방식과 비교할 때 선택과 집중으로 그 성격이 다소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총 지급 장학금 액수도 하향 조정되었다. 그래서 2012년에는 희망 장학금으로 4명, 나눔 장학금으로 13명, 총 3천만원이 지급되었고, 2013년도 마찬가지로 희망 장학금 4명, 나눔 장학금 13명, 총 3천만원이 지급되었다.

**<표 54> 연도별 장학사업 현황: 1996~2013**

연도	지급 인원	장학금액
1996	5·18 유공자 자녀 10명	10,000,000
1997	5·18 유공자 자녀 30명 (마사회 기부금)	20,000,000
1998	5·18 유공자 자녀 및 시민사회단체, 각급교육기관 추천 68명	29,500,000
1999	5·18 유공자 자녀 및 시민사회단체, 각급교육기관 추천 190명 (오월단체 자녀 99명, 사회단체 자녀 91명)	60,000,000
2000	5·18 유공자 자녀 및 시민사회단체, 각급교육기관 추천 156명	93,600,000
2001	5·18 유공자 자녀 및 시민사회단체, 각급교육기관 추천 161명	89,200,000

2002	5·18 유공자 자녀 및 시민사회단체, 각급교육기관 추천 60명	45,000,000
2003	전국국공립대학 및 지역대학교,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화운동유관기관, 영호남 교육청 및 기타 저소득층 학생 54명	40,000,000
2004	전국국공립대학 및 지역대학교,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화운동유관기관, 영호남 교육청 및 기타 저소득층 학생 53명	44,500,000
2005	전국국공립대학 및 지역대학교,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화운동유관기관, 영호남 교육청 및 기타 저소득층 학생 53명	52,000,000
2006	전국국공립대학 및 지역대학교,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화운동유관기관, 영호남 교육청 및 기타 저소득층 학생 65명	50,500,000
2007	전국국공립대학 및 지역대학교,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화운동유관기관, 영호남 교육청 및 기타 저소득층 학생 84명	58,000,000
2008	전국국공립대학 및 지역대학교,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화운동유관기관, 영호남 교육청 및 기타 저소득층 학생 78명	56,000,000
2009	전국국공립대학 및 지역대학교,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화운동유관기관, 영호남 교육청 및 기타 저소득층 학생 69명	52,000,000
2010	전국국공립대학 및 지역대학교,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화운동유관기관, 영호남 교육청 및 기타 저소득층 학생 72명	55,000,000
2011	전국국공립대학 및 지역대학교,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화운동유관기관, 영호남 교육청 및 기타 저소득층 학생 70명	52,000,000
2012	희망장학금(2년 지원): 4명 나눔장학금(1년 지원): 13명	30,000,000
2013	희망장학금(2년 지원): 4명 나눔장학금(1년 지원): 13명	30,000,000
계		867,000,000



<그림 17> 2002년 장학금 수여식



<그림 18> 1998년 장학금 수여식



### 3) 문화 사업

#### (1) 청소년 문화사업

##### ① 5·18 청소년 평화축제

레드 페스타의 직접적인 모태가 되는 청소년 축제가 시작된 것은 2001년이다. ‘5·18기념공원 청소년 대축제’로 명명된 이 축제는 몇가지 기획 의도가 결합된 것이었다. 먼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및 그 정신인 ‘민주, 인권과 평화, 저항과 생명’을 형상화한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또 5·18기념공원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기념공원 및 기념문화관의 장소성을 확보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기획된 축제는 2001년 11월 17일, 18일 이틀간 개최되었다. 이 축제는 만화전시, 동아리 발표마당, 평화 콘서트, 밤샘영화제, 맞짱토론회, 도전30곡 등의 부대행사, 청소년 영화제, 맞짱토론회 특강, 그래피티 경연마당, 코스튬플레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청소년 300여명이 참여했다.

<표 55> 2001년 5·18기념공원 청소년 대축제 프로그램

일시	프로그램
2001. 1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장 꾸미기</li> <li>- 콘서트 리허설, 추억의 놀이터 및 평화의 몸짓</li> <li>- 만화전시, 콘서트 리허설, 동아리 발표마당(수화, 허슬, 힙합)</li> <li>- 기념식</li> <li>- 평화콘서트(스쿨밴드 5팀, 힙합 2팀, 교실난타, 낙장불입, 레드리프)</li> <li>- 밤샘영화제, 맞짱토론회, 부대행사</li> </ul>
2001. 11.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고딩)영화제, 맞짱토론회 특강, 평화의 몸짓, 그래피티 경연대회, 코스튬 플레이</li> <li>- 폐회식</li> </ul>

5·18기념공원 청소년축제는 소수 책임자들이 축제를 기획 및 운영하고 청소년들은 단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기존의 축제와 달리, 청소년들이 기획의 주체가 되고 행사의 준비 역사 자원봉사를 통해 진행하는 새로운 개념과 형식을 실험했다. 하지만 행사 준비기간의 부족과 핵심적 운영자의 부족으로 기대한 만큼의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내부 평가에서는 다른 축제나 행사와는 구별되는 테마축제를 부각하고자 했지만 주제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과 매력적인 요소가 부족했고,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참가자가 많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실질적으로 축제를 준비하였고, 운영에도 1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언론 역시 이 청소년 축제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당시 한 지역 신문은 이 축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축제를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5·18은 그동안 지나친 엄숙주의로 인해 젊은 세대들로부터 유리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축제를 통해 젊은 세대, 후세대 속으로 파고들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이다.”(무등일보, 2001. 11. 15)

2002년의 축제는 11월 2일과 3일, 학생의 날에 맞추어 개최되었다. 2001년 축제의 공식 명칭은 ‘5·18기념공원 청소년 대축제’로 명명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명확히 정해진 이름은 아니었다. 2002년 축제는 ‘5·18기념공원 청소년 축제’,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 평화축제’ 등으로 불리다가, ‘청소년 평화축제’로 공식화되었고, 2002년의 축제가 1회 축제가 되었다. 2002년 축제의 주제는 “애들아, 평화를 아니?!”로, 이 주제를 통해 축제는 첫째,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역사적 경험을 계승토록 하는 것, 둘째,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축제가 되도록 할 것, 셋째, 5·18의 소중한 자산이자 21세기 현대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표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 마지막으로 광주지역 청소년 단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 등을 축제의 주요한 내용이자 기대 효과로 설정했다. 2002년 청소년 평화축제는 재단의 주최 하에 광주YMCA청소년인권센터, 광주YWCA, 광주홍사단, 광주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의 기관들이 공동 주관하였다.

2002년 축제는 2001년 축제에 비해 그 내용이 더욱 다채로워졌다. 2002년 청소년 평화축제의 프로그램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56> 2002 청소년 평화축제 주요 행사

일시	프로그램
2002. 1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자원봉사대축제</li> <li>- 연극 공연 (금희의 오월)</li> <li>- 체험마당: 평화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청마당: 기아, 전쟁, 분쟁지역 체험방 / 외국인 노동자 인권방 / 장애이동권 체험방 / 평화가정 체험방 / 아동폭력예방 체험방</li> <li>▶ 기획마당: 도전! 평화골든벨 / 가면 만들기 / 평화를 위한 113개의 희망만들기 / 평화세상 그리기 / 평화신문 만들기</li> </ul> </li> <li>- 전시마당: 통일사진전 / 분쟁지역의 기아·난민 기획전시 / 만화전 / 판화전</li> <li>- 놀이마당: 코스프레 / 5개의 놀이 프로그램</li> <li>- 평화장터: 5·18 기념품판매 / 수공예품 판매 / 먹거리 장터 / 재활용품 판매</li> </ul>

	및 물물교환 - 평화 음악회: 아름나라 합창단 / 스쿨밴드 및 힙합팀 등 - 청소년 토론광장: '청소년 참여와 한반도 평화' 주제 - 평화영화제: 반전평화, 청소년의 삶을 주제로 한 4개 영화 상영 - 밤샘놀이마당: 평화 도미노 / 평화 카페 등.
2002. 11. 10	평화대행진: '평화를 여는 희망의 발돋움' ▶ 행진코스: 5·18기념공원 - 광천터미널 - 나산클레프 - 금남로 - 광주일고 (폐회) ▶ 식전 행사: 출발선언, '청소년평화선언문' 낭독

2002년 청소년 평화축제가 2001년 축제와 뚜렷이 달라진 점의 하나는 청소년 평화 행진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평화를 여는 희망의 발돋움'이라는 부제 하에 5·18 기념공원~광천터미널~나산클레프~금남로~충장로~광주제일고등학교까지 행진하고 '청소년평화선언문'을 낭독하는 이 프로그램은 참여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5·18 민주항쟁의 공간을 직접 걸어봄으로써 그 역사적 현장을 직접 체험토록 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2002년 청소년 평화축제는 운영자, 자원봉사자 및 일반청소년을 합해 1,500여명이 참여하여 1회 축제에 비해 훨씬 많은 참여자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또한 주관하여 함께 축제를 준비한 시민단체들 역시 다양해졌다. 청소년 평화축제는 문화축제가 부재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축제로서의 의미를 가짐과 아울러,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스스로가 그것의 주인임을 자각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한편 축제에 대한 자체 내부평가에 따르면, 긍정적 성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광주지역의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들이 결함하여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30여명의 운영자로 조직된 기획팀과 50여명의 훈련된 자원봉사자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축제가 준비, 운영, 홍보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1,500여명의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5·18 기념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청소년 문화축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넷째, 청소년들에게 축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축제의 마당별로 자체적인 모임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점도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첫째, 행사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고, 공식적인 홍보통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둘째, 연대사업에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논의와 공통의 이슈를 찾아내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과 역할분담 및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장소에 대한 홍보, 시기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차기 사업에서는 연중으

로 사업을 준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3년 2회 청소년 평화축제는 “평화 그 아름다움을 꿈꾸며”라는 주제 하에 11월 1일 5·18 기념공원과 5·18 기념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 2001년 5·18기념공원 청소년 평화축제 및 2002년의 1회 청소년 평화축제가 1박 2일 동안 개최되었던 반면, 2003년 2회 청소년 평화축제는 하루동안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축제의 규모는 축소되었다. 또 2회 축제의 준비 조직에는 다소간 변화가 있었는데, 5·18재단이 주최했던 1회 축제에 비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가 공동 주최를 하고, 광주 청소년 평화축제 준비위원회가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축제 준비위원회는 2회 축제 준비를 위해 처음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5·18 기념재단, 참교육학부모회, YMCA청소년사업부, 광주홍사단, YWCA청소년사업부, 광주미술교사모임, 광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 모난돌 등이 참여하였다.

2회 청소년 평화축제의 주요 행사를 살펴보면, 1부에서는 청소년자원봉사축제, ‘5·18로 보는 평화’ 연극 공연, 체험마당을 통해 기아, 전쟁, 아동폭력예방 등을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다. 또 기획마당에서는 도전! 평화골든벨, 가면만들기, 5M 천에 평화세상 그리기 등을 했다. 전시마당에서는 통일 사진전, 분쟁지역의 기아·난민 기획전시, 판화전 등이 개최되었다. 2부 공연마당에서는 락밴드, 댄스, 합창 등의 공연이 있었다.

<표 57> 2003 2회 청소년 평화축제 프로그램

일시	프로그램
2003. 11. 1	전시마당: 평화통일 자료 전시 / 5·18협동화 전시 / 환경학교 사진전 / 교육만평 전시 / 교육사진전 / 만화와 애니메이션 전시 체험마당: 통일도미노, 통일들불만들기 / 평화표현활동 / 댄스파티, 즉석 노래방 / 평화 상징화 그리기 / 프리마켓 및 수제품 체험활동 / 카프라(나무블럭쌓기) 민주, 인권, 평화 프로젝트 발표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나와의 평화를 꿈꾸며 / 우리 언니, 박금희</li> <li>▶ 반전·평화·인권 영상제: 우리들의 평화는 어디에</li> </ul> NGO 사회체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과의 대화</li> <li>▶ 우리는 하나다</li> </ul> 공연마당: 락밴드 / 댄스 / 수화 / 합창 / 국악사물놀이

5·18기념공원 청소년 축제와 1, 2회 청소년 평화축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과 실행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5월 정신을 교육하고 승화시키며,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고 공유하게 한다는 취지를 공히 갖고 있었고, 이러한 특징은 레드 페스타로 그대로 이어졌다. 또한 축제의 형식에서도 프로그램들을 독립된 마당으로 묶는 형식이 레드 페스타 이전에 이미 실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3년의 경험, 혹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청소년 교육과 문화적 실험들이 집약된 축제로 현실화한 것이 레드 페스타라 할 수 있다.

## ② 레드 페스타(Red Festa)

2003년까지 다양하게 실험된 청소년 체험 교육 및 2001~2003년까지의 청소년 평화축제가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체험적인 문화 축제로 새롭게 재구성되어 2004년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레드 페스타다. 레드 페스타는 ‘민주화를 향한 숭고한 희생’, ‘청소년들의 문화적 열정’, ‘나눔과 공감, 그리고 소통’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우리과 내가 오월’임을 금남로 공간에 표출하는 거리축제이다. 또 레드 페스타는 80년 오월이 지향하는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세상을 향한 청소년들의 일상의 외침과 연결하여 축제로 표상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대상화 되거나 형식적인 주체가 아닌 축제의 기획, 준비의 주인으로 부여된 몫에 대한 책임은 레드 페스타의 장점이자 다른 축제와 구별되는 특성이다. 아울러 레드 페스타를 통해 80년 이후 세대의 청소년들이 축제공간에서 80년 오월을 되돌아보는 것은 역사적 기념에 머물러 있는 오월의 의미를 청소년들의 가치영역으로 자기화하며 확장해 나가는 의의를 가진다.

레드 페스타는 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축제 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데, 이들은 축제 추진위원인 문화기획자를 비롯 전교조 광주지부 교사와 청소년 단체 실무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준비에 참여하게 된다. 레드 페스타의 일반적인 준비 및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 <표 58> 레드 페스타 기획 및 진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및 시기 결정</li> <li>▶ 자원 가용성 분석(참여단체, 인력)</li> </ul> </li> <li>축제 기획(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위원회 협의</li> <li>▶ 참여단체 유도</li> </ul> </li> <li>- 축제 기획(안)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위원회: 축제기획안 확정, 공고</li> <li>▶ 학교, 참여단체 및 소모임: 세부 프로그램 기획, 공모</li> </ul> </li> <li>- 세부 프로그램 검토,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위: 전체 기획안 수합, 공모 프로그램 검토 및 공지, 예산 지원, 자원봉사자 및 프로그램 지원</li> <li>▶ 학교, 참여단체 및 소모임: 프로그램 준비</li> </ul> </li> <li>- 축제 당일</li> </ul>
--

- ▶ 추진위: 축제현장 운영 및 지원, 자원봉사 인원 배치
- ▶ 참여단체 및 소모임: 프로그램 실행
- 평가 및 결과 보고
  - ▶ 추진위: 축제 평가
  - ▶ 참여단체 및 소모임: 프로그램 평가 후 결과보고서 제출

Red Festa라는 이름은 ‘Red’라는 어휘가 내포하고 있는 레드 컴플렉스라는 부정적 의미를 붉은 색의 저항적이고 혁명적인 이미지로 치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포스터와 플래카드, 알림 리플릿 등의 모든 홍보물에 붉은 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축제 참가자들은 붉은 색 셔츠를 입도록 했다. 특히 5·18과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붉은 색은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붉은 피의 댓가로 획득된 것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



<그림 19> 청소년문화제 레드페스타

레드 페스타는 해마다 하나의 큰 주제 하에 하위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2004년 5월 22일에 개최된 1회 Red Festa는 ‘우리가 오월이다’라는 주제 하에 다양한 행사를 열었고, 5,0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Red Festa에서 실행된 구체적인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 ‘사상’, ‘금기’, ‘상상’이라는 네 하위주제에 따라 플래시몹, 공연, 자유발언대, 감옥체험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레드 페스타는 도청 분수대를 중심으로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거리 일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루 동안 개최되는 거리 축제이다. 2004년 레드 페스타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사회의 금기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 토론이었다. 5·18을 말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금기처럼 작동하고 있고, 빨갱이, 금지곡, 금지도서, 소수자와 성 등이 사회적 담론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과감히 드러내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

를 말하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체험과 자발적인 참여의 장이 되었다는 점, 5월이 상투적으로 애도를 표하고 암울한 피해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으로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그 성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준비 시간의 부족, 축제 준비의 주체인 학생들의 시간 부족, 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량 부족 등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표 59> 2004년 레드페스타 프로그램

개최일	주제	주요행사내용	참여인원
2004. 5. 22	우리가 5월이다!!	플래시몹, 모듬북공연, 5월노래 합창, 5월 자유발언대, 노동법 o, x 퀴즈, 레드짱 선발대회, 금지곡카페, 애니메이션 영화제, 인간춃불글씨쓰기, 레드패션쇼, 락페스티발, 댄스퍼레이드 [민주] 오월문학관, 빨간 우체통, 청소년이 역사를 바꾼다. [사상] 붉은 감옥체험, 학교인권활동, 청소년노동권, 언론, 학문, 자유에 관한 전시활동, 금지도서 전시, 80년대 언론 보도전 [금기] 성교육투어프로그램, 남녀역할바꾸기, 대안생리대만들기, 빨간풍차만들기 [상상] 레드디카사진전, 그래피티, 빨간음식전, 빨간작품전, 빨간대장간, 빨간 먹거리, 어린이문화마당(빨간표지판 어린이 인권퍼포먼스, 전통놀이체험, 아동올림픽대회, 토피어리), 불자동차 빵빵 안전교육 활동	5,000명

2005년의 레드 페스타는 민주, 인권, 평화, 나눔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대동과 저항의 5·18 정신을 체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2005년의 메인 주제는 ‘내안에 오월이 있다’이고, 그 하위 주제로 민주마당, 인권마당, 평화마당, 나눔마당을 설정했다. 민주마당에서는 미각, 후각 등과 헌혈, 관체험 등을 연결시키는 오감체험, 5·18 미로전 등이 진행되었다. 인권마당에서는 전국청소년 인권활동가 대회,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소외계층 체험마당 등이 진행되었고, 평화마당에서는 사진전시 및 부스 운영, 체험활동, 평화를 염원하는 공연 및 퍼포먼스 활동, 이주노동자를 통한 문화체험, 하나 되는 5월 친구, 시선을 넓히자 지구촌으로 등이 행해졌다. 나눔마당에서는 전통놀이 한마당, 공동작품마당, 5·18디카사진전, 80년5월에 내가 있다, 더불어 함께 한마당 등이 진행되었다. 더불어 5월 상황 재현극에서는 축제 참가자 전체가 함께하는 시민군과 진압군의 대치 퍼포먼스가 있었고, 락페스티벌도 함께 개최되었다.

<표 60> 2005년 레드 페스타 프로그램

개최일	주제	주요행사내용	참여인원
2005. 5. 21	내안에 5월 있다!	[민주] 오감체험버스와 5·18미로전을 통한 5월 정신계승 [인권]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인권마을 체험	20,000명

		[평화] 아시아의 청소년들과 평화를 염원하는 체험 [나눔] 공동체놀이, 공동작품, 공동 디카사진전 [락페스티벌] 락을 통한 5월 저항정신계승과 청소년 해방감	
--	--	---	--

2006년의 레드 페스타는 다시 ‘우리가 오월이다’라는 대주제 아래 2005년과 동일하게 민주마당, 인권마당, 평화마당, 나눔마당의 하위주제 및 5월상황 재현극과 락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006년의 레드 페스타에서는 ‘5월상황재현극’이 처음 시작되었다. 재현극은 시민군과 계엄군의 대치상황을 재현하고 각자의 역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더구나 이 재현극은 레드 페스타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직접 토론을 통해 대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재현극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재현극은 크게 네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는 각각 ‘5월상황재현극’, ‘시민군 체험, 진압군 체험’, ‘행불자 퍼포먼스’, ‘헌혈(당시 의무대) 체험’ 등이다.

<표 61> 2006년 레드 페스타 프로그램

개최일	주제	주요행사내용	참여인원
2006. 5. 20	우리가 오월이다!	[민주] 오! 민주는 아름다워~ [인권] 나는 인권나라에 왔다! [평화] 평화야, 우리가 통일하자! [나눔] 놀자! 즐기자! 금남로 놀이터 [5월상황재현극] 오월을 느껴봐! [오(五)! 락(樂)페스티벌] 유쾌한 반란	20,000명

2007년 레드 페스타는 ‘우리가 오월이다’라는 주제 하에 5월 19일에 개최되었다. 2007년 레드 페스타에서 특징적인 것은 당시 합천군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의 이름을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으로 개칭한 것에 대한 현실 정치적인 풍자와 개입이었다. 이것은 2006년 레드 페스타에서 제기되었던 프로그램의 중복성과 상투성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해 레드 페스타는 ‘오월마당’에서 ‘일해야 넌 오월을 모르니?’라는 주제 하에 다양한 문화적 참여와 실천을 했다. 일해공원 문제에 대한 신문기사와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을 전시하고, 행사 당일 합천군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리고, 합천군수에게 보내는 청소년들의 영상편지를 만들어 합천군에 전달했다.

<표 62> 2007년 레드 페스타 프로그램

개최일	주제	주요행사내용	참여인원
2007. 5. 19	우리가 오월이다!	[오월] 일해야 넌 오월을 모르니? [인권] 나는 인권마을에 왔다 [평화] 너와내가 평화로 통한다	25,000명



		[나눔] 즐거운 소통! 나눔! 신나는 놀이터 [상황재현극] 오월을 느껴봐 [오! 樂페스티벌]	
--	--	---	--

동시대적인 현실 정치적 쟁점에 대한 개입과 문제제기는 레드 페스타가 개최된 이래 지속되어 온 태도 중의 하나이지만, 이것은 2007년 레드 페스타에서 뚜렷해지고, 2008년에도 계승되었다. ‘오월마당’은 ‘오월 감성, 찾다’이라는 주제 하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루었다. 이를 찬성과 반대의 논리로 전시를 통해 제시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또 ‘오월 감성, 이루다’를 통해서도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정부에 대한 반대로 표출된 촛불집회를 5·18의 저항정신과 연결하여, 참여자 개인들이 종이 벽돌에 촛불의 의미를 그리게 해서 옛 전남도청을 형상화하도록 했다.

<표 63> 2008년 레드 페스타 프로그램

개최일	주제	주요행사내용	참여인원
2008. 5. 24	우리가 오월이다!	[오월] 오월 감성 [인권] 오일팔! 청소년 인권의 날개를 달고 세상속으로~ [평화] 지금 나는 평화를 만나러 간다 [나눔] 오월, 오늘을 나누다 [상황] 오월을 느껴봐 [오! 樂페스티벌]	30,000명

2009년 레드 페스타는 ‘소풍’이라는 주제 하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마당 형식에서 변화하여, 광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하지만 분수대를 중심으로 금남로 일원에서 주요 공간들을 점한 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축제 형식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똑딱똑딱 광장은 ‘Story of 1980’이라는 주제 하에 1980년 5월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재현하며 공유하는 문화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두근두근 광장은 5·18의 핵심 정신인 연대와 공동체성을 확장하는 다양한 의미들, 그리고 다문화주의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들썩들썩 광장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놀이 프로그램이 주로 펼쳐졌고, 알록달록 광장에서는 빛과 색이 상징하는 청소년들의 각자의 삶과 문화를 드러내도록 했다.

<표 64> 2009년 레드 페스타 프로그램

개최일	주제	주요행사내용	참여인원
2009. 5. 23	소풍	[5월 상황재현극] 오월을 느껴봐! [똑딱똑딱 광장] Story of 1980 [두근두근 광장] 서로가 서로에게 [들썩들썩 광장] 樂의 터 [알록달록 광장] 빛과 색 [상황재현극] 오월을 느껴봐	30,000명

2010년의 레드 페스타는 ‘금남로 5·18 잼버리’로 정해졌다. 잼버리는 북미 인디언의 언어로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2010년의 축제를 밤을 세워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축제의 각 부분들은 밤을 세우는 텐트들을 의미하는 촌으로 명명되었다. 하나촌, 열정촌, 젊음촌, 평화촌은 모여 ‘오월 공동체’를 상징한다. 하나촌에서는 대형 걸개그림 그리기, 오월 이야기 만들기 등 5월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 재현하는 행사들이 벌어졌다. 열정촌에서는 오월과 청소년들의 현실, 꿈과 열정으로 재구성하는 다양한 놀이들이 펼쳐졌고, 젊음촌에서는 동아리 공연, 성평등 전시 및 카페 운영 등이 행해지고, 평화촌에서는 평화를 염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행해졌다. 2010년 레드 페스타의 둘째날은 비로 인해 준비 집단 청소년의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못하고, 오월 대박 터트리기와 5·18가족사진만 진행되었다.

<표 65> 2010년 레드 페스타 프로그램

개최일	주제	주요행사내용	참여인원
2010. 5. 21 ~22	금남로518잼버리	[하나촌]대형 걸개그림, 분향소, 오월 전시관, 글씨 써진 풍선, 북북북 김밥, 휴대폰 카메라로 글씨 만들기, 키워드로 이야기 이어가기, 아가방 배틀, 우리의 문화를 쏘라, ABC 5·18(art body construct 5·18), 5·18생생체험/미션수행, 꿈을 찍는 사람들 [열정촌]오월도서관, 오월공작소, 실뜨기/딱지치기/구슬치기, 5·18 체험, 문자 빨리 보내기 대회, The puzzle we will solve, ‘희망의 열매를 달아주세요’, 풍선나무달기, ‘화려한 휴가’ 인형극, 나무목걸이/페이스페인팅 [공유지]바닥그림, 주먹밥, 아시아 요리 나누기, 음식 부스 [젊음촌]동아리 공연, 난타 체험장, 쟁반노래방, 절대음감, 나만의 호랑이 만들기, 우리의 교육 미래, 성차별 뚫고 거침없이 성평등 GOGO, 5월의 향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화촌]오월소리관, 오월영화관, 우리가 꿈꾸어가는 세상, 손가락 물감찍기, 추모텐트, Rebirth(관체험), 소감텐트, 평화카페, 1%의 아이들..., 별과 함께하는 ‘교육영화제’, 2010 간디학교 평화행동, 좁아지는 나의 선택	30,000명

2011년 레드 페스타는 5월 14일과 15일 1박 2일간 개최되었다. 축제의 주제는 ‘오월로’로, 오월을 기념하는 거리, 오월로를 걸으며 그때의 그 시간과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고 느끼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만들자는 기획 의도가 들어있다. 즉 청소년 문화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그 때로 돌아가서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2011년 레드 페스타 역시 2010년과 마찬가지로 텐트촌을 설치하고, 텐트촌을 중심으로 전시, 공연, 체험, 교육, 놀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기획되었는

데, 이 각각에는 공간적 지명이 부여되었다. 학교는 저항, 저항의 시발점을 상징하는 것으로, 학교를 통해 왜 학생들이 80년 당시 저항에 나섰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계엄군 물러가라’, ‘모든 차별 날려버려’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금남로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금남로에서 하나되었던 광주 시민들처럼 하나된 공동체를 지향하고 염원하는 다양한 행사와 놀이들이 펼쳐졌다. 도청은 화합의 장을 상징하여 청소년 오월지기과 걷는 오월길 등의 행사를, 국립5·18민주묘지는 희생을 상징하며 묘지 분향, 헌혈, 관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의감을 상징하는 것으로, 축제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기려는 의도로 풀어보자 사회이슈, 프리 허그 등의 프로그램이 연행되었다.

<표 66> 2011년 레드 페스타 프로그램

개최일	주제	주요행사내용	참여인원
2011. 5. 14~15	오월로	[공유지]길놀이, 걸개그림, 계엄군 나 잡아봐라, 길놀이 closing, 스넥바, 마일리지 적립카드 [국립5·18민주묘지]추모탑, 5·18분향소, 관체험, 헌혈, 공포체험, 묘비명적기, 향만들기, 장애인 체험, 영정 사진 찍기, 무지개국화 [금남로]그날 그 시간(사진찍기), 동아리공연, 대박 터트리기, 5월 상황 재현극, 별과 함께하는 ‘5·18영화제’혹은‘교육 영화제’, 타임버스, 랩으로 말해요, 레드웃놀이, 주먹이 운다! [우리]고마워!그날을 기억할게(메인), 풀어보자 사회이슈!,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5·18카페, 프리허그, 나 이런 사람이야!, 도청을 밝히자, 정의감을 부르자!, 우리의 권리 청소년 인권, 신나게 해통해통 [학교]계엄군 물러가라, 모든 차별 모두 날려!, 5·18스피드 퀴즈, 오월로 graffiti art, 5·18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네 멋대로 5·18을 표현하라	30,000명

2012년 레드 페스타는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축제’라는 주제 하에 ‘대한민국 10대 청소년들의 자기 목소리 내기’를 부제로 5월 26일과 27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축제 프로그램은 전남대에서 도청까지 희망버스 및 도보로 걷는 5·18 거리 퍼페이드, 80년 5월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5월 그 현장속으로, 청소년 동아리 프로젝트 ‘청소년학 개론’, 전래놀이와 퓨전놀이를 연행하는 ‘신나는 금남로 놀이터’, 그리고 거리 공연 등이 포함되었다.

<표 67> 2012년 레드 페스타 프로그램

개최일	주제	주요행사내용	참여인원
2012. 5.	대한민국 대표	[5·18 희망버스] (전국의 청소년·단체 참여) [5·18거리퍼페이드] (전남대 정문 -> 광주역 -> 구도청)	30,000명

26~27	청소년축제	[5월 그 현장속으로] [청소년 동아리 콘서트] ‘오월, 그 가슴 뜨거운 이야기’ [청소년 동아리 프로젝트] ‘우리는 이야기한다 00을’ [대한민국 10대 청소년 민주포럼] [1020 희망 콘서트] [부활! 금남로]	
-------	-------	---	--

2013년 10회 레드페스타는 ‘미·치·圖錄도록’이라는 주제로 2013년 5월 25~26일 이틀간 개최되었다. 미치도록이라는 주제는 ‘몰입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행위의 기록(목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3년 현재의 청소년들의 이슈와 고민을 참여적 축제를 통해 재현하고 풀어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13년 레드페스타는 네 개의 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기획 프로그램에서는 해방 금남로, 보이는 라디오, 레드팅, 희망나래 등의 세부 프로그램이 실행되었고, 참여 프로그램은 518 청소년 이슈난장, 한땀마켓, 청소년활동 동아리 캠페인, 금남로 성회 등의 이벤트로 구성되었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동아리 콘서트와 금남로 파티가 열렸으며, 특별 프로그램에서는 레드페스타 청소년문화기획자 학교, 거리 퍼레이드, 상황극 퍼포먼스, 5월 분향소 등이 실행되었다.

<표 68> 2013년 레드 페스타 프로그램

개최일	주제	주요행사내용	참여인원
2013. 5. 26~27	미·치·圖錄도록	[특별프로그램] 레페 청소년문화기획자학교, 거리퍼레이드 ‘세상을 향한 행진’, 상황극 ‘임을 위한 행진’, 5월 현장 속으로 [기획 프로그램] 해방금남로, 희망나래 [참여 프로그램] 518청소년 이슈난장, 한땀마켓, 청소년활동 동아리 캠페인, 금남로 성회 [공연 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콘서트, 금남로 party	20,000명

2004년 이후 11회째를 맞은 레드페스타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축제 기획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5·18의 정신과 민주·인권·평화에 대한 교육 효과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 10대 청소년들의 생활과 고민, 놀이와 문화를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표출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에 의해 청소년들이 만들어내는 대표 문화축제로 성장하였다.



<그림 20> 청소년문화제 레드페스타

### ③ 청소년 연극제

청소년 연극제는 2006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5·18청소년 연극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연극을 통해 5월 정신을 공유, 계승하도록 하는 교육적 목적에서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5·18 정신을 문화적으로 재현, 승화하는 장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 연극제는 각색극과 창작극 모두 출품 가능하며, 참가 대상은 고등학교, 청소년 단체 및 대안학교 등이다. 연극제 진행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각 연극팀의 대본과 함께 참가신청서와 연극반 소개서, 공연활동사진 등을 제출받고, 대본 평가와 연극반 활동경력을 심사하여 본선 진출 팀을 가진다. 본선에 진출한 연극에 대해서는 대본과 연극공연의 완성도를 평가하여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2팀을 시상한다.

1회 청소년 연극제는 2006년 11월 25~26일 이틀간 개최되었는데, 처음 실시되었기 때문에 대회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지원한 작품이 9개로 비교적 적었고, 이 중 5개가 본선에 진출했다. 2007년 2회에도 참가 작품은 별로 늘지 않아 9개 작품이 출품되었고 이 중 6개 작품이 본선에서 경연되었다. 2008년부터는 참가 연극팀이 다소 늘어서 11개 작품이 출품되었고, 이 중 5개가 본선에 진출했다. 2009년에는 참가팀이 부쩍 늘어서 16개 팀이 참가했고, 6개가 본선에 진출했다. 이어 2010년에는 19팀이 참가하여 6팀이, 2011년에는 17팀이 참가하여 6팀이, 2012년에는 31팀이 참가하여 6팀이, 그리고 2013년에는 21팀이 참가하여 6팀이 본선에서 경연되었다.

청소년 연극제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5월 정신을 체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청소년 연극제는 상업적 문화와는 다른 메시지가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다. 연극제 참여를 통해 시민과의 친밀감이 확대되고, 학교 공연을 통해 지역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결과도 낳고 있다. 또 수상한 연극들에 대해 경기나 경북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공연 요청이 증가하면서, 지역간 교류와 5월 정신의 전국화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9> 청소년 연극제 개최현황: 2006~2013

연도 (참가팀)	본선진출 학교 / 교사	작품명
2006. 25~26 (9팀)	11. 서울대진여자고등학교 / 이정수	뮤지컬 할매의 아바타
	담양한빛고등학교 / 정혜영	상처
	충남아산고등학교 / 김찬영	금희의 오월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 이두석	불임기
	서울보성여자고등학교 / 류원호	선물
2007. 26~28 (9팀)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 남철우	일어서는 사람들
	10. 전남예술고등학교(무용연기과) / 박홍필	짬뽕
	대진여자고등학교(일막일장첫구절)	마미아리랑
	용문고등학교(너울망태)	리허설-민중의 적
	순천여자고등학교(목련OUR) / 문남희	아버지의 눈물
2008. 8. 22~24 (11팀)	한빛고등학교(어중이떠중이) / 서호필	오, 18(열여덟)
	전남여자고등학교(담쟁이) / 배주영	달라진 저승
	전남여자고등학교(담쟁이) / 배주영	1980+ 28=2008
	전남예술고등학교(무용연기과) / 박홍필	그날이 오면
2009. 8. 21~23 (16팀)	아산고등학교, 온양여자고등학교(들불) / 김찬영	너도 그렇다
	순천여자고등학교(목련OUR) / 장난영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한우리) / 설찬리	방황하는 별들
	안산강서고등학교(여울) / 박석민	선생님? 선생님...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온새미로) / 설찬리	흑과 백이 만나면...
2010. 8. 13~15 (19팀)	금정여자고등학교(담쟁이) / 황기철	내 친구
	포항여자고등학교(모꼬지) / 최혜영	자살을 도와드립니다
	군포고등학교(이중인생) / 신아연	고삐리
	북원여자고등학교(아침) / 이재성	엄마, 그리고...(리틀맘)
	금정여자고등학교(담쟁이) / 백수정	이상기후현상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숲) / 김순범	달래주먹밥
2011. 7. 29~31 (17팀)	북원여자고등학교(아침) / 이광섭	아직 못다한 이야기
	포항여자고등학교(모꼬지) / 최혜영	내 이름은 나무자
	순천여자고등학교(목련OUR) / 문남희	비상
	아산고, 온양여고(들불) / 김찬영	금희의 오월
	신흥고, 충북고, 진천고, 일신여고(연합팀-해오름) / 이수정	대박사건
2012. 8. 24~26 (31팀)	동신여자고등학교(아토) / 양은영	죽은 시인의 사회
	북원여자고등학교(아침) / 조원교	高二잠드소서
	해성여자고등학교(불여시) / 오진현	오해
	호남제일고등학교(하제) / 황명수	김선생님 뭐하세요?
	한빛고등학교(등지) / 정혜영, 서호필	518버스
2012. 8. 24~26 (31팀)	한빛고등학교(등지) / 정혜영, 서호필	꿈은 왜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산목) / 정상철	아름다운 사인
	백마고등학교(끼) / 김연지	그 날(원작: 금희의 오월)
	청소년극단(깜짝놀자) / 서삼석	저기
	안산강서고등학교(여울) / 박석민	야! 서!
정신여자고등학교(말초신경) / 임경덕	용감한 첫사랑	

2013. 8. 2~4 (21팀)	청소년극단(깜짝놀자) / 서삼석	물거품
	서울공연예술고(푸르른 날에) / 이지훈	화과자
	정신여고(천의) / 임경덕	타임버스
	강남영상미디어고(T-D) / 김동의	방황하는 별들
	심석고(심석연극부) / 김지혜	작은 씨앗
	포항여고(모꼬지) / 류성연	(카카오) 특? (talk) 특!
	한울고(들꽃) / 표수연	그 학교
	연합(들불) / 김찬영	훈민정음
	동신여고(아토) / 박선영	아카시아 꽃잎은 떨어지고
	전남제일고(라운) / 송기영	날개
	한빛고(둥지) / 서호필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그림 21> 5·18 청소년 연극제

#### ④ 오월길 사업

2011년 재단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오월길을 통한 도시창조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도시 전역에 분포한 5·18사적지와 민주·인권·평화의 오월정신 관련 자원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계하여 순례하는 오월길(5·18Road)을 조성함으로써, 인본창조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도시형 도보관광(walking tourism)브랜드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사업의 핵심은 광주시 내에 산재한 26개의 사적지를 경유하는 탐방로를 개설함으로써 광주의 민주·인권·평화의 정신 및 5·18의 의미를 걷기와 공간 디자인으로 결합시키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광주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 26개의 5·18 사적지들을 정비하여, 이들을 거쳐가는 5·18과 광주의 생활·문화·예술·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탐방 및 체험길인 오월길(518road)이 만들어졌다. 오월길은 인권길, 민중길, 의향길, 예술길, 남도길의 5개 테마별 18개의 코스가 현재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표 70> 오월길

오월길	코스명	코스 내용
오월인권길	햇불 코스	전남대학교~광주역광장~시외버스공용터미널 옛터~5·18최초발포지~광주 MBC옛터~녹두서점옛터~광주YWCA옛터~금남로~광주YMCA~구 상무관~5·18민주광장~구 전남도청
	희생 코스	구 전남도청~남동성당~전남대학교병원~조선대학교~배고픈다리 일대~주남마을 인근 시민학살지~광목간 시민학살지~광주기독병원~구 광주적십자병원~광주공원 광장
	광장 코스	광주공원 광장~양동시장~농성광장 격전지~구 국군광주병원~구 505보안부대~상무대 옛터~5·18자유공원~5·18기념공원
	열정 코스	5·18기념공원~광천동성당~광천시민아파트~무등경기장 정문~전남대 민주길
	영혼 코스	전남대학교~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광주교도소~5·18구묘지~국립5·18민주묘지
오월민중길	시민군 코스	농성광장 격전지~광주공원 광장~구 광주적십자병원~구 전남도청~광주 YWCA 옛터~광주MBC 옛터~가톨릭센터~구 한일은행 사거리~대인시장~시외버스공용터미널 옛터
	들불 코스	5·18자유공원 <들불야학7열사 기념비>~광천공단 옛터~광천시민아파트~광천동성당~전남대학교~녹두서점 옛터~민들레소극장~광주YWCA옛터~구 전남도청~가톨릭센터~광주교도소~국립5·18민주묘지
	윤상원 코스	윤상원생가~광천동성당~광천시민아파트~양동시장~녹두서점 옛터~구 전남도청
	오월여성 코스	오월어머니집~녹두서점 옛터~광주MBC옛터~광주YWCA옛터~금남로~구 상무관~5·18민주광장~구 전남도청~구 광주적십자병원~양동시장~농성광장 격전지~구 505보안부대~상무대 옛터~광산유치장 옛터
	민주기사 코스	무등경기장 정문~유동삼거리~금남로~5·18민주광장
	주먹밥 코스	대인시장~오월어머니집~광주YWCA옛터~구 전남도청~광주공원 광장~양동시장
오월의향길	의병항쟁 코스 (어등산의병항쟁코스)	광주송정역~용아 박용철 생가<김율 의병장 순국지>~절골~어등산 바위굴과 토굴~양씨삼강문~용진정사
	의병항쟁 코스 (포충사의병항쟁코스)	광목간 시민 학살지~효천역~빛고을공예창작촌~포충사~칠석마을
	학생독립운동 코스	구 나주역~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구 구동공원~광주교~광주역 옛터~구 일본인 소학교~구 전남도청~부동교~구 광주고등보통학교
	4·19혁명코스	광주공원 광장~금남로공원~광주고등학교~광주 4·19혁명기념관
오월예술길	비엔날레코스	비엔날레관~중외공원 문화벨트~일신방직 옛터~대인시장~예술의 거리~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풍경코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우제길 미술관~5·18민주광장~무등현대미술관~의제 미술관~증심사
오월남도길	서부(목포)코스	함평~무안~목포
	남부(해남)코스	해남~강진~영암~나주~화순

또 2012년에는 오월길 체험을 운영하는 센터인 오월길 방문자 센터가 개관하여, 센터를 통한 오월길 걷기 및 체험학습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전부터 청소년 및 일반인 체험학습 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적지 체험학습은 이 오월길 사업으로 연결되어 운영되게 되었다. 공동 예술의 거리에 오월길 방문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월길 방문자 센터를 통한 답사를 원하는 사람은 최소 1주일 전까지 센터에 예약을 하면 오월지기의



안내에 따라 오월길을 답사할 수 있다.



<그림 22> 오월길 안내 팸플릿 및 방문자센터

## (2) 시민문화 사업

### ① 5·18 문학상 공모

5·18 문학상은 시, 소설 및 동화 공모를 통해 문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5월 문학의 가능성과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단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5·18 문학상은 대학생과 문학을 지망하는 일반인들에게 5·18 문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문예작품을 통해 5·18정신을 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며, 문학을 통해 5월 정신의 외연 확장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되고 실시되어 왔다. 그 첫 시작은 2005년 한겨레신문과 공동 주최하여 ‘5·18어린이문학상’을 공모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 첫해에는 우수작 2편이 선정되었다.

5·18문학상 응모는 세 부문, 즉 시와 소설, 그리고 동화 부문으로 구성된다. 응모 요령은 시 5편 이상 10편 이내, 소설 200자 원고지 80~200매, 그리고 동화는 200자 원고지 50매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 5·18문학상 공모는 해마다 많은 젊은 문인들의 등단과 새로운 오월 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5·18문학상 시상금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도 보여주었다. 2007년 이사회는 5·18문학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적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공모의 성격 상 수준높은 작품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신인 응모라는 공모제도의 제한이 있고, 작은 상금으로 인해 동기 부여가 미흡하여, 선정된

작품들이 단행본으로 출간하기에는 부족한 분량이라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5·18문학작품 공모의 새로운 방향전환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이를 문인들의 공모로 한정하지 않고, 5월 행사의 일환으로 백일장 형식이나 일반인 공모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그것이다. 또 5월 문학의 기상을 높이고 제대로 된 광주만의 색깔을 가진 작품을 배출하기 위한 창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5월문학상’과 같은 격조 높은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반성을 통해 5·18문학상은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고 양적으로 풍부해지는 결과를 보여왔으며, 처음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상금 등에서의 변화도 없었다. 그것은 5·18문학상 공모가 가진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5·18문학상 공모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데에는 5월 문학의 결과물을 총서로 묶어 내는 ‘5월 문학총서’의 발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3> 5·18 문학상공모전 포스터

<표 71> 5·18문학상 공모 현황: 2005~2013

연도	시상작품
2005	5·18어린이문학상 공모, 동화 19편 접수 우수작: 용장리 아이들(한정기) 우수작: 도둑(서지선)
2006	시 305편(49명), 소설 15편, 동화 14편 응모 시: 동면하지 않는 도마뱀(심은섭) 소설: 그 희미한 시간 너머로(심영의)
2007	시 300편(48명), 소설 16편, 동화 16편, 희곡 11편 응모 시: 바보 전태일(송태영)

	소설: 쇼를 하라(김가현) 동화: 되찾은 삼촌(이혜영) 희곡: 오방색 양말(정범중), 오래된 만남(이민재)
2008	시 434편(63명), 소설 19편, 동화 12편 응모 시: 지구가 둥근 이유(하기정) 소설: 야만적인, 너무나도 야만적인(안재근) 동화: 아빠의 선물(장지혜), 할머니의 분홍원피스(임윤희)
2009	시 265편(45명), 소설 23편, 동화 16편 응모 시: 시계(명서영) 소설: 달빛(신은자) 동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문귀숙)
2010	시 340편(55명), 소설 29편, 동화 12편 응모 시: 반 지하식물의 겨울눈(최일걸) 소설: 알터에고(Alter Ego)(성민) 동화: 뒷문방 아저씨(송마리)
2011	시 521편(86명), 소설 55편, 동화 41편 응모 시: 아름다운 테러리스트 외(김성태) 소설: 끝나지 않는, 녹슨(임수량) 동화: 열 두살 삼촌(황규섭)
2012	시 649편(110명), 소설 60편, 동화 34편 응모 시: 오월(이병일) 소설: 최면치료사(박상혁) 동화: 까만콩(이민)
2013	시 845편(163명), 소설 102편, 동화 50편 응모 시: 서소문 밖(김태인) 소설: 제비집(박탐유) 동화: 그림자가 된 상철이(장광균)

## ② 재단 소식지와 계간지 주먹밥 발행

80년 이후 지속된 5·18민주화운동의 다양한 담론들을 대변하고, 5·18 정신을 널리 알리며, 또한 5·18기념재단의 다양한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한 잡지의 필요성은 재단 창립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1996년에 처음으로 「기념재단 소식지」가 창간되었다. 「기념재단 소식지」 창간호는 시론, 나와 5·18, 5·18 16주기 행사 이모저모, 5·18특별법 제정 이후 오월운동이 나아갈 방향, 5·18해결 방향에 관한 소견, 5·18기념재단 소식, 단체 동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20페이지의 짧은 지면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런 의미있는 소식지 창간은 지속적인 발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가, 2000년 8월에 다른 이름인 재단 소식지 「5.18기념재단」으로 재창간되었다. 이 창간호는 헌시, 발간사, 사설, 2개의 특집 기사, 이사에게 듣는다, 소

식, 5.18단체 동향, 5.18 학생 만화그리기 대회 입상작, 기획연재, 시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소식지는 재단 내의 이사회 결정사항이나 사업계획 등이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결산서 등이 제시되어 있어 매우 기본적인 보고와 소식지의 성격이 강했다. 소식지 「5.18기념재단」 2호는 2001년 12월에 발간되었다. 2호 역시 창간호와 크게 다르지 않게 사설, 재단 소식, 2개의 특집 기사, 시론, 5·18단체 동향, 기획연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4> 기념재단 초기 소식지

2번의 소식지 창간과 2호 발간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지는 이후 지속되지 못했다. 그것은 재단 홍보지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 채 단순한 ‘소식지’ 이상의 내용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소식지 발간 경험을 축적하면서, 재단의 활동과 5·18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교양지 발간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층 심화되면서 2003년에 새로운 소식지 발간 계획이 기획되었다. 이 기획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른 것은 바로 문화였다. 그래서 연 2회 새로운 소식지를 발간하며, 이 소식지는 탐방, 칼럼, 좌담, 문화코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기획이 포함되었는데, 기획의 큰 방향은 ‘문화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즉 문화교양지의 발간으로 그 방향이 설정되었다. 그 결과 5·18문화교양잡지 「주먹밥」이 2003년 5월에 창간되어 현재까지 발간되고 있다. 초대 편집위원에는 정재호, 김대성, 김연아, 김형중, 장규호, 조진태가 참여하였고, 발행 분량은 78쪽이었다. 첫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72> 주먹밥 창간호 주요내용

칼럼	이라크전쟁과 5·18민중항쟁에서 드러난 미국과 새로운 안보	강정구
만남	강신석 (재)5·18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성
기획연재	사월혁명, 그 역사를 감당하는 것	김진균
특집좌담	제도화 이후의 5·18 어디로 가야 하나?	
역사읽기	5·18민중항쟁과 기념사업의 발자취	편집부
게릴라 인터뷰	푸른 눈의 5·18민중항쟁 연구가 조지 카치아피카스	김대성
	5·18 자료 기증한 재독동포 김정숙씨	편집부
	5·18 전야제 연출한 신동호씨	편집부
흔적밟기	병원 앞 나무는 어째 그리 검은가?	김연아
오월문화	연극   <금희의 오월> 첫 관객은 안기부요원	송은정
	영화   오월 광주를 ‘보고’ 싶다	조대영
	문학   오월 강박	김형중
죽비소리	다시 시작하는 오월	송기숙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에 평화의 미소를!	장규호
23주년 기념행사	전야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연대와 나눔의 공동체 마당	편집부
	광주국제평화캠프   오월에서 통일로!	김찬호
	5·18민중항쟁 23주년 기념행사 일정	편집부
재단소식	(재)5·18기념재단 사업소개	편집부

주먹밥은 계간으로 매년 2월, 5월, 8월, 11월 4회 발행되고 있고, 한 회 발간 부수는 대략 5,000부 내외이다. 주먹밥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에게도 배포되고 있으며,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미, 그 현재적 계승의 모습들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중요한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그림 25> 5·18기념재단 소식지 주먹밥

③ 오월문학총서 발간

오월문학총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오월 문학의 성과를 정리하고, 오월 문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과 아울러 새로운 문학작품 창작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1년

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한 재단은 발간위원회와 장르별 기획위원을 구성하여 시, 소설, 평론, 아동문학, 희곡의 5개 장르의 오월 문학을 총서로 발간하고자 했다. 그 결과 2012년에는 시와 소설 총서가 출간되었는데, 총서 시에는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김준태)를 포함, 208편의 시가 수록되었고, 총서 소설에는 ‘봄날’(임철우) 포함 13편의 오월 소설이 담겨졌다. 2013년에는 희곡과 평론 총서가 발간되었는데, 희곡 총서에는 ‘금희의 오월’(박효선)을 포함한 13편의 희곡이, 그리고 평론 총서에는 ‘흩어진 중시의 향기’(김형수)를 포함한 13편의 평론이 담겼다.



<그림 26> 오월문학총서

#### ④ 공연 사업

재단의 문화사업에는 공연 사업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재단이 기획하고 주최한 첫번째 공연사업은 2005년에 시작된 광주음악제다. 광주음악제는 5·18민주화운동을 음악을 통해 승화시키고, 국제 규모의 음악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과 아울러 세계적 연대감을 고취하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2005년 광주음악제는 ‘아시아의 메아리’라는 주제로, 우리시대를 풍미했던 노래들과 우리와 비슷한 식민지 지배와 전쟁, 근대화의 물결을 겪고 있는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의 가수들이 불러주는 노래를 통해 시대를 돌아보고, 함께 하는 노래를 통한 역사읽기와 평화촛불행사를 함께 거행했다.

2006년에도 광주음악제가 개최되었다.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주제 하에 광주음악제

는 국내 및 아시아의 음악인들을 초청하여 줄타기 공연, 영상, 힙합, 락, 판소리 등의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공연을 개최했다. 하지만 광주음악제는 재단이 공연을 직접 기획 및 개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면서 2회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2007년에는 5월 정신을 담은 공연작품을 전국적으로 수집하여, 재단 내에 공연 자료를 축적하고 정기 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은 ‘난장·人·Free’ 공연이 시작되었다. 광주음악제와 달리 난장·人·Free는 다양한 형식의 공연들이 행해지는 복합 장르 공연이라 할 수 있다. 그 예로 2009년의 난장·人·Free는 식전 행사로서 인권 주제의 퍼포먼스, 국악 공연, 오월 사랑굿, 연극 공연, 마당극, 이야기 콘서트, 폐막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난장·人·Free는 5월 정신의 계승과 승화라는 목적에 보다 충실하면서, 공연 콘텐츠를 축적하고 재단의 공연장을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공연 기획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된 난장·人·Free 공연은 2010년 ‘오월누리제’로 명칭을 바꾸어 계속되었다. 오월누리제는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공연의 내용적, 외형적 확대를 꾀하면서 기획된 것으로, 5·18 기념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 공연을 포함한 파급효과의 확대를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오월누리제의 공연 프로그램 역시 난장·人·Free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2010년의 경우 오월누리제는 퍼포먼스, 연극 공연, 이야기 콘서트,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에는 이어져 온 이야기 콘서트가 폐지되고, 시민들의 참여를 더 확보하기 위한 마당극과 길놀이 등의 연행이 강조되었다. 또 특정 극단을 계속 주관사로 선정하던 것을 바꾸어 경쟁을 통해 주관사를 선정하고, 자원활동가로 구성된 홍보단을 조직하여 거리 홍보를 진행하는 등 형식과 내용의 변화를 꾀했다.

<표 73> 난장·人·Free 및 오월누리제 프로그램

연도	공연	주요 프로그램
2007	난장·人·Free	- 갤러리 문학카페 - 민중가요 - 아시아 각국 무용
2008	난장·人·Free	- 무용 - 연극 - 음악 - 전시
2009	난장·人·Free	- 인권 퍼포먼스 - 개막공연: ‘5월, 자유를 노래하라’ - 연극: ‘오월 사랑굿’ - 연극: ‘호랑이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 공연 퍼레이드</li> <li>- 마당극: ‘밥심’</li> <li>- 이야기 콘서트: 안치환, 홍세화, YB밴드, 신영복</li> <li>- 풍물 길놀이</li> <li>- 대동놀이</li> </ul>
2010	오월누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퍼포먼스</li> <li>- 연극: ‘전국노래자랑’을 비롯한 7개 연극</li> <li>- 이야기 콘서트: 도종환, 김규향</li> <li>- 음악공연: 봄여름가을겨울 등</li> <li>- 시민참여 프로그램: ‘연극놀이터’</li> <li>-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li> </ul>
2011	오월누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놀이</li> <li>-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li> <li>- 연합공연: ‘다시, 오월에 서서’</li> <li>- 초청공연: ‘폼바폼바’</li> <li>- 5·18 줄맹기기 및 대동놀이</li> </ul>

하지만 오월누리제는 2011년 공연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오월누리제에 대한 이사회 내부의 평가는, 사업의 취지 및 전달 메시지가 명료하지 않고, 특정 극단이 주관함으로써 콘텐츠가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문화행사가 오월에만 집중되어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오월을 대표하는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연중 상설 공연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새로이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소규모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현재 그 대안 사업으로 기획되고 있다.

광주음악제, 난장·人·Free, 오월누리제를 비롯한 재단의 공연 사업은 재단이 전문 공연 기구로서의 전문성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정신을 연극과 음악 등의 예술 장르들을 통해 재현하고 승화시키고자 한 노력의 의미있는 결과물이었다. 비록 재단이 현재는 뚜렷한 문화예술 공연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수행한 공연 사업은 5·18 정신의 계승과 확산, 그리고 광주의 문화예술 진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7> 난장·人·Free 및 오월누리제 프로그램

### ⑤ 5·18 언론상

5·18 언론상은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헌신한 언론인들의 노력을 알리고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어 시상되었다. 1980년 신군부의 철저한 언론통제 상황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헌신한 언론인들의 노력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상은 그 연원이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무등일보 편집국장인 김성시의 시상금 후원으로 2007년 5·18 언론상이 제정되어 지역 언론인 중에서 이에 부합하는 언론인에게 수여되었는데, 그동안의 진행 및 시상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4> 5·18 언론인 시상 내역

연도	시상 현황
2007년	무등일보 사회부, '5·18 당시 집단매장 추정유골 무연고 처리 의혹'
2010년	광주일보 5·18특별기획 시리즈, '5월을 넘어, 광주를 넘어'
2013년	취재·보도 부문 - 광주일보,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시키나'와 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33주년 기획물(이종행 기자 외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 광주방송총국의 5·18 역사왜곡 진실추적 기획보도 시리즈(이성각 기자 외 7명)</li> <li>- CBS 광주방송의 'GIS로 그리는 5·18 사망지도'(조기선 기자) 논평·비평 부문</li> <li>- 중앙일보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어때서?'(노재현 논설위원)</li> </ul>
--	--

5·18 언론인상은 2007년 제정되어 2010년에 두번째 시상이 이루어졌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기자협회의 내부 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등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다가, 2013년부터 기자협회와 5·18기념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었다. 시상 을 위한 절차와 시상 내용도 체계화되었는데, 공모대상은 전국 기자협회 소속 언론인 이며, 공모주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보도 및 영상물로 규정되었 다. 공모기간은 전년도 시상 후 1년간 보도 및 방송된 내용으로 한정되었다. 시상 규 모 및 내역을 살펴보면 취재보도 부문은 3개 각 2백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되고, 사진과 논평·해설은 각 1개 2백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 4. 진실조사사업

### 1) 개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록을 생산하고 보존하는 일은 곧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동력이자 첫 단계이다. 5·18민주화운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수집된 자료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평가를 정당하게 내리는 학문적 연구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재단은 진실조사사업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인 5·18민주화운동과 그 밖의 현국현대사의 주요 사건과 관련한 기록들을 발굴·조사하고, 수집한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고자 했다. 또 5·18기록물의 해제와 분석, 검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사 정리와 미해결 5·18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 5·18의 폄하·왜곡 등에 대처해왔다. 실제 공안당국의 탄압을 극복하고 보존, 관리한 5·18기록물은 학문적 연구와 5월문제 해결을 위한 5대원칙 관철로 그 가치가 평가되었고, 마침내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이라는 세계의 기록물로서 자리매김했다.

재단설립 이후 1990년대는 별도의 자료실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수집된 자료는 사무실 한편에 박스에 담아 쌓아두었다. 기록물관리 전담인원도 없었다. 5월문제해결을 위한 5원칙 과제 등에 전념하던 시대상황에서 기록물관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있었다. 사무실의 이동과 공안탄압 등으로 그나마 보관중인 자료마저 유실이 빈번하였다.

당초 5·18관련 자료수집은 1988년 광주에 「현대사사료연구소」의 설립과 본격적인 활동, 1995년1월 광주시청에 5·18자료실에 만들어짐으로써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재단의 기록물 수집업무는 그보다 훨씬 뒤인 1999년 5·18피해자실태조사사업으로 시작되었다. 희생자, 행불자 개인프로필과 유가족 상이후 사망자의 개인프로필 등 중요사항과 관련된 사람들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예산 등의 사정으로 당시 광주시 공공근로인력을 지원받아 추진되었다

2001년 재단이 현재의 5·18기념문화센터로 이전하면서 기록물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기록물관리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자료실 독립공간도 확보했다. 기초적인 소장기록에 대한 DB등록과 관련 사료조사 및 수집사업을 실시하고 자료실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2002년에는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단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자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5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으면서 자료실관리도 본격화했다. 5·18민주화운동 자료관리 연구용역(2006년)이 실시되고, 체계적인 사료 관리를 위한 사료 관리시스템

도입과 DB 구축도 진행됐다(2006년). 자료 이용자들의 편의 및 사료 활용을 위한 웹 아카이브 구축을 시작했다(2007년). 또 구술채록사업과 함께 타 지역 오월운동사 수집, 해외동포운동사 수집사업이 진행되었다 기록물의 관리와 학술 연구의 업무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통합수행된 것은 아니었다. 통합과 분리를 거듭한 기록물 관리와 학술연구사업은 2011년 8월 진실조사팀이 새로 생기면서 비로소 통합되었으며 이때부터 기록물관리 전담부서도 설치되었다. 2012년 1월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었다. 기록물관리 관련 규정 정비 및 기록물 정수 점검이 이뤄지고 기록 관리시스템 개발·구축을 위한 준비도 이때 시작되었다. 2013년에는 보수 세력의 5·18역사왜곡행위에 대응해 광주지역 338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5·18역사왜곡대책위’가 구성되고 산하 실무 팀이 꾸려지자 재단도 사실대응팀(진실조사팀), 사이버대응팀(총무팀)에 참여해 활동에 들어갔다.

초창기 재단 여건상 학술연구활동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1998년도에 이르러 재단 내 각 위원회의 활성화방안이 검토되며 이사들과 전문가들의 각 위원회 참여를 제도화하는 논의가 일었으나 그나마도 학술연구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에 구성’한다며 보류될 정도였다(1998년 2차 이사회).

대신 재단은 전문연구단체의 지원을 통한 ‘학술심포지엄’ 형태의 학술연구 활동을 도모했다. 1997년의 한국정치학회, 98년 한국사회학회, 99년 한국학술단체협회, 2000년 미국 UCLA대학에서의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그 사례이다.

2000년도 하반기에 5·18학술연구 주제 공모사업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연구주제를 5·18의 본질, 5·18정신의 사회화, 민주인권화, 타 단체(4·3등)와 연합한 연구가 되도록 하고 기존 연구결과와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자는 내부 의견이 나왔다(2000 1차 이사회).

2005년부터 기록물수집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재단은 5·18의 학술적 정립과 우수 연구자 지원, 전문 및 신진연구자 발굴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5·18의 정신적 가치를 학문적 체계화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연구성과를 확장·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문연구진발굴과 신진연구자들의 학문연구 의욕을 고취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담론 형성과 외연확장을 위해 진행해온 구술자료 수집 및 공모, 연구지원사업의 결과물들을 도서로 발간하고 있다. 2005년~2008년까지 생애사구술채록을 통해서 개인의 삶에 투영된 5·18민주화운동을 살펴본 5·18 구술기록 『5·18의 기억과 역사』 1-4권을 출간했다. 대학의 교양과목 교재 『5·18그리고 역사』(2007)를 출판하였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를 수집하여 분야별 시기별로 정리한 『5·18민주화운동 연구의 현황』(주요연구 성과요약집 1-3)(2005)을 발간하였고, 2006~2007년에는 5·18

에 대한 연구의 성과를 모아 『5·18민중항쟁과 문학·예술·법학·정치·사회·역사』1-5(총7권)을 발간하였다. 또 매년 진행된 연구지원사업의 결과물을 정리하여 대학의 교양과목 연례보고서 형식으로 「연구지원 선정논문집」을 발간하였고, 2010년부터 매년 2회 아시아민중의 인권 및 민주화운동을 소개하고 연대와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아시아 저널(Asia Journal)』을 발간하고 있다.

2009년 이후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추진기구 구성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전남대 5·18연구소와 광주시청, 전남도청, 5·18연구자들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재단에서는 사무처장과 자료담당자가 참석하였다. 그 해 9월까지 진행된 4차례의 민관협의체 회의결과 광주시나 5·18기념문화센터 등 행정기관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재단이나 5·18연구소가 공동으로 5·18기록물 등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두 기관 또한 충분한 재정지원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해 12월 ‘5·18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이하 추진위)’가 출범했고 재단의 이사장이 추진위원(이사), 상임이사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재단은 영상제작비, 인쇄비 등의 예산을 지원했다.

2010년 3월 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재단은 추진위와 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작성을 위한 기록물 해제 및 영상물 제작에 참여했다. 신청서 제출이후 2010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사위원의 실사가 예정되었다. 이를 위해 5·18기념문화센터내에 임시자료실을 설치기로 했다. 재단은 추진위와 임시자료실 운영에 대한 내부 조율을 진행하고, 재단 행정 자료를 제외한 구술, 영상, 수사기록 등의 자료를 검토했다. 등재추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기록유산이기 때문에 원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많은 자료를 수집했으나 대부분은 복사물이었다. 2010년 10월 광주를 방문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관계자는 기록물의 ‘원본’과 ‘유일본’을 강조하고 조언했다. 이러한 조언에 따라 원본 기록물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재단은 도서, 문서, 사진, 시청각, 박물(작품) 등 4만7천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다(2011년 2월 기준). 이 기록물 가운데 유네스코 등재 기준인 ‘원본’ ‘유일본’의 기준에 맞는 것은 미국인 선교사 헨틀리 목사의 사진자료(사진 95점, 필름 297점)와 구술(744명)자료였다. 아쉽게도 투사회보는 복사본이라는 이유로 유네스코 등재기준에 해당이 안 돼 제외됐다. 등재이후 2014년 개관을 목표로 5·18기록관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재단은 5·18기록관 구축과 관련한 실무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 2) 기록물 관리

### (1) 자료실 운영과 기록물 보존

## ① 자료실운영

1994년 재단 설립이후 2000년까지 1980년 당시의 기록(자료)과 이후 생산된 기록은 분류·보존·활용의 계획도 없었고 따라서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방치돼왔다. 2001년도 이후 재단 국민기금 과실금 등으로 인한 예산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5·18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기초조사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2001년 처음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재단에 배치되었다. 다음해에는 독립적인 자료실공간(약 33m<sup>2</sup>)도 확보되었다.

전문요원채용과 자료실 확보는 재단이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재단 생산 자료와 외부 수집 자료가 증가하면서 자료실도 두 개로 늘어났다. 제1자료실은 업무공간(등록업무, 자료 정리 업무), 단행본 및 홍보용 자료를 제외한 모든 행정자료를 보관하고 제2자료실은 열람공간, 편집공간, 단행본 및 홍보용 배포 자료(도서, 영상), 기타 물품류를 보관했다. 2010년도에는 그나마 자료 보관 장소가 비좁아 제2자료실 전용으로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2010년 3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5·18기념문화센터에 실사를 대비한 임시 자료실이 마련되자 재단은 행정 자료를 제외한 기증 자료, 구술 자료, 영상 자료, 행사위원회 행정자료 등을 임시자료실로 이전하기도 했다.

2006년 5·18민주화운동자료관리 연구용역실시와 사료 관리시스템 도입·공개(2010)에 이어 2011년 8월 진실조사실을 신설하고 기록물관리 전임자를 배치하면서 구술기록물의 디지털변환을 완료하는 등 성과를 내었다.

## ② 기록물보존

### 가. 기록물 현황

5·18에 대한 본격적인 자료수집은 1988년 현대사사료연구소의 설립과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5년 광주시청에 5·18자료실이 만들어짐으로써 관련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었고 1997년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위원장 김동원 교수)가 구성돼 『5·18민중항쟁』(1997)과 『5·18민중항쟁사』(2001)가 발간됐다. 2001년 광주시청 자료실이 5·18기념문화센터로 옮긴 이후에도 5·18민주화운동자료총서(2013년 기준 총 61권), 색인목록집 I, 전자자료총서 출간 등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재단은 2001년 5·18기념문화센터의 이전과 함께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에 들어갔고, 2002년 자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장에는 차명석(상임이

사), 위원에는 이재의(기획위원, 광주시 국제통상과), 최영태(전남대 사학과교수), 정호문(518기념문화관 자료실) 정준민(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이, 간사에는 박강배(재단 사업부장)가 선임되었다.

당시 자료위원회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자료 ▽광주일보 소장 자료 ▽헌틀리 목사 소장 자료 ▽이상일시 소장 자료(당시 정보사 사진사) ▽1980년 당시 중앙일보사 사진 팀 소장 자료 ▽독일 내 개인 소장 자료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국내 개인 소장 자료 ▽기타 육군본부 소장 자료(광주사건,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수집계획을 세웠다.

자료위원회 활동은 꾸준히 계속되어 2005년 자료위원회-위원장 정수만(재단 상임이사), 위원 정준민(전남대 교수), 김기곤(5·18연구소), 정호문(5·18기념문화센터), 차수정(광주 북구 일곡도서관)-는 재단 자료실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5·18연구소, 일곡도서관을 활용하는 포괄적인 5·18자료실에 대해 논의하고, 자료수집과 함께 재생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자료에 대한 보존처리와 보존시설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자문하였다.

<표 75> 2003년 소장 사료현황

(2003. 1월 기준)

분류	단행본	간행물	단체자료	영상자료	사진	신문기사	리플릿	포스터	기타	계
수량	367	174	758	250종 (*1940)	318종 (*7000)	*20	242	103	*5	2,212 (*11,191)

\*표는 목록진행중임

<표 76> 2011년 소장 사료현황

(2011년 2월 기준)

구분	도서	문서	사진	시청각	신문	박물(작품)	기타	계
자료량	4,515	12,603	20,256	3,574	4,825	730	500	47,003

<표 77> 자료시스템 등록사료현황

(2011년 2월 기준)

구분	도서1	문서2	사진	시청각	신문	박물(작품)	계
등록완료량	3,081	994	256	574	125	0	5,030
1차등록량	934	11,109	0	0	0	330	12,373
총등록량	3,082	996	256	574	125	330	5,030
※등록사료 내용							
▼도서 : 5·18 관련 도서							
▼문서 : 수사기록, 재판기록, 2004년까지 재단 행정문서기증 자료							
▼사진, 시청각, 신문, 작품(일부)							

<표 78> 등록예정 사료현황

구분	도서	문서	사진	시청각	신문	박물(9작품)	기타	계
등록예정량(추정)	500	500	20,000	3,000	4,700	40	500	29,600
※등록예정 사료 ▼도서 :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 ▼문서:재단 행정문서(2005년 이후), 행사위원회 행정문서 ▼사진 : 재단행사사진 ▼시청각 : 구술자료 ▼신문 : 수집신문 자료 ▼박물(작품) ;수장고 보관 작품 ▼기타 : 포스터, 리플릿								

나. 구술기록물 디지털 변환 및 정리

2013년 구술기록물에 대한 디지털변환과 정리가 이뤄졌다. 디지털변환 방식은, 종이→PDF 및 HWP,카세트→MP3,영상파일→AVI변환이다. 또 정리결과 주제(또는 인물별) 통합관리가 이뤄지고 문서, 음성(녹취),영상기록 등 유형별 목록작업과 종이(책자),DVD,카세트테이프,6mm테이프 등 형태별로 정리되었다.

<표 79> 디지털변환 및 정리결과

2013.현재.

분류	인원	문서			시청각		비고
		종이	HWP	PDF	MP3	AVI	
5·18민주화운동구술자료	650명	○	○	○	○	-	완료
민청학련 구술자료	5명	○	○	○	○	○	완료
송백회 구술자료	3명	○	○	○	○	○	완료
5·18항쟁사정리를 위한 인물사 연구	36명	○	△	△	△	△	완료
공직자의 시선을 통해본 5·18민중항쟁	10명	○	○	○	○	○	완료
최후항쟁의 의미와 증언의 소멸:1980년 5월 26일~27일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10명	○	-	-	-	-	진행중
5·18민중항쟁 구술 자료집(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0명	○	○	○	○	○	완료
5·18민중항쟁 영상채록자료(YMCA 5·18영상기록특별위원회)	73명	○	-	○	-	○	진행중
5·18민중항쟁에서의 의료 활동과 의미	20명	○	-	-	×	×	진행중
5·18피해자 구술자료	735명	×	△	-	-	△	진행중

※표 설명

○: 목록작성 및 변환,정리작업 완료

△: 목록작성 및 변환, 정리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누락(기록물 비존재)

×: 해당기록물 존재하지 않아 작업불가



-: 현재 진행 또는 진행예정(hwp의 경우 시간상 진행불가)

- 5·18피해자 구술 자료는 별도의 목록 작성.

디지털변환 및 정리 작업 결과 재단생산기록물의 체계적 이관(일자 및 방법)기틀이 마련되었다. 구술기록물 목록작업을 통해 소장기록물의 누락 및 망실을 확인하였고 디지털변환을 통한 구술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담당자만 검색이 가능할 뿐 외부 이용자들이 온라인 검색과 열람이 불가능한 현실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2) 기록물 조사 · 수집

### ① 구술채록

본격적인 기록물 수집은 1999년 5·18피해자 실태조사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실태조사사업은 당시 재단의 본예산과 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나 광주광역시 공공인력 중 고학력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인력지원을 받아 추진됐는데 조사대상은 희생자, 행불자 개인프로필과 유가족·상이 후 사망자의 개인프로필, 유가족·부상자·구속자중 중요사항과 관련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5·18민주화운동 문헌기록이 가진 사료적 공백을 메우고 5·18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5월 관련자에 대한 구술기록 수집이 2005년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이 해에는 교육가, 사회 활동가 14명에 대한 구술이 영상, 음성, 전사문형태로 수집되었다. 구술기록수집은 2006년 사회 활동가, 2007년 농민운동가, 사회활동가, 2008년 사회활동가, 민청학련, 송백회, 2009년 공직자, 2011년 도청 최후항쟁관련자, 2012년 가톨릭교회 관련자 및 5·18민주화운동의 시발·최초발포지 관련자, 2013년 가톨릭센터앞 충돌상황 및 기동타격대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수집이 진행되었다.

<표 80> 5·18구술기록 수집현황

연도	내용	구술인원	수집형태
1999-2002	5·18피해자구술자료 조사	686명	음성, 전사문, 전사일지, 전사목록
2005	5·18항쟁사정리를 위한 구술생애사 연구 -교육가편, 사회활동가편	14명	영상, 음성, 전사문
2006	5·18항쟁사정리를 위한 구술생애사 연구	8명	영상, 음성, 전사문
2007	5·18항쟁사정리를 위한 구술생애사 연구	8명	영상, 음성, 전사문
2008	5·18항쟁사정리를 위한 구술생애사 연구	16명	영상, 음성, 전사문
2009	5·18항쟁사정리를 위한 구술생애사 연구	10명	영상, 음성, 전사문
2011	5·18항쟁사정리를 위한 구술생애사 연구	10명	영상, 음성, 전사문

	-최후항쟁의 의미와 증언의소명: 1980년 5월26일-27일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2012	가톨릭교회의 오월운동 증언	11명	영상,음성,전사문
	5·18민주화운동의 시발 및 최초발포지에 대한 재구성	15명	
2013	계엄군과 광주시민간의 충돌: 1980년 5월19일, 가톨릭센터부근	4명	영상,음성,전사문
	전 시민적 항쟁 참여:1980년 5월20일, 차량시위	7명	
	기동타격대의 결성 및 활동	12명	

## ② 타 지역 오월운동사 조사 및 수집

2012년부터 5·18기록물 조사, 수집대상을 타 지역으로 확대했다. 5·18 전국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5월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집지역을 부산(10명), 전북(10명)전남 나주·목포(16명)등지로 넓혔다.

연구범위는 우선 12·12부터 1980년 5월 전후 각 지역에서 발생한 운동으로 한정하였다. 각 지역의 모든 행정문서, 언론보도, 각종 성명서 및 유인물, 사진기록 등을 조사·수집하였고 지역별 5월운동사 개요를 작성하였다.

재단은 2013년도에는 타 지역오월운동사 조사 및 수집범위를 1980년 5월 이후 사건으로 확대하고 수집대상 지역도 기존 부산, 전북지역외에 대전·충남지역을 추가하였다. 전국적 오월운동사정리를 위한 조사·연구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연구를 심화하고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적 오월운동기록을 집대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부산지역의 경우 1980년 5월 이후부터 1983년까지의 5월운동 가운데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및 부림 사건 중심으로 조사·수집하였다.

전북지역은 1980년 5월~1987년 6월 항쟁까지의 5월운동 가운데 이세종 열사 및 오송회사건 중심으로, 대전·충남지역은 12·12부터 5·18전후 지역 5월운동 및 아람회사건으로 하였다.

<표 81> 타 지역 오월운동사 조사 및 수집현황

수집년도	조사지역	수집대상
2012	부산	△5·18관련 유인물 배포(문정현, 이광호, 이우주, 배정렬) △80년 5월전후 지역 학생, 시민운동(이홍록, 조태원, 김희욱, 홍점자, 송세경) △80년 5월 전후 부산지역 종교운동(가톨릭교회) (박승원)
	전북	△80년 5월 전후 지역학생 시민운동(최인규, 이승희, 김남규, 하연호, 박중훈, 이광철) △이세종 열사 관련 (김중길, 김운주) △전주 신흥고등학교 5·27시

		위관련 (김인수, 이우봉)
	전남(나주·목포)	△목포지역 5·18항쟁참여 및 항쟁조직 관련자(양지문, 김진옥, 김기훈, 최형주, 한봉철, 박용택, 이문수) △나주지역 5·18항쟁참여 및 무장상황 관련자 (이재권, 최성무, 정규철, 박창남, 정영철, 박선재, 김귀광, 김기석, 박청진, 고귀석)
2013	부산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관련(김현장, 문부식, 최인순, 유승렬, 이미옥, 최기식, 김영애) △부림 사건 관련(송세경, 설동일, 송병곤, 이상경, 주정민, 전중근, 박옥영, 이호철)
	전북	△1980년 5월 전후 학내시위 및 이세종 열사관련(최갑선, 이광철, 김희수, 김중길, 이승희, 이우봉, 강익현, 라경균, 심영배, 양윤신) △오송회사건 관련 (박정석, 황운태, 이옥렬, 전성원)
	대전·충남	△1980년 5월 전후 학내운동관련자(선재규, 문성식, 김윤희, 김병국, 김영범, 김용범, 이상현, 길준용, 최교진, 이영복, 이완규, 한기호, 김병욱) △아람회 사건관련(김현칠, 김창근)

### (3) 기록물활용

#### ① 웹사이트 개설

2006년 재단은 5·18민중항쟁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5·18기록관 웹사이트 (<http://archives.518.org>)를 개설했다.

재단 518기록관에는 1980년 당시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가 생산한 각종 기록 및 군사법기관의 수사기록, 재판기록,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기록 등 4,271권, 총 95만8,900여 쪽에 달하는 문헌기록을 비롯하여 도서·문서·사진·필름·영상·구술기록 등을 보존하고 있다.

웹사이트 방문 실태를 보면 개편 이전 (2007년~2012년 5월)까지 평균 10만 건 이상 접속자가 몰리는 등 높은 인기를 끌었다.

<표 82> 웹사이트 접속현황

년도	접속 현황	비 고
2007	167,905	
2008	127,826	
2009	106,651	
2010	111,469	
2011	110,110	
2012	24,749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가치와 정신이 전 세계민주화운동은 물론 한국 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중요한 가치를 지닌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더욱 간편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5·18기록물 온라인 전시를 실시함으로써 5·18정보서비스를 강화하였다.

<표 83> 5·18기록물 웹전시

제목	일시	주제
30+ 1, 그리고...	2011.4.26.~7.31	신군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의 5·18
5·18, 세계 속에 꽃피다	2011.9.29.~12.31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전시
주먹밥 드시러 오세요	2012. 3. 1~31	계간지 주먹밥 표지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2012.5.1.~31	80년 당시 신군부,언론의왜곡
끝나지 않는, 녹슨	2012.7.1.~31	5·18문학상 수상작품전
그때 그 자리 그 사람들	2012. 9. 1~31	5·18민주화운동사적지, 어제와 오늘
기록의 힘	2012. 11. 1~30	공개행사 주요기록물 전시
그 때 그 순간	2013. 1.1~31	5·18민주화운동 2012년 감동의 뉴스
피고 전두환 무기징역 피고 노태우 징역 17년!!	2013.3.1.~4.30	5·18사건 수사기록 모음
그 해 오월, 피지 못한 꽃	2013. 5. 1~6.30	미성년희생자 관련 기록
1980년과 2013년의 님은 풀 찾기	2013. 7.1~8.31	1980년과 2013년의 5·18왜곡 비교
임을 위한 행진곡	2013.9.1.~10.31	영원한 5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그러나 기록관 홈페이지 접속현황 만으로는 당시 시스템 여건상 각 메뉴별 통계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구체적인 이용현황을 자료별로 파악이 불가능하다보니 기록물활용 현황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5·18기록관 이용자들에게 대한 온라인 열람서비스는 현재 중단된 상태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 ②기록물열람 및 정보제공

지역별 오월운동 성과를 연구자 및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기록물 열람서비스와 홍보영상자료를 제공하였다. 진실조사팀이 구성된 2011년이후 열람 및 배포된 기록물건수는 277건, 232건에 이르다 2013년에는 723건에 달하고 있다. 당시 5·18역사왜곡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분노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배포된 DVD 및 CD홍보자료는 ‘기억을 기억하라’(DVD 한·일·영·중), ‘다큐멘터리 5·18’(DVD 한·일·영·중), ‘오월상생’(DVD),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DVD), ‘오월음

반'(CD), '5·18전시용사진세트'(포스터형)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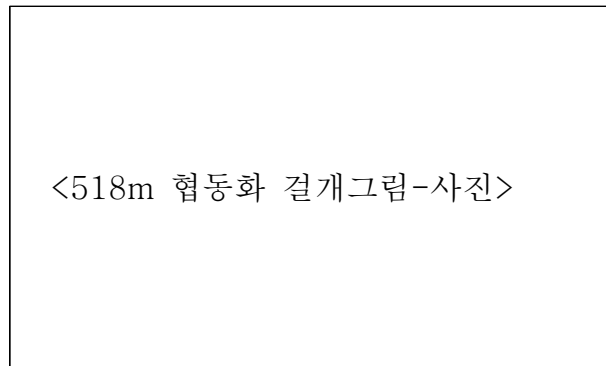
<표 84> 자료활용 현황(2011년이후)

연도	기록물열람(건)	기록물배포(건)
2011(277건)	119	158
2012(232건)	51	181
2013(723건)	363	360

2013년에는 또 광주시립미술관과 공동으로 민주인권평화전 <오월\_1980년대 광주민중미술>을 전시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1980년 5월 당시 사진기자(나경택)와의 저작권 협약 체결을 통해 사진기록물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③ 기록관 공개

5·18민주화운동 32주년을 앞둔 2012년 5월11일 부터 15일 동안 5·18기록관 공개행사가 열렸다. 모두 69점의 5·18기록물이 공개된 행사에는 약 1천5백여 명의 시민과 학생이 관람하였고 서울, 경기, 대구 등 타 지역시민들의 관람도 이어졌다. 각종 5·18 기록물과 관련 자료의 공개는 재단 창립 이후 처음이었다. 공개 행사에서는 광주 투입 특전사 병력을 언급한 미 국방부 문서와 해외 동포의 5월운동 자료 등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록물을 소개하였고, 광주청문회에서 증언한 전두환의 증언문과 서면답변문, 80년 당시 전투상보와 상황일지, 검시조서를 직접 열람할 수 있었다. 전시장에서 는 지난 2003년 금남로 거리에 전시되어 감동을 주었던 광주 지역 27개 초·중학교 4,000명이 공동으로 제작한 '518m 협동화' 걸개그림과 함께 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기록물 등록 작업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8> 518m 협동화 걸개그림-사진

#### (4) 기록물연구

##### ① 5·18왜곡대응 활동

5. 18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의미는 소중하게 지켜지고 계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가치를 폄하하려는 움직임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특히 2013년도 들어서 일부 중편방송에서 ‘북한군이 개입되어 광주시민을 살상하였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일부 보수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5월 희생자들의 관을 ‘홍어포장’으로 표현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일부 언론과 인터넷사이트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왜곡행위가 계속되었다.

5·18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고귀한 저항과 희생’으로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 ‘5·18 민주화운동’으로 개념이 정립되고, 5월 18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운동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 기록물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벌어진 이 같은 왜곡·폄하행위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분노하였다.

이에 재단 및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관련단체, 시민단체 등은 이러한 역사왜곡 시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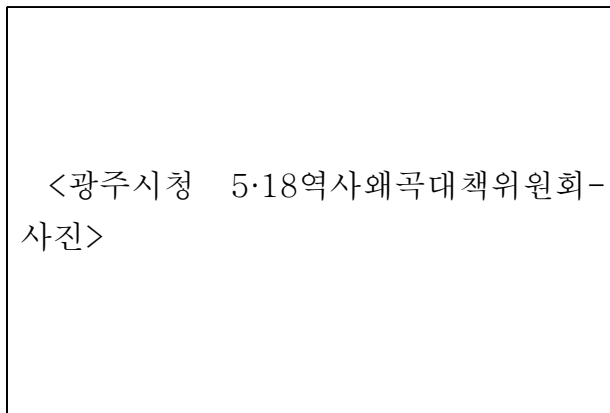
2013년 5월24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지역 각계각층 338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1차 시국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5·18역사 왜곡시정 대책위원회 △임을 위한 행진곡 5·18공식기념곡 지정 추진위원회 △5·18정신 계승·선양 위원회 등 3개분과위원회가 꾸려졌고 재단 측도 △5·18역사 왜곡시정 대책위원회와 함께 5·18역사 왜곡·폄하 사례에 대해 법률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5·18왜곡대응팀은 다시 법률대응팀(광주시청), 사실대응팀(재단 진실조사팀), 사이버대응팀(재단 총무팀)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재단 측은 신고게시판 운영 및 왜곡사이트 모니터링, 왜곡내용 수집 및 분석, 법률대응팀 요청자료 대응 등 활동에 들어갔다.

이어 7월에는 재단을 포함한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5·18역사왜곡 저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출범했다. 국민행동은 7월13일 5·18기념재단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5·18왜곡·폄하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국적인 시민사회의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행동은 발족 성명서에서 5·18왜곡·폄하행위가 역사 왜곡 쿠데타이며 5공 세력의 부활을 노린 반역사적 음모이자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를

향한 정당한 역사를 부정하고 국론분열과 갈등을 심화하는 반민주적 작태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인터넷상에서 역사왜곡과 지역감정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극한적 행위가 일어난 사건의 배경도 5·18왜곡에 있으며 결국 5·18의 왜곡됨하는 미래를 사회적 살인과 방조, 대립과 불신의 늪으로 빠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행동은 5·18왜곡세력에 대한 전국적 고소, 고발운동을 전개하고 5·18사실대응을 위해 온·오프라인상 활동은 물론 강연회, 토론회, 전시회, 시사회를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5·18왜곡금지 법률제정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및 입법청원을 벌이기로 했다.

또 국민행동은 광주광역시의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5·18을 왜곡하는 반역사적 행위에 대한 전 국민적 투쟁에 함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행동 준비위 소속 회원들은 6월10일 서울 광화문에서 ‘5·18역사왜곡조장’ 종합편성 방송 규탄 대회를 가진 뒤,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사저 앞에서 ‘5·18학살주범 전두환 부패재산 추징 촉구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림 29> 광주시청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사진

## ② 5·18민주화운동사 정리

2012년 이후 5·18민주화운동기록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분석·검증을 위해 관련기록물 해제작업이 추진되었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수집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수집된 기록물에 대한 내용 정리·분석·검증 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분석 및 해제를 진행하여 기무사 보존기록물, 군생산기록물, 광주사건 군법회의재판기록 등 총 31,000여 쪽에 달하는 기록물을 정리하였다.

검토 및 해제 기록물 범위는 △기무사 보관자료(36철, 1만 6천여 쪽), △군 생산기록물(35건, 3천여 쪽), △5·18사건 수사기록(160권), △12·12 및 5·18사건 재판기록(32

권), △군법회의 재판기록(180,000여 쪽, △진료비 청구기록(25권) 등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중점 검토, 해제작업이 진행됐다.

<표 85> 2012년도 5·18관련기록물의 분석, 해제 연구

연구자	비고
최정기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책임연구원
오승용(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	공동연구원
노영기(서울대학교 규장각 학술연구교수)	공동연구원
김희송(전남대학교 사회학과 BK 학술연구교수)	공동연구원
김형주(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조교)	공동연구원
유경남(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HK연구원)	공동연구원

5·18민주화운동사정리는 2013년에도 계속되어 관련 기록물의 분석, 해제 연구에 중점으로 두고 시행되었다. 연구내용은 해제연구로 △ 5·18당시 시위군중 연구 △시민군 형성의 정치사회학적 의미 △5·18항쟁과 계엄군(발포과정과 배경을 중심으로) △5·18항쟁시기 군부의 5·18담론 연구 등이 추진되었다.

기무사 보관자료(16,000여 쪽), 기타 군 생산기록물(3,000여 쪽), 5·18사건 수사기록(160권), 12·12 및 5·18사건 재판기록(32권), 군법회의 재판기록(180,000여 쪽), 진료비 청구기록, 구술기록(646명)에 대한 해제도 이뤄졌다.

또 박순영, 김소연, 정혜인 등 젊은 연구자들이 기록물 DB작업에 참여해 △ 군법회의 재판기록(180,000여 쪽 중 100,000여 쪽 △12·12 및 5·18사건 재판기록(32권) △ 구술기록물(646명, 8,500여 쪽)에 대한 입력이 진행되었다.

<표 86> 2013년도 5·18관련기록물의 분석, 해제 연구

연구자	비고
최정기	해제연구
오승용	
노영기	
김희송	
최정기	
	해제문 작성, 감수



유경남	해제문 작성
박순영	기록물 DB입력
김소연	
정혜인	

### ③ 미해결과제 정리 및 연구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은 그동안 다양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대체로 밝혀졌지만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은 아직도 미해결상태로 남아있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5월문제에 대한 객관적 정리와 함께 이를 공식화하여 역사적 과제로 재설정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연구를 위해 ‘5·18과 미국’을 미해결과제 주제로 선정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한 집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연구가 진행되었다.

#### 가. 1980년전후 미국정부 기록물정리

미해결과제 가운데 제1과제로 ‘5·18과 미국’을 선정한 재단은 수집된 기록물 목록과 약 및 미수집된 공개기록물을 수집했다. 연구자로 노영기(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를 선정하는 한편 이삼성(한림대 정외과), 박태균(서울대 국제관계학)교수 발제로 전남대 5·18연구소와 조선대 민주화운동연구원 관계자들이 토론을 갖는 등 연구자중심 집담회를 열었다.

확보된 기록물은 출처가 세 곳으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총서 6권~10권 △국립중앙도서관 FOIA 관련 기록물 △TIM 서록 기자(서머스 오브 저널)의 체로키 파일 등이다. 또 1980년 5월기간 미 국무부 전통문 번역을 진행(광주국제교류센터 의뢰)하고 추가 수집된 기록물과 번역 기록물을 등을 편철했다.

확보된 기록물은 미국무부 기준 2급 또는 3급 비밀문서들로 △80년 전후 주한 미 대사관과 미국무부 사이 전통문 △박정희 피살 이후 미 백악관 특별대책반 문서(체로키 파일) △미 국방부 첩보 보고 문서 등이다.

※체로키: 미국 인디언족 중의 하나.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이후 백악관은 체로키란 이름으로 한국 관련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해당 기록물들을 분류하였다.

<표 87> 기록물 분류

출 처	내용	특징	비 고
광 주 시	1979년 1월~1980년 12월 31일 사이 주한 미	1979년 박정희 암살 이후	주요 정보

5·18민주 화운동총 서 6 권~10권	대사관과 미국무부 사이 전통문으로 광주시가 1996년 미국 국무부에 요청하여 확보한 기록물	구성된 백악관 특별대책반의 문서(체로키 파일 중 주로 미 대사관의 전통문)도 포함되어있음	원의 인명 등은 삭제 되어있음
국립 중앙도서 관 수집 기록물	미국 정보자유법(FOIA)에 따라 비밀해제된 문서로써 미국기록물관리청(NARA) 한국관련정보 공개(KISON)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한 기록물 중 5·18 관련 기록물임 → 1979년 1월~1980년 12월 31일 미 대사관 국무부 전통문 → 지미카터 도서관 소장 80년 당시 백악관 상 황실, 국가안보위원회, 백악관정책조정회의 등의 기록물 → 미 국방부 합참본부 메시지센터 소장 기록물	미 국방부 기록물은 대부분 삭제되어서 내용 파악이 거의 힘든 상태	광주 시에 공개한 기 록물들과 동일하게 많은 내용 이 삭제 되어있음
팀서록의 체로키파 일	미국 <커머스 오브 저널>기자인 팀 서록이 1996년에 공개 신청해서 확보한 기록물들임 → 주한 미 대사관과 미국무부 사이 전통문 → 백악관 비망록 등 총8종의 문서 파일	국립중앙도서관이 확보한 문서와 동일함. 부분적으로 광주시에 공개한 기록물 보다 덜 삭제된 전통문이 있음	

## 나. '5·18왜곡의 기원과 진실'발간

재단은 2012년 2월 『5·18 왜곡의 기원과 진실』(이하 『기원과 진실』)을 발간했다. 이 책은 신군부 문헌자료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의 5·18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학살만행과 시민의 저항을 은폐, 날조한 당시 신군부의 음모로부터 기원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승용, 한선, 유경남 등 젊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나온 『기원과 진실』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에 왜곡과 폄훼시도와 관련한 쟁점들을 정리한 연구보고서로 1장에서는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왜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2장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왜곡의 기원이 되었던 당시 신군부와 보안사의 5·18민주화운동 왜곡 실태, 3장에서는 1980년 당시 언론의 왜곡실태를, 4장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유언비어와 그 실제에 대한 내용 분석, 마지막 5장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의 다양한 왜곡, 폄훼 내용을 정리하고 대응방안 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학술 연구사업

#### (1) 초창기 학술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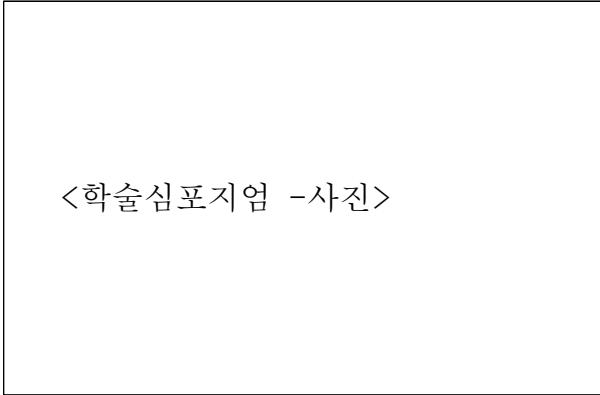
5·18에 대한 학술연구는 1990년부터 본격 시작되었는데, 1980년대 후반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였던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500여명의 구술을 모은 「5·18광주민중항쟁사료전집」 등 구체적인 자료가 나온 이후부터였다. 이후 재단의 5·18민주화운동의 전문적인 학술연구는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5·18에 관한 학계의 전문적인 연구가 미흡하고 재단 자체의 역량 또한 이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시기 학술연구는 전문학술연구단체의 토론회를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재단은 1997년 한국정치학회 주관의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88> 1997년 한국정치학회 5·18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주제

발표주제	발표자	직책
5·18, 왜, 어떻게 일어났으며 무엇을 남겼는가	박광주	부산대 교수
12·12, 5·18사건에 대한 사법부판결의 역사적의의	박연철	변호사
1980년 5월 광주의 저항운동: 미국의 관점	마크 피터슨	브링검영대 교수
광주를 통한 한국 사람주의에의 유험통로와 미국의 위치	이삼성	가톨릭대 교수
광주민중항쟁의 영향과 그 변화	최장집	고려대 교수
비교적 시각에서 본 광주 5·18	키미야 타다시	동경대 교수
인권과 민주화의 공고화	헨리 티츠	텍사스 오스틴대 교수
폭력과 언어의 정치	최정운	서울대 교수

1998년 5월 14일 한국사회학회 주최의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 발표에서 요한 갈통 교수(Johan Galtung 노르웨이대)는 ‘인권의 세 가지 개념들: 제3세계, 인권, 그리고 1989년 이후와 세 가지 관계와 결과’를 정리 발표하였다. 알랭 투랭 교수(Alain Touraine 프랑스 사회과학원)는 다섯 가지 주요 경향들 즉 새로운 사회적·정치적 세력의 형성을 발표하였다. 한상진 교수(서울대)는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본 국민주권과 승인투쟁의 개념을 주창하였다.



<그림 30> 학술심포지엄

<표 89> 1998년 한국사회학회 5·18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주제

발표주제	발표자	직책
인권 보편적인가 서구적인가	J.Galtung	노르웨이대 교수
세계화와 시민운동	A. Touraine	프랑스사회과학원교수
광주민중화운동에서 본 국민주권과 승인투쟁	한상진	서울대 교수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김성국	부산대 교수
권력투쟁과 해방쟁취의 역사적 사건	배동인	강원대 교수
5·18에 관한 의미구성의 변화과정과 지역사회의 변화	김두식	대구대 교수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 5·18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	최정운	서울대 교수

1999년 학술단체협의회 주관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지난 두 번의 개별 학회가 주관하는 데서 오는 주제의 협소함 등을 극복하고자 진보단체들의 모임체인 학술단체협의회와 공동 추진하였다.

<표 90> 1999년 학술단체협의회 5·18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 주제

대주제	발표주제	발표자	직책
총론	5·18, 민족사적 인식을 넘어 세계사의 지평으로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5·18의 교훈-민주적인 발전 촉진하기	마티하트 외	미국클라크대교수
역사속의 5·18민중항쟁	5·18민중항쟁의 현재적 과제	나간채	전남대 교수
	한국의 민주변혁운동과 5·18민중항쟁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외곽지역의 항쟁으로 본 5·18민중항쟁	오유석	한국산업사회학회
	한국현대사와 5·18민중항쟁의 자화상	김무용	역사학연구소

	5·18민중항쟁과 부마항쟁	박철규	부산경남역사연구소
5·18민중항쟁과 우리의 오늘	5·18과 아시아개발독재: 사회도전의 정치경제	박은홍	한국사회과학연구소
	5·18담론의 변화와 정치변동	전재호	한국정치연구회
	한반도속의 미국:5·18에서 금창리 핵위기까지	강정구	동국대 교수
	재미한인사회의 정치구조 변화와 5·18	장태환	리버사이드대 교수
5·18민중항쟁과 한국의 사회문화	인권과 법의 시각에서 본 5·18민중항쟁	박흥규	영남대 교수
	5·18언론보도의 행태:1980년에서 1997년까지	송정민	전남대 교수
	5·18에 대한 역사서술의 변천	이용기	한국역사연구회
	5·18과 김남주	나카무라	일본입명관대 교수

2000년 4월 미국 LA 소재 UCLA, USC(남가주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20주기 기념국제학술심포지엄이 열려,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 학자들이 참석하였다.

<표 91>2000년 미국 UCLA, UAC 5·18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주제

대주제	발표주제	발표자
제1부: 광주의 의미변화	광주민주화운동: 발전과정과 역사적 의미성	정근식
	미국과 광주: 20년 후	탐샤록
제2부: 경쟁과 기억	5·18의 음과 양: 희생자와 영웅의 광주시민들	돈 베이커
	공적기억과 개인의 역사: 20년 후에 가진 1980년 광주의 기억	린다 루이스
	광주와 희생자들: 진압군과 희생자들의 시각에서 본 시간의 연속성에 대한 검증	마크 피터슨
제3부: 미디어	사건만들기:광주항쟁과 천안문사건에 대한 미국언론보도의 비교 분석	김신동
	주요 소련신문에 반영된 광주항쟁	쿠르바노프
	중국과 대만의 언론이 본 광주항쟁	루시 창
제4부: 확산과 영향	동아시아 학생운동에서 언론과 대중운동: 광주항쟁에서 1999년 중국의 반나토 시위까지	와서트롬
	비교 관점에서 본 민주화과정의 광주항쟁	조정관
제5부: 공식적 이야기	장소의 정치: 전라도의 민주이미지를 담보하고 있는 광주항쟁	셀리 예
	9년 후에 왜 있었는가 : 1989년 미국정부의 광주항쟁에 대한 발표	라인 터크
제6부: 문학과 문화	포박된 시간과 부활한 자신감: 광주항쟁에 대한 감사의 표현	최경희
	광주의 해설과 기억: 광주여성들의 글쓰기	최총무
제7부: 영향	5·18과 재미한인들의 운동	심인보
	모래시계, 재미한인, 역사지식	송민

2000년 이후에도 재단의 연구인력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재단 자체만의 학술연구성과물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2000년대 학술토론회는 전남대 5·18연구소가 그간의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주도하고 재단이 후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표 92> 2001년~2009년 학술대회 발표 주제

연도	내용	기타
2001.5.15.~17.	동아시아의 식민주의, 권위주의.민주주의 및 인권	
2002.5.15.~17.	민주화운동과 여성	
2003.5.15.~17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재현: 4.3과 5·18	
2004. 5.6~5.7	5·18회고와 전망	
2005.5.19.~21	21세기민주주의와 한국 정치	
2006.5.23.~24.	민주주의, 평화, 통일과 시민사회	
2007.5.17.~19	5·18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2008.5.22	선진화 시대'의 사회운동	
28주년 '5·18과	5·18정신을 다시 생각한다	
2009.5.17	5·18 :기억과 현대성	

학술대회와는 별개로 2005년부터 본격화된 학술연구지원사업은 매년 다수의 논문이 배출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5·18을 연구하는 젊은 연구자들이 많이 나오고 학계에서의 관심도 고조되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5·18 30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5·18 연구성과를 결산하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검토해보는 학술대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재단 내에 모아졌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 30주년 학술행사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30주년을 계기로 학술토론회가 새롭게 기획되었다. 5·18 30주년을 맞는 2010년 5월 전남대, 조선대일원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는 '5·18 30년, 새로운 민주주의 모색'이란 주제로 좌담회 및 특별세션, 강연회 등 총 28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 미국, 남미(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독일, 중국, 동남아(대만, 타이, 필리핀, 네팔) 등지에서 120여명의 학자 및 활동가가 참여하였다. 30주년 학술대회는 서울에서도 개최되었다.

<표 93>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

대주제	발표주제	발표자	직책
아시아민주주의와 사회운동 I	pangs of Democratization and stability in the Post-Movement (2006)	Lok Raj Baral	Nepal
	Tha conflict of Right and Variety of	Tangjuan	China

	Governance in China's Urban Community During the Period of social Transgormation		
	Politicizing Grassroots Protests: Possibilities and Limits of Grassroots Democracy in Urban China	Ma Weihong	China
한국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법의 지배	오승용	전남대
	공화주의와 법치주의	곽준혁	고려대
	신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빈곤 - 새로운 공화주의의 미래로서 사회적민주주의	임운택	계명대
	한국사회 진보의 주체 - 노동자계급, 민중, 시민과 다중	최현	제주대
인권도시 광주	광주주의 인권도시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기곤	전남대
	인권도시 개념 및 조건, 해외인권도시 주요사례	은우근	광주대
	광주, 민주·인권도시이어야 한다	최완욱	인권운동센터
	장애인의 눈으로 본 광주의 오늘과 내일	김용목	장애인철폐연대
	이주여성의 눈으로 본 광주의 오늘과 내일	김숙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조례	허창영	전남대
5·18에 대한 철학적 성찰	광주를 기억하는 철학적 가이드라인 - 용기와 기억에 대하여	최종덕	한철연회장
	한국사회와 인권	오동석	아주대
	5·18과 인권의 정치	박영균	건국대
	인권과 동양학의 만남	구태환	상지대
한국사회와 담론 I	5·18왜곡 담론분석: 보수웹사이트를 중심으로	박경동	전남대
	기독교순교담론의 서사구조와 재현: 영광군 염산면 두 교회사례를 중심으로	임정섭	전남대
	1946년 10월과 파업과 집합폭력	이은진	경남대
5·18 30년의 역사와 실천 I	진실과 왜곡	유경남	전남대
	피해보상의 의미와 과제	이영재	한양대
	희생을 기념하기	이기찬	영국랭카스터대학
5·18에 대한 철학적 성찰	연대사상사	서유석	호원대
	소란스러운 연대	이현재	서울시립대
	근대적 주권을 넘어서는 연대	이순웅	숭실대
5·18과 대안사	5·18공동체의 재검토: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김상봉	전남대

회, 대안운동	의미, 한계,가능성		
---------	------------	--	--

<표 94> 30주년 기념 서울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

발표주제		발표자	직책
1980년과 '정의'의 문제		조광	고려대교수
1980년 신군부의 정치사회학 -정치군벌 하나회의 정권찬탈 내란과정		김재홍	경기대교수
10·26에서 5·24까지		강신욱	변호사
1980년의 언론과 언론인 -광주항쟁과 기자들의 투쟁		고승우	미디어오늘 논설실장
정치지도자들의 정세인식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1980년 서울의 봄-총학생회의 투쟁을 중심으로		신계륜	전 국회의원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		송석윤	서울대 교수
주제토론	내가 경험한 1980년 서울	사회;정근식	서울대 교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김명인	인하대교수
		조성우	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 상임집행위원장

<표 95> 31주년 기념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

발표주제		발표자	직책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재조명		박만규	전남대교수
5·18항쟁과 김대중: 정치사회학적 고찰		이광일	성공회대 연구교수
5·18의 제도화과정과 김대중		김홍국	경기대 교수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생산적 복지론		남찬섭	동아대학교교수
한국사회 복지논쟁의 쟁점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책위원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		나영희	前국가인권위 교육국장,(전 발연초빙연구원)
인권도시 광주의 과제와 전망		김기곤	광주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중동 사태와 인권문제		정상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김대중		장세호	한국외국어대 연구교수
5·18 광주 민중항쟁과 여성의 역할		이윤정	前 광주시의회 의원

<표 96> 32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주제		발표자	직책
------	--	-----	----



Democratization in Thailand in the light of the progress of democracy in Korea	Chaiyan Rajchagool	태국, 치앙마이대학 역사학과
대중 봉기의 패러독스: 1980년 광주항쟁과 1989년 톨안먼 항쟁	김정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The Gwangju Uprising and the Occupy Movement	George Katsiaficas	미국, 웨스트워싱턴대학교 인문사회 과학부
5·18광주항쟁과 천주교	윤선자	전남대 사학과
5·18과 1980년대 개신교 민주화운동	한규무	광주대 관광경영학과
5·18민중항쟁과 불교	정의행	광주불교교육원
부마항쟁과 5·18의 참여주체 비교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5·18 이후의 사회운동과 소수자: 이주노동자운동을 중심으로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소수자 시각에서 바라본 민주화운동	박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월과 애도의 정치: 죽은 자와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	이영진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5·18과 최후항쟁-그들은 왜 참여했는가?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최후항쟁을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 '부끄러움'이라는 감응	정문영	햇살부르는바람소리 대표

<표 97> 33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주제	발표자	직책
5·18민주화운동 왜곡의 기원과 쟁점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5·18민주화운동 과거청산 '부인(denial)' 연구	김보경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홀로코스트 부인 - 자유로운 표현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 전쟁범죄까지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뉴라이트의 역사반란 -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2) 연구지원 사업

2005년부터 학술연구지원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국가보조금이 대폭 지원되면서부터 학술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재단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의 학술적 정립이 필요하고, 우수한 연구자의 창의적인 연구과제를 지원함으로써 5·18에 대한 폭넓은 지식생산의 기틀을 마련하며 5·18정신을 구체화시키고 전문연구자 및 신진연구자를 발굴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재단의 학술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연구위원회는 2005년 구성되어 이해 5월 첫 회의를 가졌다. 첫 학술연구위원회 위원은 김준(목포대), 노영기(조선대), 박구용(전남대), 이행봉(민주주의 사회연구소), 전명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병준(목포대)이었다. 학술연구위원회는 2006년까지 학술논문상, 학술연구과제 그리고 학술총서 발간상황 등을 논의하고 해제집과 학술총

서 관련 감수 및 재수록문제 등을 논의했다.

2007년 들어 5·18연구를 확장시킬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5·18학술자료 발간 및 관련 연구지원을 통해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비판담론을 추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위원회가 학술연구기획위원회로 개편되었다. 15인의 기획위원회에는 김상봉(전남대 철학과), 김형중(조선대 국어국문과), 박해광(전남대 사회학과), 안진(전남대 법학과), 이광일(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이재승(전남대 법학과), 이정덕(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이중호(전북대 사범대학), 전효관(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정경운(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정호기(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최영태(전남대 사학과), 박구용(전남대 철학과), 조진태(재단사무처장)가 위촉되었고, 이듬해 기광서(조선대 정치외교학과), 박선희(조선대 신문방송학과), 임경규(조선대 영어영문학과), 장일구(전남대 국어국문학과)등 4명이 새로 참여하였다.

학술연구사업관련 위원회는 5·18 30주기를 앞둔 2009년 ▽학술연구자문위원회(재단 학술연구사업 기획·자문, 각종 심사 및 기획팀 구성) ▽연구소 준비 TF팀(재단 부설연구소 설립 준비) ▽30주년학술행사 준비위원회 ▽학술저널 편집위원회로 각각 세분화되었다.

연구지원사업은 5·18관련 논문, 석박사 과정생 연구과정, 소규모 연구회 및 공부모임, 학술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하여 5·18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연구자와 신진연구자들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최근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5·18의 정신적 가치를 학문적 체계화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연구성과를 확장·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문연구진발굴과 신진연구자들의 학문연구 의욕을 고취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래는 연구지원현황이다.

<표 98> 연구지원현황

연도	구분	연구과제	연구자
2005	연구기획 : 문화담론 속의 5·18	518문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은우근(광주대학교양학부)
		문화담론과 5월	정명중(전남대국문과)
		광주문화중심도시와 518	정미라(전남대철학과)
	학술논문 공모	계급적 관점에서 본 한국 민주화 과정의 의미와 교훈	김민정(성공회대)
		오월미술과 광주전남미술인 공동체	배종민(미술교사)
		지구화시대 한국의 진보운동과 518민중항쟁의 현재적 재구성	이광일(성공회대정치)
		잊혀진 기념일과 인권의 이중구조	이정은(서울대박사)

			과정)
		한국의 과거사 유산과 진상규명작업의 역사적 의미	정병준(목포대사학과)
2006	연구 지원 공모 : 지정 과제 연구	민족과 민주의 민중적 역동성 복원을 통한 자치사회	박영자(숙명여대)
		표상(表象)과 권력	임종명(전남대사학과)
	연구 지원 공모	518민중항쟁의 기억의 서사화와 치유의 윤리학	김정숙(청주대)
		518민중항쟁의 음악적 형상화 -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 분석	김창욱(부산음악학연구소)
		518영화에 나타난 광주정신의 형상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신광철(한신대)
2007	연구 지원 공모 : 지정 과제 연구	518민중항쟁과 헌법개정	민병로(전남대법학과)
		광주시민미술학교의 개설과 518항쟁의 대항기억형성	배종민(미술교사)
	연구 지원 공모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의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환경권	김민정(성공회대)
		민족경제론의 민족, 대중 그리고 민주주의의 형성과정 에 관한 연구	김원(성공회대노동사)
		제2공화국 민주주의와 혁신세력	오승용(민주화운동보상심의의원)
2007	연구 지원 공모	학생운동 연구방법론과 연구과제 확장을 위한 제언	이장언(한신대역사학)
2007	연구지원공 모	5월 항쟁의 대중적 참여와 그 계기 및 의식성	임종명(전남대사학과)
		518민중항쟁 관련 노래수집 및 악보화와 해제	정유하(전남대)
		518민중항쟁과 의료 공간 그리고 의료인 대응	정호기 외 2(성공회대)
2008	연구 지원 공모 : 지정과제연 구	신생 민주주의 과거청산의 정치적 동학 : 518사건과 228사건의 비교	지은주(고려대) 동 사제(대만대)
		518광주항쟁에서 시민군의 주체성 연구	김정환(서강대정치외교)
		문학의 정치성 연구 - <오월시 동인>을 중심으로	정동진(전남대국문과)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환점으로서 518민중항쟁에 대한 고찰	김원열(한양사이버대)
		대한민국의 난민지위인정 관련 법리적 쟁점에 관한 연구	황필규
2009	지정 과제 연구	놀라운 붕괴, 거룩한 과정 - 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의 연구비교연구	한홍구(성공회대학교양학부)
		518민중항쟁이 국가보훈정책에 미친 영향	정용화

	연구 지원 공모	남북관계사 회고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길	김연철(한겨레 평화연구소장)
		518항쟁의 형상화와 대학미술패	배종민(동신대학교)
		5월 정신의 제도화 - 해방공동체와 지방자치의 재구성	손우정(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국립518민주묘지에서의 오월의 기억	이기찬(영국랭커스터대학)
		518민주화운동과 가해자들 : '악의 평범성' 문제	최치원(고려대평화연구소)
소규모 연구회 지원	정보권력국가와 시장민주주의	허정수 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공동체의 공간정치연구	박경섭 외 (전남대 인류학과)	
2010	연구 지원 공모	각종 일지로 본 518항쟁	노영기(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민중항쟁기억의 세대계승과 청소년 축제 : 광주518청소년문화제(RedFesta)를 대상으로	현혜경 외 (전남대 사회학과)
	5·18 전 문 연구자 육성	저항집단 내 하위주체의 사회적 트라우마티즘형성에 관한 연구 - 518시민군기동타격대의 생애사 사례를 중심으로	강은숙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5·18 전 문 연구자 육성	과거청산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사회 부인(不認 denial) 담론연구 :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중심으로	김보경 (성공회대 NGO대학원)
		518민중항쟁기, 광주지역 행정기관의 활동과 대응	전동근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학술대회 지원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지역적 전개	부산 민주주의사회연구소
		518과 미완의 민주화 - 민주주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퇴행	학술단체협의회
	학술대회 지원	5·18과 80년대 학생운동	호남정치학회 학생 독립운동연구단
	소규모 연구회 지원	비판적인 생명과 폭력의 공간정치학을 위하여	폭력과 생명정치연구회
		저항의 역사 다시 읽기 - 한국 근현대시기 광주전남지역의 민중항쟁 사를 중심으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학벌사회 학벌문제! 이제 주체인 20대(대학생)들이 소통한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5.18민주유공자의 법적 지위 향상과 제도적 명예회복 방안 연구	518민주유공자의 법적 지위 향상과 제도적 명예회복 방안 연구모임	

		합수 윤한봉선생의 정신과 사상 그리고 계승의 방법론	합수 윤한봉기념사업회
		상상, 행동,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싱크탱크를 꿈꾼다	View + You
		5.18 민주항쟁과 동시기 동아시아 민주화문제	통통통(通-統-筒 : 통(通)하여 하나가 되는 (統) 그릇(筒))
		지구화, 국민국가, 시민권	지구화, 국민국가, 시민권 연구회
2011	연구 지원 공모 : 자유 과제 연구	1980년대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과 518	한규무
	자유 과제 연구 지원	한국 국립묘지의 정치학 - 국립 518 민주묘지의 탄생을 중심으로	하상복
		국립518민주묘지 비문 읽기 : 비극적 역사 인식과 수용의 문제들	김강
		1970년대 광주일고 이념서클에 대한 연구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 하버마스의 민주법치국가 원리를 중심으로	황광우
			이영재
	구술 자료 수집 지원	최후항쟁의 의미와 증언의 소명 : 1980년 5월 26일-27일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오승용
	학술 대회 지원	2012, 한국사회 변혁을 위한 과제와 대안 안과 밖 : 공동의 삶을 향한 열린 연대의 철학적 모색 한국철학 사상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1-82년 반국가단체 공안조작사건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소규모 연구회 지원	시민성과 통치성, 그리고 민주주의 가타리의 미시정치와 5.18의 재조명 왜 여전히 518 민주항쟁이 중요한가?	공공사회연구회 미시정치모임
		사회적 연대와 생활정치 연구	민주주의 세미나 한국현대사회연구소 생활정치연구팀
		신자유주의시대의 대안적 민주주의 연구 :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사 중심으로	호우지시절(好雨知時節)
		저항적 집단행동의 미시적 기초 : 한국의 시민항쟁을 중심으로	知音정치학회
		비혼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묻다	혼비혼미
21세기 안토니오 그람시의 현대적 적합성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분석과 변형전략		그람시 연구자 네트워크 & 급진 민주주의 연구모임 데모스	
		김면(연세대)	
2012	논문 연구 지원	5·18과 유럽지역 한인 민주화운동사 지역주의를 넘어서 : 5·18항쟁이 1980년대 대구 학생운동에 미친 영향	김상숙(고려대)

		5·18 광주항쟁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 사건의 역사적 기원 : 전쟁, 학살, 기억	김정환(고려대)
		여순사건 트라우마 치유의 모색	이영문 (여수지역 사회연구소)
		1980년대 초의 공안사건과 관련자들의 삶 - '광주 햇볕회'를 중심으로	정호기(광운대)
	소규모 연구회· 공부모임 지원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지역 현황과 실태 분석	김병국(대전 5·18 구속 부상자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문화	오승룡(문화경영플랫폼B)
		푸코의 통치성과 저항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효진(전남대 사회학과)
		公理共論	양라운(전남대 사회학과)
		5·18정신의 문화적 재현과 실천을 위한 연구 : 문화이론을 중심으로	강내영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운동의 의미	박인필(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
		공간을 통한 광주지역여성사 연구	이선(전남대 철학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	설상숙(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학술대회 개최 지원	5·18연구의 확장과 재구성	전남대 5·18연구소
		유신체제와 5·18광주민중항쟁 : 그 역사성과 현재성	학술단체협의회
		부마민주항쟁 기념 학술대회 : 5공화국 초기 전국적 공안조작사건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	부산 민주주의사회연구소
5·18 전문 연구자 육성	1980년대 민주화운동 주체의 5·18인식변화 연구	박병인(목포대)	
2013	논문연구지원	1980년대 급진화의 한계와 급진주의의 재구성	이창언(연세대)
		과거청산과 사법부 개혁의 과제	한홍구(성공회대)
		살아남은 자의 수치심과 386세대 여성문학 : 광주항쟁이후 여성 글쓰기의 변모양상과 그 의미	김은하(경희대)
	해외선진지 교육 자료 조사·연구 지원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의 민주시민교육관련 자료조사·연구	최대희(대구교대)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의 민주시민교육관련 자료	최대희(대구교대)
	5·18 전문 연구자육성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 : 노동자들의 치유-노동쟁의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이선옥(성공회대)
		해방직후 전북지역 좌·우익세력의 형성과 대립	송정현(전주대)
	소규모연구회·공부모임지	5·18진상규명 투쟁관련 제주, 강원, 부산지역 주요사건 및 사적지 조사 연구	노재열(부산울산경남 5·18민주유공자회)

원	5·18정신의 예술적 재현과 공공예술에 대한 고찰-예술사회학을 중심으로	오창민(전남대)
	다문화주의와 국가권력	난딩(전남대)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김혜린(생활기회공간 통)
	차유의 역사쓰기	양라운(전남대)
	국제기업 인권현황과 프로그램사례 연구	송지영(기업과 인권 공부모임)
	시민과 민주인권을 잇는 프로그램사례 연구	송유미(전남대)
학술대회 개최지원	5·18, 음악, 그리고 민주주의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박근혜정부의 '법질서', '안전사회'담론과 민주주의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3) 발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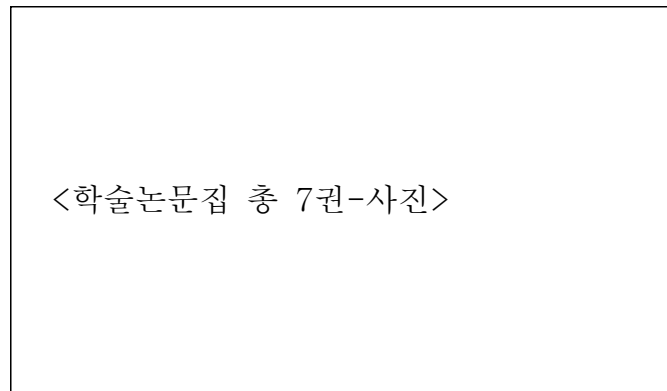
#### ① 학술논문집

1988년 현대사사료연구소의 설립과 활동을 시작으로 5·18에 대한 본격적인 수집과 연구가 이뤄진 이후 학술연구는 문학은 물론 정치학·사회학·역사학적 접근에서부터 사회심리학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 학술연구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다가오면서 5·18에 관한 그간의 학술연구업적들을 모아서 정리해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재단은 이 작업이 학자들 및 학술공동체가 5·18연구의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18 및 이에 관련되는 현대 한국의 역사·정치·사회 및 기타 영역연구자들이 이 총서를 살펴봄으로써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연구를 기획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 일반 시민 및 대학생, 소장 연구자들로 하여금 5·18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 결과물로 2006년도에 『5·18민중항쟁과 문학·예술』, 『5·18민중항쟁과 법학』이 발간되었고, 2007년도에는 『5·18민중항쟁과 정치·사회·역사』(1-5) 등 5권의 책이 발간되었다. 모두 7권의 책이 발간됨으로써 1989년 이후 진행되어온 5·18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해볼 수 있었다.

총서의 1권에는 5·18의 의의를 다룬 담론적 성격의 논문들을 모았다. 역사학, 사회

학, 정치학 등 여러 학자들이 5·18기념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발표한 다양한 시각의 글들이 정리되었다. 제2권은 5·18의 원인과 배경에 관한 분석적 논문들이, 제3권에는 5·18의 전개과정을 기술하고 분석한 논문들이 실렸다.

제4권에는 5·18의 진실을 알리고 그 정신을 살리고자 투쟁한 ‘5월운동’을 주제로 한 글들을 모았고 제5권에는 ‘5·18과 민주화’와 ‘5·18의 기억과 과거청산’이라는 두 주제의 글들이 실렸다. 재단에서 5·18과 관련한 사회과학 및 역사학의 모든 국내 문헌가운데 약 200여 편을 수집하였고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최영태 소장(역사학)과 조정관(정치학)교수가 수집된 문헌전체를 분야별로 일독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총서에 실을 논문 목록을 선별하였다.



<그림 31> 학술논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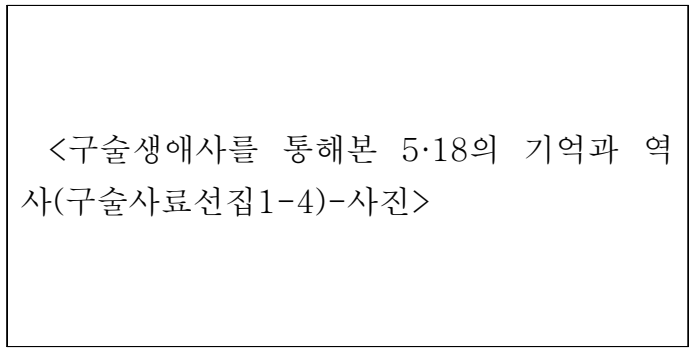
## ② 구술생애사

5·18에 대한 연구는 전 분야를 망라하여 연구되어 왔으며 기초적인 자료수집의 일환인 증언을 채록하고 수집하는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5·18의 경험을 자신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속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생애사(life story)연구는 부족했다. 구술생애사 연구는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다의적이고 다성적인 목소리로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보다 열린 시각으로 역사적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재단은 한국현대사속에서 개인의 기억을 통해 개인의 삶속에 투영된 항쟁의 모양새를 살펴보고, 개인의 삶과 사회·역사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이 항쟁에 부여하는 의미를 들여다보고자 2005년 처음으로 『5·18항쟁사 정리를 위한 인물사 연구』 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1980년 5·18을기점으로 전·후 운동사에 관계했던 인물들 혹은 각 지역에서 5월운동에 참여했던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구술로 채록·정리했다.

5·18관련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로 출간한 5·18구술생애사 구



술기록을 살펴보면, 『5·18의 기억과 역사』 1권 교육가편에는 김동원, 노희관, 송기숙, 오병문, 윤광장, 이방기, 이홍길, 정해숙 님의 구술이, 제2권 사회활동가편에는 강신석, 김재연, 안성례, 윤한봉, 이기홍, 정동년 님의 구술이 실려 있다. 제3권 농민운동가편에는 노금노, 배종렬, 윤기현, 조계선, 최병상, 최성호 님이, 제4권, 공직자편에는 정시채, 김홍식, 박인수, 조삼상, 서인섭, 조성갑, 김경수, 손천만, 최임열, 김정수 님이 실려있고, 2008년 채록한 민청학련, 송백회 사건 및 사회 활동가 편, 2011년 진행한 5월 27일 도청 최후항쟁 관련 구술 등은 출간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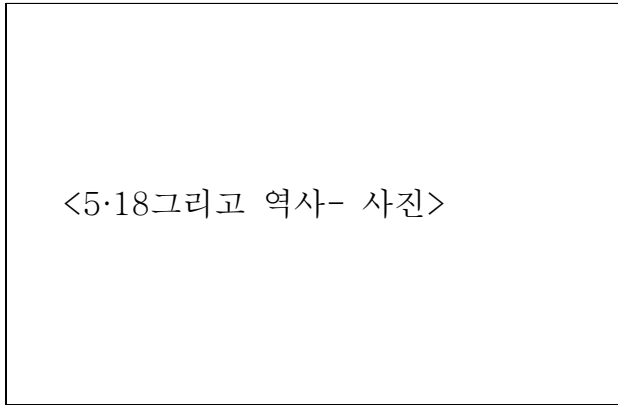


<그림 32> 구술생애사를 통해본 5·18의 기억과 역사(구술사료선집1-4)

### ③ 대학교육 교재

2005년부터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등 광주·전남지역의 몇몇 대학들이 대학의 정규과목으로 5·18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해오고 있었다. 전남대 5·18연구소는 2005년 1학기부터 <5·18항쟁과 민주·인권>이란 교과목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였다. 대학이 5·18에 관한 내용을 소재로 독립된 과목을 개설한 것은 전남대학교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대학의 정규 커리큘럼에 5·18관련 과목이 개설된 것은 5·18의 대중화와 학문적 연구를 촉진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와 함께 적절한 강의교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그동안 5·18에 관한 많은 저서와 논문들이 출판되었지만 대학 강의와 주 교재로 채택할 적절한 교재는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재개발이 시급한 형편이었다. 특히 당시까지 5·18민주화운동관련 연구를 주도한 것은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자들로, 역사학, 문학, 철학 등 인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 성과는 의외로 적었다. 사상사적(혹은 철학적) 관점에서 5·18에 접근한 연구는 거의 전무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 재단과 5·18연구소는 전문연구자는 물론 다음 세대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대학의 교양과목교재로 사용할 만한 교재 개발에 들어갔다. 그 결과 2007년 『5·18 그리고 역사: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들 모두의 나라로』를 발간하였다.

『5·18 그리고 역사』는 총 3부 8개의 장으로 구성되었고 제1부는 ‘5·18항쟁의 배경’, 제2부는 ‘5월운동의 문화예술’, 제3부는 ‘5월 항쟁의 정신’을 다루었다. 이 책은 5·18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이 운동이 한국 정치와 사회·문화·예술 운동에 끼친 영향을 다루고 있다 5·18 강의를 맡거나 주도적으로 개설한 최영태·조정관 전남대 교수와 나간채 전남대 교수, 신일섭 호남대 교수, 정재호, 배종민, 정명중 박사가 집필에 참여했다. 김상봉·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철학적 관점에서 5·18의 정신사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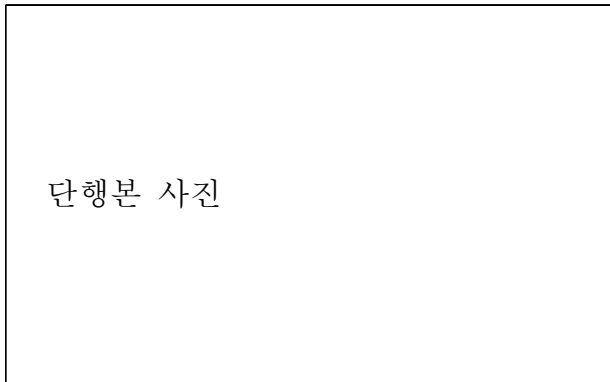


<그림 33> 대학교육 교재 『5·18그리고 역사』

④ 단행본

재단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를 수집했으며, 그 결과물을 분야별·시기별로 정리하였다.

2005년 발간되었으며 1권과 2권은 주요 연구성과를 요약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3권에는 논문목록을 정리하였다.



<그림 34> 5·18그리고 연구단행본

## ⑤ 학술저널

5·18정신의 확산을 위해 아시아 민중의 인권 및 민주화 운동과 연대하고 이론적으로 소통할 필요에 따라 2010년부터 반년마다 정기적으로 『아시아저널』(Asia Journal)을 발간하고 있다. 아시아저널은 아시아의 활동가들과 학자, 법률가, 정치인, 언론인, 예술가 등이 견해를 표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잡지이기도 하다. 재단은 이를 통해 인권과 민주화를 염원하는 아시아인들 사이의 상호 이해와 관심, 그리고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더욱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재단은 아시아저널의 주제가 아시아내의 민주주의·인권운동에 국한된데 대해 ‘재단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다른 단체가 포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운동 주제 전반을 다루는 것과 차별화된 고유의 영역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판단했다(재단 학술연구 기획위원회, 2008년 2월 28일 1차 회의). 아시아저널은 국내외 연구자, 활동가, 민주주의 관련 기관 및 연구소, 대학 등에 배포되고 있다.

<표 99> 아시아 저널(Asia Journal)

권 호	기획특집	발행일
창간준비 1호	아시아의 국가폭력	2009.2.28.
창간준비 2호	스리랑카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2010.2.25.
창간호	시민혁명 반세기	2010.6.25.
제2호	중국과 아시아	2010.12.31.
제3호	인도와 아시아	2011.6.30.
영문단행본	state violence and Human Right in Asia (창간준비1호~제3호까지의 해외우수기고 모음)	2011.11.15.
제4호	인도네시아	2011.12.30.
제5호	후쿠시마 이후 일본	2012.7.30.
제6호	군수산업의 과거와 현재	2013.1.31.
제7호	한국전쟁과 동아시아	2013.9.31.

## ⑥ 번역집

A Complete Collection of the Korea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5·18특별법, 민주유공자 등 관련 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영역하여 정리한 법령집이다. (2007년 발간, 한국법제연구원 번역)

History of 5·18 Democratic Uprising

5·18민중항쟁 20주년을 기념하여 광주광역시사료편찬위원회가 2001년 발간한 ‘5·18민중항쟁사’(총 33편)를 영역, 발간하였다. (2008년 발간, 프로랜스 역)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Law

2009년 5·18민중항쟁 30주년을 기념하여 관련 법학논문 6편을 선정 후 영역, 발간하였다. (2010년 배포, 이대훈, 문기석, 장철준 번역)

State Violence and Human Rights in Asia

『아시아저널』에 기고된 해외 필자 글 중 우수한 글들을 모은 영문단행본이다.

<표 100> 전체 학술연구사업결과물(2005~2013)

연도	제목	구분	형식
2005	2005년 학술연구사업 결과물	연구 지원	보고서제본
2005 ~	5·18연구현황 및 목록집	발간사업	3권 한 묶음
	5·18의 기억과 역사 1·2(교육가, 사회활동가)	구술채록	2권 시리즈
2006	5·18민주유공자 후유증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연구 지원	보고서 제본
2005 ~ 2007	학술총서(법학, 문학·예술, 정치·사회·역사)	발간 사업	3종 시리즈 1,2,3(5)
2006	2006년 연구지원 선정 논문집	연구 지원	보고서 제본
	2006년 구술 생애사 채록 결과보고	구술 채록	보고서 제본
	천주교 광주정·평 채록	구술 전사	보고서 제본
2006 ~ 2007	5·18 그리고 역사(대학교재)	발간 사업	단행본 출판
2007	2007년 연구지원 선정 논문집	연구 지원	보고서 제본
	새로운 주체 새로운 운동(2007년 월레포럼집)	월레포럼 (연구기획)	보고서 제본
	2007년 구술 생애사 채록 결과보고	구술자료수집	보고서 제본
	영문 법령집	발간사업	단행본 발간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전사	구술자료수집	보고서 제본
2008	영문 항쟁사	발간 사업	2권 한 묶음
	‘5·18정신’을 다시 생각한다(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연구 지원	보고서 제본
	5·18피해자 심리학적 부검 및 자살피해 대책 연구	연구 지원	보고서 제본
	2008년 연구지원 선정 논문집	연구 지원	보고서 제본
	2008년 구술생애사 및 사건 구술 결과보고	구술자료수집	보고서 제본
	아시아저널 창간준비 1호	학술저널발간 (연구기획)	보고서 제본
	아시아저널 창간준비 2호	학술저널발간 (연구기획)	학술저널

2009	2009년 연구지원 선정 논문집	연구 지원	보고서 제본
	5·18의 기억과 역사3(농민운동가)	발간 사업	단행본 발간
	5·18민중항쟁 구술 목록집	발간 사업	보고서 제본
	공직자의 시선을 통해 본 5·18(2009년 구술자료수집 결과물)	구술자료수집	단행본 발간
2010	아시아저널 창간호	학술저널발간 (연구기획)	학술저널
	아시아저널 제2호	학술저널발간 (연구기획)	학술저널
	5·18항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단행본 발간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law	발간 사업	영문 단행본 발간
	5·18민중항쟁 구술사료 목록집	발간 사업	보고서 제본
2011	아시아저널 3호	학술저널발간	학술저널
	아시아저널 4호	학술저널발간	학술저널
	최후항쟁의 의미와 증언의 소명 : 1980년 5월 26일-27일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구술자료수집	보고서 제본
	2010-11년 연구지원 선정 논문집	연구지원	보고서 제본
	State Violence and Human Rights in Asia	학술저널발간	영문 단행본 발간
	아시아저널 5호,6호	학술저널발간	학술저널
2012	2012년 연구지원 선정 논문집	연구지원	보고서 제본
	5·18수사기록 목록집	발간 사업	보고서 제본
	아시아저널 7호	학술저널발간	학술저널
2013	2013년 연구지원 선정 논문집	연구지원	보고서 제본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기억과 역사 5 (천주교편)	발간 사업	단행본 발간

## V. 재단 참여/연관 사업

### 1.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 1) 개요

5·18희생자 및 관련자들의 제의활동에서 시작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이하 기념행사)는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 속에서 단순한 사건 재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배적 가치에 반대하며 대항하고자 하는 저항운동’으로 기능하였다. 기념행사는 사회운동의 일부로 시민들에게 군사정권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투쟁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대중에게 참여를 호소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1990년대 초까지 정부의 엄격한 감시와 규제 속에서 치러져 온 기념행사는 각종 기부, 모금 및 후원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5월 관련단체 및 시민사회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부터는 5·18민주화운동이 국가의 공식적 인정을 얻으면서 기념행사에 관의 참여와 지원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1993년에는 처음으로 민과 관이 단합해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치러졌지만,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 5월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지속되었다.

1994년 5·18기념재단이 설립된 이후부터는 기념재단을 중심으로, 광주광역시와 기존에 5월행사에 참여해 왔던 지역 내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함께 ‘기념행사위원회’를 조직하여 보다 체계적인 조직체를 갖추게 되었다. 기념재단은 이들 단체의 중심 주체로 자리하면서 다양한 성격의 시민사회단체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시기의 기념행사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하는 행사의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행사장을 ‘정치 집회화’ 하지 않고 평화로운 행사를 지향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국적 차원의 5·18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로운 행사의 실행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기념재단 출범이후, 재단을 중심으로 연행되던 기념행사는 행사위원회의 구성이나, 프로그램의 구성·추진 과정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이견으로 인해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상설 행사위원회기구’와 같은 기념행사 주관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5년 이래로 정부보조금으로 기념행사가 진행되면서, 기념재단은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날의 기념행사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 다양한 문화행사 및 문화매체의 도입을 통한

시민들의 민주축제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표 101> 주요시기별 기념행사 주제

년도	주년	주제
1998	18	인권과 평화, 화합과 미래로
1999	19	민족과 함께 다시서는 5·18 : 인권신장, 민족화합, 실업극복
2000	20	천년의 빛 5·18 : 평화·인권·통일의 세상으로
2001	21	5월로 한마음! 통일로 한겨레!
2002	22	반전·평화, 자주와 통일로!
2003	23	평화와 통일로 :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에 평화의 미소를
2004	24	평화와 연대 : 5월! 인류는 평화를 꿈꾼다
2005	25	진실, 평화 그리고 연대
2006	26	오월에서 통일로
2007	27	참여해요 5·18, 함께해요 6·10
2008	28	오월의 희망으로 세상을 보라!
2009	29	민중의 뜻대로! 다시 오월이다.
2010	30	들리는가! 오월의 함성, 보이는가! 민중의 햇불
2011	31	다시 세상의 빛으로! 함께 역사의 중심으로
2012	32	오월의 바람아, 다시 세상을 깨워라!
2013	33	오월광주, 다시 평화와 통일로!

## 2) 기념행사의 시기별 변화와 특징

### (1) 1981~ 1986 : 제의에서 추모투쟁으로

기념행사는 5·18민주화운동의 유가족들이 모여 희생자들의 제례를 지내기 위한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유족들은 80년 5월, 희생자들의 삼우제 뒤 망월 묘역에 모여 유족회를 결성하고, 다음해에 1주기 위령제를 갖기로 하였으나 전두환 정권의 강력한 탄압에 의해 제대로 된 제례조차 치를 수 없었다.<sup>11)</sup>

이후의 추모활동은 1983년에 이르기까지 유족과 대학생들의 소규모 시위나 투쟁으

로만 진행되었으며, 일부 종교단체의 위령제 및 추모 집회를 통해 소극적이거나 5·18의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으로 이어져 갔다. 광주지역 내에서만 산발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온 추모행사는 1984년 이후 지역 시민과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참배행사로 확대되었다. 특히 전국해직교수협회의 망월동 참배 및 교황의 광주 방문은 추모행사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며, 전국 각 대학의 운동권역에서도 5·18진상규명 및 희생자 추모비 건립 등을 외치는 시위와 농성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5·18관련 문제는 유가족과 광주지역의 차원에서, 전국적인 시민사회 차원으로 점차 확산되었으며, 5주기 기념행사부터는 기념행사를 주도하는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건립추진위원회(이하 5추위)’가 조직되어 체계적인 행사 준비를 시작하였다. 특히 1986년의 5·18추모제부터는 점차 기념행사의 형식을 갖추었다. 총2부로 구성된 추모행사는 각각 유족회와 5추위 주최로 진행되었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제에 더하여 ‘광주의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다.

<표 102> 1980년대 망월묘역에서 개최된 추모행사의 변화과정

연도	주최 및 참석자(당시 명칭)	내용 및 진행 형태
1981	유가족, 시민, 학생	- 당국의 방해와 회유로 추도식이 무산 - 2백여 명 참석 하에 유연창 목사와 정수만가 약식 추도식 추진 - 이후 전남도청 앞까지 가두행진 시도
1982	유가족, 시민, 학생	- 경찰의 진입 차단으로 유족 등 30여명만이 위령제를 지냄
1983	유가족, 시민, 학생	- 경찰에 의해 유가족과 부상자 및 일부 관련자들이 사전에 격리 - 350여명이 모여 위령제를 지냄
1984	유가족, 부상자, 시민, 학생	- 최대 규모의 추모제 개최(3천여 명 참가) - 이후 참가자들은 시내로 진출하여 가두시위
1985	5추위, 민주협소속 신민당국회의원, 재야인사, 시민, 학생	- 추모제를 개최하기 위한 공시적인 단체가 결성되어 5백여 명이 모여 행사 진행 - “위령탑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결의 - 이후 전남도청 앞까지 가두행진 시도하나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
1986	5추위, 유족회, 부상자회 및 5·18관련단체, 시민, 학생	- 경찰의 차단에도 불구하고, 1부는 유족회 주최로 희생자들에 대한 분향과 제사 - 2부는 5추위 주최로 추모제(천여 명 참가) - 당일 6만여 명이 망월묘역 참배. - 유족회 주최로 위령제 개최
1987	전남지역 21개 민주단체 공동주최, 시민, 학생	-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와 김대중 민주협 공동의장 등의 추도사와 성명, 김수환 추기경의 추모미사 - 13~17일에는 망월묘역에서 5·18관련 전시회 및 묘비 탁본 전시 - 행사 후 4·13호헌조치 반대 및 민주헌법쟁취 범도민운동본부 결성
1988	5월민중항쟁계승과 진상규명을 위	- 유족회 주최로 추모제 개최

11) 유족회는 정부의 방해와 내부갈등으로 인해 유족회 결성 1주년 만에 “선 보상 후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5·18광주의거 유족회’와 “선 진상규명과 후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로 나뉘기도 하였다.



	한 범민주 세력공동투쟁위원회, 시민, 학생	- 위원회에는 12개 5·18관련단체와 광주지역 재야인사들이 포함 - 전국대학에서 망월묘역 참배 - 각종 전시회가 이루어짐
1989	5월항쟁 계승 및 노태우퇴진공동투쟁본부 시민, 학생	- 투쟁본부에는 광주·전남 33개의 재야 및 시민운동, 학생단체들이 포함 - 당일 6만여 명이 망월묘역 참배

### (2) 1987~1993 : 투쟁에서 문화운동으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1980년대 후반 6월 항쟁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였다. 박종철 군의 사망사건을 매개로 민주화의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1987년의 기념행사는 단순히 5월 영령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아닌, 전면적인 ‘정치 투쟁의 장’으로 발전하였다. 기존의 시위와 투쟁의 양상이 더욱 공격적인 형태로 발전되었고 17일간의 대규모 추모집회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집회 및 투쟁적 성격의 기념행사에 문화행사가 가미되기 시작했다. 5월제, 전시, 시극, 마당극, 5·18관련 영상상영 등 기존의 시위와 집회로만 한정되었던 정치 투쟁의 행사에서 벗어나 문화 행사를 확대 편성하여 시민사회의 참여를 진작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문화행사는 단순한 예술적 재현으로 사건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 권력에 반대하며 대항하고자 하는 저항운동’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기념행사에 편성된 문화행사는 예술적 가치와 내용보다는, 사회운동의 일부로서 시민들에게 군사정권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투쟁에 함께 동참해 달라는 대중 참여 호소의 목적을 가지고 구성되었다.

### (3) 1994 ~ 2000 : 문화행사의 의례화

기념행사는 1990년대 초까지 정부의 엄격한 감시와 규제 속에서 치러졌고, 각종 기부 및 모금, 후원 등을 통한 기금 마련으로 5월 관련단체 및 시민사회의 주도하에 진행되어져 왔다. 1993년부터 5·18민주화운동이 국가의 공식적 인정을 얻으면서 기념행사로서 관의 참여와 지원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이에 처음으로 민과 관이 단합해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치러졌지만,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 5월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끝나지 않는 외침’이라는 주제로 총 22일간 진행된 제 13회 5·18기념행사는 ‘5·18광주민중항쟁’이라는 명칭을 ‘5·18민중항쟁’으로 변경하여 5·18민주화운동을 지역 차원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전 국민의 범위로 확장하여 진

정한 5월 문제의 해결을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기념행사 프로그램은 거리굿, ‘시민의 노래’, ‘겉개 그림전시’, ‘광주시민 5월 놀이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편성하여 시민 단합을 이룩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94년 기념행사는 5·18기념재단이 설립되면서 큰 전환을 맞이한다. 기념재단 설립 이후 광주광역시와 기존에 5월 행사에 참여해 왔던 지역 내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5·18행사위원회’를 조직하여 보다 체계적인 조직체를 갖추었다. 5·18기념재단은 이들 단체의 중심 주체로 자리하면서 다양한 성격의 시민사회단체들을 결합하게 하였다.

이 시기 기념행사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념행사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과거의 투쟁적인 ‘정치 집회’에서 평화로운 기념행사로의 전환을 도모했다. 이러한 시민참여 강조 및 평화로운 행사의 실행은 기념행사를 문화행사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었다.

<표 103> 기념행사위원회 주요 인적 구성원

주년	(상임)행사위원장	집행위원장	행사기획단장/위원장	사무처장
16	강신석(목사)	정구선(재단 상임이사)	정수만(유족 회장)	
17	명노근(재단 이사)	정동년(재단 이사)	정수만(유족회장)	홍광석(전교조 전남지부 전 지부장)
18	이기홍(재단 이사장)	정수만(재단 상임이사)	심사소위: 이효영 기획소위: 오재일(재단 이사)	
19	강신석(재단 이사)	정수만(재단 상임이사)	정용태(변호사)	이성길(재단 사무처장)
20	김동원(재단 이사장)	정수만(재단 상임이사)	김 성(재단 기획위원장)	이성길(재단 사무처장)
21	윤영규(재단 이사장)	정용화(재단 사무처장)	송선태(재단 기획위원)	오병윤(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자문위원)

\* 괄호는 당시 소속 및 직함.

특히 이 시기는 기념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여러 사회단체들이 행사위에 파견되어 5월 행사를 진행했던 시기이다. (상임)행사위원장에는 대부분 재단의 이사 혹은 이사장이 임명되었고, 집행위원장의 경우에도 재단의 상임이사나 이사가 임명되었다. 기획단 및 사무처장도 재단의 근무자 혹은 관련자와 크게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념재단은 설립 이후 5월 행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4) 2001 ~ 2013 : 기념행사의 축제화

기념재단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기념행사는 21주년 행사를 앞두고 행사위원회와 프로그램의 구성 및 추진 과정에서 시민 사회단체와의 이견이 생기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관련단체들은 합의를 통해, 지역 내 제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5월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결집한 행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또한 행사의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 80년

5월 항쟁 당시 주요한 투쟁의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를 기획·편성하여 전체적인 행사 구조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 시기 기념행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5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속에서 다양하게 기획·추진되었다. 특히 2005년부터 정부보조금에 의한 5월 행사가 진행되면서, 5·18기념재단은 지원단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3) 5·18기념재단 설립과 기념행사

#### (1) 기념재단 설립 이전 기념행사

5·18민주화운동은 국가로부터 ‘민주화 투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념 행사도 변하였다. 8주년 5월 행사는 ‘5월 민주항쟁 계승과 진상규명을 위한 범민주세력공동투쟁위원회(이하 5공투위)’의 주최로 치러졌으며, 5월 17일 광주 구동실내체육관에서는 최초의 전야제가 열렸다. 당시 전야제에 모인 군중과 거리의 군중이 합세하여 도청 앞 광장이 일시적으로 점유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5월 18일에는 처음으로 도청 앞 광장에서 기념행사를 치르기도 하였다. 이후 도청 앞 광장은 ‘민주광장’으로 이름 붙여지면서 전야제 및 추모제 등 다양한 5월 행사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하였다.

<표 104> 1988년 8주기 기념행사

일자	시간	행사내용	장소
5월 18일	10:00	추모제 - 주최:유족회	망월동
	14:00	추모행사 및 범시민궐기대회	전남도청 앞
	15:00	연합예배	한빛교회
	19:00	추모미사	남동성당
	19:30	추모법회	원각사
5월 19일	14:00	10만 학도 범도민 궐기대회	전남도청 앞
	18:00	5월 진상규명을 위한 범시민궐기대회	전남도청 앞
5월 20일	10:00	격전지 순례대행진	전남대-전남도청
	12:00	시민 학생 공동 궐기대회	전남도청 앞
	19:00	5월항쟁계승결의대회 및 민주기사의 날 선포식	무등경기장
5월 21일	15:00	광주민주영령 추모법회	문빈정사
	16:00	진상규명촉구결의대회	전남도청 앞
5월 22일	14:00	반미의 날 계몽 궐기대회	전남대학교
	20:00	해방광주 기념 횃불대회	중앙로
5월 27일	14:00	합동위령제	전남대학교
	17:00	5월투쟁경과보고대회 및 6월투쟁결의 선포대회	전남도청 앞

1989년에는 ‘광주정신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5월 문화제’가 광주시 내 곳곳에서 열렸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념행사의 ‘문화행사’에 일부 단체의 반발이 있어 문화 행사적 성격을 가진 단체와 추모·투쟁적 성격을 지닌 단체의 행사로 나누어지기도 했다.

<표 105> 1989년 9주기 5월문화제

일	행사내용	장소
5월 6일	노래공연	노래패 친구
5월 6~12일	그림 민족해방운동사	민중민족운동전국연합
5월 6~14일	시화전 및 사진전시, 비디오상영	광주민중문화운동협의회
5월 7일	청년문화대동제	광주전남청년운동단체연합
	노동극	노동자극단 일꾼마당
5월 8일	문학의 밤	청년문학회
5월 9~10일	마당극	극단 신명
5월 12~17일	5월 미술전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5월 11~12일	연극-금희의 5월	극단 토박이
5월 13일	시민 학생 백일장	광주교사협의회
5월 14일	5·18진혼음악제	광주국악관현악단
5월 16일	5월문화제 종합행사	5월문화제 추진위원회

1990년에는 투쟁적 성격의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5·18의 역사성을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시키자’는 합의를 통해 제2회 5월 문화제가 진행되었다. 특히 10주기 기념행사의 문화제에는 다양한 문화·예술·학술 행사들이 예년의 기념행사보다 더욱 확대되어 편성되었다.

<표 106> 1990년 10주기 5월문화제

일 자	행사내용	장소	주관단체
5월 14일	항쟁노래, 서사시 발표회	YMCA 무진관	광주문화운동협의회
5월 15일	마당극 "어머니, 당신의 아들"	YMCA 무진관	놀이패 신명
5월 16~27일	5월 사진, 판화, 걸개그림전	망월동묘지	시각매체연구회
5월 25일	5월 대동극	광주공원 광장	광주문화운동협의회
5월 25일	임진택 판소리 "5월 광주"	YMCA 무진관	
5월 26~27일	민족의 문학, 민중의 노래	전남대 체육관	민족민주예술인총연합

1991년부터 1992년의 기념행사는 ‘시위 일변도의 행사를 지양하고 모든 시민들이 5·18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거리극, 백일장 등 문화 중심의 행사로 치르자’는 기본 방침에 따라, 5월 18일을 전후로 하여 6일간의 ‘5·18주간’을 지정하였다. 광주 지역 중

심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는 취지에 따라 각각의 문화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금남로 및 망월동 일대에서 문화행사와 나눔 행사를 가졌다. 그러나 분신 시국 및 각종 부상과 구타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시위 투쟁적 양상으로 과격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표 107> 1991년 11주기 기념행사

일 자	시 간	행사내용	장소
5월 15일	15:00	5월정신계승 및 노정권퇴진 결의대회	전남대병원
	14:00	5월투쟁본부 발족식 및 5월투쟁 선포식	전남대학교
	17:00	5월제 음악공연	전남대 강당
5월 16일	10:00	윤용하 장례식	전남대 병원
		망월동 성지순례 마라톤대회	전남대 출발
5월 17일	15:00	쌀수입음모, 폭력살인 노정권퇴진 전남농민대회	전남대 병원
	18:00	5·18전야제	전남도청 앞
	19:30	추모미사	임동성당
5월 18일	10:00	5·18추모 및 기념식	망월동 묘지
	15:00	강경대열사추모 및 폭력살인노정권퇴진국민대회	전남도청 앞
	17:00	5·18광주민중항쟁 제11주기 계승대회	금남로 3가
	13:00	남충련 집회	광주교대
	17:00	추모예배	한빛교회 등
5월 20일	13:00	민주기사의 날 기념식	무등경기장
5월 21일	10:00	5월정신계승 제3회 시민, 학생 백일장	어린이대공원
5월 22일		각대학별 반미의 날 집회	
5월 23일	18:00	5월 여성제	가톨릭센터
5월 25일	18:00	강경대열사추모 및 폭력살인노정권퇴진국민대회	금남로
5월 27일	14:00	5월 부활제	광주공원
5월 17~23일		5월 미술제	망월동 묘지
5월 22일~6월 6일		민족극 한마당	YWCA

이 시기 기념행사는 점차 ‘문화의례’로 자리 잡으면서 주관 기관의 내부적 요구 및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해 왔다. 5월관련단체 및 시민단체 등 주관기관은 시위로 점철된 기념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방안 중 하나로 문화행사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문화·예술 활동이 내포하는 부드러운 힘과 유희성, 메시지 전달의 효과 등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고, 광주 문제 해결의 일환인 기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던 정치 상황의 변화 역시 기념행사의 문화화를 추동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5월 행사를 준비하는 행사위원회는 5월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를 목표로 하여 이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때부터 5월 행사는 문화적 재현을 통한 5월 정신의 계승

및 추모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 (2) 기념재단 설립 이후 기념행사

기념행사가 추진위원회 또는 행사준비위원회와 같은 조직체를 통해 준비되었던 것은 1993년으로, 이를 주관한 주요 단체는 “광주·전남민주연합”이었다. 행사위원회를 구성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 기념행사에 대한 정부의 불법성 규정으로 특정한 책임자만을 처벌하는 것에 맞서 이를 집단적으로 방어하기 위함이었고, 둘째 보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많은 사회단체 및 시민들의 참여를 흡수하기 위함이었다.

매년 진행되는 기념행사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방향 모색에 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매년 1월과 2월에 간담회나 워크숍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3월과 4월 초순에는 행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와 의견 수렴이 진행되며, 4월 중순(보통 4월 18일)에 행사위원회가 출범했다. 행사위원회는 보통 기념행사가 종료된 지 한 달 반만에 해산하지만, 5월 행사와 관련한 실무자들의 업무는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 <표 107> 기념행사 준비 및 진행과정(21주년 기념행사)

신년하례를 위한 광주지역 사회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 → 기념행사 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워크숍 → 행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워크숍 → 행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위원회 회의 → 행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집행위원회 회의 → 행사기획단 회의 → 공동위원장 회의 → 행사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지역원로, 시민·사회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 → 평가 및 향후 전망을 위한 토론회, 집행위·기획단 연석회의 → 해단식 및 기자회견
---

행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행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위원회”였다. 소위원회는 기념행사의 목표와 주제 및 추진방향, 운영, 행사위의 조직 체계 구성에 관한 합의를 주도했다. 따라서 기념행사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는 사실상 이 조직에 의해 정립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소위원회에 참가하는 단체들은 5월단체협의회, (재)5·18기념재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민족민주행사위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예총 광주시지회 등 6개 단체였다.

기념행사를 준비 및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모임과 회의를 하는 곳은 기획단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집행위원회였다. 집행위원회의 위원들은 주로 광주지역의 여러 시민·여성·문화·예술·재야·사회·종교단체들과 관련단체들의 사무국장 혹은 사무처장, 부지회장 등과 같은 사무 및 실무 책임자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기념재단 설립 이후 실제 기념행사에 참여한 것은 16주년부터였다. 기념행사는 광주 지역의 여러 사회·재야·시민단체들과 관련단체들이 모두 참가하여 행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기념재단이 행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시기는 16주년, 18주년, 19주년 그리고 20주년이었다. 재단이 주도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기념행사에 참여 하는 다른 기관의 관련자들이 재단의 위상을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상임)행사위원장에에는 대부분 재단의 이사 혹은 이사장이 임명되었으며, 집행위원장의 경우에도 재단의 상임이사나 이사가 임명되었다. 기획단 및 사무처장도 재단의 근무자 혹은 관련자가 담당하였다. 이것은 기념재단이 기념행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의미한다.

### ① 1997년 17주기 기념행사

1997년 기념행사는 신군부세력에 대한 사법적 단죄와 함께 5·18묘지 성역화사업 등 여타 기념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치러진 행사였다. 17주년 행사위원회는 3월부터 구성 논의가 시작되어 이후 4차례의 실무모임과 3차례의 집행위원회 회의를 가진 후 행사위원장에 명노근을 선출하고 4월 28일에 공식 출범하였다. 기념행사위원회는 국가 기념일 제정 후 민·관 공조의 새로운 행사모형 창출과 향후 기념행사의 발전적 진행 토대를 구축하고 광주만의 행사가 아닌 기념행사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기초와 목표를 정하였다.

1997년 기념행사는 전 국민의 참여 속에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고 민족화합을 도모하는 국민화합의 장으로 승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며 행사 내용은 역사적 의의 및 정신의 계승·발전에 역점을 두었다. 17주년 행사의 기초와 목표는 크게 4가지였다. “첫째, 5·18문제의 완전해결을 도모하고 둘째 5·18민중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정립하며 셋째,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넷째, 5·18민중항쟁의 세계적 연대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기념행사위원회는 5·18문제 완전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범국민적 행사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키로 했으며 또한 엄숙하고 경건한 가운데 5·18정신을 고양하고, 기념행사의 정치·상업성을 지양하며 기념행사의 전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행사원칙을 정했다. 그리고 17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30여개 단체가 5월 1일부터 24일까지 정신계승 헌혈, 학술토론회, 사진전, 통일음악제, 일요음악회 등 34개의 개별행사를 개최하였다.

<표 108> 1997년 17주년 기념행사 일정

일	시	행사내용	주최	장소
<기본행사>				
5월 17일	10:00	추모제	유족회	5·18묘지
5월 17일	19:00	전야제	행사위원회	전남도청 앞
5월 18일	10:00	기념식	대한민국 정부	5·18묘지
5월 18일	16:00	기념대회	행사위원회	도청 앞 광장
<기획행사>				
행사 전 기간		전 행사 사진, 비디오 촬영	영상매체연구소	행사장 일원
행사 전 기간		통신지원단 PC통신, 인터넷 중계	비트씨그	
행사 기간 중		전·노 사면 반대 캠페인		행사장 일원
행사 기간 중 3일		외국인 초청 행사	행사위원회	
행사 전 기간		성지순례 안내단 활동	행사위원회	
<종교행사>				
5월 15일	14:00	추모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5·18묘지
5월 16일	11:00	추모법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	5·18묘지
5월 17일	10:30	특별천도제	원불교광주전남교구	5·18묘지
5월 18일	15:00	5·18추모예배	NCC, 기장교사위원회	한빛교회
<학술행사>				
5월 18일	19:30	북녘동포 현실과 5월 나눔의 정신 계승 강연회		무등컨벤션센터
5월 16일	18:30	기자클럽 결성식 및 5·18특파원리포트출판회		서울프레스센터
5월 17일	15:00	외신 언론인 초청토론회	시민연대모임	무등일보사 강당
5월 16일	14:00	Y시민포럼	YWCA	YWCA
5월 17일	14:00	5·18문제 완전해결과 총체적 과거청산 토론회		
5월 24일	14:00	5·18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 토론회		무등컨벤션센터
<시민참여행사>				
5월 11일		통일의 꽃씨 뿌리기 대회	광주전남연합	전대 정문
5월 1~26일		헌혈/ 장기기증 캠페인	5·18구속자회	광주.전남 일원
행사 기간 중		5·18 공개증언 스튜디오 운영	영상기록특위	
5월 10~20일		구묘역과 신묘역을 잇는 망월동 돌탑쌓기		5·18묘지
<청소년행사>				
5월 7일	10:00	제9회 학생글쓰기 한마당	전교조광주지부	5·18구묘지
5월 25일	10:00	청소년 5·18 일일체험학교	광주홍사단	청소년수련관
<종교행사>				
5월 15일	19:00	빛고을 시·도민 가요한마당	동서남북신문사	광주공원 광장



5월 10,11,14일		거리음악제, 5월의 노래	민예총 노래분과	북구청
5월 13일	19:00	MBC 일요음악회	5·18기념재단	무등경기장
5월 14~19일		제9회 5월전 '만인의 얼굴전'	광미공	금남로 일대
5월 15~20일		5·18 그후 17년 특별사진전	광주일보사	5·18묘지
5월 17~19일		거리 사진전	영상매체연구소	금남로 일대
5월 18~21일		모란꽃 공연	극단 토박이	민들레소극장
5월 21일	19:30	전월선, 정태춘 초청 통일음악회	누리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5월 24,25일		제6회 하늘맞이 큰 곳	민족도장 경당	
5월 18일	19:30	5·18민중항쟁 국가기념일 제정 경축 대공연		문화예술회관
5월 16일	16:00	5·18영령을 위한 진혼 예술제	광주광역시	5·18묘지
<부문행사>				
5월 22일	18:30	5·18여성제	광주전남여성문제특위	카톨릭센터
5월 14일	10:00	격전지 순례 자전거 대행진	민주노총	조선대 공문
5월 17일	15:00	전국 동시 노동자 5월 정신계승 추모대회		광주공원 광장
5월 18일	09:30	격전지 순례 땀박질 대회	민주노총	전남대 정문
5월 20일	15:00	민주기사의 날	5·18민주기사동지회	무등경기장

그러나 17주년 기념행사는 전반적으로 행사위의 구성, 행사 공모 및 선정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특히 시위과정에 사망한 조선대 학생 고(故) 유재을 학생의 장례문제가 행사위원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행사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 간의 인식차이로 인한 불협화음이 발생하였으며, 당초의 출발 의지와는 달리 그에 따른 실천적 노력이 미약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행사기조와 원칙간의 괴리현상, 행사의 방만함, 중복된 행사 및 행사기획단과 집행위원회의 역할의 중첩 등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기념행사의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반성이 제기됨에도 과거 답습형의 기념행사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행사위원회는 당시 평가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향후 제언을 남기기도 하였다.

첫째, 기념행사를 위한 「상설준비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이러한 기구는 광주비엔날레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를 시에서 주도할 수 없다면 민간단체나 사회단체 대표들이라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최소한 행사개최 6개월 전에 준비작업을 해야 하며 시는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5·18행사의 전국화를 위한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 5·18자료의 정리와 홍보물 사전 제작·배포를 위한 특성에 맞는 자료 개발과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광주·전남 문화 유적지와 5·18행사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5월 정신을 전국화, 세계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지역 차원의 행사가 아닌 전국

적이며 세계적인 규모의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② 1998년 18주기 기념행사

이전 기념행사의 주제가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 지향적 관점이었다면, 제18주년 기념행사는 「인권, 평화, 화합의 미래로」를 주제로 설정하고, 기념행사 엠블럼을 제작하는 등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행사였다.

행사위원회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후원을 받아 총 285명의 각계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1998년 3월에 출범하였다. 행사위원회는 역사적인 여·야 정권교체 및 국가적 위기인 IMF상황을 고려하여 1998년의 행사 예산을 1997년보다 25%정도 삭감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아울러 행사도 30% 가량 축소, 통·폐합하였다. 또한 5·18정신의 계승과 5·18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목표로, 시민참여를 제고한 행사, 향후 5·18행사의 전형이 되는 행사 그리고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하여 양보다는 질에 비중을 두는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하였다.

특히 행사위원회는 적극적인 긴축 예산과 행사 축소 및 통·폐합을 단행하였는데,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첫째, 단체 내부행사 자제, 둘째, 1회성 행사 배제, 셋째, 경제난을 고려한 행사계획, 넷째, 중복행사의 축소 및 통·폐합 등 행사 선정 기준을 정하여 행사를 확정하였다.

<표 109> 1998년 18주기 기념행사 일정

일	시	행사내용	주최	장소
2월 5일 ~5월 18일		대학생 학술논문 현상공모	기념재단	
4월 30일		5·18홍보비디오 제작	기념재단	
5월 1~31일		5·18사진전시회	기념재단	5·18묘지
5월 13일	10:00	제6회 전국학생논술경시대회	한우리독서문화원	전남대역사관
5월 3~31일		마당극 공연	신명아트센터	5·18묘지, 무진관
5월 3~23일		청소년 체험학교 및 봉사활동	자원봉사센터	5·18묘지
5월 6~17일		5월 기획사진전	사진작가 김혜선	신세계갤러리
5월 9일	10:00	학생글쓰기 한마당. 학생사생대회	전교조	5·18묘지
5월 9일	14:00	인권계승과 인권센터 건립 토론회	인권지기	무등컨벤션센터
5월 10일		5·18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행사위원회	기념재단
5월 10일		조합원 리본달기	민주노총	
5월 12~15일		"아름다운 사람들" 오월전	미술인공동체	금남로
5월 14일	10:00	국제학술심포지엄	한국사회학회	서울프레스센터
5월 14~20일		5월 기념사진전	영상매체연구소	
5월 15일		정신계승 노동자 문화마당	민주노총	광주역광장
5월 15~17일		아시아 인권선언대회	시민연대모임	무등파크호텔
5월 15일	14:00	5·18기념예배	예수교장로회	5·18묘지

5월 15~28일		도미야마다에꼬. 흥성담초청전시회	행사위원회	5·18묘지
5월 16일	14:00	천혼천도법회	불교사암연합	5·18묘지
5월 16일	14:00	피해배상을 위한 3차 학술대회	부상자회	무등컨벤션센터
5월 16~17일		5·18기념 록 콘서트	행사위원회	전남대 운동장
5월 17일	10:00	5·18추모제	행사위원회	5·18묘지
5월 17일	11:00	5·18피해자 가족 만남 화합한마당	행사위원회	5·18묘지
5월 17일	14:00	특별천도제	원불교 교구	5·18묘지
5월 17일	14:00	국민대회-영호남 한마당	민족민주연합	5·18묘지
5월 17일	15:00	5·18기념 제2회 걷기대회	행사위원회	전남대-도청
5월 17일	18:00	나눔의 날 행사-주먹밥 나누어먹기	행사위원회	금남로 일대
5월 17일	19:30	5·18전야제	행사위원회	5·18민주광장
5월 17일	19:00	5·18기념 광주·경기국악단 합동공연	문예회관	문예회관 대강당
5월 17~18일		망월동 추모대회	민주노총	5·18묘지
5월 17~19일		5월 Y 시민포럼	대전 YWCA	YWCA
5월 18일	10:00	기념식	행정자치부	5·18묘지
5월 18일	12:00	전국동시다방 증식 추모집회	민주노총	
5월 18일	13:00	5·18영령 씻김굿		광주공원
5월 18일	14:00	기독학생연합 추모행사	호남신학대학	5·18묘지
5월 18~27일		상무대 영창 현장체험	구속자회	구 상무대 영창
5월 19~20일		민주기사의 날 기념식 및 성지순례	민주기사회	광주 전역
5월 19~21일		"오월의 노래" 거리음악회	민예총 분과	가톨릭센터 앞
5월 20일		5·18 사진전시회	민주 노총	전국 시도
5월 21~24일		"청실홍실"공연	극단 토박이	민들레 소극장
5월 22~23일		5월 문학제 및 전국문학자대회	민족문학작가회의	무등컨벤션센터
5월 23일	14:00	5월 여성의 날 기념행사	민주여성단체	무등컨벤션센터
5월 27일		도청 앞 노제	구속자회	도청 현관

그러나 행사의 양과 예산을 줄이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시민들의 행사 참여가 갈수록 저조해지는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행사위원회의 제도적인 준비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청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행사위원회는 첫째, 행사위원회의 상설화, 둘째, 행사를 일정별·공간별로 특화배치, 셋째, 5·18주간에 열리는 행사 주체를 행사위원회로 단일화, 넷째, 전국화·세계화 관련하여 중앙언론과 사전에 기획물 제작 노력 필요, 다섯째, 학술과 문화 행사의 전국적인 배치·실시, 여섯째, 각 개별 행사간 연계성 확보, 일곱째, 행사의 전형화와 상품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총평을 내렸다.

또한 당시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기념식 행사에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의 참석, 타 시·도의 5·18기념식 개최 등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행자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부행사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5·18묘지에서 열리지만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 기념식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 개최여부가 결정된다는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전국적인 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 ③ 1999년 19주년 기념행사

1999년 기념행사 준비는 <5·18민중항쟁 제19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시작되었다. 행사위원회는 그 동안의 기념행사의 주제와 기본 방침, 그리고 행사 내용의 기획 등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는 의견에 따라, 기념재단의 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시안을 토대로 지역단체의 의견을 모으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사의 기본 방향과 원칙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19주년 기념행사 준비는 2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후 4월까지 총 3차례의 기획위원회 회의와 4차례의 집행위원회, 그리고 2차례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친 결과, 5·18 19주년 행사 주제를 <민족과 함께, 다시 서는 5·18> 로 정하고 부제로 「인권실현, 실업극복, 민족화합」을 결정하였으며, 기념행사위원회(위원장 강신석)를 공식으로 출범시켰다.

기념행사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5·18은 인권은 천부적 권리로서 그 어떤 명분과 이념으로도 유린될 수 없으며, 21세기의 역사발전 과정에서의 보편적 가치임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전제하고, “5·18민중항쟁 19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21세기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5·18정신 계승의 궁극적인 지향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문으로부터 5·18민중항쟁의 정체성과 기념행사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19주년 기념행사는 일차적으로 새로운 세기의 준비와 함께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5·18정신 승화의 미래상을 확립하는 한편, 나아가 5·18민중항쟁의 진실이 민족의 화합과 평화, 그리고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권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추진할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행사의 기본원칙으로 첫째, 행사의 규모는 18주년 행사에 준하며, 둘째, 연례적 중심 행사인 추모식, 전야제, 기념대회 등을 강화하는 한편, 5·18기념행사의 의미와 주제의 결합성이 결여될 경우 이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셋째, 행사의 상업성과 특정정당에 대한 편향성을 배제하며, 넷째, 20주년 행사에 대비하여 기본행사 중심으로 대중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대중 참여의 현황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등의 여섯 개 항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행사의 심사기준도 5·18정신 계승의 적절성, 5·18기념과 추모의 의미가 집약된 행사의 순수성, 전년도 행사 평가, 시민참여의 현실성과 행사기획 및 준비의 실무적 역량 등을 감안하되, 18주년 평가에 준하여 그 의미가 5·18기본행사의 기본 취지 및 행사 주제와 내용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대중성이 결여된 일회적이고 중복되는 행사는 과감하게 축소하였다. 이 같은 심사기준과 원칙에 따라 1999년 1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응모된 52개 단체, 66개의 행사를 기획위원회에서 3차례, 기획단 회의에서 1차례 등 총 4차례의 회의에 걸쳐 42개 행사를 최종 채택하였다.

기념행사는 5월 1일의 현혈운동과 연극 <일어서는 사람들> 공연으로 시작하여 5월 21일의 도청 앞 노제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당시 기념행사에서는 친근감과 대중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5·18민중항쟁 로고와 캐릭터가 공식적으로 제작·사용되어, 5·18정신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5·18정신계승과 5·18기념행사의 궁극적인 미래지향성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게 만든 행사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행사로는 ‘동아시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단체 초청행사’였다. 이 행사에서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알리고,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광주의 주도적 역할을 결의하기도 했다.

<표 110> 1999년 19주년 기념행사 일정

행사일	행사내용(주관단체)	장소
5월 1~ 2일	5·18체험학교(광주 흥사단)	광주 흥사단 회관 등
5월 2~16일	봉사활동(광주 흥사단)	5·18묘지, 전남도청 앞
5월 8~18일	5월에서 통일로!(제19주년 목포행사위원회)	
5월10~20일	55만 조합원 항쟁정신계승 리본달기와 추모 프랑걸기 (민주노총/노동조합)	
5월13~14일	오월의 노래(광주민예총 음악분과)	가톨릭센터 앞
5월14일	민족과 함께 다시서는 5·18노동자 문화제(민주노총/광노문연)	광주문예회관 원형무대
5월14일	현혈운동(5·18구속자회/광주·전남적십자혈액원)	광천동 터미널
5월14~19일	11번째 오월전 「IMF전」(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금남로 일대
5월14~20일	13번째 5월기획전 「역사적 공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영상매체연구소)	가톨릭 갤러리
5월15일	5·18국제학술심포지엄(학술단체협의회)	
5월15~16일	제2회 전국대학생 5·18 성지순례(광주 YMCA청소년부)	서강대학교
5월15~16일	제2회 5월 전국청년문화제(광주 YMCA 시민사업부)	광주YMCA 무진관
5월15~17일	오월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 공연(신명아트센터)	광주YMCA 무진관
5월16일	노동열사 추모대회(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5·18묘지, 금남로, 광주공원
5월16일	5·18정신계승 국민대회(전국연합/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5·18묘지
5월16일	전국실업자 초청 성지순례단 조직 및 실업자인권현장 제정운동 (고용·실업대책 광주범시민운동본부)	전남도청 앞 분수대
5월16일	5·18기념 제2회 시민견기 대회 및 시민나눔의 날 행사(행사위원회)	5·18묘지 등
5월16일	5·18민주영령 천도법회(광주광역시불교사암연합회)	
5월16~18일	5·18민주화운동 제19주년행사(5·18 19주기 전남·동부지역행사위원회)	
5월16~20일	동아시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단체 초청 연대모임(5·18유족회)	5·18묘지
5월16~27일	실업자 리본 달기(고용·실업대책 광주범시민운동본부)	순천시청 앞 일원
5월17일	5·18광주민주화영령 제19주기 특별 천도제(원불교광주·전남교구)	
5월17일	19주년 추모기도회/기념예배(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5월17일	추모제(5·18유족회)	5·18묘지
5월17일	전야제(행사위원회)	5·18묘지/양림교회

5월17~18일	공로단체 관계자 초청 한마당(행사위원회)	
5월17~18일	야외공연 : 「후이넘에서 돌아와2-광주」(예기플라타너스)	전남도청 앞 특설무대
5월17~19일	빛소리 오페라단 창작곡 「無等동등」(빛소리오페라단)	
5월17~19일	5·18을 말합시다(YMCA 5·18영상기록특별위원회)	금남로 또는 망월묘역
5월17~21일	보도사례전시 '80년 일간지에 비취진 5월 광주'(언론개혁광주시민연대)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5월17~23일	비디오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의 삶' 상영 및 여성열사 영정 전시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5·18묘지/광주YMCA앞
5월17~27일	5·18자유공원(구 상무대 법정·영창)행사(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묘지/광주YMCA앞
5월18일	전국동시다발 5·18정신계승 정신 추모 집회(민주노총/전국노동조합과 지부단위)	5·18묘지
5월18일	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5·18민중항쟁상이후사망유족회)	5·18자유공원
5월19~23일	무료공연: 그들은 잠수함을 탔다(광주민예총 연극분과 극단 토박이 - 총 5회공연)	전국 동시 중식시간
5월20일	민주기사의 날 기념식 및 전국운수노동자 성지순례(민주기사동지회/택시노조연맹광주지부)	5·18묘지 앞 민들레소극장
5월20일	제19주년 기념 제10회 학생글쓰기 한마당 및 제2회 미술대회 (전교조 광주지부)	무등경기장
5월20일	오월 Y포럼(광주 YMCA)	5·18묘지
5월21일	5월 여성제 기념식 및 영화제(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광주YMCA 대강당
5월21일	사진전시회 및 오색 띠 잇기(5·18민주화운동본부상자회)	시민회관
5월22일	5·18과 미국(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부설 한미연구소(준))	5·18묘지
5월26일	실업자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5월정신계승을 위한 실업자 한마당(고용·실업대책 광주범시민운동본부)	가톨릭 센터 대강당 광주YMCA대강당
5월27일	노동열사 정신 계승을 위한 통일 대중 강연회(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시멘트 강당
5월27일	도청 앞 노래(5·18민중항쟁구속자회)	전남도청 앞
5월28일	5·18광주항쟁 역사탐구(1차)(광주들불야학동우회 등)	가톨릭센터 강당

그러나 항시적으로 제기되어왔던 행사위원회의 상설화 문제는 19주년 기념행사 준비과정에서도 드러났다. 19주년 행사위원회도 전년보다 늦게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원인은 첫째, 기념사업의 중심 주체가 부재하여 19주년 행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가 시기적으로 늦어졌고, 둘째, 연례적으로 행사를 준비해 온 각 개별단체들이 행사준비에 있어 자체적 진행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이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지원될 것으로 전제하거나 개별행사 내용에 대한 행사위원회의 구속력을 도외시 해온 관행이 반복되었던 점, 셋째는 행사위원회 자체가 상설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한 지역 사회단체와 5·18관련단체 등의 인식과 해결 의지가 약했던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대중 참여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의 마련, 5·18기념행사에 대한 방향성의 원칙 합의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과정이 부재하며, 행사 추진이 기존의 행사 수준에 그침으로써 창의성이나 시민의 참여 자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였고, 행사 내용이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반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도 하였

다. 그리고 향후 기념행사에서의 축제와 추모 및 정신계승의 내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원칙적인 논의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기념행사의 미래상과 위상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④ 기념행사에 있어서 5·18기념재단의 역할과 문제점

##### 가. 5·18기념재단의 역할

1981년부터 시작된 5월 행사는 정부의 탄압과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993년부터 합법화되었고, 1997년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국가차원에서 기념식이 이루어졌다. 기념행사 예산은 특별하게 준비되었던 20주년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시교육청, 재단 등에서 출연하였으며, 이외에도 전라남도 교육청 혹은 기업 및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았다.

기념재단이 기념행사에 행사비를 출연한 것은 19주년과 21주년인데, 21주년에는 전체 예산의 약 25%를 부담하였다. 재단이 부담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관에서 지원하는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관이 지원하는 행사비는 20주년까지는 일단 기념재단으로 지원하였다가 다시 행사위원회로 이관하였는데, 21주년부터는 직접 행사위원회로 지원되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행사비 정산은 기념재단의 총무팀이 맡게 되었다. 이는 행사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도 각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책임과 별개로, 재단이 5월 행사의 정리를 떠맡게 되는 문제가 되었다.

##### 나. 행사위원회의 문제점

행사위원회의 구성은 외형적으로는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정하게 폐쇄된 참여구조가 있었다.<sup>12)</sup> 기념재단이 행사위원회 주관단체에서 지원단체로 그 역할을 전환한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상설 기념행사 기구가 부재하여 기념행사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기념재단에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기념행사에 대한 책임 주체의 명확화와 장기적인 행사 준비 등을 이유로 행사위원회의 상설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3) 기념행사의 다변화와 기념행사의 정례화

12)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 발전계획』, 2002, 39쪽.

기념행사는 17주년부터 행사의 목표 혹은 주제를 설정하고, 19주년부터는 부제 혹은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행사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과 행사에 참가하는 단체들이 자신들의 행사를 행사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 등으로 그 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지만, 계속해서 행사 수는 증가해왔다. 이는 기념행사의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획단에서 다양한 안을 받아들여 프로그램을 보완 및 결정한 뒤에도, 집행위원회 및 공동위원장단 회의 등을 거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상당부분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행사의 성격이 5·18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행사의 성격과 내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000년에 열린 20주년 행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대통령이 추모 행사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경향들은 기념행사가 단지 광주·전남에 국한된 행사가 아닌, 전국적인 기념행사로 확대되었다는 긍정적인 의의를 지닌다. 그렇지만, 5·18학살의 주모자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행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이러한 제도화 및 의례화가 5·18의 역사적 의의와 저항정신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제21주년 기념행사는 주관 주체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 21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기념재단은 지역 내 제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5월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기념행사의 집중성을 강화하기위해 80년 5월 항쟁 당시 주요한 투쟁의 흐름을 중심으로 행사를 기획 및 편성하여 전체적인 행사 구조의 틀을 마련하였다.

<표 111> 21주년 기념재단이 주관한 기념행사 프로그램

행사명	일시	공동주관 단체
5·18민중항쟁 21주년 기념 아시아 민주희생자 연대 네트워크	5.14-18	아시아인권위원회, 5·18민중항쟁유족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국제교류센터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의 식민주의, 권위주의, 그리고 민주화와 인권'	5.17	전남대학교5·18연구소
5·18민중항쟁 21주년 기념 독일 학술문화 행사	6.1-3	독일 학술문화 행사준비위원회
청소년 역사캠프(벽화 그리기, 토론대회, 역사 캠프)	5.1 5.19-20	
전국 중·고등학교 역사사회 교사 초청 '한국민주주의 발전사 교육' 워크숍	5.19-20	



광주인권상 시상식	5월 18일	
5·18기념문화관 전시(사진, 시사만화전, 시각디자인 교수 100인전)	4.27-5.31	
5·18기념문화관 개관기념 공연	5.12	
5·18민중항쟁 21주년 기념 서울기념제	5·18	협찬 : 5·18기념재단 주관 :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위 표가 보여주듯이 기념재단이 주관 또는 참여한 5월 행사의 프로그램들은 국제연대, 학술, 청소년 교육, 인권상, 5·18기념문화 개관 및 전시 행사 등이었다. 이후 2005년부터 정부보조금에 의한 5월 행사가 진행되면서 기념재단은 지원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의 기념행사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5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들을 실천해 오면서 다양한 문화행사 및 문화매체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진행된 25주년 기념행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12> 25주년 기념행사 내용

구분	행 사 명	주 관
기념정신 계승행사	5·18민중항쟁 제25주년 정신계승 국민대회	광주전남민중연대, 전국민중연대
	5·18민중항쟁 제25주년 기념 추모제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중항쟁 제25주년 기념 전야제	행사위원회(전야제연출단)
	5·18민중항쟁 제25주년 기념 민주기사의날	5·18민중항쟁 민주기사동지회
	5·18민중항쟁 제25주년 제4회 부활제	(사)5·18유공자동지회
	5·18민주화운동 제25주년 기념 제3회 휘호대회	(사)5·18유공자부상자회
시민참여 행사	5·18민중항쟁 제25주년 기념 제5회 마라톤대회	5·18기념재단
	시도민 실천한마당	시도민 실천한마당(총괄)
		광주시민협
		풍물패 굴림
	5·18 25주년 서구 기념행사	남북공동선언 광주전남실천연대
	5·18민중항쟁 제25주년 북구 기념행사	북구행사위원회
	제3회 광산구 5·18기념행사	서구행사위원회
시도민 대동한마당	시도민 대동한마당(총괄) 광주전남민중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가협 풍물패 굴림 광주시 자원봉사센터협의회	
특별 행사	5·18민주성회	행사위원회(광주시민협)
	2005아시아인의마당	2005아시아인의마당 조직위원회
청소년 행사	제16회 전국학생글쓰기 및 그림만화그리기 대회	전교조광주지부
	제2회 5·18 청소년 문화제 - RED FESTA	청소년 문화제 추진위원회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캠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행사(총괄)	
	오월맞이 큰굿	광주민예총
	오월문화제	광주민예총
	만장·걸개 설치전	광주민예총

	시산문 설치전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2005 오월전	광주민예총(미술위원회)
국제연대사업	광주국제평화캠프	5·18기념재단
	제6회 광주 인권상	5·18기념재단
학술심포지움	평화통일 심포지움	광주종교인평화회의
	5·18 25주년 기념 학술대회	전남대5·18연구소, 한국정치학회
	언론자유 및 민주와 통일	80년 해직언론인협회
	동북아 평화정착의 과제와 대안 모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타지역기념행사	기념식 및 부대행사 '5월을 넘어 통일로'	사)5·18유공자동지회 대구경북지부
	기념식 및 음악회	사)5·18유공자동지회 전북지부
	5·18 25주년 부산시민한마당	부산 민주공원
	기념식 및 광주순례 방문	사)5·18유공자동지회 대전충청지부
	기념식 및 사진전시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인천지부
기타행사	25주년 기념행사 모니터	광주전남문화연대
	시로 느껴보는 5월展	일곡도서관
	평화 인권 시화전	43연구소, 제주 작가회의
	아직 끝나지 않은 5월	사회진보광장(들불)
	5·18민중항쟁 기념 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광주전남선교회
	5·18민중항쟁 제25주년 희생자 영령특별천도제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제3회 광주전남대학생 '오월한마당'	광주전남대학생 오월한마당 준비위
	제7회 5·18전국웅변, 그림그리기, 글짓기 대회	광주전남웅변인연합회
	광주와 미국 25년	전민특위, 통일연대
	5·18성지 도보순례 및 위령제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제25주년 5·18민주화기념 나눔행사	5월 제단체 협의회

특히 2005년 이후 행사위원회의와 기념사업의 내용이 전문화되면서 행사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기념행사 기본방향, 운영 및 편성원칙” 등을 사전에 정하고, 기획사업과 공모사업을 구분하여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5·18의 전국화 차원에서 광주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5·18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113> 25주년 기념행사 기본방향, 운영 및 편성원칙**

<p>□ 기본방향</p> <p>○ 시민이 주인되고 참여하는 5·18기념행사의 정형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대 및 계층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을 등)아마추어 그룹의 참여를 적극 조직화, 행사의 준비과정부터 참여</li> <li>- 가족 단위의 참여를 위해 행사준비</li> <li>- 현장까지 실현가능한 프로그램 마련</li> </ul> <p>○ 기념행사의 전국화와 국제연대의 주체 형성 토대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자치단체 기념행사는 적극적으로 조직간에 맞게 전야제, 국민대회, 시도민대동한마당 배치</li> </ul> <p>○ 도청-금남로, 국립5·18-망월묘역, 기념·자유공원-상무대영창 등 기념공간의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청·금남로는 상징성 높은 공간에 맞게 전야제, 국민대회, 시도민대동한마당 배치</li> <li>- 자유·기념공원은 참배객을 유도하는 문화예술행사 배치</li> <li>- 특히 도청~구묘역을 활용한 과거청산, 5·18미완의 과제를 극적이고 상징적으로 부각시키는</li> </ul>
---

## 행사 배치

### □ 운영 원칙

- 시민 참여형 행사내용을 양식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시민적 공감대 확산 및 전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한다.
- 행사는 기념·정신계승·문화예술·시민참여·청소년·국제연대·학술심포지움 타 지역 특별,기타 행사 등으로 편성한다.

### □ 편성 원칙

- 행사는 공모하지 않고 행사위원회에서 기획·추진한다.
- 개별 단체의 연례적인 행사는 해당 단체의 예산으로 추진한다.
- 협찬,참가비,유료공연 등이 명시된 행사는 기념행사 편성을 하지 않는다.

## <표 114> 26주년 행사위원회 -예산 집행 및 정산원칙 방법

5.18민중항쟁 제26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예산의 집행과 정산은 기본적으로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참조)

### 1. 사업비 집행 원칙

- ①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한다.
- ②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 ③ 예산은 협약서와 약정서 체결 후 집행한다.
- ④ 예산집행은 약정서 체결후 사업 시행 전에 100%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위원회의 필요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⑤ 예산집행은 각 행사 주관처의 대표자 통장을 새로 개설한다.(단체명 명기)
- ⑥ **사업비로 확정된 보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말한다.**
- ⑦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집기구입·공과금 등 단체운영비
  - 연구기관 등에 용역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등
- ⑧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 ⑨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 ⑩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행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지 않도록 한다.
- ⑪ 사업완료후 정산서 제출시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 ⑫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는 금지한다.
- ⑬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율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⑭ 국제교류행사의 여비,통역료,기타 사항은 참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 2. 사업비 정산 원칙

- ① 모든 사업비 증빙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은행 입금증을 기본으로 한다.(간이 영수증 사용금지)

- 10만원 이상 지출되는 사업비는 반드시 1)항을 준수한다.
  -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을 수 없는 거래시 “사업자증명원”(관할 세무서발행)사본을 첨부한다(5만원 이하)
  - 액수에 상관없이 인쇄물은 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견적서, 비교 견적서를 첨부한다.
  - 원천징수 발부요인 집행일 경우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납부한다.
- ② 사업종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실적 보고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행사장소가 다를 경우 장소별)를 제출해야 한다.
  - 주관단체 행사에 제작된 인쇄물은 각 3부씩 제출해야 한다.
  - 각 행사 주관처는 보조된 사업비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회계장부(사본)를 제출해야 한다.
  - 보조된 사업비 외에 자부담에 대한 정산을 하며 보조금 정산에 준한다.
- ※ 단, 100% 자부담 사업은 행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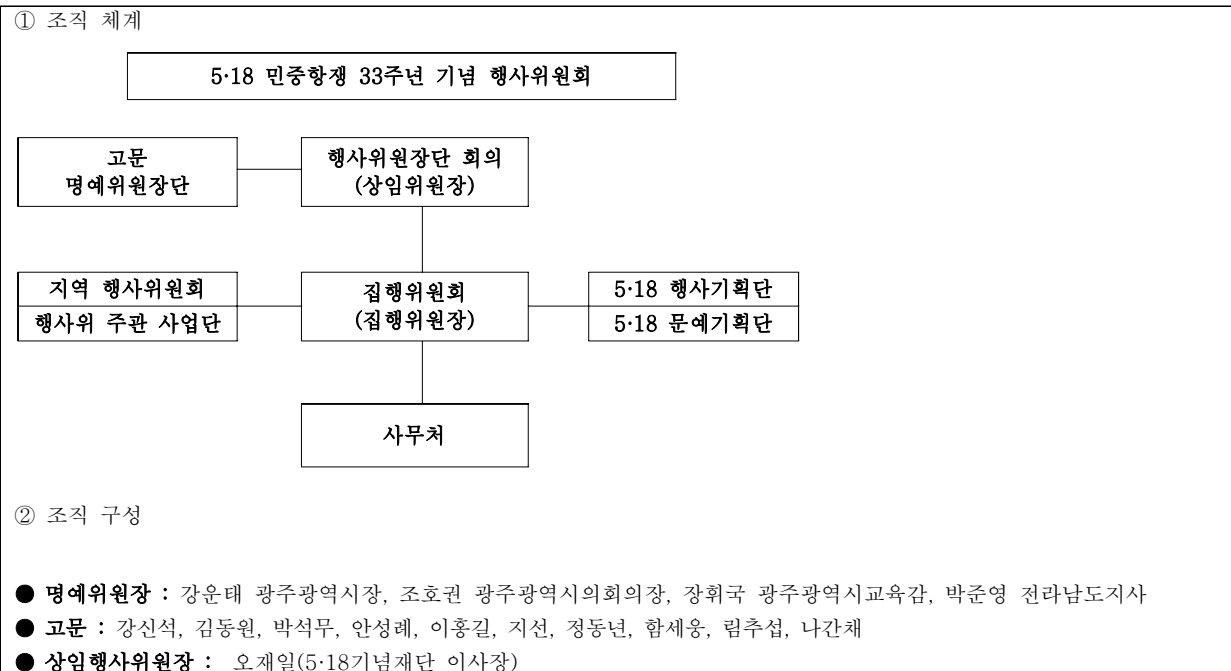
### 3. 보조금 회수조치의 경우

- ① 목적사업외의 사업으로 집행되었을 경우.
- ②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었던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 그 감 소율에 따른 금액.
- ③ 집행증빙서류와 집행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 ④ 집행내역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거래로 밝혀질 경우.
- ⑤ 보조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지되었을 경우.
- ⑥ 정산원칙에 벗어난 거래일 경우.

### 4. 사업비 정산시 유의할 사항

- ① 외국인 소득 발생할 경우 세금관계(관할 세무서에 서면 문의)
- ② 모든 세금발생(강사료, 원고료, 각종수당, 상금 등)은 각 행사 주관처에서 원천징수 납부후 정산 한다.
  - 지급총액의 100/4 소득세, 소득세의 100/10 주민세
- ③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단, 금융기관 부재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 <표 115>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조직체계 외



● 행사위원장단

- 김민규(21C광주전남대학생연합회장, 전남대총학생회장)
- 김용태(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전교조광주지부장)
- 김정길(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 문경식(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 박봉주(광주진보연대 공동대표,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장)
-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상임대표)
- 신경진(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 안평환(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 양희승(5·18구속부상자회 회장)
- 오제일(5·18기념재단 이사장)
- 윤만식(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
- 정춘식(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 주경미(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상 가나다순)

● 감사 : 정병민 (5·18기념재단 감사, 삼덕회계법인 대표)

● 후원기관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의회,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지방보훈청

● 집행위원회

- 고미경 (민주노총광주본부 사무처장)
- 김공휴(5·18구속부상자회 대변인)
- 김은규(광주진보연대 사무처장)
- 김찬호(5·18기념재단 사무처장)
- 문희태(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장)
- 박형대(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 배용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 이정성(21C광주전남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
- 이인숙(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국장)
- 이지윤(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무총장)
- 최지현(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
- 한주연(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정책기획부장) (이상 가나다순)
- 집행위원장 : 김영정 (광주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총무팀장 : 총무담당, 홍보담당, 행사지원 담당

● 기획단

- 이용식(광주문화재단 연구위원)
- 정태연(21C청소년 공동체 희망 대표)
- 김기곤(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김영정(광주진보연대 사무처장)
- 김찬호(5·18기념재단 사무처장)
- 최지현(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

- 이희진(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 행사위원회 주관 사업단

- 문예사업단(단장 : 박강의 극단 신명 전 대표)
- 국민대회(단장 : 김은규 광주진보연대 사무처장)
- 5월 문화선전대 사업단(단장 : 김태훈 우리문화연구원 원장)
- 오월길순례 사업단(단장 : 김영정 광주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평화실현을 위한 한반도평화회의(단장 : 박정애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진남본부)

● 사무처

- 총무팀장 고재대
- 총무팀 회계담당 표지선
- 총무팀 홍보 및 행사지원 담당 김태현

<표 116> 5·18민중항쟁 33주년 영역별 사업 내용

구분	번호	사업명(약칭)	주관단체	배정액(천원)	지원기관
주관사업	1	진야제	행사위원회,문예기획단	72,000천원	광주시
	2	찾아가는 오월예술단	행사위원회,문예기획단	14,000천원	광주시
	3	오월상설문화마당	행사위원회,문예기획단	25,000천원	광주시
	4	전시 및 설치	행사위원회,문예기획단	29,000천원	광주시
	5	국민대회	행사위원회,국민대회사업단	5,000천원	광주시
	6	오월길순례	행사위원회,오월길순례사업단	12,000천원	광주시교육청
	7	한반도평화토론회	행사위원회,평화회의사업단	4,000천원	광주시
	8	주먹밥 나눔	행사위원회,(사)오월어머니집	2,000천원	보훈처
	9	주먹밥 나눔	행사위원회,동·실업광주센터	4,000천원	광주시교육청
부분별사업	1	추모제 및 추모의 글 남기기	(사)5·18민중주유공자유족회	19,000천원	보훈처
	2	제11회5·18전국회고대회	(사)5·18민중화운동부상자회	19,000천원	보훈처
	3	부활제	(사)5·18구속부상자회	19,000천원	보훈처
	4	민주기사의 날 기념식 및 차량시위 재현	(사)5·18구속부상자회	7,500천원	보훈처
	5	오월여성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1,500천원	보훈처
	6	전국노동자대회	민중노총 광주지역본부	3,000천원	광주시
	7	한국청년대회	광주전남청년연대	3,000천원	광주시
	8	전국대학생5월한마당	21C광주전남대학생연합	5,500천원	광주시
	9	장애는 체험하고 장벽은 함께 넘자	(사)실로암사람들	3,000천원	광주시
구별사업(광주)	1	북구 기념행사	행사위원회,북구행사위원회	6,000천원	광주시
	2	동구 기념행사	행사위원회,동구행사위원회	6,000천원	광주시
	3	서구 기념행사	행사위원회,서구행사위원회	6,000천원	광주시
	4	남구 기념행사	행사위원회,남구행사위원회	6,000천원	광주시
	5	광산구 기념행사	행사위원회,광산구행사위원회	6,000천원	광주시
시군별 사업(전남)	1	강진군 기념사업	강진행사위원회	1,917천원	전라남도
	2	광양시 기념사업	광양행사위원회	2,417천원	전라남도
	3	나주시 기념사업	나주행사위원회	4,340천원	전라남도
	4	목포시 기념사업	목포행사위원회	2,985천원	전라남도
	5	무안군 기념사업	무안행사위원회	2,417천원	전라남도
	6	순천시 기념사업	순천행사위원회	4,373천원	전라남도
	7	여수시 기념사업	여수행사위원회	2,395천원	전라남도
	8	영광군 기념사업	영광행사위원회	2,395천원	전라남도
	9	완도군 기념사업	완도행사위원회	2,895천원	전라남도
	10	장성군 기념사업	장성행사위원회	2,395천원	전라남도
	11	장흥군 기념사업	장흥행사위원회	2,917천원	전라남도

	12	화순군 기념사업	화순행사위원회	2,395천원	전라남도
광역별 사업	1	서울 기념행사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5,000천원	보훈처
	2	부산 기념행사	사단법인 청춘멘토	5,000천원	보훈처
	3	대전·충남 기념행사	대전충남행사위원회	4,000천원	보훈처
	4	대구·경북 기념행사	대구경북행사위원회	3,500천원	광주시
	5		대구경북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준)	1,500천원	광주시
	6	강원 기념행사	초록생명평화센터	1,000천원	보훈처
공모사업	1	10.18에서5·18까지마산에 서광주까지)	(사)경남민예총	2,000천원	광주시
	2	민주인권정신 계승의 날	광주·전남 민주화운동동지회	1,000천원	광주시
	3	노동자 강사단 학교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2,000천원	광주시
	4	즉문즉답,오월의꽃통일로 피어나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2,000천원	광주시
	5	서울 도봉구 기념행사	도봉구 행사위원회	1,000천원	광주시
	6	연극“진숙아사랑한다.”	광주전남 자주통일 연석회의	2,000천원	광주시
	7	오월문학제및전국문학인대 회-육필시화전	광주·전남작가회의	2,000천원	보훈처
	8	제24회전국학생글쓰기·미 술한마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0천원	광주시교육청
	9	무료공연“마중”	극단 토박이	2,000천원	광주시교육청

#### 4) 기념행사의 활성화 방안

5·18광주민중항쟁 이후 매년 5월 기념행사를 주도하는 임시기구에 의해 반성과 함께, 5·18정신의 세계화와 민주화운동의 계승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체 설립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5·18기념재단이 출범했다. 그 동안 기념재단은 열악한 조건과 단체들 간의 이견 속에서 묵묵히 5월 기념행사의 중심에서 있었고, 2000년대 이후 기념사업이 다변화되면서 5월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년 새롭게 구성되는 기획단은 기념행사의 연속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획단 활동에 대한 평가, 행사 추진결과와의 일치와 간극, 소통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행사위원회는 각 행사 소 주체에 위원 1~2인을 파견하여 각 주체들 사이의 소통 문제를 개선하고 책임성을 높여 5월 기념행사 시스템을 제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난 시절 통합하지 못했던 5·18관련단체들 사이의 관계가 개선된 배경도 있지만, 행사위원회의 위상을 존중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공동 대응을 해 나아감으로써 ‘통합적 행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취지를 잘 살려냈기 때문이다. 또한 2005년 이후 행사를 지속해 오면서 기념행사 사업체계를 정비, 보완하면서 ‘종합적인 기념행사’로의 도약을 준비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기념행사가 문화축제화 되어가면서 5·18문예기획단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지역 행사(타 지역 광역권, 전남 시군, 광주 동네)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 (1) 기념행사위원회의 상설조직화 방안 모색

기념행사위원회의 상설화는 확장된 행사 준비시간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행사 운영에 안정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야제 및 문예행사를 기획·운영하는 문예기획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행사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전야제는 기존에 참여해왔던 지역 내부의 문예단체들로만 행사를 구성해 왔지만, 충분한 시간과 예산이 확보된다면 보다 내실 있는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다양한 문예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풍부하고 신선한 내용의 5월 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사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광주 지역민의 행사로 인식되고 있는 전야제 및 기념행사에서 전국 단위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사위원회는 아직도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상설화되지 못하였지만, 5·18 기념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재단의 지원은 그동안 행사위원회와의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 개선하여 발전된 모습으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자, 5·18기념사업을 이끌어가는 중심단체로서 그 기반을 확고히 하여 내실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재 5·18기념재단은 행사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공간 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행사위원회의 운영인력과 지원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다. 또한 행사위원회의 활동이 갈수록 정치·문화예술·시민운동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행사위원회는 재단과의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서로간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행사위원회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인 성격과 위상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단체의 연대 형성 및 기념행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사 추진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전문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각 단체의 성향 및 지식 기반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단체 및 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특정 단체의 행사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다른 참여 단체의 지향 이념 및 전반적인 기념행사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들 간의 모임을 통해 서로의 활동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연대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고, 기념행사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기념행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통과 협력 활성화

지금까지 기념행사는 행사위원회, 광주시, 5·18기념재단 등으로 분리되어 5월 관련 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기관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행사를 집행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은 기념행사의 지층을 넓히고 참여 층을 다원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행사들 간의 긴밀성을 약화시키고 유사한 성격의 행사들이 중복적으로 편재되어 기념행사의 집중도를 하향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보다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기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여, 기념행사의 개선과 지역문화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18기념재단은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광주광역시, 5·18아카이브 설립 추진위, 전남대, 조선대, 기념행사위원회 등 중앙정부 및 지역 문화기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8거버넌스’를 구축하고, 5·18 기념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재정 확보의 다변화, 사업추진의 전문성,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정책과제 점검 등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워 기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sup>13)</sup>

5·18네트워크 구축은 지역 내 5월 관련 조직 및 추진 인력들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념행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5·18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현재까지 5·18과 관련해 진행되어 온 각종 단체의 사업 및 예술창작 활동들의 성과를 짚어보고 공유하여 5월 문화의 발전을 이끄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5·18관련 학술적·학제적 연구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상해 볼 수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5·18과 관련한 자료를 축적·전시하고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5·18기념재단은 5·18과 관련한 논문 및 소규모 연구회를 지원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연구자와 신진연구자의 상호교류활동을 촉진하여 5월관련 연구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는 1996년 설립된 이후,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오면서 5·18항쟁에 대한 연구논문집, 연구총서, 자료집 및 교재 등을 발간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항쟁의 숭고한 이념을 미래 민주주의 가치로 승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는 ‘5·18아카이브센터’를 통해 5·18기록물을 보관하고 이를 연구 및 청소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여기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들

13) 「5.18 기념재단, 시민 사랑방으로 개방」, 『노컷뉴스』(광주CBS 김형노 기자, 2013년 1월 24일) ; 「5·18기념행사, 보통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뉴스시』(2013년 1월 24).

어서게 될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은 문화적 기억을 유지하고 생성하기 위한 연구 및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교육, 교류, 전시 등의 콘텐츠를 생성·분배하여 문화·예술적 기억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학술단위의 5·18네트워크로 끌어들이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을 연계 운영하면서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공유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축적된 연구 성과와 지식들이 향후 5월의 기억을 유지하고 5월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980년 5·18 당시 광주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유린하는 신군부의 잔학한 탄압과 살상행위가 벌어졌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은 불의한 정권의 폭력에 분연히 맞서 싸웠다. 계엄군에 의해 광주전역이 봉쇄된 상황에서도 주먹밥을 나눠먹고, 부상자에게는 기꺼이 자신의 피를 나누었으며, 치안부재의 상황에서도 강·절도 한 건 없이 민주·정의·사랑으로 하나 된 자치공동체를 일구어냈다.

재단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여러 단체와 연구자들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의 정당성과 역사성을 전파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5·18기록물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가폭력에 맞서 자신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고 민주정부를 세우려는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 속에 기록들을 모았다.

유네스코는 2011년 5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제10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회의를 개최하고, 등재심사소위(RSC)가 각국이 신청한 84건을 두 차례에 걸쳐 심의하여 권고한 59건(권고 55건, 예비권고 4건)의 기록물을 최종 심의하여 등재를 권고했으며, 24일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서명을 거쳐 2011년 5월 25일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발표했다.

### 1) 추진 배경과 민관협의체의 구성

세계기록유산 관련 학자들과 현대사 연구자들은 현대사 기록물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는 논의를 일찍부터 진행했다.

2000년 9월 2일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이 주최했던 제5회 월례발표회에서 허권(당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이 「세계기록유산의 소개 : 메모리 오브 월드사업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이하 5·18)과 6·25전쟁 등 한국현대사에 관련된 자료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했던 김희태(전라남도 문화재 전문위원)도 허권의 발표에 대해 공감하고, 이후 2003년에 목포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을 강의할 때 5·18기록물과 세계기록유산 등재 필요성 등에 대해 강의하기도 했다.

‘(사)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순천협회 이태호 회장도 2009년 2월 18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유네스코 평화센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아태지역 훈련 워크숍」에서 허권 본부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에게 5·18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제안했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의 박만규 소장(역사교육과 교수) 등에게 5·18기록물 등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박 소장은 5·18연구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협의했다.

이후 대학연구자와 5·18관계자들의 1차 정책간담회와, 재단, 광주시 관련부서, 전남도청, 5·18관련자가 함께하는 2차 정책간담회 후 5·18기록물등재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 재단에서는 민관협의체에 조진태(사무처장), 김점옥(자료과장)이 참석했다.

2009년 10월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된 협의회 결과 재단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공동으로 5·18기록물 등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광주시가 참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과 5·18연구소만으론 등재에 필수적인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는 어려웠다.

이때 김영진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유네스코 아태지역 수석 부의장으로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중요성을 인지, 지역인사들의 건의에 공감하고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섬으로써 등재추진은 새로운 기로를 맞았다.

## 2) 추진위 구성

2009년 12월 3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사장으로 김영진(국회의원, 유네스코 아태지역교육의원연맹 부의장), 위원으로 안순일(광주광역시 교육감), 김윤수(전남대 총장), 전호중(조선대 총장), 김혁중(광주대 총장), 윤광장 (5·18기념재단 이사장), 정수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양희승(5·18 구속부상자회장), 신경진(5·18부상자회장), 안성례(5월어머니집 관장)이 각각 선출됐으며 상임고문에는 박광태(광주광역시 시장), 조비오(신부), 강신석(목사), 지선(스님)이 추대되었다. 이날 재단이사장은 “먼저 신경을 쓰고 앞장서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 역사적인 일을 시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적극 지지하면서 준비과정의 로드맵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고 동의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등재추진위 사무국을 마련하는 데 광주광역시의 예산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재단이 홍보영상 제작비, 등재신청서 인쇄비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다.

## 3) 신청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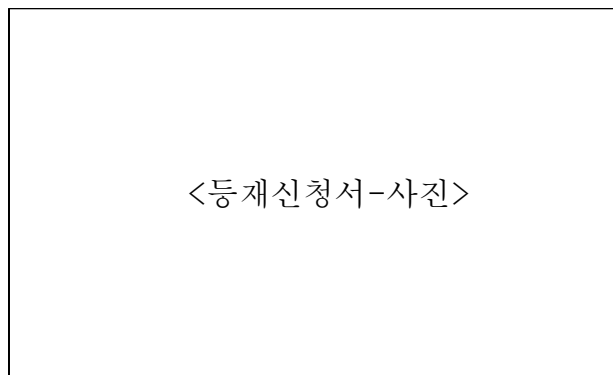
### (1) 실무협의회 구성과 기록물 집결

5·18기록물은 크게 3곳에, 즉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자료실, 재단 자료실 그리고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등에 분산·보관되고 있었다. 그런데 등재를 신청하기 위

해 조사된 기록물들을 한 곳에 모으려면 목록 작성이 선행되어야 했다. 위의 기관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자료를 관리해 오던 터라 이들의 관리방식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목록을 확인하고 정리했다. 실무협의회에는 추진위원회 홍세현 사무처장(안종철 추진단장이 2010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복직되면서 연구위원에서 사무처장으로 보임),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정호문과 최은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동근과 김형주 연구원이 참여했고 재단에서는 김점옥 과장이 함께 했다.

광주광역시가 1995년 초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실」을 설치하고 이후 실무 담당자들이 5·18기록물과 관련 유품 등의 자료를 찾고 수집했던 것이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단초가 되었다.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에 있는 자료들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단의 자료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목록을 만들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실 전시대 옆에 임시로 설치된 자료실의 서가는 그동안 재단이 수집 또는 발간했던 관련 자료들로 채웠다. 이것들은 재단이 설립한 이후 꾸준히 수집했던 소중한 자료들이었다.



<그림 3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 (2) 관련자의 구술증언자료 수집

5·18기록물 가운데 최초의 구술 자료는 1988년 송기숙 교수가 창립한 「현대사자료연구소」(이하 현사련)가 생산한 것들이었다. 현사련은 5·18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500여 명에 대한 구술을 채록해 1990년에 「5·18광주민주화운동사료총서」(풀빛출판사)라는 제목으로 간행했다. 이 총서는 5·18 이후 가장 빠른 시일에 채록된 구술 자료였다. 게다가 방대한 양의 증언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조사했고, 전문 학자들의 검증을 거쳐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했다.

재단,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 등에서도 관련자들의 구술 증언을 채록했던 작업

의 성과물이 있었다. 또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윤공희 대주교를 비롯한 사제들의 5·18 체험담을 1988년에 채록해 『저항과 명상』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이에 관한 녹음테이프가 보존돼 있었다.

광주광역시도 재단을 통해 광주YMCA에 보조금을 지급해 희생자 가족과 부상자 등 시민들의 5·18구술 채록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 일은 ‘광주영상매체연구회’에서 활동했던 김혜선이 주축이 된 「5·18영상기록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이 결과물은 디지털로 변환되어 재단에 CD로 보관돼 있다.

### (3) 재단의 활동

#### ① 광주인권 수상자들의 추천사

재단은 10여 년 전부터 ‘광주인권상’을 제정·수여함으로써 ‘5·18 정신’을 보편적 민주인권정신으로 전 세계에 전파해 왔다. 광주인권상은 2000년 동티모르 독립에 앞장섰던 사나나 구스마오(Xanana Gusmao) 초대 대통령에게 1회 시상한 것을 시작으로, 연금 상태에 있던 버마(미얀마)의 아웅 산 수치(Daw Aung San Suu Kyi) 여사도 2004년에 수상했다. 이들은 수상 소감에서 한결같이 5·18의 영향으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고 민주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2006년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되었던 것은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적인 도시이기 때문이었다. 대회에 참석한 노벨평화상 역대 수상자들은 5·18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민의 희생과 민주주의를 향한 용기를 살펴보았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들의 추천사를 신청서에 수록하기로 판단했다.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의 소감은 당시 재단 김찬호 국제부장이 핵심 내용들만 간추려 영문으로 정리해 주었다.

####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이 전하는 5·18광주

사나나 구스마오 (동티모르 前 대통령, 2000년 수상자)

한국인들과 광주시민들이 식민지배자들에 대항해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현대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벌인 오랜 투쟁의 전통을 잘 알고 있다. 특히 5·18묘지와 더불어 후세들에게 기억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투쟁정신을 돌에 새겨놓은 것을 보고 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광주시민들의 존경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11월 12일은 ‘산타쿠르주 대학살’ 제9주기다. 1980년 광주와 같이 동티모르 학생들도 자유와 정의를 외쳤다. 그리고 광주의 학생들처럼 그들도 군부의 압제에 저항하고 자유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학살당했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산타쿠르즈 대학살은 동티모르의 자유와 평화, 정의

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정 중 전환점이 되었다.

**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위원회 상임대표, 2001년 수상자)**

2001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송구스러움과 함께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저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아시아 인권위원회와 아시아 법률센터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을 기꺼이 수상하고자 한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그 이후의 광주시민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독재를 청산하기 위해 벌여온 투쟁은 나에게 연대의 상징이자 영감의 원천으로 남아 있다. 바로 그 도시가 주는 상이기에 더욱더 의미심장하다. 또한 오늘날 한국이 역사적인 통일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감격스럽게 한다.

**단테니아 자안티 (前 스리랑카 실종자 유족회 사무국장, 2003년 수상자)**

이렇게 훌륭한 광주인권상의 수상과 동시에 이런 영광스런 곳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인권 폭력의 한 희생자로서, 저는 1999년과 2000년 두 번에 걸쳐 이곳 광주에 참석했었다. 저는 광주 정신을 경험했으며, 군사 독재에 대항하여 투쟁해온 광주 시민과, 240여명에 달하는 희생자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광주는 항상 저희 투쟁의 훌륭한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했다.

**원 켓 (2004년 수상자 아웅산 수치 여사 대리인, 민족민주동맹NLD 본부 의장)**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 아닌 시민의 정당한 저항으로 정의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이후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민주정부를 탄생시켰다. 한국 민주화의 주춧돌인 5·18민주화운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는 버마의 평등과 자위를 기반으로 둔 모든 민주주의 연합기구들에게 모범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와르다 하피즈 (인도네시아 도시민민협의회 사무총장, 2005년 수상자)**

1980년 5월 16일 저녁, 광주에 있던 5만 명의 시위 군중들은 자신의 손에 든 횃불에 불을 밝혔으며, 이는 군사독재의 암흑을 걷어내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상징적 행동이었다. 결국 민중의 힘이 승리했으며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광주의 순교자들과 한국 국민의 박애정신과 생명력은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의 인권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25년이 지난 지금 광주의 횃불이 있었기에 광주는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상징일 뿐 아니라, 버마나 인도네시아 아체와 같이 사악한 군사정권의 지배와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곳의 등대가 되고 있다.

**말라라이 조야 (아프가니스탄 前 국회의원, 2006년 공동수상자)**

이 상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방, 민주주의, 정의를 위해 싸운 한국 민중의 빛나는 역사와 저에게 항상 영감의 원천이 되어 온 5·18민주화운동과 연대감이 생기게 해 준다. 이 상은 저에게 광주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한국 민중이 보여준 것과 똑같은 결의와 부동의 의지를 갖고 불운한 우리나라에서 반인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힘을 주고 있다.

민중을 위해, 더 좋고 평화로운 미래를 가져다주기 위해 침략자와 범죄자들에 맞서 용감하게 싸운 5·18 희생자들의 정신을 깨닫게 한다.

**레닌 라구와니쉬 (인도 시민인권감시위원회, 2007년 공동수상자)**

이제 5·18민주화운동으로 목숨을 잃은 선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위대한 감수성,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부활시켜야 한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열망을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 그 때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실현시켜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왔다.

**이름 상하짓 싱 (2007년 공동수상자 이름 샤밀라의 가족, 인도)**

광주인권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전달하자 샤밀라는 “마니푸르 시민들을 대신해 그 상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항쟁에 광주인권상은 큰 힘이 됩니다. 연대와 지지를 보여준 광주와 세계에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 연대와 지지는 정의, 평등, 인권을 위한 투쟁에 새로운 힘이 되리라 믿는다.

**무니르 말리크 (파키스탄 인권변호사, 2008년 수상자)**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가 저를 2008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매우 과분하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지금의 상황에 용감히 맞선 파키스탄의 변호사들이 이 영광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파키스탄의 변호사에게 훨씬 더 영광인 것은 전 세계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1980년 5월 18일 위대한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 파키스탄의 운동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실 파큐렐 (네팔 인권운동가, 2010년 수상자)**

광주의 정신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 영원토록 귀감이 될 것이다. 광주라는 이름은 1980년대에 민주화를 지지하던 젊은이들과 세계 매우 친숙한 이름이며 아직도 우리들에게 큰 영감을 불러 일으켜주고 있다. 세계 있어 이 상은 5·18민주화운동이 이끌어 온 민주화의 길에 다시금 굳건히 설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다.

## ② 미국 선교사 헨틀리 목사의 사진 자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려면 유일본, 원본의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했다. 재단이 보유한 수만 점의 자료 가운데 등재가치가 있는 것이 Betts Huntley(한국명 허철선)가 기증한 사진 95점·필름 297점과 구술자료(744명)였다.

허철선 목사는 미국인으로 본명은 찰스 베츠 헨틀리(Charles Betts Huntley)다. 허철선 목사는 한국에서 1965년부터 5·18 이후인 1984년까지 활동했는데, 5·18 당시에



는 광주기독병원 원목으로 재직했으며 은퇴 후 고국으로 돌아가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다.

허철선 목사는 자신이 촬영한 5·18 사진을 재단에 기증했다. 그 사진 자료 중에는 몽둥이를 든 시민들의 모습, 주인을 잃은 신발들이 금남로 도로에 널려 있는 광경, 광주기독병원으로 후송되는 총상 부상자들의 모습, 총상을 입은 부상자들의 수술 때 적출된 총알 등을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그는 광주기독병원으로 후송되는 환자들을 특히 많이 촬영했다. 사진들 가운데는 외신기자들이 병원을 찾아 부상자들을 취재하는 모습을 담은 것도 있는데, 허 목사가 통역을 했다. 그리고 미국의 NBC, ABC 방송기자들을 자택으로 초청해 광주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차 총장도 허 목사와 동행해 기자들을 5·18 주요 현장들로 안내했다고 한다. 차 총장은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과 기사를 허 목사의 관사에서 정리해 미국으로 송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후 허 목사는 총상 부상자들과 수술 때 나온 실탄 사진을 들고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계엄군이 시민을 학살했음을 증언했다. 또한 당시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로 광주에서 선교활동 중이던 문희석 목사 편으로 필름과 사진을 미국으로 반출해 보존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기관원들에게 필름과 사진을 통째로 빼앗기고 말았다.

### ③ 홍보 영상 제작

홍보 영상물은 유네스코 심사위원들에게 5·18을 잘 인지시키기 위해 제작됐다. 그동안 여러 종류의 5·18 관련 영상물이 제작됐지만, 5·18의 전개와 특성을 포함해 관련 기록물의 보존 상태와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영상물이 필요했다. 또한 향후 5·18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장소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음을 밝힐 필요도 있었다. 이 영상물은 한국어와 영어 2개 언어로 제작되었다. 이를 위해 1989년 5월에 5·18을 다룬 국내 최초의 방송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를 제작했던 오창규 전 광주MBC 프로듀서에게 자문을 받았다.

홍보 영상물에는 다양한 기존의 영상 자료들과 새로 촬영한 영상들이 사용되었다. 먼저 등재신청 대상 기록물을 소개하기 위해 5·18기념문화센터 자료실(수장고), 재단 자료실 그리고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자료실을 촬영했다.

일련의 준비된 자료를 모아 2010년 3월 29일 드디어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 세계기록 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어 4월 6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영령들을 참배하고 역사적인 등재신청서를 봉정했다.

## 4)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1) 기록물 공개

5·18기록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등재 추진과정에서 수집한 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0년 5월 10일, 광주광역시와 전남대학교 그리고 재단 등이 수집·보존해 온 기록물을 5·18기념문화센터에 임시 통합하고,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 과정에서 추가로 수집한 기록물들과 함께 전시했다.

주요 5·18기록물은 당시 시민들이 기록한 일기장들과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낭독했던 성명서, 당시 「동아일보」 김영택 기자의 취재수첩, 「전남매일」 나경택 사진기자가 촬영한 사진필름, 「전남일보」 나의갑 기자가 수집한 신문과 성명서 등이었다. 특히 당시 상황을 왜곡 보도한 신문기사들에 대해 비판적인 코멘트를 남긴 주소연 선생의 일기장은 특히 관심을 끌었다.

### (2) 국가기관 동의서

유네스코 본부는 추진위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수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등재 신청의 주요 해당 기관인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재단이 소장하지 않은 5·18기록물을 등재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육군본부와 국회도서관은 동의서를 보내왔고, 국가기록원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미국 국무성, 국방부 등 문서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서신을 직접 파리 본부로 발송하는 성의를 보였다.

### (3) 유네스코 기록전문가의 방문

2010년 10월 17일 유네스코 심사위원인 R. 아바콘 박사가 광주를 방문했다.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하고 5·18기념문화센터 자료실과 수장고에서 기록물을 검토한 그는 재단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청취한 뒤 전남대학교에서 5·18연구소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세계기록유산프로그램의 역할과 세계유산의 중요성’을 강연했다. 특히 그는 등재대상으로 ‘원본과 유일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4) 등재반대운동과 대응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민협의회’(회장 박창달)라는 단체의 유기남 부회장이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반대하기 위해 파리 본부를 방문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무국 스프링거 담당관을 면담하고, ‘등재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단체의 주장은 ‘북한군을 광주에 파견해 남남갈등 조장해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북한대남공작은 세계기록유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관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한국 내 의견을 통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한국위원회는 ‘5·18은 이미 한국정부와 국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고, 3개의 법률이 제정돼 있다’는 간략한 서신을 보냈다. 추진위는 보수세력의 끈질긴 도전에 굽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인내와 냉정함으로 대처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2011년 5월 23~26일까지 영국 맨체스터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심의하는 국제자문위원회(IAC) 총회가 예정돼있었다. 그런데 5월 11일 보수 측 인사인 서석구변호사가 5·18에 관한 근거 없는 왜곡된 발언한 사실이 크게 보도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5·18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서해로 침투해 광주로 진입했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뒤 북으로 그대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보수인터넷 매체를 통해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즉각 광주광역시가 성명서를 발표했고 여러 단체들도 서석구의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2011년 5월 16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가 5월 18일 기념식 참석차 광주에 오는 것에 맞추어 서한을 준비하여 강운태 시장이 전달하기로 했다. 서한의 내용은 북한 특수부대 600명이 광주에 침투하여 시민을 학살했다는 망언과 시민들이 폭도였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서면으로 유네스코 본부와 추진위에 밝혀달라는 내용이었다. 강운태 시장은 광주공항에서 국립 5·18민주묘지까지 동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이 문서를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5월20일 정부 훈령을 통해 주 유네스코 대사에게 ‘5·18’은 법률적으로 정리되었으며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과 주 영국대사에게 맨체스터 회의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했다.

## (5)등재결정

### ① 등재 발표

로슬린 러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장이 5월 25일 오전 11시에 5·18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권고를 공식 발표했고, 곧바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IAC의 권고에 따라 등재 결정을 최종 발표했다.

5월 28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 브리핑 룸에서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운태 시장은 “오랜 전통과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유네스코가 엄격한 검증을 통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결정한 것은 5·18과 광주정신을 온 세계가 인정한 것” “이것은 5·18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2단계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유네스코의 결정을 존중해 착실히 후속조치를 단행해 나갈 것”이고, “이를 위해 5·18기념재단을 비롯해 5월 단체, 대학, 인권위, 시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강운태 시장이 밝힌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5·18 아카이브」 구축
- △ 2013년 예정인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 광주 유치 추진
- △ 5·18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전기 마련
- △ 「UN/UNESCO 5·18 평화센터」 설치



<그림 36>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인증서

## ② 금남로 시민보고회 및 인증서 전달식

등재추진위원들은 200년 5월 2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오월영령들에게 5·18이 민주화운동으로서 유네스코에서 인정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 오후에는 도청 앞 금남로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음을 알리는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이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유네스코 본부의 데이비슨 헵번 총회 의장과 조이 스프링거 세계기록유산 담당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증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정의화 국회부의장,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강운태 광주시장, 김영진 5·18아카이브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관련 유공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되었고 김점옥 재단 담당에게도 공로

패가 수여됐다.

### ③ 등재 이후 유네스코 등재가치 부정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이후 이 사건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였다. 5·18의 최고 책임자이며 신군부의 핵심 인물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광주 5·18의 진범은 유언비어’라고 하였다. 또 국가보훈처는 12·12군사반란에 가담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 실장을 지낸 안현태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하였다.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신청 과정에서 ‘광주학살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했던 전례를 돌아보면, 일련의 사태는 쿠데타 세력의 역사 왜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2011년 8월 22일 아카이브 이사회에서 김영진 추진위원장과 강운태 시장, 김준태 재단 이사장 등 추진위원들은 그날 오후 광주광역시청 기자실에서 아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군사쿠데타 세력의 역사왜곡을 규탄한다.**

- 노태우 씨 망언 사과하고 안현태 씨 국립묘지 안장 철회하라 -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을 통해 “광주 5·18의 진범은 유언비어”라는 망언을 하고, 정부는 5공 비리 핵심인사인 안현태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등 군사쿠데타 세력의 역사 왜곡이 노골화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5·18 유혈진압의 주범으로서 평생을 감옥에서 반성문과 참회록을 써도 모자랄 판에 책임회피와 변명을 넘어 진실을 호도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노 씨의 망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5·18 유혈진압은 5·17비상계엄확대 등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정권탈취음모의 일환이었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다. 특히 이들 5·18기록물들은 지난 5월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5·18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세계민주화운동의 교과서이자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하는 노 씨의 망언은 반역사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최근 보훈처가 12·12군사반란에 가담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신군부 핵심인사로서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미 사법적 단죄를 받은 인사를 민주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 기습 안장한 것이다.

안 씨의 국립묘지 안장은 앞으로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신군부 인사들과 각종 비리장성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게 이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망언과 안현태 씨의 국립묘지 안장은 결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미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신청과정에서 ‘광주학살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소행’이라는 주장마저 버젓이 나왔던 사실을 돌아보면 이들이 그 배후일 것임은 자명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노태우 씨의 언행을 집중 주목할 것이며 합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 광주시민과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를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한 죄로 고소하고, 자서전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저지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 안 씨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는 인사를 서면심사라는 명목으로 국립묘지에 불법 안장한 데 대해 안장무효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상회복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군사쿠데타세력의 후안무치하고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5·18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훼손하는 노 씨의 발언과 안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8월 22일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 ④ 유네스코 인권평화상 추진 논의

유네스코 등재이후 강운태 광주시장이 공식 표명한 유네스코 평화센터 및 인권평화상 제정과 관련하여 재단 측과 논의가 진행되었다. 문제는 기존 광주인권상을 두고 인권평화상을 따로 제정하느냐는 것이었다.

2011년 8월 22일 등재추진위원회 이사회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오는 9월 5일 유네스코 헵번의장으로부터 인증서를 전달받을 때 어느 정도 협의해서 얘기가 오가야한다, 인권상과 평화상을 구분하지 말고 유네스코와 재단이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준태 재단이사장은 광주인권상은 올해로 10년째 진행 중이며, 국제평화상 제정 건은 좀 더 논의를 거친 후 추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아카이브후속조치를 위한 LF회의에 ‘(가칭)유네스코 5·18인권평화상’ 안건이 상정됐으나, 재단이 여러 단체들이 추진했던 상들을 통합해 10년 동안 광주인권상을 수여해왔으므로, LF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참석자들도 동의해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 ⑤ 등재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1주년을 맞은 2012년 5월 24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는 5·18기록물 등재심사를 담당했던 2명의 위원을 초청한 가운데 국제학술회의를 가졌다. 학술회의에 앞서 소장하던 일기장, 성명서, 취재수첩 등을 기증해준 개인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다음은 회의에서 발표된 발제문의 일부이다.

**로슬린 러셀(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장)**

각각의 등재물에는 감동적이고 강력한 이야기가 담겨있으며, 모두 현세대와 미래의 자손들에게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압제 정권하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나 인권유린 그리고 모든 형태의 압박에 항거하여 자유를 얻고 민주체제를 확립한 용기와 투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야 하고 보존되어야 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기록들을 성공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도시들 즉 광주에 그러한 기록들을 아직도 보존할 수 없는 도시나 국가들에게 한 예가 될 것입니다. 광주 같은 도시는 인권과 민주주의 기록들을 MOW에 등재 하려는 도시나 국가들에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자야 아바쿰(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심사소위원)**

1980년 인권운동 기록유산에 소중한 간직된 광주의 경험은 20세기 후반 세계 여러 나라가 직면했던 비슷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인류가 장차 직면할 수도 있는 도전과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방법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비슷한 트라우마를 가진 경험을 공유하자는 발상은 커다란 진전일 것입니다. 이 경험의 공유를 통해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그럼으로써 개인의 권리, 사회적 책임, 선한 통치, 정의 등의 개념이 공공의 관심사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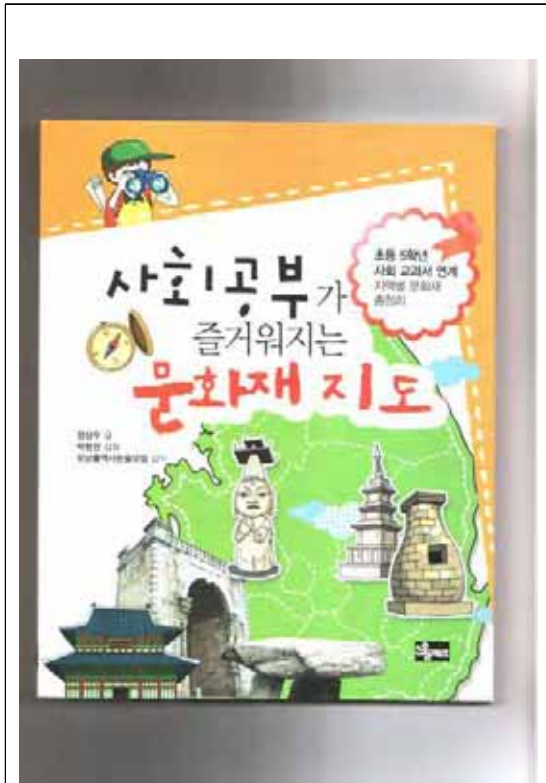
## 5) 세계기록유산 등재 의의

### (1) 달라진 사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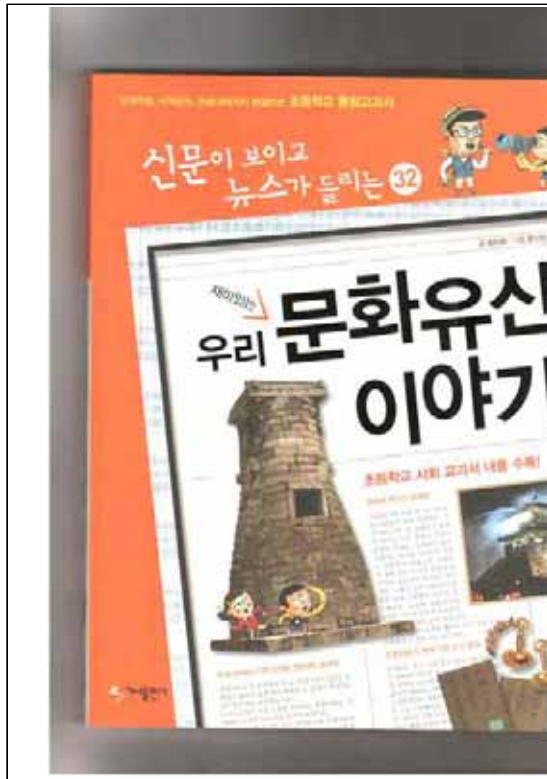
5·18과 기록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은 다양하게 확인된다. 2013년 현재 대다수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5·18과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관련 내용이 게재됐다. 주요 7개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5·18기록물 등재를 계기로 삼아 광주광역시와 「새 역사교과서 5·18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위한 광주지역 범시민사회단체」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 할 수 있다. 5·18과 5·18기록물 등재 사실을 담은 도서들도 출판되었다. 어린이 책 전문 출판사 (주)가나출판사에서는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우리 문화유산이야기』를, (주)소울키즈출판사에서는 『사회공부가 즐거워지는 문화재 지도』를 2012년 말에 출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5·18과 5·18기록물의 등재 및 등재기록

물의 내용을 알리는 11분 분량의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 영상물은 176개 해외 공관 및 문화원에 배포됐으며,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에 중국어·일어·영어·스페인어 등 10개국 언어로 번역된 영상이 게시되었다. 또한 문화재청의 일반인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에는 「세계의 기록유산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란 제목의 영상물이 서비스되고 있다.



<그림 37>문화재 지도



<그림 38>우리 문화유산 이야기

## (2) 전국화·국내사적 의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불의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권리를 짓밟을 때,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이며 반인권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었다.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는 이를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이며, 5·18민주화운동에서 나타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 평화의 정신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

5·18의 역사성과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담고 있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으로 등재되어, 동아시아의 작은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의 폭압에 대항한 시민들의 분노, 눈물 그리고 용기 등이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며, 이를 계기로 세계인들은 인권·민주주의·법치 등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가치들을 가슴에 새기고 정의를 지향하는 인권 교육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세계의 학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전환기의 정의’라는 과거 청산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말한다. 남미나 남아공 등지에서도 발생한 국가폭력과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과거 청산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광주에서처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 회복’, ‘피해 보상’, ‘기념사업’의 5대 원칙이 모두 관철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 (3) 세계화. 세계사적 의의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가 밝힌 등재사유는 다음과 같다.

*5·18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동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냉전구조가 종식되는 데 기여했다. 1980년대 이후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여러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5·18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전환점으로 널리 인정된다.*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는 5·18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에 널리 기여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연관성을 명시되고 있는 점은 향후 광주가 아시아의 인권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①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침해사태의 배상 모델

1980년 대한민국의 5·18민주화운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독재자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불처벌(impunity)의 전통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시민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 회복’, ‘피해 보상’, ‘기념사업’이라는 5대 원칙을 수립하였음.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5·18 특별법)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5·18유공자법)과 피해보상(광주민주화운동피해자보상법)을 법적·제도적으로 이루어냈고 5·18국립묘지, 5·18기념문화관 등의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이행기 정의라는 관점에서도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침해 사례와 배상규정을 만드는데 선례와 모델이 되었다. 1996년 8월 테오 반 보벤은 유엔에 제출한 특별 보고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사례의 배상 형태로,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배상, 사실규명과 진실의 공개, 책임의 공개적 인정, 책임자 처벌, 희생자 및 친척 또는 증인들의 보호, 기념과 애도의 표시, 희생자 지원기구 설립, 재발 방지조치 등을 규정하였다. <1992년 테오 반 보벤(Theo van Boven) 특별 보고서>.

또 1996년 8월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루이 주아네 씨의 불처벌 관련 최종 보고서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5부로 구성된 '일련의 원칙'들은 희생자의 기본권인 알 권리,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 원상회복에 관한 권리 등을 골격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민주화운동의 발발과 진압, 그리고 이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 등의 과정을 생생히 담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들은 그 내용 뿐만 아니라 자료 자체의 다양성과 포괄성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18 기록물 중에는 1차 사료 중에서도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당시 현장을 직접 보여 주는 영상 필름들이 보존되어 있다(필리핀의 음성 테이프와 비교). 또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사형선고 했던 재판문서인 판결문이 보존되어 있고(남아공의 '만델라 형사재판문서'와 비교), 각종 인권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조사·기록한 인권 침해와 인권 탄압에 대한 각종 사례 등(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의 '인권 문서'와 비교), 그 종류와 내용이 매우 풍부하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동시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세밀하게 보여주는 자료들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우정과 연대의 교과서로서 에너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이러한 역할은 한층 증대될 것이며 보다 활발한 시너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4) 동아시아의 민주화에 영향

1980년 5·18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에 큰 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2차대전 이후 아시아 지역의 신생 독립국들은 내전과 군사 쿠데타 등이 빈발하여 군부가 중심이 되어 개발 독재형 성장을 하는 나라들이었다. 이러한 개발독재의 이면에는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약자에 대한 차별, 인권유린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

하고 있었다.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는 필리핀(1986), 대만(1987), 태국(1988, 1991), 인도네시아(1998), 미얀마(1988), 중국(1989, 천안문사태) 등지에서 독재정권에 대항한 다양한 민주화운동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배경에는 아시아지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었던 1980년 광주5·18민주화운동의 선례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 (5) 후속조치

아카이브(기록관)설치는 유네스코본부와의 약속사항이었다. 당초 등재추진위원회는 유네스코에 수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광주가톨릭센터 건물지하를 포함한 4개 층에 아카이브를 설치하는 안을 담아 제출했다. 등재 확정후 이 계획은 광주가톨릭센터 모든 층(지하 1층, 지상 7층)을 전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표 120> 아카이브 설치계획

- 사업개요 ○ 위치: 동구 금남로 221(구 가톨릭센터)
- 사업기간: 2012.1~ 2014. 04.
- 사업비 : 297억(국비 162, 시비 135)
  - 건물 및 토지매입비 135, 건축공사 84, 전시설치 61. 설계 감리 10, 장비구입 7
- 사업규모 :연면적 5,847㎡, 지하 1~지상 7층
  - 가톨릭센터 구조 변경 및 전시시설 설치(수장고, 전시관, 열람실, 교육실, 시민마당 등)
- 사업내용
  - 5·18관련 자료(35,000여점)와 유물(281점) 등 보관·전시를 위한 건물 구조 변경, 전시콘텐츠 및 기록물 DB구축 사업 등
  - 정부, 전남도청, 광주시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 생산 자료, 각종 성명서, 선언문, 병원 치료기록, 진상조사 회의록 및 보상자료, 사진·영상 자료 등

## VI. 재단의 비전과 전망

### 1. 기념재단 설립의 의의

5·18기념재단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던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민족의 통일과 인류의 평화를 실현하는데 헌신하고자 5·18 관련 참여자 및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일부와 국민성금을 모아 1994년 8월 30일에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기념재단 설립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념재단의 설립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올바른 정립, 그리고 이를 통한 정신계승 주체들의 올바른 시민공동체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5·18민중항쟁의 주체는 광주시민, 나아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 모두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마땅히 국민 모두의 몫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5·18기념재단은 1980년 5월항쟁 과정에서 보여 준 시민공동체 정신이 자치공동체의 역동성 있는 힘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그 의미와 정신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각성시킴으로써 시민, 사회, 민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5·18민주화운동을 인권과 평화운동으로 그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5·18정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장시킬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의가 있다. 5·18민중항쟁의 가치는 이미 광주를 넘어 제3세계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 및 평화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기념재단의 설립은 5·18정신을 인권과 평화 등으로 확장하고 이를 위해 국내·외적인 연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임무를 맡게 되었다.

셋째, 재단의 설립을 통해 5·18관련 피해자들의 복지 증진과 5·18정신계승 주체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추진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통한 민주화의 실현 과정에서 5·18 피해당사자들이 보여 준 헌신적인 투쟁을 우리 모두는 결코 잊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함께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국가와 지방자치정부를 통해 이들의 복지를 정책적으로 이끌어내고, 이들이 투쟁의 고통에 상응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 회복에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재활의 희망과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5·18기념재단이 서서 5·18정신을 올바르게 계승·발전시킬 주체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넷째, 기념재단은 청소년 교육 사업을 통한 5·18 정신의 미래 가치 정립을 위한 역할을 위임받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의 과거이자 현

재이며,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오늘의 민주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하게 된 5·18의 역사적 의미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작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민족의 미래를 예비하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교육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념재단은 청소년의 문화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사업의 확대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이 과거 역사의 화석으로 교과서에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지역의 발전적 미래의 가치로 생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 2. 기념재단의 비전과 전망

기념재단은 지난 20년 동안 많은 사업을 펼쳤고 상당한 결실도 얻었다. 그러나 국내의 좋지 않은 정치상황 등으로 기념재단의 앞날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20주년 이후의 재단의 비전과 전망은 재단이 지금까지 이룩해 온 성과의 확대와 심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의 측면에서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재단이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서 ‘생활 속에서의 5·18’ 구현을 고민해야 한다. 5·18민주항쟁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대상화시키고 이를 기념하는 방식의 사업은 5·18 정신과 시민을 괴리시킬 위험이 있고, 재단 역시 이런 방식의 사업 속에서는 사업 실행 주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 ‘나눔과 참여의 공동체’ 정신이 5·18 정신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이를 시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향후 재단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둘째, 5·18의 상징성을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5·18민주항쟁은 희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가져왔지만, 그 이미지는 아픔과 고통으로 아로새겨져 왔다. 5·18 정신은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승리한 역사,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역사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 재단 설립 초기부터 견지해왔던 5·18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다. 5·18 정신과 가치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대가 지날수록 5·18에 대한 기억도 흐려지고 있다. 하지만 5·18민주항쟁과 5·18 정신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것의 정수를 확인하고 발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를 구성해 갈 원리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국화와 세계화는 재단이 앞으로도 간단없이 추구해야 할 사업 방향이다.

넷째, 이미 재단이 설립된 지 20년, 그리고 5·18민주항쟁이 발생한지 34년에 이르고 있어 세대 간 차이와 이질화가 심화되고, 새로운 세대에 대한 교육과 5·18 정신의 공유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재단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젊

어지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사회 변화와 신세대의 감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여기에 5·18 정신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노력을 통해 세대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5·18 정신을 굳건히 유지하는 중심으로서 위상을 유지해가야 한다.

이러한 재단의 새로운 방향성 하에서 각 사업별로 요구되고 또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과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조직 및 기념사업 분야

조직 및 기념사업 분야에서는 우선 다음 몇 가지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1994년 설립 당시의 현안을 오늘날의 가치로 구현하는 학문적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접근할 수 있는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5·18의 가치와 이념을 대중적이고 구체적으로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지역조직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하여 전국적인 사업조직의 구성과 그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기념재단의 5·18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실히 하고, 그에 따른 재단의 전문성과 그 역량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직영사업의 수를 줄이고 지원·연대 사업을 확대해야 하지만, 성과성취가 가능하도록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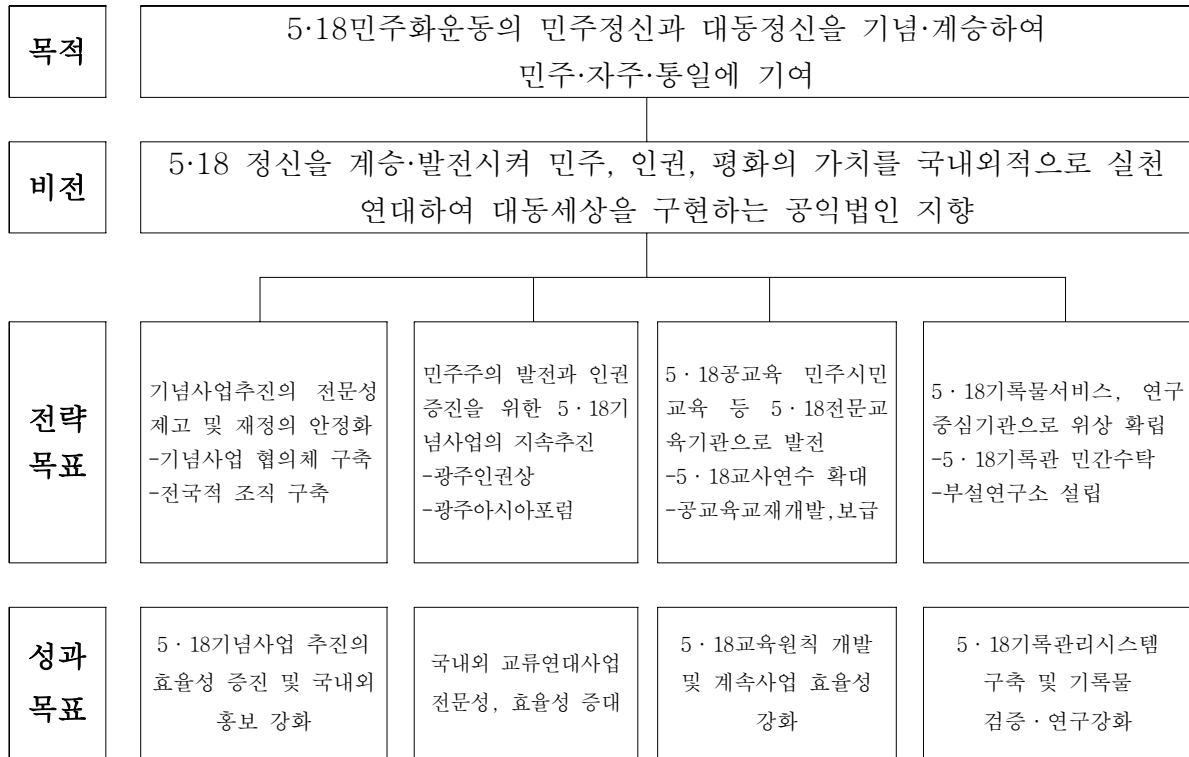
넷째, 5월 행사의 경우 상설 준비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 협의체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현행 이사회와 이사장의 역할을 공감할 수 있게 정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단의 역량 증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그리고 5·18 관련단체 사이 상호 존중과 소통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분야별 이사는 5·18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5·18기념재단은 민중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사장 선출에 있어서도 제도적 보완방법을 강구하는 동시에, 선출과정에서 선출권을 가진 5·18관련단체, 전국 시민 단체, 국민의 요구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합의의 원칙과 그 원칙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재정의 경우 기금 확충을 위해 현 후원회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과 새로운 국민기금 마련 방법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과는 별도로 기념재단 자체의 재정 마련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중·장기 사업계획의 방향성을 담은 <5·18 기념사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기념재단의 목표 체계를 도식화 한 것이다.

## 5·18기념재단 목표체계



<그림 39> 5·18기념재단 목표체계

### 2) 교류연대 사업 분야

기념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켜 온 5·18기념재단의 지난 성과를 기반으로, 5·18정신을 현재화하고, 전국화·세계화로 가는 미래지향적인 교류연대 사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시도한 다양한 형태의 교류연대 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축적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5·18정신이 세계화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만이 아닌 전 세계로 5·18정신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재단의 사업적 성과를 교류연대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된 풀뿌리 교류연대 사업을 전개해 나갈 때 교류연대사업의 새로운 질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단체와의 교류네트워크는 신뢰에 기반 한 연속사업이라는 점에서 교류연대의 지속성을 보장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늘 새로운 교류단체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명망과 신뢰성이 있는 단체와의 교류연대 사업을 전개한다면 재단의 국제적 위

상을 제고시켜 갈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단체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교류협력단체에 대한 파견과 교육을 실시해 교류연대 전문가를 육성해 가야 한다.

한편 5·18인재육성사업에 있어 인재 발굴의 다양화와 육성프로그램의 체계화도 절실하다. 5·18정신의 현재화와 재단의 미래를 담보하는 5·18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자원 활동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로의 인재 발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제인턴 파견사업의 경우 파견지역을 다변화하여 다양한 지역에 네트워크의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교류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턴도 전국적 비율을 고려해 선발한다면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 교류네트워크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3) 교육문화사업 분야

먼저 기념재단의 교육 사업은 공교육과 달리, 교육의 목표와 대상 및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못한 5·18항쟁이나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교육한다는 것은 그 성격상 매우 실험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설립 초기부터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강조해 온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재단의 교육 사업은 청소년 및 시민 교육에 5·18민주항쟁의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며, 자라나는 세대들과 건전한 시민 형성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 온 과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재단의 교육 사업은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또 일상적으로 실행되는 안정적 사업들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재단의 교육 사업이 구조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아 재단이 모색해야 할 교육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계속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함과 아울러 그것의 외연을 가능한 한 넓혀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 및 시민 교육 사업이 광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를 보다 넓히고 전국화, 세계화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사업 내용에 대한 모색이 있어야 한다. 재단의 주된 교육 사업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 대상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미래 세대의 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시민들의 재교육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새로운 세대의 출현으로 교육환경이 나날이 바뀌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도 혁신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문화 사업은 5·18의 정신을 문화적, 예술적으로 재현하고 승화시키는 작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재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일찍부터 문화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그것은 상당 부분 교육사업의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비록 사업을 지속하면서 문화사업의 독자성이 성장하고 문화행사나 사업이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문화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속하면서, 전시나 공연 등의 사업을 독자적 사업 영역으로 확보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과 보다 밀착한 문화적 행사나 실천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단의 문화 사업은 5·18 행사를 축제적인 것으로 만드는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그렇기는 하지만 재단의 문화 사업은 일회성 축제가 아닌,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과의 접촉을 넓히고, 작지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 기획과 실천들을 통해 대중이 5·18 정신을 생활 속에서 문화의 형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4) 진실조사사업 분야

진실은 기록에서 나온다고 할 때, 기념재단의 진실조사사업은 기록이라는 중요한 도구·재료를 통해 5·18정신을 계승·지속시켜나가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재단은 초기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노력을 다해왔다. 10년째를 맞는 학술연구 사업은 해가 갈수록 5·18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이념적 연구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20주년을 맞은 기념재단의 기록물 관리 사업은 기록의 지속적·안정적·체계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진실조사 업무의 핵심인 기록물 관리는 전문 업무 영역인 만큼 그에 상응한 능통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장기 기록물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구축했던 사료 관리시스템이나 DB구축사업이 단절 없이 새로운 시스템개발로 이어짐으로써 예산과 인력 등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기록물 관리 업무가 갖는 중요성을 재단 차원에서 공유하고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인력 배치나 예산 투입을 시행하는 등 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넷째,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5·18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만큼 재단내부의 역할분담, 5·18기록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록물의 활용 및 연구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기념재단의 학술연구 사업은 많은 연구 성과를 냈다. 기념재단은 그동안 젊은 연구자들을 다수 배출했고, 연구 결과물들을 책으로 엮어 연구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정치·사

회학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 일부 교수들은 제자들에게 저술을 독려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5·18학술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5·18담론을 생성·확장하기 위해서는 5·18이 젊은 연구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야 한다. 이를 위한 교두보의 역할이자 5·18정신의 학문적·문화적 연구를 다변화·전문화하기 위한 부설연구소 설립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 역사를 기록한다는 관점에서 구술채록사업과 함께 『정사 5·18』을 완결하는 작업에 재단이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 부 록

## <부록 1>

### 5·18기념재단 창립선언문

광주가 다시 섰습니다.

5월이 다시 섰습니다.

위대한 항쟁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켜 조국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5·18기념재단」이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항쟁정신의 기념과 계승에 비해 게을렀던 대동정신의 기념과 계승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5·18기념재단」이 어려운 준비과정을 거쳐 마침내 창립되었습니다.

5월은 명예가 아니고 명예이며, 채권도 이권도 아니고 채무이고, 희생이고, 봉사입니다. 5월은 광주의 것도 구속자·부상자·유가족의 것도 아니고 조국의 것이고 전체 시민과 민족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또한 5월이 광주의 5월로 올바르게 서야 진정한 전국화·세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각계의 시민들과 5월 민중항쟁관련 구속자·부상자·유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항쟁진상 조사사업, 기념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문화사업, 홍보·출판사업, 자선·복지사업, 5월 정신 실천자들에 대한 시상사업을 해나갈 「5·18기념재단」을 마침내 창립하였습니다.

광주가 다시 섰습니다.

5월이 다시 섰습니다.

구속자·부상자·유가족들이 5월을 더럽히고 가신 임들을 욕되게 하고 광주를 부끄럽게 하고 시민들을 분노케 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80년 5월의 정신과 자세로 되돌아갈 것을 다짐하며 가신 임들과 7천만 겨레 앞에 옷깃을 여미고 섰습니다. 시민들 앞에 고개 숙이고 나란히 섰습니다.

「5·18기념재단」이 창립되었습니다.

가신 임들이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1994년 8월 30일

## 5·18기념재단 설립취지서

### 설립 취지서.

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했던 민주화운동은 광주 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민주화운동은 유신이후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국민들의 가슴속에 용기와 신념을 불어 넣었으며 오랜 기다림 끝에 탄생한 문민 정부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5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80년 5월의 위대한 민주 정신과 숭고한 대동 정신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재단법인 5.18기념재단을 창립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세월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하나되는 광주 5월을 탄생시키게 한 산고였으며 전통이었습니다. 5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가신님들에 대한 부끄러움 속에서 다음과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 1) 80년 5월의 민주 정신과 자세로 돌아 가자.
- 2) 5월의 민주 정신 계승 사업을 위해 보상금 중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하여 5.18기념재단을 설립하자.

이와 같은 다짐은 93년 12월 1차 발기인 대회를 거쳐 1994년 8월30일 마침내 창립 총회를 가짐으로서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5월은 명예가 아니고 명예이며, 체권도 이권도 아니고 채무이고, 희생이고 봉사입니다. 또한 5월이 광주의 5월로 올라서야 진정한 전국화,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각계의 시민들과 5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추모 및 기념사업, 장학 사업, 학술·연구·문화 사업, 지역개발 사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발기인 일동은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속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건설하고자 이와 같은 비영리 재단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5.18기념재단은 그 어떠한 정치적 외풍과 압력도 이겨  
나 갈 것이며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정신과 숭고한 대동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할 것을 천명합니다.

1994년 8 월 30일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발기인 대표 조철현(인)



<부록 3>

5·18 기념재단 주요인사 연혁

1. 역대 이사장

	성 함	임 기	비 고
초대	조비오	1994.08.30. ~ 1996.08	2년
2대	이기홍	1996.11.22. ~ 1999.07	3년
3대	김동원	1999.07.22. ~ 2000.10.28	1년 4개월(사퇴)
4대	윤영규	2000.10.29. ~ 2001.09.28	11개월
5대	이광우	2001.09.29. ~ 2002.12	1년 3개월
6대	강신석	2003.01.21. ~ 2004.03	1년 2개월
7대	박석무	2004.03.23. ~ 2006.08	2년 5개월
8대	이홍길	2006.08.22. ~ 2008.04	1년 8개월(사퇴)
9대	윤광장	- 2008.04.16. ~ 2008.12 - 2009.05.16. ~ 2010.12	- 8개월(보선, 08년 임기만료) - 1년 7개월
10대	김준태	2011.01.25. ~ 2013.01.24	2년
11대	오재일	2013.01.25. ~ 현재	

2. 역대 상임이사

	성 함	임 기
1대	윤강욱	1994. 08. ~ 1995. 11
2대	정구선	1995. 11. ~ 1996. 10
3대	이강	1996. 11. ~ 1997. 12
4대	정수만	1997. 12. ~ 2000. 09. 31
5대	정용화	2001. 09. ~ 2002. 07. 13
6대	차명석	2002. 08. ~ 2011. 02
7대	송선태	2011. 02. ~ 현재

### 3. 역대 이사진 및 감사

임 기	이사진	감사
1994. 08 ~ 1996. 08	조비오, 윤광옥, 정구선, 김기삼, 김동원, 김원옥, 김재언, 김태홍, 김현장, 김희택, 명노근, 문병란, 박영순, 송희성, 오동섭, 오수성, 위인백, 윤영규, 윤장현, 은태환, 이기홍, 이관택, 이성전, 이행기, 장두석, 정동년, 정태영, 정향자, 조영복, 지선, 차명석	윤광장 고권석
1996. 08 ~ 1999. 07	이기홍, 이강, 정수만, 강신석, 김기삼, 김동원, 김수남, 명노근, 문병란, 박행순, 송선태, 양강섭, 양인화, 오수성, 오재일, 위성삼, 윤강옥, 윤영규, 이경희, 이광우, 이성길, 이성전, 장두석, 김재언, 박영순, 심인식, 이행기, 정동년, 정태영, 반상진, 안홍순	윤광장 선홍규
1999. 07 ~ 2001. 07	김동원, 윤영규, 정수만, 강창일, 기현호, 김용채, 박옥재, 박정기, 배다지, 안병옥, 오주, 오재일, 이무현, 정동년, 허기하	송정민 선홍규
2001. 09 ~ 2002. 12	이광우, 정용화, 강창일, 반명환, 박경린, 최성호, 배다지, 박정기, 임영호, 박진도, 정재희, 정수만, 김운주, 이광철, 은우근	이성길 선홍규
2003. 01 ~ 2004. 12	강신석, 차명석, 고희범, 정현애, 김성중, 박인환, 신종권, 조찬배, 정웅태, 백수인, 김후식, 정수만, 송선태, 이광철, 고희성	이성길 선홍규
2005. 01 ~ 2006. 12	박석무, 차명석, 강민조, 김창남, 이양현, 은우근, 정수만, 김후식, 김난수, 김성중, 이건영, 이규배, 이중호, 최영호	이성길 선홍규
2007년	이홍길, 차명석, 김후식, 박구용, 이승정, 정수만, 차명석, 이규배, 최영호, 진선기, 김성중, 김창남, 이중호, 김난수	이성길 선홍규
2008년	이홍길, 윤광장, 차명석, 이은주, 진선기, 임낙평, 김창남, 정채웅, 김상봉, 신경진, 김형태, 이승정, 정수만	이성길 선홍규
2009년	윤광장, 차명석, 이명자, 이승정, 신경진, 이경희, 나명관, 양희승, 문국주, 김상봉, 김창남, 이은주, 임낙평, 정채웅	정병민 정철용
2010년	윤광장, 차명석, 유초하, 송대수, 박찬식, 김강렬, 정채웅, 정수만, 이승정, 신경진, 이경희, 나명관, 양희승, 문국주	정병민 정철용



2011년	김준태, 송선대, 문국주, 이승정, 신경진, 정해직, 양인화, 유초하, 송대수, 박찬식, 김강렬, 정채웅, 정수만, 양희승	정병민 정철웅
2012년	김준태, 송선대, 정수만, 유초하, 송대수, 김창후, 김강렬, 정채웅, 양희승, 문국주, 이승정, 신경진, 정해직, 양인화	정병민 정철웅
2013년	오재일, 송선대, 김강렬, 김창후, 김거성, 송대수, 신경진, 양인화, 양희승, 유초하, 이승정, 정수만, 정채웅, 정해직, 이영선	정병민 정철웅

#### 4. 역대 사무처장

	성 합	임 기
1대	차명석	1994.8~1997.12
2대	이성길	1998.9~2000.12
3대	정용화	2001.1~2001.9
	허연식	2001.9~2002.5
4대	조진태	2002.8~2011.9
5대	김찬호	2011.10~2013.12

5. 창립발기인 명단(창립총회 회의록 기준)

일시: 1994년 8월 30일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성명	약력	비고
1	조철현(비오)	봉선동 성당 주임신부	이사장
2	고권석	공인회계사	감사
3	김동원	전남대학교 교수	이사
4	김두전		
5	김양래	상원건설 부사장	
6	김영휴	기독교 병원 임상병리과장	
7	김우곤		
8	김병선		
9	김정명		
10	김이중		
11	김재언	5·18교도소생존자동지회 회장	
12	김정호		
13	김태홍	전)한겨레신문 이사	이사
14	김현채		
15	김형태	서울지하철공사	
16	노희관	전남대학교 교수	
17	명노근	전남대학교 교수	이사
18	문승훈	영재학원 강사	
19	박동철		
20	박래풍		
21	박병성	학원 원장	
22	박영순	5·18광주의거부상자회 회장	
23	박찬수		
24	박행순		
25	박효선	극단 토박이 대표	
26	선만호		
27	송기홍		
28	송선태	국회의원 보좌관	
29	송희성	광주·전남여성회 회장	
30	신봉섭		
31	신종권		
32	양강섭	국회의원 보좌관	
33	염동유		
34	오기철		

35	위경종		
36	위인백	5·18민중항쟁동지회 회장	
37	유재도		
38	윤기현		
39	윤강옥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사
40	윤광장	광주농업고등학교 교사	
41	윤순호		
42	윤영규	전)전교조위원장	이사
43	윤장현	중앙안과 원장	이사
44	윤재근		
45	은우근	광주대학교 교수	
46	은태환	광주대학교 상임이사	
47	이강희		
48	이관택	5·18민중항쟁동지회 사무국장	
49	이기홍	변호사	이사
50	이방균		
51	이방기	전남대학교 법대 교수	
52	이민오		
53	이성길	80년 전남대 법대 학생회장	
54	이성전	5·18민중항쟁동지회 부회장	
55	이행기	5·18민주기사동지회 회장	
56	이홍식	정당인	
57	임종일		
58	정구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사
59	정동년	오민련 상임의장	이사
60	정두진		
61	정봉희		
62	정상용	국회의원	
63	정을진		
64	정향자	카톨릭노동상담소 간사	
65	조영록		
66	조영복	5·18광주민중항쟁부상자동지회 회장	
67	차명석	5·18민중항쟁동지회 부회장	사무처장
68	천영진		
69	최석훈		
70	최양근	통일원	
71	하덕열		
72	최운용	정당인	
73	최형술(지선)	백양사 주지	

74	한국재		
75	한정만	사업	
76	홍희운	소설가	
77	홍성담	화가	



## 제2대 이사장



성명  
생년월일  
임기

이기홍(李基洪)  
1933. 10. 01.  
1996. 11. 22. ~ 1999. 07

5·18기념재단 2대 이사장 *P. 17*  
李基洪 변호사



『재단 사장을 맡아 어깨가 여간 무  
구성원들 겁지 않다』고 소감을 밝힌  
간의 내 뒤 『재단을 이루고 있는 5·18  
적인 의 사 통합 96  
과정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데 최선 23  
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5·18기념  
재단 이사회에서 제2대 이  
사장으로 선임된 李基洪 변호  
사(64)는 『어려운 시기에 이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李新임이사장은 『여러 단  
체가 모여 재단을 이루다보

니 그동안 다소간의 문제들  
도 있었다』면서 『기념사업등  
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단체들의 특수성도  
살리고 그들의 목소리도 수  
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기념사업추진등서 단체입장 수렴

구성원 의견 조정·통합역할 최선

李이사장은 또 『기념재단  
이 제기능을 다하고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5·18단체  
는 물론 시민 모두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金玉璽 기자>

<1996. 11. 23. 광주일보 기사>

## 취 임 사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먼저 어려운 시기에 재단의 설립에 동참하여 5·18의 진상규명과 5·18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신 회원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7년도 후원회의 결성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본 재단의 이사장을 맡은 지도어연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의 기간동안 정권이 교체되었고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5·18묘지가 완공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재단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4억원 정도의 재산이었으나, 80년 당시 국민성금 52억원이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되었고 광주광역시에서 10억5천만을 출연받아 현재 66억5천여만원의 재산을 확보하게 되어 재단의 기틀을 잡고자 했던 취임 당시의 의지가 여러분의 협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설립 당시부터 존재해왔던 불협화음이 불식되어 5·18 관련 모든 단체의 대표가 재단에 참여하게 되고 내부적인 의견의 통합과 대외적인 공신력이 확보되어 작년부턴 재단이 주축이 되어 5·18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는 등 재단을 중심으로 모든 5·18 가족이 뭉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5·18기념재단이 앞장서고 5·18을 대표하여 5·18정신을 계승하는 사업과 피해자의 권익 신장, 그리고 아직도 미진한 5·18의 진실 규명, 국가유공자 예우 및 국립묘지 승격 등 5·18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재단 창립의 주역이신 회원 동지 여러분!

재단이 명실상부한 5·18의 핵심기구로,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단에 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 10. 30. 기념재단 인사말 중에서

5·18기념재단 제2대 이사장  
이 기 흥

### 제3대 이사장



성명	김동원(金東源)
생년월일	1939. 02. 07
임기	1999. 07. 31. ~ 2000. 10. 28

P. 227m. 99. 7. 31. 16

**5·18기념재단 이사장 피선 김 동 원교수**



“이사회와 합의추대를 받지는 못해 아쉽지만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돼 기쁩니다” 30일 5·18기념재단 이사장에 선임된 김동원(60)전남대학교수는 “300억원 정도의 재단기금 확충에 힘써 5월단체 회원들의 자활과 5·18정신계승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념재단 설립추진위원장을 지낸 바 있

**“재단내 분열극복 5·18과제해결 혼신”**

는 김이사장은 “재단 창설 당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살려 재단내 분열상을 극복하고 유공자관련법 제정등 5·18 미해결 과제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주년 행사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예향으로서의 광주문화와 항쟁 도시로서의 민주정신을 접목시켜 이벤트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蔡熙鍾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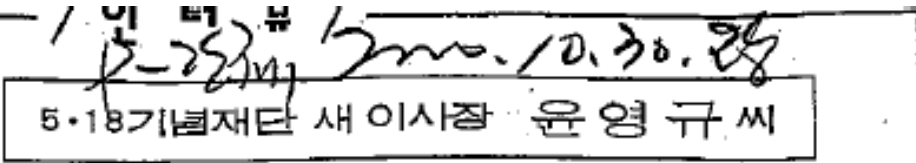
<1999. 7. 31. 광주일보 기사>



## 제4대 이사장



성명            故 윤영규(尹永奎)  
 생몰일        1936. 10. 10 ~ 2005. 03. 31  
 임기            2000. 10. 29. ~ 2001. 09. 28



“모든 일은 이사들과 상의하겠으며 이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재) 5·18기념재단 제6차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



에도 관여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며 “광주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5·18기념재단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겠다”고 자신했다.

### “빠른시일내 재단 정상화 시킬것”

장으로 선출된 윤영규(64)이사장은 “전례없이 어려운 시기에 이사장직을 맡게 돼 책임감이 무겁지만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며 “개인적으로 이사장직이 난감하고 곤욕스러운 자리지만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초대위원장과 인권센터 대표 등 20여 년동안 재야운동에 투신해 온 윤이사장은 “주로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왔지만 5·18

윤이사장은 “5·18을 마음의 고향처럼 항상 푸근하게 생각해 왔다”며 “최소한 2개월에한번씩 이사회를 개최할 생각이며 잘못된 점이 지적되면 그 즉시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윤이사장은 “공석인 3명의 이사 자리는 최대한 빨리 채우도록 하겠으며 광주인권상 시상식이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당장 사무처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鄭成根기차 sgjeung@kwangju.co.

<2000. 10. 30. 광주일보 기사>

## 제5대 이사장




성명           故 이광우(李光宇)  
 생몰일       1933. 02. 15 ~ 2010. 04. 03  
 임기           2001. 09. 29. ~ 2002. 12

### 5·18재단 이사장 이광우씨

P. 223  
이. 9. 29. 2001

5·18기념재단은 28일 재단 소회 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제5대 이사장에 이광우(68) 전남대 명예교수를 선출했다. <인터뷰 16면> 5·18단체협의회, 5·18재단후원회 등 12개 5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14명이 이날 새로운 이사로 추대됐으며 이들은 이 교수를 만장일치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는 전 5·18기념재단 정용화 사무처장을 상임이사로, 광주대 은우근 교수를



**이광우이사장**

기획위원장으로 선홍규 회계사와 이성길 전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을 감사로 각각 선출했다. 기념재단은 이사장 취임식을 10월 중순께 가질 예정이다.

/ 김기봉 기자

<2001. 09. 29. 광주일보 기사>

## 취 임 사

1980년 5월 이후 광주에 형언할 수 없는 역사 에너지를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성지로 불리며 광주는 우리 사회의 질곡과 그 질곡을 극복하려는 민족적 몸부림을 동시에 끌어안고 숨가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5·18문제, 또는 광주문제로 불리는 5·18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에 기초한 민주화의 실현이라는 우리 사회의 과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가를 제대로 가늠해보기도 전에 우리의 현실은 ‘광주’에 여전히 ‘역사에너지’가 내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유는 내부로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그 확인 과정에서 5·18기념재단은 분명하게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5·18기념재단의 제5대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광주와 5·18민중항쟁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다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난 21여년동안 5·18민중항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저는 1993년에 5·18문제 해결의 5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5원칙은 지금도 5·18문제 해결의 지침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5대 원칙의 해결정도를 확인하고 여전히 5·18정신계승 사업의 지침으로 유효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5·18정신의 실종과 5·18정신계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설 자리가 배제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5·18정신이 초심을 상실한 채 개인과 집단의 이해로만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역사에너지를 잃게 된 이유는 여기서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주된 원인이 우리 내부에 있다면 주저없는 자성의 계기로 삼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5·18정신의 미래는 1980년 5월 당시의 초심이 없이는, 항쟁의 주체였던 시민들의 지원과 동의 없이는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5·18기념재단의 제5대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전임 윤영규 이사장을 비롯한 역대 이사장님들과 이사들께서 추구해 온 정신과 노력을 계승하여 다음의 몇가지 기본 방향에 근거하여 노구에게 주어진 역할을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5·18정신과 도덕성의 회복입니다. 5·18민중항쟁의 주체가 관련피해자로 인정되

어 보상을 받은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아가 항쟁을 항쟁답게 주체했던 시민들의 설자리를 만들어 다시금 광주에 5·18정신을 복원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5·18문제는 더 이상 관련피해 당사자들만의 전유물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5·18정신의 미래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5·18민중항쟁과 광주는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미 80년 중반부터 '5월에서 통일로'라는 선명한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인권과 평화에 대한 광주의 역할을 확인해주는 단적인 예들입니다. 아시아 인권의 연대 중심, 민족의 화해와 평화 실현을 위한 선구적 역할을 광주가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권과 평화운동이 만나는 지점을 확대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광주의 정체성을 5·18정신의 공동체적 구현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연의 거듭이 필연으로 귀결되고, 그 귀결은 다시 역사로 생동하는 선순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의 진전 과정에서 광주가 무엇을 위해, 광주시민이 무엇을 위해 지난 21여년동안 몸부림쳐 왔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5·18관련단체가 5·18민중항쟁 정신을 자치공동체의 기본이념으로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때, 광주의 미래도 광주의 정체성도 올바르게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윤영규 전 이사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5·18기념재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는 저의 취임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보다는 5·18민중항쟁이 처해 있는 현실을 공감하고 5·18민중항쟁과 광주의 미래를 예비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시금 하나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5·18묘지에 영면해 계시는 그 분들의 뜻과 1980년 5월 17일, 빗고을 광주에 피어오른 민족, 민주화 성화의 횃불 행진이 담겨진 그 장엄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이제 5·18민중항쟁의 올바른 계승과 발전을 위해 이 노구가 마지막으로 올바르게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보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 10. 16.

5·18기념재단 제5대 이사장  
이 광 우

## 제6대 이사장



성명 강신석(姜信錫)  
 생년월일 1939. 08. 24  
 임기 2003. 01. 21. ~ 2004. 03

강신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 “5월정신 계승발전 시킬 터”

“과거 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5·18 정신계승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펼쳐 나가겠습니다”

· 20일 5·18기념재단 6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강신석(64)목사는 “5·18 재단 및 관계자들과의 토론회를 실시해 5월 정신 확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목사는 또 5·18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및 공대위 활동 등 경험을 바탕으로 “20여년이 흘렀지만 5월 정신의 전국화 및 유공자 복지 문제와 관련,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다”면서 “광주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목사는 이와함께 “동남아시아 등 국내외 인권 단체와도 지



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목사는 92년 5·18 민중항쟁 기념사업 추

진위원회 회장과 95년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의장을 맡는 등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왔다.

강목사는 지난 60년 4·19혁명에 참가했고 74년 유신헌법 반대집회를 주도했는가 하면 79년과 80년 광주YWCA기독교회 사건과 5·18민중항쟁 관련자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金芝乙기자 cck2000@kwangju.co.kr

<2003. 1. 21. 광주일보 기사>

## 제7대 이사장



성명 박석무(朴錫武)  
 생년월일 1942. 09.15  
 임기 2004. 03. 23. ~ 2006. 08

# “전국민 함께하는 재단 만들터”

P.간담. 04.3.23

### 박석무 5·18기념재단 신임 이사장

“5·18 관련 당사자만이 아니라 시·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5·18기념재단과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힘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박석무(62) 신임 (재)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인 만큼 이제는 질적·양적 변화를 이룩해야 할 시기”라면서 “재단이 안고 있는 과제중 하나인 취약한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데 온 힘을 쏟고, 특정 분야나 계층이 아닌 시·도민·전국민과 함께 하는 재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박 이사장은 “재단의 어려운 자금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연직 대봉령의 기금확충 약속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박 이사장은 특히 “내년이면 5·18 25주기로 4반세기 역사에 접어들고, 그동안 시대가 많이 바뀐 만큼 이제는 확고한 5·18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남대 5·18 연구소와의 제휴·지원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심도있는 연구와 학문적 업적속에서 5·18 정신과 정체성확보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또 “당장 눈 앞으로 다가온 24

주년 행사의 차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25주년 행사는 세계속의 5·18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5·18 관련단체들의 분열 문제 지적과 관련해서는 “관련단체들이 정돈·통합할 수 있도록 재단이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며 “보훈처의 지원과 도움도 통합속에서만 제대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5·18에 빛을 전 사람으로서 언젠가는 중요한 일을 맡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사장직 제안을 받고 할 일이 많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싶어 한달 가까이 고민하기도 했다”면서 “중요한 시기에 재단 이사장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박 이사장의 취임식은 오는 30일 오후 3시 5·18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열린다. 박 이사장은 금년말까지 기념재단 이사장직을 맡게 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정용성기자 ys.jang@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석무 신임 이사장은 “특정 분야 계층이 아닌 전 지역민과 국민을 아우르는 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04. 3. 23. 광주일보 기사>

## 취 임 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밖에는 한창 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날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너무나 즐겁습니다.

오는 8월 (재)5·18기념재단은 설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굳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중요한 변화의 시기임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름에 걸맞는 내용을 채워 한 단계 높은 질적 고양을 있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역사적 변화의 동인이 되는 훌륭한 기념사업이 진행되어 재단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5·18민중항쟁이 불순분자의 폭동에서 광주사태로, 다시 민주화운동으로 변화했던 것만큼, 불순분자 용공세력에서 민주유공자로 불리우게 된 것과 같이 5·18기념재단 또한 위대한 역사의 장을 넘겨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부족한 제가 오월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러한 까닭에 오늘이 오기까지 몇 번이나 주저하고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월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는 사업의 중심에 있는 5·18기념재단이 맞이한 역사적 순간에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980년 5월 당시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총탄에 쓰러진 비통한 현실이 전개되면서 광주는 온통 죽음의 바다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때 신군부의 야만적 폭거를 참지 못하고 항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 제가 오월과 맺은 인연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4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군부독재는 끝내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 국립5·18묘지를 찾는 이가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이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 특히 민주주의의 위기가 언급되는 이때 5·18민중항쟁이 돋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5·18이야말로 민주·인권·통일의 염원이 담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내려던 숭고한 민중항쟁이었습니다. 국민주권이 무시되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으면 당연히 5·18이 거론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5·18민중항쟁을 기념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역사적 소임을 더욱 충실히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5월 단체의 화합을 기반으로 5·18민중항쟁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광주는 지금 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문화중심 도시의 한 복판에는 5·18정신이 굳건히 자리잡도록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일에는 우리 재단이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전·현직 대통령의 기금확충 약속이 실현되어 5·18기념재단의 어려운 기금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4년 재단 설립과 동시에 시작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되기까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5·18민주유공자 5차 보상에 이르기까지 일정의 성과를 얻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초창기부터 재단을 이끌어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강신석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그동안 5·18기념재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전국 속의 5·18, 세계 속에 우뚝 선 5·18이 되는 데 재단이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월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5·18은 우리 관련자들의 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광주시민, 전남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하는 5·18이 되어 화해와 화합,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목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는 모두의 5·18이 되도록 정말로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용기와 격려를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3. 30.

5·18기념재단 제7대 이사장  
박 석 무



## 제8대 이사장



성명  
생년월일  
임기

이홍길(李洪吉)  
1942. 03. 10.  
2006. 08. 22. ~ 2008. 04

■(사)5·18 기념재단 이사장 취임 이홍길 씨

P.기념재단

# “진정한 5·18 부활은 ‘전국화’ 완성에 달려”

“일부의 5·18이 아닌 ‘모두의 5·18’을 만들겠습니다.”

13일 제8대 (사) 5·18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홍길(64)씨는 “그동안 6월 투쟁은 한국민도의 노력으로 민중항쟁 사상 부활할 수 없는 ‘가사’로 인정받았다”면서 “이제는 ‘전국화’로 발돋움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 5월 관계자들 자칭 필요

이 이사장은 “5·18 민중항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화’에는 성공했지만, ‘전국화’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5·18이 진정으로 부활하는 시기는 ‘전국화’의 과업을 완성했을 때”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5·18 민중항쟁이 ‘전국화’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정치권의 분열을 꼽았다. 일부 보수 정권이 5·18을 민주회의 원동력으로

비중 있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또 광주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5월 관계자들의 자성이 필요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성찰’은 미래를 향해 가장 확실한 힘이며, 새로운 출발의 동력입니다.”

이 이사장은 매년 6월 열리는 5·18 기념행사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연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5·18 행사를 굳이 광주광역시 관내로 일대에서만 치러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서 행사를 개최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5월 단체들이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나나는 짚었다. 이 이사장은 “민원들의 인기가 갈수록 낮아지고, 일부 초파원 사이에서 ‘그들의 조직이지 우리의 조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퍼져 있는 것 같다”면서 “조직을 화합하고 용

의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머지 않아 5·18 민중항쟁도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인간의 삶으로 따지면 한 세대를 지나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구성원들과 함께 5·18의 ‘정크화’를 위한 첫걸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한 뒤, 실천하는데 온 힘을 바쳐겠습니다.”

### 5·18단체 화합·홍화에 역점

이 이사장은 출생 출신으로 목포경·광주교·전남대 문리대 사회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60년 광주교 재학시절 ‘광주 4월 혁명’을 주도했다. 5·18 당시에는 도청 수습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삼군부에 구속되기도 했다.

/사무처기자 jam@wangju.co.kr

/사진=나눔주기자 photo@wangju.co.kr



<2006. 9. 14. 광주일보 기사>

## 취 임 사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5·18민중항쟁의 숭고한 뜻에 함께 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5·18기념재단 제8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도덕한 폭력에 맞선 80년 5월의 투쟁과 은폐·왜곡된 5월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국민적 투쟁의 결과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5·18민중항쟁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5·18민중항쟁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학살 책임자가 처벌을 받고, 항쟁정신이 역사의 재평가를 받는 등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세계는 우리의 놀라운 진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5월 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했던 산 자들의 몸부림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수많은 기록과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의 자료가 조직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진상규명과 아울러 실질적인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야겠습니다.

5·18은 몇몇 학생과 지식인들만의 싸움이 아닌 부도덕한 정권 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사랑도 남김없이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가장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저는 5·18기념재단 이사장에 선출된 뒤 여러 사람으로부터 5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다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5·18민중항쟁이 세계화는 되었지만 전국화는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5·18 당시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뜨거운 열정과 헌신, 나눔과 참여의 열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아니 5·18을 계승하겠다고 자처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의 모습에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시민들 곁으로 가야 합니다. 5·18은 5월 관계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입신과 생존의 도구도 아닙니다. 5·18은 광주시민 모두의 것이며, 나아가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5월 관계자들의 자성이 필요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찰’은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힘이며, 새로운 출발의 동력입니다.

우리는 얼마 있지 않으면 5·18민중항쟁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인간의 삶으로 따지면 한 세대를 지나 다음 세대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과 ‘혁명’들이 박제화되어 기념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80년 5월의 정신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며, 아울러 다음 세대에도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삶의 원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인권·평화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하며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 책무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성원들과 함께 5·18의 전국화·광주화를 위한 제1보가 무엇인가를 찾아 그 실천에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6. 9. 13.

5·18기념재단 제8대 이사장  
이 홍 길

## 제9대 이사장



성명	윤광장(尹光將)
생년월일	1942. 06. 15
임기	2008. 04. 16. ~ 2008. 12(보선) 2009. 05. 16. ~ 2010.12



<2008. 05. 01. 전남일보 기사>

## 취 임 사

1980년 당시에는 5·18민중항쟁의 한 가운데 서있었고, 그 이후에는 5·18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온갖 불이익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싸워오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5·18기념재단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 윤광장입니다. 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18민중항쟁은 일부 세력의 음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부인할 수 없는 역사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당시의 저항과 희생이 있었기에 민주발전이 가능했고, 나아가 5·18정신이 있기에 오늘날의 모순된 정치현실과 민주주의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자리매김에도 불구하고 5·18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포책임자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과 정보기관에서 보관 중인 5·18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발포책임자를 규명해야 하며,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암매장 의혹과 실종자 문제도 규명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5·18민주유공자들의 곤궁한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저 또한 5·18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5·18정신 계승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5월정신 계승은 자라나는 세대에 제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교육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 5·18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에게 5·18기념재단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장직은 명예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5월의 숭고한 정신을 명예롭게 펼쳐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고 이사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5·18기념재단을 세우기 위해 많은 분들이 헌신해왔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 짐을 지셨던 분들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 또한 헌신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5·18 30주년을 준비하는 데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가신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5·18기념재단, 국민 속에 살아 숨쉬는 5·18기념재단, 사랑받는 5·18기념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4. 30

5·18기념재단 제9대 이사장  
윤 광 장

## 제10대 이사장 김준태



성명 김준태(金準泰)  
생년월일 1949. 07. 10  
임기 2011. 01. 25. ~ 2013. 01. 24

# “젊은세대에 광주정신 심어줄 것”

## 5·18재단이사장 김준태씨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온 오월 광주정신을 잘 지켜나가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17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한 제10대 5·18기념재단 김준태(62) 이사장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1980년 ‘오월 광주’가 대한민국과 세계에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심었다면, 이제는 심는 것 못지않게 가꾸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5·18이 서른한 살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 위기, 상대적 빈곤의 심화, 남북관계 경색 등 당면한 과제가 많다”며 “새롭게 오월 정신을 발전시키고 계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논란, 5·18단체 통합, 5·18 왜곡·편향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오월 광주’가 이룩했던 대동단결 ‘광주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을 기본 뼈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 도청 별관에 대해서는 “도청 자체는 광주정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담은 하드웨어”라며 “별관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문광부의 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별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5월 3개 단체

갈등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를 밟는 게 원칙”이라며 “공법단체 문제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5월이 하나라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재단의 중점 사업에 대해 “5월을 체험하지 않은 세대들에게도 광주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어·중국어·일본어로도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오월 정신의 국제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재단은 오월 단체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다”라며 “시민들도 광주정신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2011. 02. 18. 광주일보 기사>

## 취 임 사

민주주의는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자연의 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내일모래이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땅속을 뛰쳐나온다는 경칩도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간들이 일귀 세워야 할 봄도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취임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5.18기념재단이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다 뜨거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여러모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94년 8월30일 설립한 5.18기념재단은 ‘조국의 민주.자주.통일을 위한 5.18민주화 운동의 위대한 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5.18 광주항쟁은 지난 31년 동안 꾸준히 이 땅의 역사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영삼 문민의 정부,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탄생시켜 국민이 목소리와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 역시 일정부분 5.18민주화운동의 빛을 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는 다들 알고 있듯이 민주주의 위기, 상대적 빈곤의 심화와 견잡을 수 없는 물가고, 남북관계 경색과 국가안보 처리능력 미숙, 미중일러 등과 의 매끄럽지 못한 외교정책 등으로 국민들 모두가 초조함과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부르짖었던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일련의 정신과 노력들이 크게 위협받거나 훼손되고 있어 우려되는 바 큼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심는 것 못지않게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1980년 오월광주가 이 땅 대한민국과 세계속에 심은 민주주의 나무, 인간존중과 자유와 평화의 의지,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정신인 공동선, 오월에서 통일로, 시민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민족사적 운명을 같이한 광주정신을 잘 지켜나가는데 힘을 합하겠습니다.

5.18기념재단 발전에 초석을 놓으신 조비오, 이기홍, 김동원, 운영규, 이광우, 강신석 박석무, 이홍길, 윤광장 역대 이사장님과 유족, 부상자, 구속자회 여러분, 광주시민들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말씀 올립니다. 광주는 ‘영원한 청춘의 도시’입니다.

2011. 2. 17

5·18기념재단 제10대 이사장  
김 준 태

## 제11대 이사장



성명  
생년월일  
임기

오재일(吳在一)  
1952. 06.11  
2013. 01. 25. ~ 현재

# “5·18 갈등 치유해 통합 힘 쏟겠다”

### 오재일 5·18 기념재단 신임 이사장

“5·18과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사장직을 ‘업’이라고 생각하며 5·18을 국민과 세계인의 품으로 되돌려주고 재단을 시민의 사랑방으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8 기념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24일 취임에 앞서 “직접 관련자들만의 5·18이 아닌, 보통 시민들의 5·18로 만들어 모두가 자랑스러워 하고, 대동정신으로 하나 되었던 광주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이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임기 동안 5·18을 둘러싼 갈등 해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기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민들이 5·18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 이사장은 그 일환으로 5·18의 역사적 인물을 널리 알리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역사는 인물에서 나온다”며 “5·18 당시 주도적인 인물들을 압축해 이들의 투쟁과 삶의 족적을 영화 또는 만화로 제작해 젊은 세대에게 교육,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3단체(구속부상자회, 유족회, 부상자회)의 공법단체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념재단 측은 현재 국가보훈처가 인정한 9개 보훈단체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5월 단체가 하나로 통합해 10번째 보훈단체로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앞서 3단체 간 합의가 우선 필요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했다.

오 이사장은 오는 5월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앞두고 지난해보다 더 이른 시기에 5·18 행사추진위원회와 행사내용 공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의 기념행사 참석 가능성에 대해 “박 당선인의 키워드가 ‘국민대화합’인데 이는 5·18 문제를 제대로 꺼안으면 되는 것이라 본다”며 “박 당선인이 광주에 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나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인 오 이사장은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임하며 1997년 부터 5·18기념재단 이사 겸 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관련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오 이사장은 오는 25일 취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13. 01. 25. 광주일보 기사>



## 취 임 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5월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18기념재단이 어느덧 성년의 나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18기념재단은 오월 문제해결과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을 묵묵히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이사장님을 포함한 재단 관계자 모든 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18기념재단이 5·18기념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살아남은 자의 역사적 책무 속에, 5·18의 당면 과제는 물론 역사 속의 자랑스러운 5·18 만들기를 위한 몇 가지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5·18기념재단은 1994년 설립 이후 5·18의 세계화와 전국화, 그리고 시민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이제 5·18은 광주를 뛰어넘어 세계 속의 5·18, 전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5·18의 세계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전국화와 시민화는 아직도 더디게 진행 되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재단은 지역사회를 포함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의 활발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5·18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기회도 더욱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통과 신뢰를 통해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오월은 함께 연대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때로는 분열하고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로부터 외면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5·18기념재단에 바라는 시민적 기대와 요구를 제대로 실현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열린 마음으로 시민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또한 재단의 인사·재정·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5·18기념재단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 ‘시민 사랑방’으로 만들겠습니다. 특수 시민만의 5·18이 아닌, 보통 시민들의 5·18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80년 5월 우리들 모두 하나 되었던 광주 정신의 구현이라고 봅니다. 이제 5·18은 33주년이라는 세월을 맞아, 역사 속의 5·18로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5·18이 미래 세대

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미래 청소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길잡이 교육과 홍보를 통한 5·18의 문화적 재창조 운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5·18기념재단만의 노력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격려, 그리고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5·18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5·18은 이제 세계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의 역사적 진실과 가치를 왜곡하는 행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5·18 정신을 확장시키고 공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문화창조, 교류연대, 조사연구라는 4대 과제의 실천을 통한 올바른 역사 자리 매김에 5·18기념재단이 앞장설 것입니다.

제가 30년 이상 몸담아 왔던 대학과 학계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해외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5·18 기념재단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2013. 1. 25

5·18기념재단 제11대 이사장  
오 재 일

<부록 5>

## 5·18기념재단 역대 정관

1) 초대정관

정 관(1994. 8. 30)

제정 1994. 8. 30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조국의 민주·자주·통일을 위한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5.18기념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사무소는 광주직할시 동구 대인동 320-12번지에 둔다.

**제4조(목적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한다.

1.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2. 5.18민주화운동정신의 정립과 계승발전을 위한 학술·연구·문화사업
3.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장학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법인 공여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2장 재산과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추진위원(발기인 포함)들이 설립 당시에 출연한 재산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단체,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받은 토지, 건물 및 출연금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5.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5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6조의 규정에 명시된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및 임원
  2. 이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2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이 포함된다.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기간으로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단, 설립당시의 임원은 발기인대회(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 정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를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와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와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금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과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와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 ③ 이사회와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와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임원이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관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가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5장 사무처

**제32조(사무처 구성)** ① 이 법인의 운영 및 일반 사무,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 ② 사무처는 상임이사가 주관하고 이를 보좌하는 사무처장 1인과 10명 내외의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④ 사무처의 상근 직원들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가 임명한다.
- ⑤ 사무처의 상근 직원 1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 ⑥ 사무처의 복무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36조에 의거 세칙으로 정한다.

## 제6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재단에 기증한다.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공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대한민국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사회회의 의결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3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조철현(비오)	광주시 서구 쌍촌동 305번지	94.8부터 2년
이사	김동원	광주시 북구 용봉동 성산맨션 1동 405호	94.8부터 2년
이사	김태홍	광주시 북구 운암동 미라보 APT 1차 1동 1102호	94.8부터 2년
이사	명노근	광주시 서구 농성동 642-35	94.8부터 2년
이사	윤강욱	광주시 광산구 마륙동 연화 APT 2동 201호	94.8부터 2년
이사	윤장현	광주시 동구 운림동 라인APT 101동 503호	94.8부터 2년
이사	윤영규	광주시 북구 용봉동 630 유창허니문 1408호	94.8부터 2년
이사	이기홍	광주시 서구 백운2동 231-16	94.8부터 2년
이사	정구선	광주시 북구 운암동 229 미라보 APT30동 1001호	94.8부터 2년
이사	정동년	광주시 서구 진월동 삼익 세라믹 102동 1201호	94.8부터 2년
이사	조영복	광주시 서구 양2동 97번지	94.8부터 2년
이사	위인백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896-13	94.8부터 2년
이사	고권석	광주시 동구 봉선동 금호타운 1차 1동 202호	94.8부터 2년
이사	윤광장	광주시 동구 서석동 473-20	94.8부터 2년

##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정관허가 1994년 12월 22일)
- 2.(경과조치) 이 법인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년도 말까지 한다.
- 3.(준용규정) 이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내무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2) 정관변경 세부내역

① 1996. 4. 26 정관개정본

기 준	개 정
<p><b>제3조(사무소의 소재지)</b>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직할시 동구 대인동 320-12번지에 둔다.</p> <p><b>제32조(사무처 구성)</b> ①이 법인의 운영 및 일반 사무,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p> <p>② 사무처는 상임이사가 주관하고 이를 보좌하는 사무처장 1인과 10명 내외의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p> <p>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p> <p>④ 사무처의 상근 직원들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가 임명한다.</p> <p>⑤ 사무처의 상근 직원 1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p> <p>⑥ 사무처의 복무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36조에 의거 세칙으로 정한다.</p>	<p><b>제3조(사무소의 소재지)</b>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599-112번지에 둔다.</p> <p><b>제32조(사무처 구성)</b>                      ①, ②, ③, ④ 기존과 동일                      ⑤ (삭제) 1996. 4. 26)                      ⑥ 기존과 동일</p>

② 1996. 7. 25 정관개정본

기 준	개 정
<p><b>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b>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 이사 12인                      2. 감사 2인</p> <p>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이 포함된다.</p>	<p><b>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b>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 이사 15인(개정 1996. 7. 25)                      2. 감사 2인</p> <p>② 기존과 동일</p>

③ 1998. 9. 18 정관개정본

기 준	개 정
<p><b>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b> 제16조의 규정에 명시된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회의 의결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p>	<p><b>제14조(임원의 보수)</b> 제16조에 명시된 임원중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p>

④ 2001. 7. 23 정관개정본

기 준	개 정
<p><b>제3조(사무소의 소재지)</b>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599-112번지에 둔다.</p>	<p><b>제3조(사무소의 소재지)</b>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동 1286번지 5·18 기념문화센터에 둔다.</p>
<p><b>제19조(임원의 선출방법)</b>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단, 설립당시의 임원은 발기인대회(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p> <p>②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p>	<p><b>제19조(임원의 선출방법)</b>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임원은 발기인대회(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1. 7. 23)</p> <p>②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다. (개정 2001. 7. 23)</p> <p>③ 기존과 동일</p>
<p><b>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b> ① 이사회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 정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p>	<p><b>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b> ① 이사회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함께 이사가 되는 때에는 그들은 이사 정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1. 7. 23)</p> <p>② 기존과 동일</p>
<p><b>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b>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p> <p>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를 재임하는 기간으로</p>	<p><b>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b>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01. 7. 23)</p>

<p>하고, 연임할 수 없다.</p> <p><b>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b> ①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b>제29조(이사회 소집)</b>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b>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b>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li> <li>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li> </ol> <p>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p>	<p>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선에 의해 취임한 이사장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 7. 23)</p> <p><b>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b></p> <p>①,② 기존과 동일</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 7. 23)</p> <p>④ 기존과 동일</p> <p><b>제29조(이사회 소집)</b></p> <p>① 기존과 동일</p> <p>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여 또 그 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7. 23).</p> <p><b>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b></p> <p>①,② 기존과 동일</p>
--	--

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관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가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사무처 구성)** ①이 법인의 운영 및 일반 사무,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는 상임이사가 주관하고 이를 보좌하는 사무처장 1인과 10명 내외의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 동의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 사무처의 상근 직원들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가 임명한다.

⑤ 사무처의 상근 직원 1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⑥ 사무처의 복무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36조에 의거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정관허가 1994년 12월 22일)

2.(경과조치) 이 법인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년도 말까지 한다.

3.(준용규정) 이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내무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 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이사회 운영은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사무처 구성)**

①,②,③ 기존과 동일

④ 사무처의 상근 직원들은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7. 23). (개정 2001.

⑤, ⑥ 기존과 동일

**부 칙**

1, 2, 기존과 동일

3.(준용규정) 이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소관 비영리 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

⑤ 2002. 6. 24일 정관개정본

기      준	개      정
<p><b>제4조(목적사업)</b>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li> <li>2. 5.18민주화운동정신의 정립과 계승발전을 위한 학술연구문화사업</li> <li>3.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장학사업</li> </ol>	<p><b>제4조(목적사업)</b>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 3 기존과 동일</li> <li>4. 5.18민주화운동정신을 정립, 계승하기 위한 진상규명사업(신설 2002. 6. 24)</li> <li>5.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홍보, 출판사업(신설 2002. 6. 24)</li> <li>6.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자선사업(신설 2002. 6. 24)</li> <li>7.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시상사업(신설 2002. 6. 24)</li> <li>8.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내외 민주 인권단체와 연대사업(신설 2002. 6. 24)</li> <li>9.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신설 2002. 6. 24)</li> </ol>
<p><b>제32조(사무처 구성)</b> ①이 법인의 운영 및 일반사무,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사무처는 상임이사가 주관하고 이를 보좌하는 사무처장 1인과 10명 내외의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li> <li>③ 사무처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li> <li>④ 사무처의 상근 직원들은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1. 7. 23)</li> <li>⑤ 사무처의 상근 직원 1인에게는 보수를 지급</li> </ol>	<p><b>제32조(사무처 구성)</b></p> <p>①, ②, ③ 기존과 동일</p> <p>④ 사무처의 상근 직원(사무처장 제외)들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p>

<p>한다.</p> <p>⑥ 사무처의 복무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36조에 의거 세칙으로 정한다.</p>	<p>상임이사의 추천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 7. 23), (개정 2002. 6. 24)</p> <p>⑤, ⑥ 기존과 동일</p> <p>⑦ 신규 채용 사무처 상근 직원(사무처장 제외)은 업무 능력 검증을 위하여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신설 2002. 6. 24).</p> <p><b>제39조(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b> 본 재단의 사업수행과 이사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2. 6. 24).</p> <p><b>제40조(고문)</b> 본 재단의 사업수행과 이사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임 이사장으로 구성된 고문단을 둘 수 있다(신설 2002. 6. 24)</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정관은 2002. 06. 24일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2002. 6. 24).</p>
--	---

⑥ 2003. 12. 15 정관개정본

기 준	개 정
<p><b>제32조(사무처 구성)</b> ① 이 법인의 운영 및 일반 사무,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p> <p>② 사무처는 상임이사가 주관하고 이를 보좌하는 사무처장 1인과 10명 내외의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p> <p>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p> <p>④ 사무처의 상근 직원(사무처장 제외)들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2. 6. 24)</p>	<p><b>제32조(사무처 구성)</b></p> <p>①②③④⑤⑥ 기존과 동일</p>



- ⑤ 사무처의 상근 직원 1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 ⑥ 사무처의 복무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36조에 의거 세칙으로 정한다.
- ⑦ 신규 채용 사무처 상근 직원(사무처장 제외)은 업무 능력 검증을 위하여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신설 2002. 6. 24)

**제3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조철현	광주시 서구 쌍촌동 305번지	94.8부터 2년
이 사	김동원	광주시 북구 용봉동 상산맨션 1동 405호	94.8부터 2년
이 사	김태홍	광주시 북구 운암동 미라보 APT 1차 1동 1102호	94.8부터 2년
이 사	명노근	광주시 서구 농성동 642-35	94.8부터 2년
이 사	윤강욱	광주시 광산구 마름동 연화 APT 2동 201호	94.8부터 2년
이 사	윤정현	광주시 동구 운림동 라인APT 101동 503호	94.8부터 2년
이 사	윤영규	광주시 북구 용봉동 630 유랑하나문 1408호	94.8부터 2년
이 사	이기홍	광주시 서구 백암동 231-16	94.8부터 2년
이 사	장구선	광주시 북구 운암동 229 미라보APT30동 1001호	94.8부터 2년
이 사	정동년	광주시 서구 진월동 삼익 세라믹 102동 1201호	94.8부터 2년
이 사	조영복	광주시 서구 양2동 97번지	94.8부터 2년
이 사	위인백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896-13	94.8부터 2년
이 사	고연석	광주시 동구 봉선동 금호타운 1차 1동 202호	94.8부터 2년
이 사	윤광장	광주시 동구 서석동 473-20	94.8부터 2년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본 재단의 사업수행과 이사회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2. 6. 24).

**제40조(고문)** 본 재단의 사업수행과 이사회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임 이사장으로 구성된 고문단을 둘 수 있다(신설 2002. 6. 24)

- ⑦ 신규 채용 사무처 상근 직원(사무처장 제외)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친다. (신설 2002. 6. 24), (개정 2003. 12. 15)

**제3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제38조 전체 삭제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우리 재단의 사업수행과 이사회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3. 12 15).

**제40조(고문)** 우리 재단의 사업수행과 이사회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임 이사장 및 원로와 재단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구성된 고문단을 둘 수 있다. (신설 2002. 6. 24), (개정 2003. 12. 15)

⑦ 2005. 12. 26 정관개정본

기 존	개 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재단에 기증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토록 한다. (개정 2005. 12. 26)

⑧ 2008. 6. 26 정관개정본

기 존	개 정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개정 1996. 7. 25) ----- 이하 생략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이내(개정 1996. 7. 25), (개정 2008. 6. 26)

⑨ 2008. 10. 21 정관개정본

기 존	개 정
제4조(목적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한다. (개정 2002. 6. 24) 1.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2. 5·18민주화운동정신의 정립과 계승발전을 위한 학술연구문화사업 3.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장학사업 4. 5·18민주화운동정신을 정립, 계승하기 위한 진상규명사업(신설 2002. 6. 24) 5.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홍보, 출판사업(신설 2002. 6. 24)	제4조(목적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한다.(개정 2002. 6. 24) (개정 2008. 10. 21) 1. 기존과 동일 2. 5·18민주화운동정신의 정립과 계승발전을 위한 학술연구교육문화사업(개정2008. 10. 21) 3, 4, 5, 6, 7, 8, 9 기존과 동일

<p>6.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자선 사업(신설 2002. 6. 24)</p> <p>7.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시상 사업(신설 2002. 6. 24)</p> <p>8.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내 외 민주 인권단체와 연대사업(신설 2002. 6. 24)</p> <p>9.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신설 2002. 6. 24)</p> <p><b>제18조(임원의 임기)</b> ①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b>제19조(임원의 선출방법)</b>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단, 설립당시의 임원은 발기인대회(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개정 2001. 7. 23).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p> <p><b>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b>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함께 이사가 되는 때에는 그들은 이사 정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1. 7. 23).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p> <p><b>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b> ① 이</p>	<p><b>제18조(임원의 임기)</b> ①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1) ②삭제 (2008. 10. 21)</p> <p><b>제19조(임원의 선출방법)</b> ①, ②, ③ 생략</p> <p>④ 이사 및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은 당해 임원의 임기 개시 바로 직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신설 2008. 10. 21)</p> <p><b>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b> ①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함께 이사가 되는 때에는 그들은 재적이사의 1/5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② 기존과 동일</p> <p><b>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b> ①이사</p>
--	--

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개정 2001. 7. 23).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선에 의해 취임한 이사장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1. 7. 23).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 7. 2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6조(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③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9조(이사회 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최초 투표 시 3인 이상의 추천자 중 과반수 득표를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만으로 결선투표하여 선출한다. (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③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8. 10. 21)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10. 21)

②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선출할 이사회소집권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개정 2008. 10. 21)

③, ④ 기존과 동일

**제26조(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개정 2008. 10. 21)

②이사회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10. 21)

③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0. 21)

**제29조(이사회 의 소집)** ① 기존과 동일

<p>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여 또 그 임원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7. 23).</p>	<p>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p>
<p><b>제32조(사무처 구성)</b> ①이 법인의 운영 및 일반 사무,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p> <p>② 사무처는 상임이사가 주관하고 이를 보좌하는 사무처장 1인과 10명 내외의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p> <p>③ 사무처장은 이사회를 동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p> <p>④ 사무처의 상근 직원(사무처장 제외)들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2. 6. 24)</p> <p>⑤ 사무처의 상근 직원 1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p> <p>⑥ 사무처의 복무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36조에 의거 세칙으로 정한다.</p> <p>⑦ 신규 채용 사무처 상근 직원(사무처장 제외)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친다(개정 2003. 12. 15)</p>	<p><b>제32조(사무처 구성)</b> ① 기존과 동일</p> <p>②사무처는 상임이사가 주관하고 이를 보좌하는 사무처장 1인 외에 필요한 상근 직원과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10. 21)</p> <p>③,④,⑤,⑥,⑦ 기존과 동일</p>

<p><b>제33조(정관의 변경)</b>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b>제34조(해산)</b>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32조의 2(부설연구소)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 산하에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부설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8. 10. 21)</p> <p><b>제33조(정관의 변경)</b>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0. 21)</p> <p><b>제34조(해산)</b>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0. 21)</p>
---	--

⑩ 2011. 11. 6 정관개정본

기 준	신 설
<p><b>제7조(재산의 관리)</b> ① 제5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p> <p>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b>제7조(재산의 관리)</b> ①,②,③,④ 기존과 동일</p>

	<p>⑤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신설 2011. 11. 6)</p> <p>부칙(2011. 11. 6. 자치행정과-4945)</p> <p>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1. 11. 6)</p>
--	---

⑩ 2014. 7. 28 정관계정본

현 행	개정	사유
<p><b>정관</b></p> <p><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법인은 조국의 민주·자유·통일을 위한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정관</b></p> <p><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법인은 조국의 민주·자유·통일을 위한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u>민주주의와 국가의 발전에</u>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의 설립목적 관련 문구의 정비</li> </ul>
<p><b>제3조(사무소의 소재지)</b>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동 1268번지 5·18기념문화센터에 둔다.(개정 96. 4. 26), (개정 2001. 7. 23)</p>	<p><b>제3조(사무소의 소재지)</b>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u>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u>에 둔다.(개정 96. 4. 26), (개정 2001. 7. 23) (개정 2014. 7.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명 주소로 변경</li> </ul>
<p><b>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b>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p>	<p><b>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b>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u>과실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u>으로 조달한다.(개정 2014. 7.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유지 및 필요경비의 조달 방법을 자세히 명시하여 표기함</li> </ul>
<p><b>제18조(임원의 임기)</b> ①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0. 21)</p>	<p><b>제18조(임원의 임기)</b> ①이사, 감사의 임기는 <u>3년</u>으로 하고, <u>1회</u>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u>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 6년을 초과할 수 없다.</u>(개정 2008.10. 21) (개정 2014. 7.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임원의 2년 임기는 연간계획수립 및 평가체계 확립의 어려움이 있어 기존 임기를 1년 연장하여 총3년으로 임기를 조정, 임원의 책임운영체제를 강화함</li> </ul>
<p><b>제19조(임원의 선출방법)</b>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p>	<p><b>제19조(임원의 선출방법)</b>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u>보임</u>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구수정</li> </ul>
	<p><b>제19조의 2(임원의 자격)</b> 이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의 자격에 대한 조</li> </ul>

	의 임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정관부속서임원선거임기규약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14. 7. 28)	항이 없어 임원의 자격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
	<b>제19조의 3(임원의 신분보장)</b>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임기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7. 28) 1. 법령·정관규정 또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인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 때 3. 신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결의한 때	◦ 임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조항이 없어 임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
	<b>제19조의 4(임원의 해임)</b> 이사회는 임원이 법령·정관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8)	◦ 임원의 해임에 관한 조항이 없어 임원의 해임 절차 및 관련내용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
<b>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b> ①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최초 투표 시 3인 이상의 추천자 중 과반수 득표를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만으로 결선투표하여 선출한다. (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③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8. 10. 21)	<b>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b> ①이사장은 <u>이사회에 출석한 이사가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3회에 걸쳐 투표한 결과 재적이사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한다.</u> (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개정 2014. 7. 28) ②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개정 2014. 7. 28) ③각 이사가 추천하는 후보 1인은 이사 또는 외부 인사를 포함하되, 추천받은 후보자는 <u>정관부속서임원선거임기규약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u> (신설 2008. 10. 21) (개정 2014. 7. 28)	◦ 이사장의 선출과 관련, 경쟁과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선출방법으로 개정함
<b>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b>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b>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b>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여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4. 7. 28)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u>의결</u> 하며	◦ 이사장의 지휘감독권에 대한 자구수정 ◦ 자구수정



<p>받는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p>	<p>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개정 2014. 7. 28)</p>	
<p><b>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b>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선출할 이사회소집권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개정 2008. 10. 21)</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b>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b>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선출할 이사회소집권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단, 상임이사가 이사장과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를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개정 2008. 10. 21) (개정 2014. 7. 28)</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4. 7.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장, 상임이사 등 시 유고 또는 궐위 시 이사회 소집권자 조항을 추가하여 명시함</li> <li>◦ 이사장 유고 및 궐위 시 이사장의 선출 절차를 명시함</li> </ul>
<p><b>제4장 이사회</b>  <b>제25조(이사회 의 기능)</b>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금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li> <li>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li> <li>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li> <li>5. 사업에 관한 사항</li> <li>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li> <li>7. 기타 이 법인의 운영 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li> </ol>	<p><b>제25조(이사회)</b> ①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신설 2014. 7. 28)</p> <p>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신설 2014. 7. 28)</p> <p><b>제25조의 2(이사회 의 기능)</b>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개정 2014. 7.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li> <li>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li> <li>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li> <li>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li> <li>5.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li>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li> <li>7. 기타 이 법인의 운영 상 중요한 사항으로써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존치에 대한 조항이 없어 이사회 존치규정 신설하여 정비함</li> <li>◦ 재단법인 이사회 의 기능에 대한 조항 중 재산관리와 사업계획 및 예결산 사항을 서로 분리하여 정비함</li> </ul>
<p><b>제26조(의결 정족수)</b> ②이사회 의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10. 21)</p>	<p><b>제26조(의결 정족수)</b> ②이사회 의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10. 21) (개정 2014. 7.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정족수에 대한 정관상 예외적 규정을 제외한 일반적 기준에 대해 명시함</li> </ul>
<p><b>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b>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li> </ol>	<p><b>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b>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소집기일을 단축하여 이사회업무의 신속함을 기함</li> </ul>

<p>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p>	<p>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p>	
<p><b>제5장 사무처</b>  <b>제32조(사무처 구성)</b> ①이 법인의 운영 및 일반 서무,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④사무처의 상근 직원(사무처장 제외)들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2. 6. 24)  ⑥사무처의 복무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36조에 의거 세칙으로 정한다.</p>	<p><b>제32조(사무처 구성)</b> ①이 법인의 운영 및 일반 서무,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u>둔다</u>.  (개정 2014. 7. 28)  ④사무처의 상근 직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6. 24) (개정 2014. 7. 28)  ⑥사무처의 복무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36조에 의거 <u>규정 등으로 정한다</u>.(개정 2014. 7.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처 존치근거가 불명확하여 강행 규정화하여 구체화 함</li> <li>◦ 직원의 공개채용원칙을 강화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등에 관한지침(안전행정부 예규) 등 반영)</li> </ul>
<p><b>제32조의 2(부설연구소)</b>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 산하에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부설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8. 10. 21)</p>	<p><b>제32조의 2(부설연구소)</b>  (신설 2008. 10.21)(삭제 2014. 7.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조항의 이동</li> </ul>
	<p><b>제32조의 3 (직원의 신분 보장)</b>  <u>직원은 이 정관 및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u> (신설 2014. 7.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조항이 없어 직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비함</li> </ul>
<p><b>제33조(정관의 변경)</b>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10. 21)</p>	<p><b>제6장 보칙</b>  <b>제33조(정관 및 규정)</b> ①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0. 21)  ②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7.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 및 규정에 대한 조항 중 이사회 의결의 각종 규정 제개정권을 명시함</li> </ul>
<p><b>제36조(시행세칙)</b>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p>	<p><b>제36조(위임)</b>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이사회에서 규정 등으로 따로 정한다</u>. (개정 2014. 7.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운영관련 하위 규정에 대한 제정 근거조항을 정비함</li> </ul>

<p><b>제32조의 2(부설연구소)</b>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 산하에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부설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8. 10. 21)</p>	<p><b>제41조(연구소)</b>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 7.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소의 위상을 기존 사무처 산하에서 이사회 산하로 격상하는 등 연구소의 존치근거를 개정함</li> </ul>
<p><b>부 칙</b> <b>3.(준용규정)</b> 이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1. 7. 23)</p>	<p><b>부 칙</b> <b>3.(준용규정)</b> 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14. 7.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용규정의 보완</li> </ul>
	<p><b>부 칙(2014. . . -)</b> 1. (시행일) 이 정관은 <b>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b> 시행한다. 2. (임원 및 이사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 및 이사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3. (임원의 재임기간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 및 이사장의 재임기간은 최초 임기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의 정관에 의해 선임된 임원 및 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li> </ul>

### 3) 현재 정관

## 정 관

제정 1994. 8. 30  
개정 1996. 4. 26  
개정 1996. 7. 25  
개정 1998. 9. 18  
개정 2001. 7. 23  
개정 2002. 6. 24  
개정 2003. 12. 15  
개정 2005. 12. 26  
개정 2008. 6. 26  
개정 2008. 10. 21  
개정 2011. 11. 6  
개정 2014. 7. 2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조국의 민주자주통일을 위한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민주주의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8)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에 둔다.(개정 96. 4. 26), (개정 2001. 7. 23) (개정 2014. 7. 28)

제4조(목적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한다.(개정 2002. 6. 24) (개정 2008. 10. 21)

1.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2. 5·18민주화운동정신의 정립과 계승발전을 위한 학술연구교육문화사업(개정2008. 10. 21)
3.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장학사업
4. 5·18민주화운동정신을 정립, 계승하기 위한 진상규명사업(신설 2002. 6. 24)
5.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홍보, 출판사업(신설 2002. 6. 24)

6.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자선 사업(신설 2002. 6. 24)
  7.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시상사업(신설 2002. 6. 24)
  8.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국내외 민주 인권 단체와 연대사업(신설 2002. 6. 24)
  9.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신설 2002. 6. 24)
- ②제1항의 목적사업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법인 공여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으로 한다.

##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추진위원(발기인 포함)들이 설립 당시에 출연한 재산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단체,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 받은 토지, 건물 및 출연금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5.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신설 2011. 11. 6)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개정 2014. 7. 28)

제10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16조의 규정에 명시된 임원 중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 9. 18)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및 임원
  2. 이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이내 (개정 1996. 7. 25) (개정 2008. 6. 26)
  2. 감사 2인
-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이 포함된다.

제17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 6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0. 21)  
(개정 2014. 7. 28)

②삭제 (2008. 10. 21)

제19조(임원의 선출방법) 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임원은 발기인대회(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②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개정 2001. 7. 23)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임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8)

④이사 및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은 당해 임원의 임기 개시 바로 직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신설 2008. 10. 21)

제19조의 2(임원의 자격) 이 법인의 임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정관부속서

임원선거임기규약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14. 7. 28)

제19조의 3(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임기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7. 28)

1. 법령·정관·규정 또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인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 때
3. 신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결의한 때

제19조의 4(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임원이 법령·정관·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8)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함께 이사가 되는 때에는 그들은 재적이사의 1/5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가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3회에 걸쳐 투표한 결과 재적이사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개정 2014. 7. 28)

②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개정 2014. 7. 28)

③각 이사가 추천하는 후보 1인은 이사 또는 외부 인사를 포함하되, 추천받은 후보자는 정관부속서임원선거임기규약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08. 10. 21) (개정 2014. 7. 28)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여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4. 7. 28)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개정 2014. 7. 28)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10. 21)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선출할 이사회소집권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단, 상임이사가 이사장과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를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개정 2008. 10. 21)(개정 2014. 7. 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 7. 2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4. 7. 28)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에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 ①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신설 2014. 7. 28)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신설 2014. 7. 28)

제25조의 2(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개정 2014. 7. 28)

1.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 상 중요한 사항으로써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개정 2008. 10. 21)

②이사회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10. 21) (개정 2014. 7. 28)

③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0. 21)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08. 10. 21)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8)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이사회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7. 23)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결은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함이 없이 서면에 의하거나 다른 이사에 위임하여 할 수 없다.

## 제5장 사무처

제32조(사무처 구성) ①이 법인의 운영 및 일반 사무,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개정 2014. 7. 28)

②사무처는 상임이사가 주관하고 이를 보좌하는 사무처장 1인 외에 필요한 상근 직원과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10. 21)

③사무처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사무처의 상근 직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6. 24) (개정 2014. 7. 28)⑤삭제(96. 4. 26)

⑥사무처의 복무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36조에 의거 규정 등으로 정한다.(개정 2014. 7. 28)

⑦신규 채용 사무처 상근 직원(사무처장 제외)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친다.(개정 2003. 12. 15)

제32조의 2(부설연구소)  
(신설 2008. 10.21)(삭제 2014. 7. 28)

제32조의 3 (직원의 신분 보장) 직원은 이 정관 및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7. 28)

## 제6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변경) ①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0. 21)

②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7. 28)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0. 21)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 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토록 한다.(개정 2005. 12. 26)

제36조(위임)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 등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7. 28)

제37조(공고사항 및 공고)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대한민국에 서 발간하는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의결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38조(삭제 2003. 12. 15)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우리 재단의 사업수행과 이사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사회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 6. 24)

제40조(고문) 우리 재단의 사업수행과 이사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임 이사장 및 원로 와 재단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구성된 고문단을 둘 수 있다.(신설 2002. 6. 24)(개정 2003.

12. 15)

제41조(연구소)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4. 7. 28)

###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정관허가 1994년 12월 24일)
- 2.(경과조치) 이 법인의 설립 년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년도 말까지 한다.
- 3.(준용규정) 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01. 7. 23) (개정 2014. 7. 28)

### 부 칙

1. 부 칙(2014. . . -)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임원 및 이사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 및 이사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3. (임원의 재임기간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 및 이사장의 재임기간은 최초 임기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 부 칙(2011. 11. 6. 자치행정과-4945)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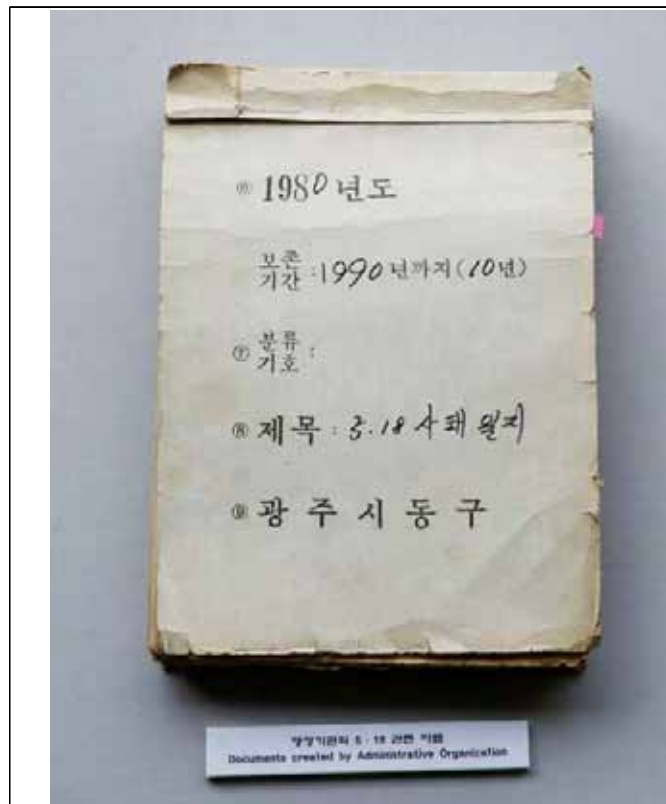
<부록 6>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5·18기록물 설명

### (1) 국가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본 자료는 5·18민주화운동이 진행되던 1980년 5월 18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들이다. 5·18민주화운동이 발발하자, 중앙정부의 각 기관에서는 계엄포고령의 시달과 함께 계엄업무에 협조하라는 지시, 비상계엄 및 소요사태에 대한 지시에 관한 공문서를 생산하여 지방정부에 시달했다. 전남도청, 광주시청 등 지방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는 5·18사태일지, 피해상황, 수습대책, 복구기준, 시체 매장 계획, 사망자 인적사항 조사보고, 매장자 명단 등이 있다.

경찰은 시민과 학생들 수 백 명을 포고령 위반죄로 구속하여 기소한 1980년 포고령 위반 처리지침 및 지시, 포고령 위반 무혐의 처리 수사기록, 포고령 위반사범 접수 및 조사현황 등을 생산하였다. 이 자료들은 국가기록원에 원형으로 보관되어 있다.



## (2) 군사법기관의 재판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1980년 5월 한국은 비상계엄령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자는 군사재판을 받았다. 5·18과 관련해 구속된 인사들 수 백 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다. 이들은 군 검찰로부터 사형 등의 구형을 받았고, 군사재판부로부터 무기징역 등을 선고 받은 후 교도소에 이감되었다. 상당수의 일반시민들은 무혐의 훈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군검찰부 수사기록,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 기소중지자 기록, 군사재판자료 등이 있다.

또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21일 "광주 민중 항쟁은 빨갱이 김대중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광주지역 불순분자들이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선동하여 일으킨 내란 폭동이며 김대중으로부터 거사자금을 받은 정동년이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켜 학원소요 사태를 민중봉기로 유도 발전시켰다"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발표했다. 김대중은 5·18민주화운동의 배후조종자로 신군부의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1980년 9월 17일 내란음모, 국가전복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1981년 1월 29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김대중 사형 중단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신군부 세력은 1982년 석방하여 미국으로 강제 추방했다. 1995년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고, 김대중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03년에 재심을 청구해 2004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대중 내란음모 재판-사진>

判 決 文

—被告人 金大中 等 24名—

內 亂 陰 謀 等 事 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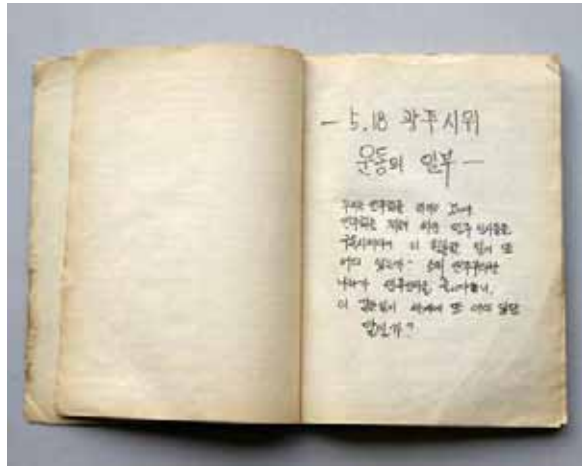
陸本戒嚴普通軍法會議

- 9 -

### (3)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일기장

5·18당시 학생·시민들은 절박한 상황을 시민들과 타 지역에 알리기 위해 투사회보 등을 제작해 배포하였다. 이 문서는 신군부의 불법성과 야만성을 폭로한 문서들이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급박하게 만들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이 불온시 되고 광주시민이 폭도로 폄하되는 상황에서 이 문서를 소지하고 보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했다. 그렇지만 용기 있는 시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해왔기 때문에 오늘에 전하고 있지만, 보존 상태가 좋지 않다. 이것들은 5·18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영구보존 되어야만 한다. 성명서, 선언문, 호소문, 총궐기문, 투사회보, 민주시민회보 등이다.

<시민생산 성명서. 일기장-사진>



(4) 사진 자료

대부분의 당시 사진은 신문사 사진기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촬영되었다. <연합통신>, <동아일보>, <전남일보> 사진기자들은 현장을 생생하게 찍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한 순간을 감내했다. 특히 5·18 당시 사망한 사람들의 처참한 시신을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전국의 시민들이 진상규명 운동을 벌이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보다 현장



의 상황을 곧바로 전달하며 영향력이 더 컸던 것은 영상물이었다. 1980년 당시 독일 NDR특파원 힌츠 패터 일행은 5·18의 처참한 실상을 촬영하였고, 이 필름이 독일과 일본에서 방송되면서 5·18민주화운동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이 필름이 국내에 다시 유입되어 군사정부의 감시를 피해 일반에게 비밀리에 방영되기 시작하였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전국에 알려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 (5)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등

시민들은 당시의 상황을 일지형식 또는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특히 신문기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현장에서 기자수첩에 기록하기도 했다. 또 증언기록으로는 5·18민주화운동을 겪은 후 생존해 있는 인사들의 체험을 문자와 음성, 영상으로 채록한 것이 있다. 5·18에 직접 가담한 인사들, 관찰자들, 유족들 1,500여명의 증언이 수집되어 있다. 그러나 항쟁으로 직접적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5,0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증언 채록은 계속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이 노환, 후유증 등 각종 질병으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어, 이들의 기억을 보존시킬 방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의 증언은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인 증언(헨리 스코트, 필립폰스, 마크 피터슨, 아놀드 피터슨), 미 정부 관계자 증언(윌리엄 글라이스틴, 제임스 릴리, 도널드 그레그 대사,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 계엄군 관계자 증언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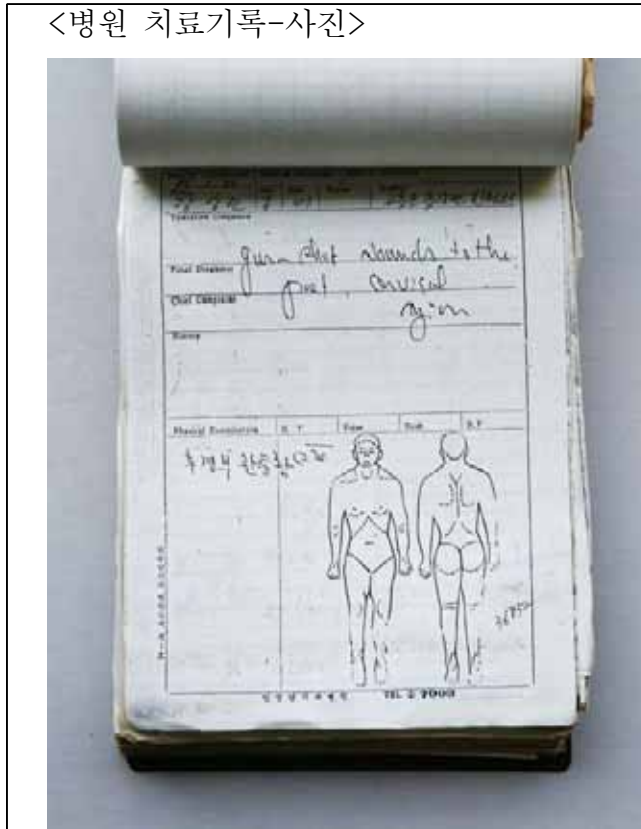
<기록과 증언-사진>



(6)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

이 자료는 계엄군과 경찰의 가혹행위, 고문 등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부상을 입은 시민과 학생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물이다. 진료기록부, 병상기록부 등이 주류를 이룬다. 광주 지역내 전남대학병원, 조선대학병원, 기독병원, 적십자병원 등 5·18부상자들이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국군통합병원에서는 상무대에서 모진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다가 부상당한 사람들이 주로 치료를 받았다. 병원의 진료기록과 치료일지가 광주시예 기증되어 광주시청 자료실에서 보관중이다.

<병원 치료기록-사진>



(7)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회의록

1988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5·18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국회청문회 자료들은 국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청문회의 전 과정이 TV 공중파를 통해 중계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전 과정을 가감 없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방송 테이프의 원본이 방송국에 보관되어 있으며, 녹화된 필름은 광주시청 5·18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다.

## <국회청문회 기록-사진>

(第142回-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 第1次) 1

第142回國會 5·18光州民主化運動 會議錄 第1號 真相調查特別委員會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時 1988年7月8日(金)	
場所 國防委員會	
議事日程 1. 委員長選任의件 2. 幹事選任의件	
審査인案件 1. 委員長選任의件.....1面 2. 委員長(文東煥)人事.....2面 3. 幹事選任의件.....3面 4. 幹事(李敏堂·李海瓊·吳景義·金仁坤)人事.....3面	
報告 (9時18分)	
○立法調査官 鄭仁學 立法調査官 鄭仁學입니다.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月27日 第142回 國會 臨時會 第9次 本會議에서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를 構成하기로 決議함에 따라 7月6日 議長으로부터 國會法 第45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當 特別委員會 委員 28人이 選任되어 오늘 첫 會議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出席하신 委員은 議事定足數에 달하므로 國會法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委員長이 選任될 때까지 議長委員이신 文東煥 委員님께서 會議을 主事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文東煥 議事日程 第1項은 委員長選任의件입니다. 委員長選任의件을 上程합니다. 지금 上程한 當 特別委員會의 委員長 選任은 國會法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當 委員會에서 互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委員會에서 互選할  경우에는 口頭呼應에 依해서 委員長을 選任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聯植委員 辛聯植委員입니다. 委員長 選任은 口頭呼應으로 選任할  것을 正武으로 勸諭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文東煥 지금 辛聯植委員으로부터 口頭呼應에 依해서 委員長을 選任하시라는 勸諭가 있었습니다. 이 勸諭에 再議이 있으십니까? (「再議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勸諭는 成立되었습니다.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口頭呼應에 依해서 委員長을 選任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決을 宣稱합니다. 방금 委員長 選任은 口頭呼應에 依해서 選任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제 委員님께서 委員長으로 選任하실 委員會를 推薦해 주시기 바랍니다.
1. 委員長選任의件 (9時21分)	

- 13 -

### (8)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

1990년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피해자 보상법”이 제정되자 국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였다. 보상의 대상은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총 5,100여명의 피해자가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보상심의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의 양은 총 695,000 쪽이 넘으며 3,880권으로 묶여져 있다. 이 자료는 원형으로 광주광역시 청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다.

< 피해자 보상기록-사진 >

(별지 제1호 서식)

### 보 상 결 정 서

장수번호	보상회	보상	사	일	제	호	조
관 련 과	성명 (한자)	김 ■ ■ ■ (金 ■ ■ ■)	주민등록번호	56-5412-1990-996			
	당 시 주 소	광주직할시 서구 역은동					
신 청 인 (2인이상은 별지 제1호 과식(리)사 출)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역은동					
주 문	신원(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유 족 별 지 급 액	재산 상속인	김 ■ ■ ■	김 ■ ■ ■				
	금 액 (출)	■ ■ ■ ■ ■ ■ ■ ■	■ ■ ■ ■ ■ ■ ■ ■				
	재산 상속인						
	금 액 (출)						

보상에 내역 및 결정이유는 뒷면에 기재

199 1990.12.04 일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이교계	위원 안준	위원 오병준 (인)
위원 최한기	위원 유순석 (인)	위원 김성주
위원 강신영	위원 김우원	위원 박신홍
위원 박은중 (인)	위원 추계인	위원 윤종민
위원 이강재	위원 정규호	위원 장기현

21232-00611일  
제 3 호 3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복합)70g/m<sup>2</sup>)

150-1

(9)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미국 정부는 동아시아의 한국에서 진행되는 5·18민주화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미국무부와 주한미대사관 사이에 실시간으로 주고 받은 전신 자료와 국방부, CIA에서 생산한 자료가 있으며, 현재는 비밀 해제된 문서들이다.

